

2015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15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Contents

PART 0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 누리과정 정책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3
- 누리과정 교사연수 실태 및 요구 23
- 누리과정 관련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47
- 유아 관찰을 통한 3~5세 누리과정 효과 분석 및 제언 71
-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현황과 강화 방안 93

PART 0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과 증진 방안 115
-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실태 및 개선방안 139

PART 03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161
-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183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및 인력 현황과 개선 방안 207
-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231
-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 249

PART 04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정책 방안 271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299
- 육아지원 센터 이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 325
-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형평성 제고 방안 .. 347

PART 05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지원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통합 생산방안 373
-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방안 397
-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421

PART 01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 누리과정 정책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 이윤진
- 누리과정 교사연수 실태 및 요구
| 양미선
- 누리과정 관련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 양미선
- 유아 관찰을 통한 3~5세 누리과정 효과 분석 및 제언
| 이정림
-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현황과 강화 방안
| 김정숙·장혜진

누리과정 정책 모니터링에 따른 개선방안

이윤진

1. 들어가며
2. 유아대상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
3. 누리과정 지원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현황
4. 누리과정 지원 유아의 사교육 이용 현황
5.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요약

- 누리과정 정책으로 공통과정, 지원금(월 22만원), 일일 이용 시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사성이 커짐. 그러나 비용 면에서는 격차가 큼.
- 특히, 설립주체별 비용 격차가 큼. 사립유치원 비용이 월 10만8천원 가량으로 가장 비쌌고, 국공립유치원의 월 기본비용은 약 1만9천원으로 사립유치원 비용의 1/10에 그쳐, 유치원 간의 비용 격차가 큼.
- 기본비용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3천원 가량 상승함. 사교육에 해당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은 동 기간에 7천원 가량 상승했으며, 이용 개수도 0.37개 증가함.
-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자녀 사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교육 개수도 2013년 대비 0.6개 증가함.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상승폭이 가장 큼.
- 기관종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누리과정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증액 시, 증액비용(8만원)만큼은 가구소득과 기관종류를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제안함.
- 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 후 교육비에 대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식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이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을 종일제로 다니고 있는 유아라면 누구나에게 지급하고 있는 방과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 가구로 제한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유치원 간의 기본비용, 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격차가 컸으므로 어린이집과 같이 '유아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상한선을 책정할 것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누리과정 지원 관련 동의어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일된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함.

* 본 고는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의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보완한 것임.



1. 들어가며

-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으로 2011년 「5세 누리과정」 제정과 2012년 시행에 이어, 2012년에는 만 3~4세 유아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 2013년에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 및 시행하는 등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누리과정 정책을 추진함.
- 정부가 누리과정의 지원 단가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014년 누리과정의 총예산은 3조 6544억원이 필요한데 2014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3조 3752억원만이 편성되면서 2014년에 24만원 지원 계획을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월 22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비용으로 동결함.
 - 정부는 2012년 20만원(만 5세만),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점차 증액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 5. 2.).
- 2014년 10월에 발표한 2015년도 예산 편성에서 정부는 누리과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책정하지 않아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시도 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은 하지 못한다고 발표하면서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대립함.¹⁾
 -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관계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현황을 조사하여 추가 지불 비용 정도, 사교육 증가 여부 등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누리과정 정책의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1)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을 발표할 때 2012년부터 교부금이 매년 3조 원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정했으며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기로 함. 그러나 매년 교부금이 3조 원가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빚나가면서 2015년도 예상 교부금과 실제 교부금의 차이가 10조원에 이르면서 중앙정부가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입장임.

2. 유아대상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

가. 누리과정 지원금

- 정부는 유아학비·보육료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2년에 만 5세 유아만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를 2013년에는 만 3~5세까지 확대하여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함(보건복지부, 2014: 291).
 - 누리과정 월 22만원(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을 두고 교육부와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라고 칭하며,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은 ‘보육료’라는 용어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통칭해서 사용함.
- 만 3~5세 유아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매월 유아 1명 당 월 22만원(국공립유치원 6만원)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지원받음. 해당 유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비용이지만, 아이 즐거운 카드 또는 아이사랑카드 인증을 통하여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
 - 기관은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부모로부터 걷을 수 있음.

〈표 1〉 누리과정 지원비(2014년)

기관종류	유치원	어린이집
사용 용어	- 유아 학비	- 보육비
지원금	-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사립 월 22만원, 국공립 월 6만원	- 누리과정 유아 1명당 월 22만원
지급 방식	- 부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아이 즐거운 카드 인증을 통하여 정부에서 기관으로 지급 - 추가 수업료 발생 시 부모 부담	

자료: 권미경(2014). 3~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p.9.

나. 방과 후 과정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인한 부모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과도한 특성화활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반감되는 것을 막고,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르는 유아들의 편안한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부는 방과 후 과정 교육비를 지원함(교육부, 2014: 1).



- 지원 대상자는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교육을 신청하고 1일 기본교육과정을 포함해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유아임.
 - 방과 후 과정 교육비는 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원의 비용이 지원되며, 전국의 모든 시·도가 동일한 비용을 지급함.
 - 이 지원비에는 특성화 교육, 방과 후 현장학습 등 기본 교육과정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비와 인건비가 포함됨(김은설·최윤경·조아라, 2013: 27).
- 종일제 운영을 전제로 하는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지원 유아 수 만큼 지원하며 유아 1인당 7만원임.

〈표 2〉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금액(2014년)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공립	사립	
만 3~5세	월 5만원	월 7만원	유아 1인당 7만원 ¹⁾
비고	누리과정 지원대상 중 '유아교육법' 제2조 누리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이용자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참여유아) 에게 지원		어린이집은 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하므로 누리과정 유아 수만큼 지원

주: 1) 유아 1인당 지원 할당 금액=(시도별 자격아동 수 × 7만원)-시도별 처우개선비/자격아동 수, 어린이집별 누리과정 자격아동 수에 따라 각 시·군·구에서 유아 1인당 산정한 금액을 지급함.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36.

3. 누리과정 지원 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현황

가. 시간

1) 등하원 시간

- 9시 이전에 등원하고 16~17시에 하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9시 이전에 등원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임. 하원시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16시~17시와 17시~18시가 주를 이루나, 어린이집 하원시간은 18시 이후도 20.2%를 차지함.
- 취업모 자녀가 상대적으로 일찍 등원하고 늦게 하원함.

- 취업모 자녀는 9시 이전 등원이 약 60%를 차지하며, 17시~18시 이후 하원이 약 58%를 차지함. 비취업모 자녀는 9시 이후 등원이 더 많으며, 16시~17시 하원이 가장 많음.

□ 도시의 유아가 군지역 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등원하고 일찍 하원함.

〈표 3〉 등하원 시간

단위: %(명)

구분	등원시간			하원시간				계
	9시 이전	9시 이후	15시 이전	15시 ~16시	16시 ~17시	17시 ~18시	18시 이후	
전체	53.6	46.4	12.8	15.9	29.2	27.4	14.8	100.0(1,924)
이용 기관 종류								
유치원	53.3	46.7	19.5	16.4	29.1	25.9	9.1	100.0(940)
어린이집	54.0	46.0	6.4	15.3	29.2	28.9	20.2	100.0(984)
$X^2(df)$.09(1)			105.91(4)***				
모 취업여부								
취업모	59.6	40.4	8.5	10.6	22.7	32.4	25.8	100.0(868)
비취업모	48.6	51.4	16.3	20.2	34.5	23.3	5.7	100.0(1,053)
$X^2(df)$	22.89(1)***			217.62(4)***				
지역규모								
대도시	48.7	51.3	13.1	19.0	25.9	25.6	16.4	100.0(854)
중소도시	53.2	46.8	12.8	12.8	36.3	25.0	13.1	100.0(804)
군지역	70.7	29.3	11.7	15.0	18.0	40.2	15.0	100.0(266)
$X^2(df)$	39.44(2)***			60.68(8)***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68-69.
 *** $p < .001$.

2) 일일 이용 시간

□ 등하원 시간을 일일 평균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52분으로 집계됨. 종일제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도 방과 후까지 이용하는 유아가 많음.

- 유치원 약 431분, 어린이집 약 472분으로 어린이집이 40분 정도 기관 이용시간이 김.

□ 변인별로 차이를 보면,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유치원이 약 405분으로 가장 짧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480분으로 가장 김.

- 취업모 483분, 비취업모 426분으로 약 57분 정도 취업모가 더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는 군지역이 464분으로 가장 길고, 중소도시가 447분으로 가장 짧음.
- 2012년, 2013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일일 이용 평균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 일일 평균 기관 이용 시간

단위: %(명), 분

구분	7시간 미만	7시간 ~9시간	9시간 이상	계	평균 (표준편차)	t/F
전체	31.7	51.0	17.4	100.0(1,924)	451.8(90.4)	
이용 기관 종류						
유치원	38.5	50.1	11.4	100.0(940)	431.2(88.0)	-10.02**
어린이집	25.1	51.8	23.1	100.0(984)	471.5(88.4)	
이용 기관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45.9	46.3	7.9	100.0(242)	405.0(104.5)	34.26***
사립유치원	36.0	51.4	12.6	100.0(698)	440.3(79.6)	
국공립어린이집	20.6	56.7	22.7	100.0(291)	479.7(84.9)	
법인어린이집	37.4	43.9	18.7	100.0(107)	457.0(79.1)	
민간어린이집	25.1	50.9	24.1	100.0(586)	470.1(91.3)	
모 취업여부						
취업모	21.1	49.4	29.5	100.0(868)	482.5(94.5)	14.02***
비취업모	40.5	52.2	7.3	100.0(1,053)	426.3(78.4)	
지역규모						
대도시	35.5	46.1	18.4	100.0(854)	452.1(92.7)	3.46*
중소도시	29.2	55.7	15.0	100.0(804)	447.4(85.1)	
군지역	26.7	52.3	21.1	100.0(266)	464.2(97.5)	
2013년 유치원	-	-	-	-	432분	
2013년 어린이집	-	-	-	-	444분	
2012년	-	-	-	-	427분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70.

* $p < .05$, *** $p < .001$.

나. 비용

1) 기본비용

- 2013년과 2014년 연속해서 누리과정 지원을 받은 가구에 한해서, 기관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을 알아본 결과, 2013년 평균 약 6만3천원에서 2014년 약 6만6천원으로 3천원 가량 상승함.
 - 기본비용이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추가수업료, 급식비, 교재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현장학습비가 포함된 것임.
 - 2013년 대비 추가수업료, 급식비, 교재비·재료비, 차량운행비, 간식비, 현장학습비 항목 모두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2013년·2014년 월 기본비용 변화

단위: 원(명)

구분	2013년 지불비용		사례수	2014년 지불비용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추가수업료	25,582	40,682	(1,441)	25,900	38,840	(1,924)
급식비	11,467	17,732	(1,197)	12,221	18,544	(1,619)
교재비·재료비	8,657	14,824	(1,216)	9,153	14,733	(1,648)
차량운행비	8,389	11,853	(1,260)	9,065	12,349	(1,707)
간식비	4,959	8,823	(1,148)	5,268	9,395	(1,567)
현장학습비	9,572	8,404	(1,398)	10,287	9,199	(1,886)
월평균 총계	62,984	59,915	(1,441)	66,447	58,653	(1,924)

주: 1)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비해당, 무상 이용은 0원으로 응답한 결과임.

2) 추가수업료는 누리과정 지원 금액인 월 22만원(공립유치원 6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5.

□ 기관설립유형별로 월 기본비용의 변화를 살펴봄.

-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비용이 상승하였고, 나머지 기관들은 동 기간 대비 모두 감소함.
- 사립유치원이 약 1만6천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은 약 2천원 증가함.
 - 누리과정 지원 유아의 다수가 다니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두 개 기관에서 비용상승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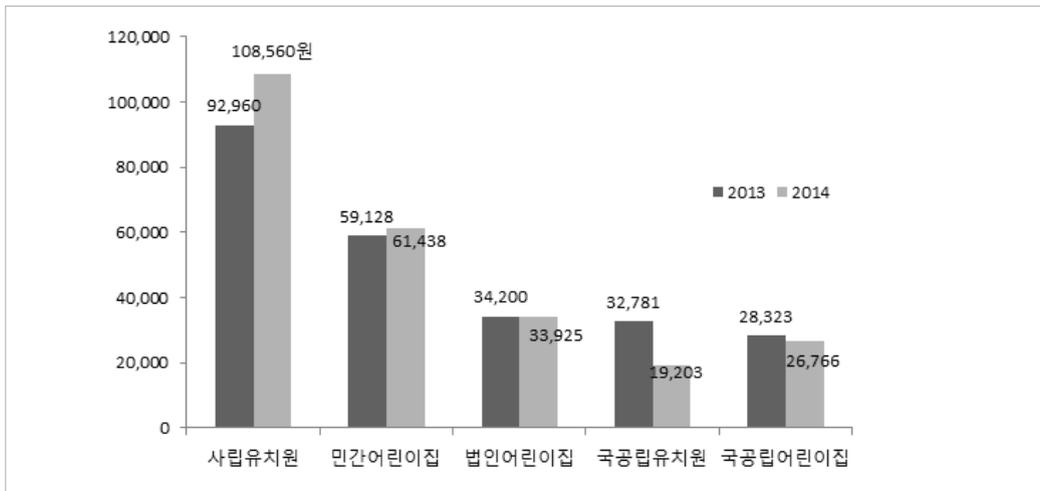


〈표 6〉 기관 설립유형별 2013·2014년월 기본비용 변화

단위: 원(명)

구분		2013년	2014년
어린이집	국공립(표준편차)	28,323(32,740)	26,766(27,832)
	법인(표준편차)	34,200(40,618)	33,925(36,885)
	민간(표준편차)	59,128(49,097)	61,438(42,187)
유치원	국공립(표준편차)	32,781(48,179)	19,203(30,334)
	사립(표준편차)	92,960(65,529)	108,560(61,305)
사례수		(1,441)	(1,924)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86-87. 재구성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7.

[그림 1] 기관설립유형별 2013년·2014년 월 기본비용 변화

2)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및 이용 개수

□ 대개 누리과정 수업이 끝난 후 수익자 부담으로 이용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변화와 이용 개수 변화를 살펴봄.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이용 개수는 2013년 2.64개에서 2014년 3.01개로 약 0.37개 증가함. 총비용은 2013년 약 4만9천원에서 2014년 5만6천원으로 약 7천원 가량 상승함.

- 2014년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인 월 5만6천은 추가 기본비용인 월 6만6천원에 견주어 볼 때, 적지 않은 비용임.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상승은 기본비용의 감소를 상쇄하여, 부모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을 받더라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이 비용이 계속 상승한다면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표 7〉 2013·2014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개수와 비용 변화

단위: %, (명)

구분	2013년	사례수	2014년 이용여부	사례수
이용 개수	2.64개	(1,219)	3.01개	(1,794)
월평균 비용	48,662원	(1,219)	56,378원	(1,794)
2012년	45,400원(1,177)			

주: 1) 2013년 사례수는 2014년 처음 기관을 이용한 483명 미포함.

2) 2012년은 만 5세아 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이용 개수 평균은 산출하지 않았음.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9.

- 어린이집과 유치원 불문하고 2013년 대비 2014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개수는 증가함. 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하고는 2013년 대비 2014년 비용이 모든 기관에서 상승함.
- 이용개수는 사립유치원의 상승폭이 0.47개 증가로 가장 크고, 법인어린이집이 0.19개로 가장 적음.
- 비용에서도 사립유치원의 상승액이 13,039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증가액이 월등히 높음. 국공립유치원은 오히려 4,497원이 감소하여 유치원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음.
- 사립유치원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비용 상승폭도 8천원 이상임.



〈표 8〉 기관 설립유형별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원, (명)

구분	이용개수			비용		
	2013년	2014년	증가	2013년	2014년	증가
국공립	2.78	3.02	0.24△	47,061	49,487	2,426△
어린이집	3.09	3.28	0.19△	38,729	42,704	3,975△
민간	2.55	2.97	0.42△	51,361	59,453	8,092△
사례수		(582)			(927)	
유치원	2.60	2.80	0.20△	32,152	27,665(34,761)	-4,487▽
사립	2.60	3.07	0.47▲	54,290	67,337(37,683)	13,049▲
사례수		(637)			(867)	

주: ▲는 증가폭이 가장 많은 변인을 표시한 것임.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89의 표를 재구성

4. 누리과정 지원 유아의 사교육 이용 현황

가. 누리과정 절감액 주 사용처

- 월 22만원 누리과정 지원으로 절감되는 비용의 사용처는 해당자녀 사교육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31.3%, 가족생활비 31.1%로 거의 비슷하게 나옴. 그러나 변인별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생활비에,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해당 자녀 사교육비에 사용함.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생활비에, 높을수록 자녀 사교육비에 사용하며 대도시는 사교육비에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생활비에 사용함.

〈표 9〉 누리과정 지원으로 인한 절감액의 주 사용처

단위: %(명)

구분	가족 생활비	해당자녀 사교육비	해당자녀 추가지출	다른자녀 기관 이용비	다른자녀 사교육비	저축·보험 등	계
전체	31.1	31.3	27.1	3.0	1.8	5.7	100.0(1,924)
자녀연령							
만3세	35.0	22.4	29.0	4.0	2.0	7.5	100.0(651)
만4세	30.4	33.2	28.2	2.2	1.9	4.2	100.0(648)

(표 9 계속)

구분	가족 생활비	해당자녀 사교육비	해당자녀 추가지출	다른자녀 기관 이용비	다른자녀 사교육비	저축·보험 등	계
만5세	27.7	38.7	23.8	2.7	1.6	5.4	100.0(625)
$X^2(df)$							48.09(10)***
월평균 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45.2	27.4	19.0	3.6	1.2	3.6	100.0(168)
250~300만원 미만	36.0	29.7	27.3	2.1	1.2	3.6	100.0(333)
300~400만원 미만	31.1	30.0	29.7	2.6	2.0	4.6	100.0(717)
400~500만원 미만	22.8	34.3	29.2	3.5	2.7	7.5	100.0(452)
500만원 이상	29.9	34.6	20.9	3.5	1.2	9.8	100.0(254)
$X^2(df)$							58.63(20)***
지역규모							
대도시	27.4	33.7	28.5	1.4	1.2	7.8	100.0(854)
중소도시	34.2	30.7	24.9	4.1	2.0	4.1	100.0(804)
군지역	33.5	25.6	29.3	4.5	3.4	3.8	100.0(266)
$X^2(df)$							44.31(10)***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96.

* $p < .05$, *** $p < .001$.

나. 사교육비 및 개수 변화

□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자녀의 사교육 개수와 비용 변화를 보면, 개수와 비용 모두 상승함. 개수는 2013년 대비 0.6개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약 3만6천원 상승함.

- 개수와 비용 모두 만 3세(0.5개)에 비해 만 4세, 만 5세 유아(0.7개)가 사교육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2013년 대비 사교육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음.
- 대도시가 0.6개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비용은 중소도시가 약 3만9천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함.



〈표 10〉 2013·2014 누리과정 해당 자녀 사교육비 및 이용 개수

단위: 개, 원, (명)

구분	이용개수			비용		
	2013년	2014년	증가	2013년	2014년	증가
전체	0.5	1.1	0.6△	27833.7	63812.2	35978.5△
자녀연령						
만3세	0.2	0.7	0.5△	12308.8	38093.2	25784.4△
만4세	0.5	1.2	0.7▲	28021.6	66930.6	38909.0△
만5세	0.7	1.4	0.7▲	43809.6	87368.0	43558.4▲
월평균가구소득						
250만원 미만	0.3	0.7	0.4△	13976.2	39244.0	25267.8△
250~300만원 미만	0.4	1.0	0.6△	23258.3	59540.5	36282.2△
300~400만원 미만	0.5	1.0	0.5△	24299.9	60420.7	36120.8△
400~500만원 미만	0.6	1.2	0.6△	34466.8	70865.0	36398.2△
500만원 이상	0.6	1.2	0.6△	41169.3	82685.0	41515.7▲
지역규모						
대도시	0.5	1.1	0.6△	28804.4	63445.7	34641.3△
중소도시	0.6	1.1	0.5△	29848.3	68711.4	38863.1▲
군지역	0.3	0.8	0.5△	18627.8	50180.5	31552.7△

주: ▲는 증가폭이 가장 많은 변인을 표시한 것임.

자료: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97-99의 표를 재구성

5.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

- 누리과정 정책으로 공통과정, 지원금, 일일 이용시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사성이 커졌으나 어느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천양지차임. 요컨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보다는 설립주체별 격차가 더 큼.
- 도입부문에 언급했듯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으므로 예산의 적절하고 투명한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 이에 본고에서는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함.

가. 기관 간 비용 격차 완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분모는 커졌으나, 설립주체별로 추가 비용 격차는 여전히 큼.
 - 현재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입소순위는 있지만,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가구들도 다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양적으로 부족함.
 - 우선 입소순위에서 밀려난 가구들이 국공립 기관에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보내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임.
 - 이러한 구조에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을 대부분 보내게 되는데, 비용 면에서 국공립 기관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본 조사에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민간/사립 기관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이 때 가구소득을 이용기관 종류와 더불어 고려하여 지원금의 차이를 두는 ‘지원대상의 보편화, 지원수준(금액)의 차등화’ 정책을 제안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누리과정 지원 절감액을 자녀의 사교육비에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교육비 증가폭도 가장 컸음.
 - 앞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증액해 나갈 때(정부는 2016년까지 월 30만원 지원을 계획함), 증액되는 비용 8만원은 가구소득과 이용 기관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함.

나. 누리과정 지원금 사용항목 표준화

- 본 설문조사 결과, 부모의 누리과정 개선요구 1순위로 “지원비용의 내역에 대한 정확한 설명(추가 지불비용의 투명화)”을 가장 많이 꼽음.
 - 부모 면담에서 부모들은 기관마다 지불하는 입학금,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가 모두 상이하여 금액 기준에 대한 모호함을 토로함. 입학금에 원복,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 등 입학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기관마다 다름.
- 오후 돌봄을 전제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유치원의 방과 후 교육비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사용 목적과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함.



- 그러나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는 6개 항목²⁾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은 누리과정 월 22만원 지원금과 방과 후 교육비를 합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누리과정 지원비와 방과 후 교육비를 구분하여 누리과정 지원비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경기도교육청, 2014:4) 운영하는 유치원도 있는 등, 지역마다 기관마다 사용 용도와 방식이 다름.

-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금액이라면 사용 용도와 방식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양 부처가 협의하여 수업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등 최소한의 동일한 항목을 도출, 정해진 이들 항목들에 한해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겠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이 다르고,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설립 유형에 따라 설치비, 운영비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임.

-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항목(예: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에는 사용 금지)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다.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재설계

- 오후 돌봄을 전제로 지원되는 방과 후 지원비/누리과정 운영 지원비가 지급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따라 유아들을 기관에 더 머무르게 하는 부작용을 발견할 수 있음.

- 기관의 일일 이용시간이 2012년 427분, 2013년 432분(유치원)·444분(어린이집), 2014년 452분으로 계속 증가함.

- 오후 시간대에 기관에 있는 유아들의 상당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개수와 비용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는 것이 본 설문조사 결과임.

- 오전에 누리과정을 마친 후, 오후까지 기관에 남아있는 유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는 오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만 지원할 것을 제

2) ①보조교사 인건비(원칙), ②교사대상 학습공동체 활동, ③교재교구비(소모성 재료비 구입 포함)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④급간식비(기 편성된 급식비를 초과하는 경우만 사용가능), ⑤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환경보건법)에 따른 개선비용, ⑥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인건비(보건복지부, 2014: 295)

안함.

-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주양육자가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이 기관에서의 오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함.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하되, 저소득가구는 비용지원을 하는 등 오후 돌봄의 비용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은 ‘기본과정과 방과 후 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이라는 두 기관의 상이한 운영방식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누리과정비(월 22만원)는 기관을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지급하고(이용기관이나 가구소득에 따라 점차 차등지원)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 지원비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주양육자가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에게만 지급함.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선택해서 이용하고 비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저소득가구는 비용지원을 함.

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관리·감독 강화

- 기본과정 비용이 작년 대비 월 3천원 상승한 것에 비해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은 동 기간 월 7천원 상승해서 상승폭인 2배 이상이었으며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이 설립유형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남.
 -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이 가장 비싼 사립유치원과 가장 저렴한 국공립유치원 비용 격차가 2014년 기준으로 약 4만원 차이가 난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동일 업체의 동일한 프로그램이 설립유형별로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파악하고 이를 관리·감독을 할 책무가 있음.
-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간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비용 격차가 더 컸는데, 어린이집의 경우는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이나 현장 학습비의 상한선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으로 풀이됨.
- 따라서 유치원에서도 유아교육법 5조에 ‘유아교육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입학금 등의 기타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책정할 것을 제안함.



마. 누리과정 관련 용어 통일

- 월 22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교육부는 유아학비, 보건복지부는 보육료로 사용하며 오후 돌봄에 해당하는 용어도 방과 후 교육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각각 다르게 사용함.
 - 동의어에 대해 양 부처와 해당 기관이 다르게 사용하다보니 수요자 또는 제3자 입장에서 혼돈이 생길 수 있음. 예컨대, 어린이집은 방과 후 교육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를 누리과정 지원금(월 22만원)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동의어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협의하여 같은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월 22만원의 유아학비/보육료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방과 후 교육비/누리과정 운영비는 ‘방과 후 돌봄 지원금’ 또는 ‘오후 돌봄 지원금’으로 통일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함.

〈표 11〉 누리과정 관련 용어 통일(안)

누리과정 관련 지원 비용	기관종류	사용 용어	개선안
월 22만원	유치원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금
	어린이집	보육료	
월 7만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교육비	오후 돌봄 지원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경기도교육청(2014). 2014학년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14).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안).
- 권미경(2014). 3~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 김은설·최윤경·조아라(2013).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지원 비교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07.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도자료

- 국무총리·교육과학부·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1. 5. 2.). 만 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누리과정 교사연수 실태 및 요구

양미선

1. 서론
2. 누리과정 연수 실태 및 요구
3. 개선방안

요약

- 누리과정 교사연수 실태와 문제점,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어린이집 교사 1,040명과 유치원 교사 1,058명,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교육 전문직)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실시.
- 누리과정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위하여 핵심강사와 지역강사 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진행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운영 및 평가체계 개선
- 보육·유아교육 관련기관에서의 누리과정 연수 활성화하여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교육기회 다양화
- 누리과정 심화과정 연수 개발·운영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육·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처럼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을 보육·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임(김정희, 2011).
 - 이는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정, 유아나 부모 등의 가정 여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을 해석하고 유아에게 적합한 양질의 보육·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임.
 - 즉, 교사는 유아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누리과정에 근거한 보육·교육활동의 계

* 본 고는 양미선, 이규립, 윤지연(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임.



획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교사연수를 실시함.

- 그러나 교사연수가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누리과정을 현장에 바로 적용해야 하는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감은 매우 큼.

□ 또 교사연수가 교사의 경력, 담당 유아연령이나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대규모 집합연수로 실시됨에 따라 교사의 역량이나 배경에 따라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 차이가 큼.

-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이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국가수준의 누리과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의 도입 취지나 목적은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누리과정 실행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사연수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누리과정 교사 연수 실태와 문제점,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누리과정 연수 현황, 연수 참여 시 애로 및 요구 등을 파악함.
- 누리과정 연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어린이집 교사 1,040명과 유치원 교사 1,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교육 전문직)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2. 누리과정 연수 실태 및 요구

가. 참여 비율 및 연수 종류

-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교사 중 다수인 98.7%가 3-5세 집합 또는 원격연수 중 1가지 이상을 이수하였고, 유치원 교사는 96.4%로 어린이집 교사보다 다소 이수 비율이 낮음.

〈표 1〉 연수 참여 여부 및 연수 종류

단위: %(명)

구분	연수 이수 비율		참여한 연수 종류						(수)
			집합연수			원격연수			
	연수 참여	(수)	5세	3,4세	3-5세	5세	3,4세	3-5세	
어린이집	98.7	(1,040)	34.3	14.1	78.5	24.1	10.0	51.2	(1,032)
유치원	96.4	(1,058)	34.1	17.3	66.8	27.6	15.2	59.0	(1,018)

주: 참여한 연수 종류는 중복응답 결과임.

나. 누리과정 연수 미참여 이유

- 누리과정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교사는 소수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표 2〉 누리과정 연수 이수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연수일정과 기관행사가 겹쳐서	연수 수강 인원이 마감되어	연수 신청기간 을 놓쳐서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연수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연수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기타	계(수)
어린이집	5.6	-	3.1	-	12.8	78.5	-	100.0(8)
유치원	12.7	11.1	47.4	4.2	5.7	-	19.0	100.0(40)

- 어린이집 교사는 연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78.5%로 다수를 차지하고, 유치원 교사는 47.4%가 연수 신청기간을 놓쳐서, 연수일정과 기관 행사가 겹쳐서 12.7%, 연수 수강 인원이 마감되어서 11.1% 순임.



다. 집합·원격연수의 적절성

1) 집합연수

□ 집합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집합연수 기간, 강의시간 배정 및 운영, 강의내용, 교재교구, 강사의 전문성, 전반적인 운영 등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봄.

- 어린이집 교사는 각 항목별로 70% 이상 적절하다고 응답함. 적절성 점수는 강사의 전문성과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이 각각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고, 이론과 실제 구성이 평균 2.7점으로 가장 낮음.

〈표 3〉 집합연수의 적절성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4점 평균
어린이집						
교육내용 및 교육 양 고려한 연수기간	1.9	13.8	76.9	7.3	100.0(993)	2.9
영역별 강의시간 배정 및 운영	1.0	17.1	76.5	5.4	100.0(993)	2.9
강의과목 선정	0.1	4.5	89.1	6.3	100.0(993)	3.0
이론과 실제 구성	2.4	28.9	63.9	4.8	100.0(993)	2.7
교재구성의 충분성	1.0	19.9	73.6	5.5	100.0(993)	2.8
강의용 PPT와 강의내용의 충실성	0.7	8.5	83.1	7.7	100.0(993)	3.0
강사의 전문성	0.2	4.4	84.0	11.4	100.0(993)	3.1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	0.1	3.0	84.2	12.6	100.0(993)	3.1
유치원						
교육내용 및 교육 양 고려한 연수기간	0.8	12.9	78.8	7.5	100.0(915)	2.9
영역별 강의시간 배정 및 운영	0.2	12.3	78.7	8.8	100.0(915)	3.0
강의과목 선정	-	5.8	82.0	12.2	100.0(915)	3.1
이론과 실제 구성	0.6	28.7	63.0	7.8	100.0(915)	2.8
교재구성의 충분성	0.3	18.7	73.0	7.9	100.0(915)	2.9
강의용 PPT와 강의내용의 충실성	0.2	8.7	78.5	12.7	100.0(915)	3.0
강사의 전문성	0.2	6.2	80.2	13.5	100.0(915)	3.1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	-	3.9	79.2	16.9	100.0(915)	3.1

- 유치원 교사도 각 사안별로 70% 이상이 적절하다고 봄.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강의과목의 선정, 강사의 전문성, 일정에 따른 연수 운영 등이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고, 이론과 실제 구성이 2.8점으로 낮음.

- 즉,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공통적으로 집합연수의 이론과 실제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함.

2) 원격연수

□ 원격연수의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강사의 전문성, 강의시스템의 안전성, 자료의 일치도, 연수 시스템의 편리성 등에 대해 조사함.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80% 이상이 각 사안에 대해 동의함. 동의 정도는 강사의 전문성, 강의내용과 영상자료의 일치성이 4점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음.
-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와 의견이 다소 다르나 대체로 80% 이상이 동의함. 동의 정도는 강의내용과 영상자료의 일치성이 3.2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3.0점임.

〈표 4〉 원격연수의 적절성 개요

구분					단위: %(명), 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4점 평균
어린이집						
과목별 강의시간 배정	0.5	13.6	80.3	5.6	100.0(702)	2.9
과목별 목적에 맞는 강의내용 구성	0.6	2.4	88.9	8.1	100.0(702)	3.0
강사의 전문성	0.1	1.9	86.8	11.2	100.0(702)	3.1
온라인 강의시스템의 안전성	1.4	14.3	73.0	11.3	100.0(702)	2.9
강의내용과 영상자료의 일치성	0.2	1.7	86.3	11.8	100.0(702)	3.1
연수 시스템의 편리성	0.2	8.3	81.9	9.5	100.0(702)	3.0
유치원						
과목별 강의시간 배정	0.4	9.4	80.4	9.8	100.0(797)	3.0
과목별 목적에 맞는 강의내용 구성	0.2	3.5	84.6	11.7	100.0(797)	3.1
강사의 전문성	-	4.2	78.8	17.0	100.0(797)	3.1
온라인 강의시스템의 안전성	0.7	10.5	70.3	18.5	100.0(797)	3.1
강의내용과 영상자료의 일치성	-	2.6	77.8	19.5	100.0(797)	3.2
연수 시스템의 편리성	1.2	12.1	72.1	14.6	100.0(797)	3.0



라. 원격연수 평가문항의 적절성

- 누리과정 원격연수를 모두 수강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어야 이수증을 받을 수 있음.
- 원격연수 평가문항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교사 중 다수인
80.9%는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11.0%는 하향 조정, 6.1%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함.
 - 교사 경력별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5~10년 미만 교사 17.1%는 하향 조
정, 15년 이상 9.4%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유치원 교사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82.3%로 많지만, 7.7%는 상향 조정, 6.8%는 하향 조
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 3~5년 미만 교사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2.7%,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 교사 10~13%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표 5〉 원격연수 평가문항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하향	적절	상향	잘 모름	계(수)	구분	하향	적절	상향	잘 모름	계(수)
어린이집	11.0	80.9	6.1	2.0	100.0 (702)	유치원	6.8	82.3	7.7	3.1	100.0 (797)
3년 미만	6.1	87.4	5.4	1.1	100.0 (129)	3년 미만	6.9	86.6	2.6	3.9	100.0 (145)
3~5년 미만	8.4	82.4	6.3	2.9	100.0 (143)	3~5년 미만	12.7	76.8	5.6	4.8	100.0 (153)
5~10년 미만	17.1	75.2	5.7	2.0	100.0 (275)	5~10년 미만	4.7	83.5	10.2	1.5	100.0 (220)
10~15년 미만	1.2	88.9	7.0	3.0	100.0 (117)	10~15년 미만	0.8	82.1	13.9	3.2	100.0 (123)
15년 이상	4.0	86.6	9.4	-	100.0 (38)	15년 이상	8.6	82.6	6.2	2.6	100.0 (156)

- 원격연수 평가문항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해 보육·유아교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에게 질
문한 결과, 적절하다는 의견은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보다 낮은 71.1%
이나 상향 조정은 25.9%로 높음.

〈표 6〉 원격연수 평가문항 난이도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하향조정	적절	상향조정	계(수)	구분	하향조정	적절	상향조정	계(수)
전체	3.0	71.1	25.9	100.0 (201)					
전공					분야				
보육	2.0	77.2	20.8	100.0 (101)	학계	3.1	69.1	27.8	100.0 (162)
유아교육	4.0	65.0	31.0	100.0 (100)	현장,공무원	2.6	79.5	17.9	100.0 (39)

□ 학계 및 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원격연수 평가 시 평가문항 수와 통과점수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함.

- 응답자 중 과반수인 69.2%가 적절하다고 보았지만, 평가문항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6.4%로 약 1/3 정도 됨. 상향 조정 시 적정 문항 수는 평균 65문항임.

〈표 7〉 평가문항 수(45문항)의 적절성

단위: %(명), 문항

구분	평가문항 수의 적절성				하향조정 시 적정문항		상향조정 시 적정문항	
	하향조정	적절	상향조정	계(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4.5	69.2	26.4	100.0(201)	27.8	(9)	65.0	(53)
전공								
보육	2.0	78.2	19.8	100.0(101)	30.0	(2)	65.3	(20)
유아교육	7.0	60.0	33.0	100.0(100)	27.1	(7)	65.0	(33)
$X^2(df)/t$		-			0.3		0.01	
분야								
학계	4.3	65.4	30.2	100.0(162)	28.6	(7)	63.9	(49)
현장,공무원	5.1	84.6	10.3	100.0(39)	25.0	(2)	78.8	(4)
$X^2(df)/t$		-			0.4		3.2*	

* $p < .1$.

□ 원격연수 평가문항 45문항 중 27문항 즉 60점 이상을 맞춰야 이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과점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 질문함.

- 학계 및 현장관계자 중 60점이 적당하다는 비율은 37.3% 정도이고 61.2% 즉, 과반수 이상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상향 조정 시 적정점수는 평균 73점임.



〈표 8〉 통과점수(60점)의 적절성

단위: %(명), 점

구분	하향조정	적정	상향조정	계(수)	하향조정 시 적정점수		상향조정 시 적정점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1.5	37.3	61.2	100.0(201)	50.0	(3)	73.0	(123)
전공								
보육	1.0	35.6	63.4	100.0(101)	50.0	(1)	72.6	(59)
유아교육	2.0	39.0	59.0	100.0(100)	50.0	(2)	73.4	(64)
$X^2(df)/t$		-			-		1.0	
분야								
학계	1.2	32.7	66.0	100.0(162)	50.0	(2)	72.9	(107)
현장:공무원	2.6	56.4	41.0	100.0(39)	50.0	(1)	73.8	(16)
$X^2(df)/t$		-			-		0.6	

마. 집합·원격연수 도움정도

- 집합연수의 도움정도를 보면, 어린이집 교사 92.2%가 도움되었다고 하였고, 도움정도는 4점 평균 3.0점으로 높음.
 - 유치원 교사도 어린이집 교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인 91.8%가 도움되었다고 답하였고, 도움 정도는 4점 척도로 환산하여 평균 3.1점임.
- 원격연수의 도움정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모두 집합연수보다 낮음.
 - 우선 어린이집 교사 중 85.8%가 도움되었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9점임.
- 유치원 교사도 어린이집 교사와 비슷한 수준인 86.9%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3.0점임.
 - 15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도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3년 미만과 15년 이상 교사들이 90% 이상을 나타냄.
- 교사 면담에서도 교사들은 3-5세 누리과정 연수가 기관이 가장 바쁜 시기인 2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격연수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이 많음.

〈표 9〉 집합·원격연수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집합연수						원격연수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4점 평균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음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4점 평균
어린이집	0.3	7.5	79.1	13.1	100.0(993)	3.0	0.7	13.5	75.9	9.9	100.0(702)	2.9
3년 미만	-	5.8	76.3	18.0	100.0(165)	3.1	-	7.0	83.4	9.6	100.0(129)	3.0
3~5년 미만	0.8	7.0	79.5	12.7	100.0(211)	3.0	3.3	13.5	75.3	8.0	100.0(143)	2.9
5~10년 미만	-	8.1	81.9	9.9	100.0(396)	3.0	-	17.7	73.2	9.1	100.0(275)	2.9
10~15년 미만	0.9	10.6	74.1	14.5	100.0(170)	3.0	1.3	10.1	75.2	13.4	100.0(117)	3.0
15년 이상	-	2.1	75.1	22.8	100.0(51)	3.2	-	4.2	81.0	14.7	100.0(38)	3.1
$X^2(df)/F$						3.2*						2.5*
유치원	0.7	7.5	76.6	15.2	100.0(915)	3.1	1.4	11.7	72.4	14.5	100.0(797)	3.0
3년 미만	0.8	7.3	79.2	12.6	100.0(190)	3.0	1.0	8.9	77.0	13.1	100.0(145)	3.0
3~5년 미만	-	11.1	72.9	16.1	100.0(170)	3.1	0.6	14.9	74.3	10.2	100.0(153)	2.9
5~10년 미만	1.8	6.3	78.0	13.9	100.0(243)	3.0	3.2	13.3	70.0	13.5	100.0(220)	2.9
10~15년 미만	-	7.6	77.0	15.4	100.0(131)	3.1	-	10.7	70.0	19.3	100.0(123)	3.1
15년 이상	-	3.8	74.2	22.0	100.0(181)	3.2	-	6.6	69.9	23.5	100.0(156)	3.2
$X^2(df)/F$						1.7						3.9**

* $p < .05$, ** $p < .01$.

□ 보육 및 유아교육 학계, 현장관계자들에게 누리과정 원격연수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59.7%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동의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3점임.

〈표 10〉 누리과정 원격연수의 교육적 효과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없음	어느 정도 있음	매우 많음	계(수)	평균	구분	전혀 없음	없음	어느 정도 있음	매우 많음	계(수)	평균
전체	5.0	35.3	58.2	1.5	100.0 (201)	2.3							
전공							분야						
보육	7.9	35.6	55.4	1.0	100.0 (101)	2.5	학계	4.9	36.4	58.0	0.6	100.0 (162)	2.5
유아교육	2.0	35.0	61.0	2.0	100.0 (100)	2.6	현장,공무원	5.1	30.8	59.0	5.1	100.0 (39)	2.6
$X^2(df)/t$	0.4						$X^2(df)/t$	-0.9					



바. 누리과정 연수 개선사항

1) 집합연수

□ 누리과정 집합연수 개선사항을 1,2순위로 조사함.

- 어린이집 교사의 1, 2순위 의견을 합산하면, 연수 장소 및 위치 등의 접근성과 연수시기가 각각 39.7%, 39.1%, 연수시간이 27.4%, 연수내용이 25.2% 순이며, 개선사항이 없다는 응답은 3.3% 정도임.
- 유치원 교사 1,2순위 의견을 합산하면, 연수내용이 37.4, 연수시기와 연수시간, 연수장소 및 위치 등 접근성이 27~28%, 강사 전문성 25.5%임.

〈표 11〉 누리과정 집합연수 개선사항: 1+2순위

구분	단위 : %(명)										
	연수 시기	연수 시간	연수 내용	강사 전문성	연수 참여 인원	참석자 편의	연수장소 위치·접근성	연수참여시 인센티브	연수 운영 방식	없음	계(수)
어린이집											
1순위	26.2	13.7	10.3	7.2	3.4	6.1	21.3	6.1	2.3	3.3	100.0(1,032)
2순위	12.9	13.7	14.9	8.4	10.9	8.9	18.4	8.9	3.0	-	100.0(949)
1+2순위	39.1	27.4	25.2	15.6	14.3	15.0	39.7	15.0	5.3	3.3	(1,032)
유치원											
1순위	16.9	13.5	23.8	10.8	3.5	3.6	12.4	7.9	3.9	3.7	100.0(1,018)
2순위	11.7	14.6	13.6	14.7	4.0	7.9	15.2	10.2	8.1	-	100.0(928)
1+2순위	28.6	28.1	37.4	25.5	7.5	11.5	27.6	18.1	12.0	3.7	(1,018)

□ 어린이집 교사는 누리과정 집합연수 개선사항으로 연수장소 및 위치 등 접근성과 연수시기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나, 유치원 교사는 연수내용 및 시기, 시간 등을 꼽아서 차이를 보임.

□ 보육·유아교육 학계 및 현장관계자의 1,2순위 의견을 합산하면, 연수내용이 55.7%로 가장 높고, 강사 전문성 39.8%, 연수 운영방식 28.8% 순임.

□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교사들은 연수 시기나 접근성 등의 운영 상의 개선을 요구한 반면,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교육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2〉 누리과정 집합연수 개선사항: 1+2순위

단위: %(명)

구분	연수 시간 (8시간)	강의 과목별 수업시간	연수 내용	강사 전문성	1회 연수 참여인원	편의시설 및 휴게 시간 등	연수장소 위치 접근성	연수 참여시 인센티브	연수 운영 방식	없음	계(수)
1순위	5.0	3.0	30.3	23.9	12.4	-	7.5	4.0	13.4	0.5	100.0(201)
2순위	9.5	7.5	25.4	15.9	12.4	1.0	5.5	7.0	15.4	0.5	100.0(201)
1+2순위	14.5	10.5	55.7	39.8	24.8	1.0	13.0	11.0	28.8	1.0	(201)

□ 집합연수 교육시간은 8시간이며, 이러한 교육시간이 적절한지 학계 및 현장 관계자에게 질문함.

- 교육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37.8% 정도이고, 과반수인 59.2%는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임.
- 교육시간을 늘릴 경우 적정시간은 평균 16.7시간으로 현재 교육시간보다 2배 이상 길.

〈표 13〉 집합연수(8시간) 교육시간의 적절성 여부

단위: %(명), 시간

구분	하향조정	적정	상향조정	계(수)	하향조정 시 적정시간		상향조정 시 적정시간	
					평균	(수)	평균	계수
전체	3.0	37.8	59.2	100.0(201)	5.2	(6)	16.7	(119)
전공								
보육	2.0	38.6	59.4	100.0(101)	5.0	(4)	16.2	(60)
유아교육	4.0	37.0	59.0	100.0(100)	5.3	(2)	17.1	(59)
$X^2(df)/t$		-			0.3		0.7	
분야								
학계	3.7	34.0	62.3	100.0(162)	5.2	(6)	16.2	(101)
현장:공무원	-	53.8	46.2	100.0(39)	-	-	19.3	(18)
$X^2(df)/t$		-			-		-1.1	

2) 원격연수

□ 15차시로 운영되는 원격연수 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봄.

- 조사대상 중 절반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지만, 15차시보다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32.8%,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13.9%로 적지 않음.



- 교육시간 줄일 경우 평균 9.3시간, 늘릴 경우 27.2시간이 적절하다고 봄.

〈표 14〉 원격연수(15차시) 교육시간의 적절성

단위: %(명), 차시

구분	하향조정	적정	상향조정	계(수)	하향조정 시간		상향조정 시간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13.9	53.2	32.8	100.0(201)	9.3	(28)	27.2	(66)
전공								
보육	11.9	56.4	31.7	100.0(101)	9.6	(12)	26.0	(32)
유아교육	16.0	50.0	34.0	100.0(100)	9.1	(16)	28.3	(34)
$X^2(df)/t$		-			-0.6		1.2	
분야								
학계	16.7	48.8	34.6	100.0(162)	9.3	(27)	26.3	(56)
현장.공무원	2.6	71.8	25.6	100.0(39)	10.0	(1)	32.0	(10)
$X^2(df)/t$		-			-0.3		-2.2*	

* $p < .05$.

사. 연수 참여 시 대체교사 지원

□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대다수가 대체교사 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주말에 누리과정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 누리과정 연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 중 37.4%는 대체교사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지 못함.
- 기관유형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대체교사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6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국공립 46.6%, 부모협동과 민간 어린이집이 각각 39%, 35.6% 순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일수록 지원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고, 장애아반 담당교사인 경우가 높음.

□ 연수 참여 시 대체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 담당반은 31.4%가 합반으로 운영하였고, 비담당교사나 부담당 교사가 담당한 경우가 각각 17%, 14.4%, 원장 13.6%, 보조 교사 11.5%임.

- 기관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은 합반 운영한다는 비율이 높고, 법

인단체 등은 원장이 맡거나 합반 운영이 비슷하며, 국공립과 민간은 부담임교사, 가정은 원장이 가장 많음.

- 지역별로도 합반으로 운영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많음.

〈표 15〉 대체교사 지원 여부: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지원 여부			미지원 시 반 운영 방법					
	지원	(수)	원장	비담임 교사	합반 운영	보조 교사	부담임 교사	기타	계(수)
어린이집	37.4	(216)	13.6	17.0	31.4	11.5	14.4	12.2	100.0(124)
기관유형									
국공립	46.6	(63)	6.2	32.9	24.8	11.1	16.0	9.0	100.0(35)
사회복지법인	22.5	(27)	-	3.0	65.1	8.1	14.5	9.2	100.0(19)
법인단체	19.3	(15)	40.1	4.1	49.1	6.7	-	-	100.0(9)
민간	35.6	(90)	10.7	16.7	17.7	16.1	18.2	20.6	100.0(50)
가정	29.5	(9)	66.3	-	8.4	-	16.2	9.1	100.0(6)
직장	66.1	(10)	7.3	-	83.8	-	9.0	-	100.0(4)
부모협동	39.0	(2)	100.0	-	-	-	-	-	100.0(1)
지역규모									
대도시	38.6	(109)	7.8	15.8	31.8	14.0	7.8	22.9	100.0(58)
중소도시	35.9	(69)	19.2	20.9	21.1	11.6	24.1	3.1	100.0(44)
읍면지역	36.9	(38)	17.8	12.5	50.8	4.7	13.0	1.2	100.0(22)

아. 심화 연수 지원에 대한 요구

1) 심화연수의 필요성

다음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누리과정 기초연수에 더하여 심화연수 과정이 더 필요한지 조사함.

어린이집 교사 중 다수인 69.2%가 심화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 정도는 4점 척도로 2.8점으로 보통 이상임.

- 교사 경력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5년 이상의 경력자들이 필요성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음. 필요정도도 15년 이상이 3.1점으로 가장 높고, 5~10년 미만이 2.6점으로 낮음.



□ 유치원 교사도 어린이집 교사만큼 심화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함. 필요하다는 응답이 67.3%로 과반수가 넘고, 필요 정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7점임.

- 3년 미만의 초임교사 보다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많은 교사들 대다수가 심화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정도도 15년 이상이 2.9점으로 가장 높고, 3년 미만과 5~10년 미만이 2.7점으로 낮음.

〈표 16〉 누리과정 심화연수 필요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소계	(수)	평균	구분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소계	(수)	평균
어린이집	56.3	12.9	69.2	(1,032)	2.8	유치원	59.8	7.5	67.3	(1,018)	2.7
3년 미만	62.0	5.7	67.7	(177)	2.7	3년 미만	58.2	4.1	62.3	(214)	2.7
3~5년 미만	48.1	28.4	76.5	(224)	3.0	3~5년 미만	63.3	7.3	70.6	(194)	2.8
5~10년 미만	55.9	5.9	61.8	(403)	2.6	5~10년 미만	55.8	7.4	63.2	(273)	2.7
10~15년 미만	61.3	12.3	73.6	(177)	2.8	10~15년 미만	67.4	6.5	73.9	(151)	2.8
15년 이상	67.2	20.2	87.4	(51)	3.1	15년 이상	57.9	17.8	75.7	(186)	2.9
$\chi^2(df)/F$	98.2(12)***		16.3***			$\chi^2(df)/F$	-		4.9**		

주: 전혀 필요없음과 필요없음은 표에 제시하지 않음.

** $p < .01$, *** $p < .001$.

2) 심화연수 운영방법

□ 정부가 심화연수를 정규과정으로 운영할 경우, 그 운영 방법에 대해 교사에게 질문함.

〈표 17〉 심화연수 운영방법

단위: %(명)

구분	영역별 심화연수	담당아동 연령별 심화연수	주제별 심화연수	교사특성(연령, 경력)별 심화연수	기타	계(수)
어린이집	26.9	48.9	13.8	10.3	0.1	100.0(1,032)
3년 미만	21.5	48.4	19.4	9.9	0.8	100.0(177)
3~5년 미만	20.1	58.8	12.8	8.4	-	100.0(224)
5~10년 미만	32.8	45.6	11.9	9.6	-	100.0(403)
10~15년 미만	27.8	47.3	10.9	14.1	-	100.0(177)
15년 이상	23.7	36.4	25.6	14.3	-	100.0(51)
$\chi^2(df)$						42.2(16)***

(표 17 계속)

구분	영역별 심화연수	담당아동 연령별 심화연수	주제별 심화연수	교사특성(연령, 경력)별 심화연수	기타	계(수)
유치원	19.1	35.5	26.5	18.5	0.4	100.0(1,018)
3년 미만	20.2	36.1	29.4	13.6	0.7	100.0(214)
3~5년 미만	14.2	35.2	28.4	22.2	-	100.0(194)
5~10년 미만	19.1	35.3	27.3	18.4	-	100.0(273)
10~15년 미만	22.7	37.0	19.8	20.5	-	100.0(151)
15년 이상	22.8	33.4	22.5	19.2	2.0	100.0(186)
$X^2(df)$			-			

*** $p < .001$.

- 어린이집 교사 중 48.9%는 담당아동 연령별 심화연수를 꼽았고, 26.9%는 흥미영역별 심화연수, 13.8%는 주제별 심화연수, 10.3%는 교사특성별 심화연수 순임.

- 유치원 교사들도 어린이집 교사와 동일하게 담당아동 연령별 심화연수가 35.5%로 가장 많음. 그러나 주제별 심화연수 26.5%, 영역별 심화연수 19.1%, 교사특성별 심화연수 18.5%로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높음.

□ 심화연수 운영형태를 1,2순위로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 교사는 사례 중심 교육과 주제 관련 이론과 실제 연계가 각각 69.2%, 67.3%로 높음.

□ 유치원 교사의 1,2순위를 합산 결과, 사례 중심 교육이 74.1%, 주제 관련 이론과 실제 연계가 67.5%, 현장교사와의 만남과 워크숍 31.5%, 우수 사례 전시와 발표가 26.5% 순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모두 사례 중심 교육과 주제 관련 이론과 실제 연계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18〉 심화연수 운영형태: 1+2순위

구분	주제관련 이론과 실제 연계	사례 중심 교육	우수 사례 전시와 발표	현장교사와의 만남과 워크숍	기타	계(수)
어린이집						
1순위	48.9	33.9	6.2	10.8	0.1	100.0(1,032)
2순위	20.0	38.4	16.5	24.8	0.2	100.0(930)
1+2순위	67.3	69.2	21.4	33.6	0.3	(1,032)



(표 18 계속)

구분	주제관련 이론과 실제 연계	사례 중심 교육	우수 사례 전시와 발표	현장교사와의 만남과 워크숍	기타	계(수)
유치원						
1순위	45.4	38.5	6.6	9.4	0.2	100.0(1,018)
2순위	22.1	35.6	19.9	22.1	0.4	100.0(910)
1+2순위	67.5	74.1	26.5	31.5	0.6	(1,018)

□ 심화과정 도입 시 연수방법으로 담당아동 연령별 심화연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39.8%, 영역별 심화연수도 32.8%로 높음. 교사 경력 및 주제별 심화 연수는 각각 10%대에 그침.

〈표 19〉 심화과정 도입 시 연수방법

단위: %(명)

구분	영역별 심화 연수	담당 아동 연령별 연수	주제별 심화 연수	교사 경력별 연수	계(수)	구분	영역별 연수	담당 아동 연령별 연수	주제별 연수	교사 경력별 연수	계(수)
전체	32.8	39.8	10.0	17.4	100.0 (201)						
전공						분야					
보육	34.7	42.6	8.9	13.9	100.0 (101)	학계	30.9	40.1	11.1	17.9	100.0 (162)
유아교육	31.0	37.0	11.0	21.0	100.0 (100)	현장.공무원	41.0	38.5	5.1	15.4	100.0 (39)
$X^2(df)$			2.3(3)			$X^2(df)$			2.3(3)		

3) 심화연수 교육시간

□ 심화과정 운영 시 교육시간에 대해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시간으로 평균 22.2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하였고, 구간별로는 15~20시간 미만이 20.4%로 가장 높고, 나머지 구간은 10%대로 고루 분포함.

〈표 20〉 심화과정 도입 시 교육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10시간 미만	10~15시간 미만	15~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계(수)	평균 시간
전체	17.9	13.4	20.4	15.4	15.9	16.9	100.0(201)	22.2
전공								
보육	15.8	15.8	24.8	17.8	11.9	13.9	100.0(101)	21.0
유아교육	20.0	11.0	16.0	13.0	20.0	20.0	100.0(100)	23.3
$X^2(df)/t$			7.2(5)					1.1
분야								
학계	17.9	15.4	20.4	13.6	15.4	17.3	100.0(162)	21.6
현장.공무원	17.9	5.1	20.5	23.1	17.9	15.4	100.0(39)	24.7
$X^2(df)/t$			4.5(5)					-1.2

4) 심화연수 교육내용

- 심화과정 교육내용으로는 교수학습 방법이 31.3%, 누리과정 운영 27.4%, 유아와의 상호작용 23.9%, 보육·교육계획안 작성 13.4% 순임(〈표 21〉 참조).
- 심화과정 도입 시 연수방식을 나타냄. 심화연수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1%로 다수를 차지함. 이 외에 모두 필수과정으로 하자는 의견도 23.4%로 많음.

〈표 21〉 심화과정 도입 시 교육내용

단위: %(명)

구분	누리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유아와의 상호작용	교육/보육 계획안	학급(반) 관리	평가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27.4	31.3	23.9	13.4	1.0	2.5	0.5	100.0(201)
전공								
보육	32.7	25.7	24.8	11.9	1.0	3.0	1.0	100.0(101)
유아교육	22.0	37.0	23.0	15.0	1.0	2.0	-	100.0(100)
분야								
학계	24.1	32.1	25.3	16.0	-	2.5	-	100.0(162)
현장.공무원	41.0	28.2	17.9	2.6	5.1	2.6	2.6	100.0(39)



〈표 22〉 심화과정 도입 시 연수방식

단위: %(명)

구분	모두 필수	필수와 선택	모두 선택	모름/무응답	계(수)	구분	모두 필수	필수와 선택	모두 선택	모름/무응답	계(수)
전체	23.4	73.1	3.0	0.5	100.0 (201)						
전공						분야					
보육	21.8	76.2	1.0	1.0	100.0 (101)	학계	20.4	76.5	3.1	-	100.0 (162)
유아교육	25.0	70.0	5.0	-	100.0 (100)	현장·공무원	35.9	59.0	2.6	2.6	100.0 (39)

자. 누리과정 연수 운영 개선

□ 누리과정 연수는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일한 기준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목표 하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함.

- 핵심강사 및 지역강사 교육에 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였고, 보육과 유아교육 강사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달체계가 상이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 섭외나 시간 조정 등의 어려움으로 3,4세 누리과정 연수 이후에는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연수 진행함.

□ 보육·유아교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교사연수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알아봄.

〈표 23〉 누리과정 교사연수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모든 교육 부처가 각각 운영	두 부처가 강사교육 공동 진행하고, 교사교육만 부처별로 운영	두 부처가 교육만 공동 진행, 지역강사와 교사교육 등 부처별로 운영	두 부처가 모든 교육 (강사교육, 교사교육 등) 공동 운영	한 부처가 운영	계(수)
전체	7.5	23.4	12.9	55.2	1.0	100.0(201)
전공						
보육	7.9	23.8	12.9	54.5	1.0	100.0(101)
유아교육	7.0	23.0	13.0	56.0	1.0	10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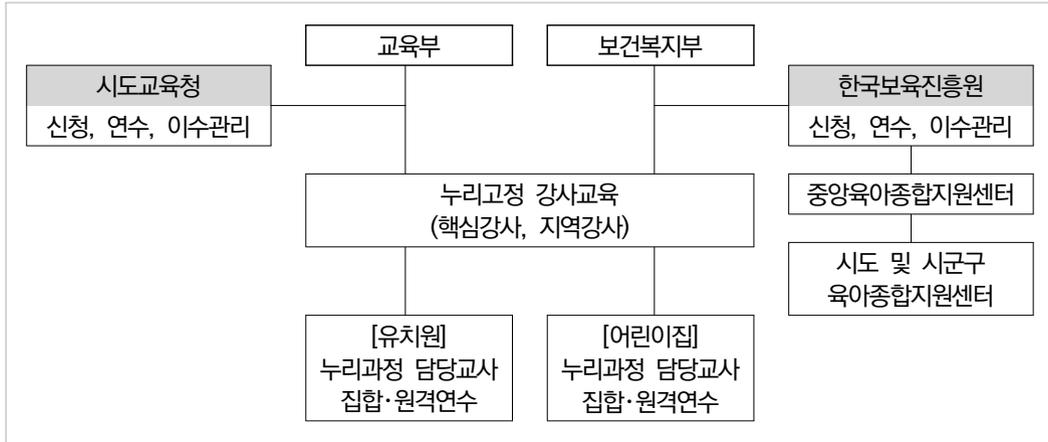
(표 23 계속)

구분	모든 교육 부처가 각각 운영	두 부처가 강사교육 공동 진행하고, 교사교육만 부처별로 운영	두 부처가 교육만 공동 진행, 지역강사와 교사교육 등 부처별로 운영	두 부처가 핵심강사 교육만 공동 진행, 지역강사와 교사교육 등 부처별로 운영	두 부처가 모든 교육 (강사교육, 교사교육 등) 공동 운영	한 부처가 운영	계(수)
분야							
학계	6.2	24.1	13.0	56.2	0.6	100.0(162)	
현장.공무원	12.8	20.5	12.8	51.3	2.6	100.0(39)	

-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5.2%는 두 부처가 강사교육이나 교사교육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23.4%는 강사교육은 두 부처가 공동 진행하고 교사교육만 부처별로 운영, 12.9%는 두 부처가 핵심강사 교육만 공동 진행하고 지역강사와 교사교육 등은 부처별로 운영, 7.5% 정도는 모든 교육 부처별로 각각 운영해야 한다고 답함.

3. 개선방안

- 누리과정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위하여 핵심강사와 지역강사 교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진행함.
 - 2012년 5세 누리과정 교사 연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나 전달체계가 상이하고, 연수 진행의 어려움으로 3-5세 누리과정 연수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함.
 - 누리과정 교사연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강사와 지역강사 교육은 교육 내용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담당교사 연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여건에 맞게 별도 운영하도록 함.
 -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교육의 경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였다가 2013년 말부터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나, 전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각 지역에서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연수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음.



[그림 1] 3-5세 누리과정 교사연수 전달체계(안)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운영 체계를 개선함.

-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는 교사가 누리과정 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과 같음.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교사가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연수를 내실화함.
- 현행 집합연수 교육시간, 즉 8시간으로 총론, 5개 영역 이해와 실제, 혼합연령 학급운영,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도서(프로그램 활용)를 숙지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교육시간을 16시간으로 연장함.
- 원격연수도 5개 영역 지도 지침 및 유의점, 3~5세 연령별 학급 누리과정 운영의 실제, 혼합연령 학급 누리과정 운영의 실제, 실내·외 환경구성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15차시에서 20차시로 연장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교육진흥원 등 보육·유아교육 관련기관에서의 누리과정 연수를 활성화하여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교육기회를 다양화함.

- 집합·원격연수 외에도 교사의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적 특성, 담당유아 연령, 반 특성 등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고, 이러한 연수가 동일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사용 교수학습자료 개발, 강사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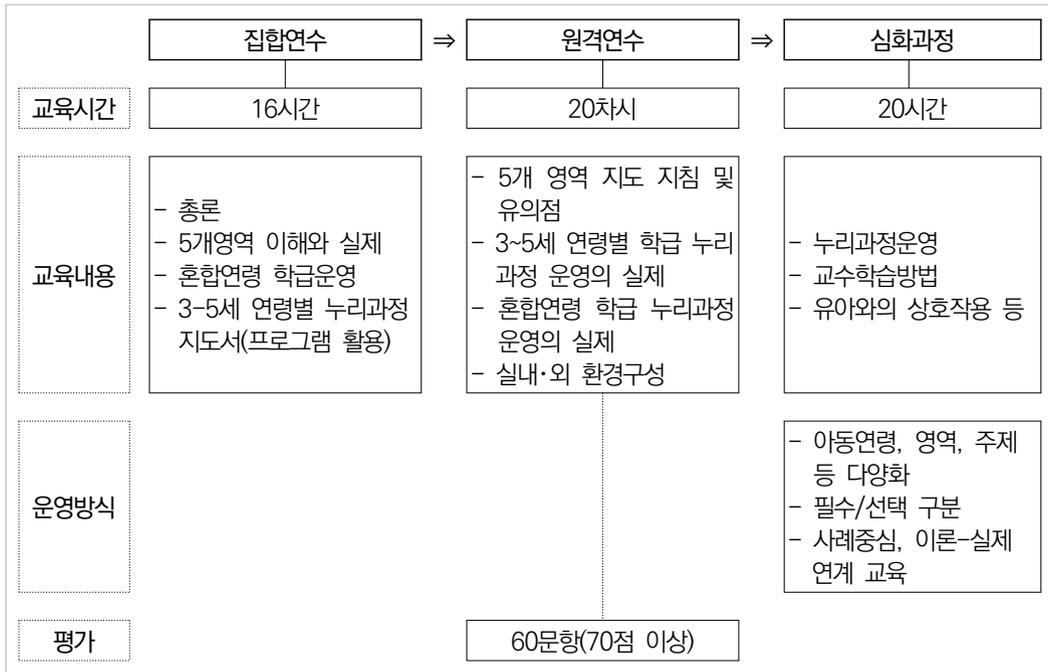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내외 컨설팅(장학) 및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함.
 -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컨설팅(장학) 및 멘토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유아 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컨설턴트 및 장학지도자, 멘토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함.
- 원격연수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함.
 - 원격연수가 집합연수와 함께 기초 연수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하여야 함.

〈표 24〉 원격연수 평가체계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문항 수	45문항	60문항1)
통과 점수	60점	70점2)

주: 1) 총론·각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각 영역에 10문항씩 배정함.
 2) 기준 점수 이하 영역이 1개 이상인 경우, 총점이 70점 이상이어도 통과하지 못함.

- 따라서 평가 문항수를 현행 45문항에서 총·각론,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6개 영역 각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늘리고, 통과 점수도 현행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함.
 - 단, 총점이 70점을 넘어도 1개 영역이 기준 점수(예: 70점)를 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
- 누리과정 심화과정 연수를 개발하여 운영함.



[그림 2]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체계(안)

- 종전 집합·원격연수에 더하여 심화과정 연수를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림 2]와 같이 교육시간은 20시간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누리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유아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방법은 아동연령, 영역, 주제별로 다양화하고, 필수/선택으로 구분하여 교사의 선택 기회를 보장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정희(2011). 유치원교사 직무수행의 지원 경로 및 지원 요구에 대한 분석. 유아교육연구, 31(5), 203~224.

양미선·이규림·윤지연(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관련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 및 지원방안

양미선

1. 서론
2.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 및 요구
3. 지원 방안

요약

- 누리과정 교수학습자료의 이용 실태 및 문제점,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함.
- 어린이집 교사 1,040명과 유치원 교사 1,058명,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교육 전문직)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개정함.
- 자료의 충분성 개선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 시 주제별 활동을 최대한 제시하고, 제시하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안내함.
- 자료의 최신성은 현재 DVD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진, 그림, PPT, 동영상, 플래시, 음원 등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제공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유아 단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전격 시행하였고, 2013년에는 3, 4세로 확대함.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정책인 동시에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기관을 다니더라도 누구나 동일한 양질의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본고는 양미선, 이규립, 윤지연(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임.



- 정부는 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누리과정에 근거한 보육·교육활동의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해설서를 비롯한 교사용 지침서, 3-5세 연령별 교사용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함.
- 그러나 5세 누리과정과 3-4세 누리과정 모두 제정기간이 종전의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보다 짧음.
 - 3~5세 연령별 해설서(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에서는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누리과정의 내용과 운영 방법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누리과정 실행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자료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누리과정 교수학습자료의 이용 실태 및 문제점,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누리과정 교수학습자료 이용 현황, 문제점 및 요구 등을 파악함.
 - 누리과정 교수학습자료를 내실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어린이집 교사 1,040명과 유치원 교사 1,058명,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 및 현장전문가, 시도 및 시군구(교육 전문직) 공무원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실시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교사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 실시

2. 교수학습자료 이용 실태 및 요구

가. 정부 개발·보급 누리과정 자료

- 정부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함.

- 누리과정이 처음 시행된 2012년에는 ‘5세 누리과정 해설서’와 ‘5세 누리과정 지침서’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개발 보급함.
- 그러나 누리과정이 연령에 적합한 활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은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유치원은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별도 개발하여 보급함.
- 2013년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를 비롯한 지침서, 지도서(프로그램)를 공동으로 개발 보급함.

〈표 1〉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관련 자료

구분		내용	
5세 누리과정	공통	-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5세 누리과정 지침서
	개별	- 유치원: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혼합연령학급 운영 매뉴얼 - 어린이집: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5세 누리과정 연령연계 어린이집 프로그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공통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침서
	개별	- 유치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 어린이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 혼합연령(복식)학급 교사용 지도서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도서와 3-5세 연령별 어린이집 프로그램, 혼합연령(복식)학급 교사용 지도서 등에 제시된 활동 형태와 부록에 첨부된 DVD에 수록된 활동자료 유형을 분석함.
- 유치원에 보급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3~5세용 모두 대소집단 활동, 자유선택활동, 바깥놀이 순으로 활동이 많고, 5세는 대소집단 활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DVD에 수록된 활동자료는 사진, 그림, PPT, 동영상, 플래시, 음원 등으로 그림이 다른 자료에 비해 많고, PPT는 4, 5세용 지도서에 많음.
- 3-5세 연령별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치원보다 3, 4세 주제가 각각 4개씩 더 많음. 활동유형은 유치원과 달리 자유선택활동이 대소집단 활동보다 많음.
 - 이는 어린이집이 종일보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임. 활동자료는 그림, 사진이 다수이



며, 이 외에 PPT, 동영상, 음원, 플래시 등이 있음.

〈표 2〉 누리과정 지도서 활동유형 및 활동자료 형태

단위: 개

구분	주제수	활동유형				활동자료 형태						
		계	대소 집단	자유 선택	바깥 놀이	계	사진	그림	PPT	동영상	플래시	음원
유치원												
3세	10	676	317	297	62	589	132	205	84	51	61	56
4세	11	744	364	337	43	762	163	264	126	67	88	54
5세	11	695	359	289	47	745	139	223	152	82	98	51
혼합복식반	5	59	40	17	2	55	2	21	3	4	23	2
어린이집												
3세	14	892	380	427	85	649	141	243	89	51	61	64
4세	15	958	427	466	65	839	172	312	135	68	88	64
5세	12	1,054	299	650	105	729	229	340	31	40	-	8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교육부·보건복지부(2013). 3-4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3-4세 연령별 어린이집 프로그램.

교육부(2013). 혼합연령 (복식)학급 교사용 지도서.

나. 보육·교육활동 프로그램

□ 이 외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사의 교육·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개발된 자료는 다문화,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과 건강, 안전 등의 교육자료로 신체운동과 사회관계 영역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음(부록 참조).

□ 교육부는 2004년 이후 신체운동·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각 영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 영역별로 분류하면, 사회관계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반해 의사소통 영역이 부족하고, 예술경험 영역은 미술활동에 편중되어 음악이나 신체표현 등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다. 누리과정 교재

1) 기관 보유 자료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개발 보급한 누리과정 관련 자료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3〉 누리과정 관련 자료 보유 현황

단위: %(명)

구분	5세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5세 수정 보완서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없음	(수)
	해설서	지침서	해설서	지침서	3세	4세	5세	혼합 학급		3세	4세	5세		
어린이집	62.1	63.2	70.5	79.7	16.1	15.8	11.3	10.7	8.1	66.1	64.8	62.0	0.9	(1,040)
국공립	64.0	69.1	53.5	65.4	9.0	9.1	12.2	24.7	9.5	73.3	70.0	55.3	0.8	(243)
사회복지법인	59.6	62.2	80.1	92.0	9.8	9.7	9.6	4.2	11.0	69.2	70.2	69.4	1.6	(146)
법인단체	56.7	59.5	75.9	86.2	6.0	5.1	6.8	5.2	6.6	58.0	59.5	59.5	-	(77)
민간	62.3	61.0	73.4	81.6	23.5	23.0	9.8	4.6	4.8	62.9	62.0	64.6	1.0	(428)
가정	33.3	31.4	73.4	86.7	11.5	11.5	10.5	10.5	8.4	47.8	47.8	45.5	4.0	(45)
직장	71.9	69.2	89.5	87.2	24.6	24.4	25.5	13.9	17.7	67.8	63.8	65.0	-	(79)
부모협동	70.6	70.6	78.0	77.1	13.2	13.2	16.1	15.5	10.8	47.2	46.0	51.3	-	(22)
유치원	68.0	69.3	78.9	83.8	77.2	77.6	77.9	53.0	49.1	3.8	3.6	3.6	0.6	(1,058)
국공립	88.7	88.9	91.7	91.0	91.1	90.4	93.3	77.7	73.9	3.6	3.2	3.5	0.6	(450)
사립	62.6	64.1	75.6	81.9	73.6	74.3	73.9	46.5	42.6	3.8	3.7	3.7	0.6	(608)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어린이집 60~80%가 5세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 유치원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도 10~16% 정도임.

- 기관유형별로도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냄. 특히 가정은 5세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자료가 아예 없다는 비율도 4% 정도로 전체 비율보다 월등히 높음. 또한 민간과 직장은 주로 유치원에 보급하는 교사용 지도서, 국공립은 혼합학급 지도서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유치원도 5세 누리과정 해설서와 지침서 보유비율이 70% 내외로 높고, 3-5세 연령별 교사용 지도서도 70%를 상회함. 단, 혼합학급 지도서는 53%로 낮음.
- 공립이 사립에 비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

2) 교재교구 활용 및 도움정도

- 교사들이 보육·교육계획안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 1,2순위를 합산하면, 정부가 개발 보급한 자료보다는 민간이 개발하여 운영하는 유아교육 사이트를 가장 많이 참고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유치원 교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음. 1,2순위를 합산하면, 교사용 지도서가 70.1%로 대다수 교사들이 참고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유아교육 사이트 54.7%, 교사용 지침서 35.8% 순임.
- 어린이집 교사보다 민간이 개발한 교재교구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표 4〉 보육·교육계획안 작성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 1+2순위

단위: %(명)

구분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	교사용 지도서	어린이집 프로그램	교육부 개발교육 프로그램	유아 잡지	유아 교육 사이트	교육보육 계획안 교재교구 패키지 상품	교수 활동 자료집	참고하는 자료 없음	계(수)
어린이집											
1순위	10.0	17.1	13.9	22.1	0.4	12.0	14.1	6.8	2.4	1.3	100.0(1,040)
2순위	3.2	8.7	12.9	12.0	1.0	11.2	31.5	8.8	10.6	-	100.0(966)
1+2순위	13.2	25.8	26.8	34.1	1.4	23.2	45.6	15.6	13.0	1.3	(1,040)
유치원											
1순위	6.6	19.0	51.6	1.0	1.5	2.1	14.7	1.2	0.6	1.8	100.0(1,058)
2순위	4.6	16.8	18.5	0.1	8.4	3.8	40.0	2.1	5.7	-	100.0(1,000)
1+2순위	11.2	35.8	70.1	1.1	9.9	5.9	54.7	3.3	6.3	1.8	(1,058)

- 유아교육 사이트를 참고하는 원인을 분석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절반 이상이 교사의 과중한 업무, 역량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외에 유아교육 사이트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자료가 방대하며 최신 자료로 자주 업데이트 되는 등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앞서 살펴본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참고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봄.

- 어린이집 교사 중 87.9%는 유아 특성이나 활동목표에 맞게 응용하여 작성하고, 11.7%는 참고자료에 제시된 보육계획안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 기관유형에 따라서도 대부분 유아 특성이나 활동목표에 맞게 응용하여 보육계획안을 작성하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관련 자료에 제시된 내용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25.8%로 타 유형보다 높음.
- 유치원 교사도 어린이집 교사와 마찬가지로 유아 특성이나 활동목표에 맞게 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87.7%, 제시된 자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11.9%로 어린이집 교사와 유사함.
- 국공립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그대로 사용한다는 경우가 다소 높음.

〈표 5〉 보육·교육계획안 작성 시 참고 방식

단위: %(명)

구분	유아특성, 활동목표에 맞게 응용하여 작성	제시된 보육 계획안 그대로 활용	기타	계(수)	구분	유아특성 활동목표에 맞게 응용하여 작성	제시된 교육 계획안 그대로 활용	기타	계(수)
어린이집	87.9	11.7	0.4	100.0 (1,027)	유치원	87.7	11.9	0.4	100.0 (1,050)
국공립	91.0	8.3	0.7	100.0 (240)	국공립	85.2	14.3	0.5	100.0 (448)
사회복지법인	87.4	12.4	0.2	100.0 (146)	사립	88.4	11.3	0.3	100.0 (602)
법인단체	86.1	12.8	1.1	100.0 (77)					
민간	86.6	13.1	0.3	100.0 (421)					
가정	74.2	25.8	-	100.0 (45)					
직장	90.7	9.3	-	100.0 (78)					
부모협동	93.7	6.3	-	100.0 (20)					



□ 교사 면담에서 교사들은 교육·보육계획안 작성 시 40~50% 정도는 누리과정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응용하여 사용하며, 일부 교사들은 전체적인 구성은 누리과정대로 하고 구체적인 활동은 조금씩 바꾼다고도 답함.

- 또한 혼합반 교사는 전년도에 실행해 보고 유아들이 흥미를 가졌던 활동을 위주로 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한다고 답함.

라. 누리과정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관련 의견

□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9가지로 정리하여 동의정도를 알아봄.

〈표 6〉 어린이집 프로그램 및 교사용 지도서 관련 의견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5점 평균
어린이집							
동일 연령 내 수준차이 조정의 어려움	1.2	25.7	53.7	18.8	0.7	100.0(580)	2.9
연령별 내용수준의 부적절성	1.1	37.8	45.9	14.1	1.1	100.0(580)	2.8
주제별 내용구성, 활동자료의 편차 큼	0.8	30.6	50.6	15.6	2.4	100.0(580)	2.9
대집단 활동이 많음	1.8	39.0	43.9	14.6	0.7	100.0(580)	2.7
주제 및 영역별 활동 참신하지 않음	1.8	27.4	50.8	18.7	1.4	100.0(580)	2.9
주제 및 영역별 활동전개 획일적	1.0	29.0	53.7	15.5	0.8	100.0(580)	2.9
주제 전체에 필요한 활동 미제공	0.9	21.6	42.9	29.7	5.0	100.0(580)	3.2
활동전개에 필요한 활동재료 부족	1.0	19.9	44.9	28.3	5.9	100.0(580)	3.2
활동자료가 시대에 뒤떨어짐	1.6	27.7	35.1	32.1	3.6	100.0(580)	3.1
유치원							
동일 연령 내 수준차이 조정의 어려움	1.8	23.2	52.0	20.4	2.7	100.0(812)	3.0
연령별 내용수준의 부적절성	1.6	31.7	40.0	24.3	2.5	100.0(812)	2.9
주제별 내용구성, 활동자료의 편차 큼	1.0	24.4	42.1	27.2	5.4	100.0(812)	3.1
대집단 활동이 많음	2.8	27.9	48.6	19.3	1.5	100.0(812)	2.9
주제 및 영역별 활동 참신하지 않음	0.7	24.3	42.8	29.3	2.9	100.0(812)	3.1
주제 및 영역별 활동전개 획일적	0.6	23.6	47.9	25.1	2.8	100.0(812)	3.1
주제전체에 필요한 활동 미제공	1.4	15.7	32.8	36.6	13.5	100.0(812)	3.5
활동전개에 필요한 활동재료 부족	1.6	15.3	34.6	33.6	14.9	100.0(812)	3.4
활동자료가 시대에 뒤떨어짐	1.6	27.7	35.1	32.1	3.6	100.0(812)	3.1

- 어린이집 교사는 9가지 질문 중 활동자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의견에 가장 많은 35.7%가 동의하고, 주제 전체에 필요한 활동 미제공 34.7%, 활동전개에 필요한 활동재료 부족 34.2%, 주제 및 영역별 활동이 참신하지 않음 20.1%임.
 -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주제 전체에 필요한 활동 미제공과 활동 전개에 필요한 활동재료 부족이 각각 3.2점으로 높고, 활동 자료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도 3.1점으로 높은 편임. 나머지는 2.7~2.9점대에 고루 분포함.
- 한편,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보다 9가지 질문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음. 특히 주제 전체에 필요한 활동 미제공 50.1%, 활동전개에 필요한 활동재료 부족 48.5%, 활동자료가 시대에 뒤떨어짐 35.7%, 주제별 내용 구성이나 활동자료의 편차가 큼. 주제 및 영역별 활동이 참신하지 않다가 32.2%를 차지함.
 - 동의정도도 주제 전체에 필요한 활동 미제공이 5점 척도로 3.5점, 활동전개에 필요한 활동재료 부족이 3.4점으로 높음.

마. 누리과정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 정도 및 변화

- 정부는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누리과정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하여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고자료로 동영상 자료나 PPT 등을 추가 개발하여 DVD를 부록으로 제공함.
 -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교사들이 DVD를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어린이집 프로그램의 부록으로 제공하는 DVD 활용 정도와 보급에 따른 활용 변화에 대해 살펴봄.
 - 어린이집 교사는 자주 활용한다는 비율이 37.6%, 가끔 활용이 52.3%로 다수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10.1%는 전혀 활용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90% 이상이 DVD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민간어린이집 교사 중 44.3%는 자주 활용한다고 응답함.
 - 한편, 유치원 교사는 자주 활용한다는 응답이 49.1%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가끔 활용도 46.9%로 어린이집보다 많은 96%가 DVD를 활용하고 있었고, 활용하지 않는 교사는 4%로 소수이었음.



- 국공립이 사립유치원 교사보다 DVD를 활용한다는 비율이 더 높음 국공립유치원 교사 70.7%는 자주 활용한다고 답함.

□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어린이집 프로그램 부록으로 제공한 DVD를 활용하는 교사들에게 DVD를 보급하기 이전보다 활용도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함.

□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이전보다 조금 증가가 64.3%, 많이 증가가 18.3%로 82.6%가 이전보다 DVD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음.

- 기관별로 보면, 국공립이 79.5%로 가장 낮고 나머지는 80~90%로 높음. 특히 가정 28%는 보급 전보다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고 함.

〈표 7〉 DVD 활용 정도 및 지원 후 활용 변화

단위: %(명)

구분	활용 정도				활용 변화			
	전혀 활용하지 않음	가끔 활용	자주 활용	계(수)	변화 없음	조금 증가	많이 증가	계(수)
어린이집	10.1	52.3	37.6	100.0(580)	17.4	64.3	18.3	100.0(515)
국공립	9.2	60.3	30.5	100.0(149)	20.5	60.4	19.1	100.0(133)
사회복지법인	4.7	65.7	29.6	100.0(71)	11.7	65.2	23.1	100.0(66)
법인단체	8.8	53.5	37.7	100.0(49)	10.5	67.5	22.0	100.0(46)
민간	11.3	44.4	44.3	100.0(222)	19.0	66.6	14.4	100.0(197)
가정	12.7	63.9	23.4	100.0(27)	13.8	58.1	28.0	100.0(22)
직장	11.4	50.4	38.2	100.0(50)	18.1	61.5	20.4	100.0(43)
부모협동	41.3	30.3	28.4	100.0(12)	5.3	52.6	42.0	100.0(8)
$X^2(df)$	-					-		
유치원	4.0	46.9	49.1	100.0(812)	15.6	52.6	31.9	100.0(788)
국공립	1.8	27.4	70.7	100.0(408)	15.2	47.2	37.7	100.0(402)
사립	4.8	54.1	41.1	100.0(404)	15.7	54.6	29.7	100.0(386)
$X^2(df)$		50.9(2)***				4.3(2)		

* $p < .05$, *** $p < .001$

□ 유치원 교사는 52.6%가 조금 증가하였고, 31.9%는 많이 증가하여 84.5% 정도가 이전보다 DVD 활용이 많아짐.

- 기관별로 보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84% 정도로 비슷하지만 국공립의 경우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비율이 37.7%로 사립보다 높음.

- 교사 면담에서도 DVD 활용이 이전보다 많아졌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음. 또한 교사들은 DVD 사용 시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지적함.
 - 예를 들어, DVD에 수록되어 있는 파일의 한글 목록이 없고, 제시된 PPT나 동영상 중 일부는 시대에 뒤떨어지며, 수록된 이미지만으로 교재교구 제작이 어렵고, 직접 제작하는 경우 견고성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음.
-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 지도서 외에 유아의 건강, 안전, 에너지, 제 발달영역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여 유치원 현장에 보급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교육부가 보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정도와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함.
 - 유치원 교사 중 과반수인 60.3%는 가끔 활용, 28.6%는 자주 활용하여 90% 정도는 교육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11.1%로 높음.
 - 국공립이 사립 유치원보다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특히 국공립은 자주 활용한다는 비율이 40.1%로 사립 25.5%보다 높음.
- 한편, 교육부 보급 교육프로그램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유치원 교사 11.1%에게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질문함.
 - 절반 정도인 50.7%가 누리과정 지도서만으로도 벅차다는 이유를 들었고, 21.1%는 유치원 프로그램과 맞지 않아서, 20.1%는 적용 방법을 몰라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음.
 - 국공립은 사립 교사보다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만으로 벅차다는 이유가 많았고, 사립은 국공립 교사보다 소속 기관의 프로그램과 잘 맞지 않거나 적용 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음.
 -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국가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8〉 교육부 보급 교육프로그램 활용정도 및 미활용 이유: 유치원

단위: %(명)

구분	교육부 교육프로그램 활용정도				교육부 교육프로그램 미활용 이유				
	전혀 활용하지 않음	가끔 활용하는 편	자주 활용하는 편	계(수)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만으로도 벅차서	본 기관의 프로그램과 맞지 않아서	적용방법 몰라서	기타	계(수)
유치원	11.1	60.3	28.6	100.0 (1,058)	50.7	21.1	20.1	8.1	100.0 (91)
국공립	6.4	53.4	40.1	100.0 (450)	65.8	-	7.2	27.0	100.0 (27)
사립	12.4	62.1	25.5	100.0 (608)	48.7	24.0	21.8	5.5	100.0 (64)
$X^2(df)$	20.6(2)***				-				

*** $p < .001$

바. 민간 자료 활용

- 보육·유아교육현장에서는 국가가 개발하여 보급한 교수학습자료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개발한 자료도 자주 활용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이 민간업체가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음.
- 어린이집 교사 중 44.6%는 별도의 수업 준비가 필요 없어서, 38.4%는 최신 자료 업데이트가 잘 돼서, 나머지는 10% 미만임.
 - 이는 기관유형별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다만,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보육계획안을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가 23.7%, 유아들이 좋아해서 21.4%로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높았고, 대신 별도 수업 준비가 필요없어서는 17.1%로 상대적으로 낮음.
-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와 다르게 최신 자료가 자주 업데이트 되어서가 40.8%, 별도 수업 준비가 필요 없어서 38.3%, 교육계획안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12.5%임.
 - 국공립은 별도 수업 준비가 필요 없어서라는 이유가 사립보다 높고, 사립은 최신 자료가 자주 업데이트 된다는 이유가 국공립보다 높음.
 - 특히 사립유치원은 교육계획안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13.8%로 높음.
- 이와 관련하여 교사면담에서 교사들은 민간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색상이나 재질 등 자

료들이 매력적이며 가정 연계 활동을 계획할 경우 부모들의 반응이 좋아서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 외에 유아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소재들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음.

〈표 9〉 민간업체 개발 자료 활용 이유

단위: %(명)

구분	교육보육계 획안 작성 어려워서	교육보육 계획안 작성 시간 없어서	별도 수업 준비가 필요없어서	최신자료 업데이트 잘 돼서	유아들이 좋아해서	기타	계(수)
어린이집	2.6	5.1	44.6	38.4	7.3	2.0	100.0(746)
국공립	2.3	4.7	33.1	55.9	2.0	2.0	100.0(177)
사회복지법인	2.1	5.2	35.9	35.0	20.2	1.7	100.0(113)
법인단체	3.2	1.5	45.5	45.5	-	4.2	100.0(55)
민간	2.6	5.2	58.2	25.3	7.3	1.4	100.0(304)
가정	1.8	23.7	17.1	31.9	21.4	4.1	100.0(34)
직장	4.5	2.3	35.0	50.6	3.5	4.1	100.0(51)
부모협동	4.1	4.1	30.2	61.7	-	-	100.0(12)
유치원	2.8	12.5	38.3	40.8	4.0	1.6	100.0(641)
국공립	0.7	6.6	49.5	34.3	3.9	5.1	100.0(239)
사립	3.2	13.8	35.9	42.3	4.0	0.8	100.0(402)

사. 교수학습 자료 관련 요구

- 교수학습 자료란 교사가 수업을 할 때 활용하거나 유아의 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의미함. 이러한 자료는 수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중요하게 고려됨.
- 정부가 보급한 자료 외에 교수학습 자료가 더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어린이집 교사 중 84.7%가 교수학습자료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이를 4점 척도로 환산하면 3점임.
 -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직장 어린이집 교사가 교재교구 지원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음. 담당반별로는 장애아반 3.4점을 제외한 나머지 반은 2.9~3.1점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유치원 교사도 89.0%가 교재교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 필요정도를 4



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1점임.

- 국공립이 4점 평균 3.2점, 사립이 3.1점으로 사립유치원 교사가 유의하게 높음. 필요하다는 비율은 국공립이 사립보다 다소 높음.

〈표 10〉 교수학습 자료 필요 정도 및 필요 영역

단위: %(명), 점

구분	교수학습 자료 필요 정도					필요 영역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매우 필요	계(수)	4점 평균	신체 운동, 건강	의사 소통	자연 탐구	예술 경험	사회 관계	계(수)
어린이집	2.2	13.0	67.1	17.6	100.0(1,040)	3.0	11.6	24.3	28.8	20.9	14.4	100.0(899)
기관유형												
국공립	2.2	7.8	70.1	19.9	100.0(243)	3.1	11.5	13.3	27.0	34.5	13.7	100.0(218)
사회복지법인	-	11.1	68.3	20.6	100.0(146)	3.1	12.5	9.8	45.7	19.8	12.1	100.0(133)
법인단체	-	22.2	52.8	25.0	100.0(77)	3.0	20.0	21.9	20.6	18.1	19.4	100.0(65)
민간	4.0	14.1	67.8	14.1	100.0(428)	2.9	8.9	38.9	24.9	13.8	13.6	100.0(363)
가정	-	32.6	61.6	5.8	100.0(45)	2.7	5.1	23.8	20.7	16.3	34.1	100.0(36)
직장	-	13.0	67.7	19.3	100.0(79)	3.1	18.3	21.1	31.1	12.2	17.2	100.0(70)
부모협동	-	26.6	58.2	15.2	100.0(22)	2.9	10.9	-	34.1	34.6	20.4	100.0(14)
$X^2(df)$			-			3.3**			-			
유치원	0.3	10.7	69.1	19.9	100.0(1,058)	3.1	14.0	16.3	31.5	22.8	15.4	100.0(960)
기관유형												
국공립	0.6	7.7	59.6	32.1	100.0(450)	3.2	15.4	11.6	40.4	21.9	10.6	100.0(416)
사립	0.2	11.5	71.6	16.7	100.0(608)	3.1	13.6	17.6	29.0	23.1	16.7	100.0(544)
$X^2(df)$			-			4.1***			14.9(4)**			

** $p < .01$, *** $p < .001$

□ 교수학습자료가 필요한 흥미영역을 조사한 결과,

□ 어린이집 교사는 과학 영역이 51.0%로 가장 많고, 수·조작과 언어 영역이 각각 10.5%, 역할놀이 9.0%, 나머지는 5% 내외 정도임.

- 기관유형별로도 과학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음.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은 음률과 역할놀이 영역이 각각 16.9%, 14.6%, 직장은 언어영역이 21.8%, 가정은 수·조작과 미술 영역이 각각 19.7%, 13.7%로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유치원 교사도 과학 영역의 교재교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3%로 높았음. 다

음으로 언어가 17.6%, 수·조작 15.8% 순임.

- 국공립은 과학과 음률영역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사립보다 높고, 나머지는 사립이 높음.

〈표 11〉 교재교구 지원이 필요한 흥미영역

단위: %(명)

구분	수·조작	과학	언어	음률	미술	역할놀이	쌓기놀이	잘모름/ 무응답	계(수)
어린이집	10.5	51.0	10.5	6.1	4.6	9.0	3.9	4.4	100.0(1,040)
국공립	10.6	59.8	8.6	5.4	4.3	4.6	1.1	5.6	100.0(243)
사회복지법인	11.0	39.9	6.8	16.9	5.5	14.6	1.6	3.6	100.0(146)
법인단체	16.4	46.7	7.6	6.0	2.6	11.0	5.8	4.0	100.0(77)
민간	9.4	51.5	12.1	2.1	4.2	10.3	6.7	3.8	100.0(428)
가정	19.7	56.4	3.3	0.6	13.7	2.4	-	3.9	100.0(45)
직장	5.2	45.5	21.8	11.6	4.6	6.0	2.2	3.0	100.0(79)
부모협동	19.1	18.9	3.6	15.0	8.0	11.9	-	23.6	100.0(22)
$X^2(df)$					-				
유치원	15.8	39.3	17.6	8.3	7.7	8.5	2.8	-	100.0(1,058)
국공립	7.3	52.2	14.1	9.9	5.0	8.3	3.1	-	100.0(450)
사립	18.0	35.9	18.5	7.9	8.4	8.6	2.8	-	100.0(608)
$X^2(df)$					30.0(6)***				

*** $p < .001$

□ 〈표 12〉는 교재교구 추가 지원이 필요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프로그램 주제를 나타냄. 12개 주제 중 건강과 안전이 16.6%, 세계 여러나라가 13.3%, 형님이 되어요와 동식물과 자연이 각각 12.7%, 10.7%, 나머지는 5% 내외로 소수임.

-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동식물과 자연 주제가 24.6%,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교사는 형님이 되어요와 관련된 교재교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2〉 누리과정 교재교구 지원 필요한 주제: 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어린이 집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 동네	동식물 과 자연	건강과 안전	생활 도구	교통 기관	우리 나라	세계 여러 나라	가을과 열매	겨울과 놀이	형님이 되어요	계(수)
어린이집	6.3	8.0	5.6	10.7	16.6	9.1	5.1	9.3	13.3	2.3	1.0	12.7	100.0 (1,040)
국공립	7.0	2.5	3.2	7.4	19.7	7.7	4.9	6.2	13.1	0.9	1.5	25.9	100.0 (243)
사회복지법인	3.8	0.6	16.4	7.9	16.7	11.3	5.7	13.2	15.8	0.5	0.7	7.5	100.0 (146)
법인단체	4.3	2.7	2.9	11.6	19.4	11.3	3.8	15.4	10.0	7.9	-	10.7	100.0 (77)
민간	7.4	16.4	4.2	12.4	14.0	8.8	4.2	8.2	14.1	2.8	1.3	6.3	100.0 (428)
가정	16.5	-	1.0	24.6	13.7	1.0	6.5	20.9	10.2	3.6	-	2.1	100.0 (45)
직장	1.7	1.5	5.3	11.2	17.8	12.4	10.9	10.6	7.1	2.7	-	18.7	100.0 (79)
부모협동	2.4	9.7	5.3	31.2	20.4	-	6.4	3.6	21.0	-	-	-	100.0 (22)

□ 유치원 교사의 경우, 봄·여름·가을·겨울과 환경과 생활이 각각 23.8%, 22.4%로 두 주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함. 다음으로 건강과 안전이 10.2%, 나머지는 10% 미만 정도임. 건강과 안전, 동식물과 자연과 관련된 교재교구 요구가 높은 어린이집 교사와 다소 차이를 보임.

□ 국공립이 사립에 비해 봄·여름·가을·겨울 관련 교재교구 요구가 10%p 이상 높고, 사립은 생활도구나 우리나라, 세계여러나라 등이 높음.

〈표 13〉 누리과정 교재교구 지원 필요한 주제: 유치원

단위: %(명)

구분	유치원 과 친구	나와 가족	우리 동네	동식물 과 자연	건강과 안전	생활 도구	교통 기관	우리 나라	세계 여러 나라	환경과 생활	봄여름 가을 겨울	계(수)
유치원	4.8	1.7	2.0	9.5	10.2	7.6	3.1	7.0	7.8	22.4	23.8	100.0(1,058)
국공립	3.4	1.3	2.7	8.0	9.2	3.0	1.5	4.6	4.8	22.6	38.8	100.0(450)
사립	5.2	1.9	1.8	9.9	10.4	8.8	3.6	7.7	8.5	22.3	19.8	100.0(608)
$X^2(df)$	44.8(10)***											

*** $p < .001$

□ 다음은 정부가 개발하여 보급한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 지도서, 어린이집 프로그램 등의 교수학습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보육·유아교육 관계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보육·유아교육 관계자 중 절반 정도인 56.7%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교수학습자료 추가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보육보다는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분야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음.

□ 교수학습자료의 추가 지원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 40.2%는 현재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꼽았고, 28.7%는 교재보다 교사의 활용능력이나 운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16.1%는 너무 많은 자료는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표 14〉 누리과정 자료 외 교수학습 자료 필요 여부 및 그 이유

단위: %(명)

구분	필요 여부		필요 없는 이유						
	필요	(수)	현재 제공되는 자료만으로 충분	많은 자료는 교육의 획일화 초래	많은 자료는 혼란 초래	교재보다 교사의 활용능력, 운영시스템 중요	기타	모름/무응답	(수)
전체	56.7	(201)	40.2	16.1	4.6	28.7	3.4	9.2	(87)
전공									
보육	49.5	(101)	43.1	7.8	5.9	31.4	-	15.7	(51)
유아교육	64.0	(100)	36.1	27.8	2.8	25.0	8.3	-	(36)
$X^2(df)$	4.3(1)*				-				
분야									
학계	56.8	(162)	42.9	20.0	4.3	24.3	4.3	7.1	(70)
현장.공무원	56.4	(39)	29.4	-	5.9	47.1	-	17.6	(17)
$X^2(df)$	-				-				

주: 필요 없는 이유는 중복응답 결과임.

* $p < .05$

□ 교수학습자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보육·유아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그 자료에 대해 추가 질문함.

- 46.5%가 교수자료를 지적하였고, 27.2%는 교구 및 수업도구, 14.9%는 사례집 및 사례 영상자료, 나머지는 3% 미만임.



〈표 15〉 교수학습자료 지원 자료

단위: %(명)

구분	사례집, 사례영상	교구,수업도구 (활용지침 포함)	유아평가 매뉴얼	교수 자료	자체 평가 및 자율장학 지침	기타	모름/무응답	(수)
전체	14.9	27.2	2.6	46.5	2.6	0.9	9.6	(114)
전공								
보육	14.0	26.0	4.0	42.0	4.0	-	18.0	(50)
유아교육	15.6	28.1	1.6	50.0	1.6	1.6	3.1	(64)
분야								
학계	15.2	32.6	2.2	46.7	3.3	1.1	4.3	(92)
현장:공무원	13.6	4.5	4.5	45.5	-	-	31.8	(22)

주: 중복응답 결과임.

3. 지원 방안

□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정

-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정 시에는 자료의 충분성 및 최신성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임.
- 자료의 충분성 개선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및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 시 주제별 활동을 최대한 제시하고, 제시하지 못한 활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안내함.
- 자료의 최신성은 현재 DVD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진, 그림, PPT, 동영상, 플래시, 음원 등을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제공함.

□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와 프로그램 부록으로 수록한 DVD의 올바른 활용방법 홍보

- 어린이집 교사 64.3%는 이전보다 조금 증가, 18.3%는 많이 증가하여 82.6%는 이전보다 DVD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유치원 교사도 52.6%가 조금 증가, 31.9%는 많이 증가하여 84.5% 정도가 이전보다 DVD 활용이 많아짐.
- 교사들이 무분별한 DVD 사용을 자제하고, 담당 유아의 연령, 주제, 교육 내용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방법에 홍보함.

□ 교육부가 보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정함.

- 유치원 교사 중 1.1%는 유치원 프로그램과 맞지 않아서, 20.1%는 적용 방법을 몰라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국가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자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제, 영역 등을 다양화하여 교수학습자료 개발하여 지원함.

- 추가적인 교수학습자료 지원에 대해 보육·유아교육 관계자 중 절반 정도인 56.7%가 필요하다고 답하여 의견이 분분함.
- 그 이유는 40.2%는 현재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꼽았고, 28.7%는 교재보다 교사의 활용능력이나 운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16.1%는 너무 많은 자료는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 중 84.7%, 유치원 교사 89.0%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누리과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교수학습자료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2).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2013). 혼합연령 (복식)학급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보건복지부(2013). 3-4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보건복지부(2013). 3-4세 연령별 어린이집 프로그램.

보건복지부(2012).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한 어린이집 프로그램.

양미선·이규림·윤지연(2014).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웹페이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부록

〈부표 1〉 보건복지부 개발 보육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발행연도
사회관계	누리과정 가정연계 어린이집 부모지원프로그램	2013
	장애아보육 운영 실제	2012
	다문화 보육의 이해와 적용	2011
	유아기 다문화 감수성 키우기	2010
	다문화가정 지원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행동지도, 지혜로운 부모의 육아기술, 어린이집 이용 안내	2011
신체운동·건강	영유아를 위한 예방접종 및 응급처치 교육	2011
	교사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자료	2011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 2014. 6. 21.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2014. 6. 23. 인출.

〈부표 2〉 교육부 개발 교육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발행연도
신체운동·건강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 재난대비·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2012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 보건교육 프로그램	2012
	유아를 위한 전자미디어 교육 활동자료	2007
	가족과 함께하는 유아체력증진 프로그램	2006
	유아를 위한 성교육 활동자료	2006
	유치원 급식·간식 식단 및 요리활동자료	2004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 통일교육 프로그램	2012
사회관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 근로정신함양교육 프로그램	2012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2011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경제·소비자교육 프로그램	2011
	유아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영상매체 활용프로그램	2010
	유치원 교육과정 심화 운영을 위한 유아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2009
	종일반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세계시민교육 활동자료	2008
	유아를 위한 세계이해 및 다문화교육 활동 자료	2007
	유아를 위한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활동자료	2007
	교사와 유아를 위한 유아사회교육 활동자료	2007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협동활동 프로그램	2006
	유아를 위한 역사교육 활동자료	2005
	유아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활동 지도자료	2004



(부표 2 계속)

영역	프로그램	발행연도
예술경험	유치원 교육과정 심화 운영을 위한 유아 전통예술교육	2009
	유아를 위한 명화감상 활동자료	2005
자연탐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	2012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	2011
	종일반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과학창의교육 활동자료	2008
	종일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과학창의교육 활동자료	2008
	종일반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에너지교육 활동자료	2008
	종일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 에너지 교육 활동자료	2008
	유아를 위한 수학교육 활동자료	2005
기타	유치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전문인력풀 활용자료	2008
	주 5일 근무에 따른 유치원 주말 프로그램	2004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2014. 6. 20. 인출.

유아 관찰을 통한 3~5세 누리과정 효과 분석 및 제언

이정림

1. 연구의 배경
2.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4.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5. 시사점
6. 정책 제언

요약

-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선 표집 하여 2014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유아의 성취 및 행동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음.
- 3~5세 모든 연령 모든 영역에서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변인은 유아의 성별과 가구소득이었음.
-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 속도 및 변화의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누리과정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음.
- 5세 유아들의 전체 점수가 3,4세 유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성장 속도 또한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4세 유아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에서 집단 내 전체적인 점수 상승은 있었으나 집단 내 개인 간 편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3세의 경우, 자연탐구 영역에서의 성장이 다른 연령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한편 예술경험 영역 점수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단계적인 성장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양질의 교육,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함.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을 조기에 평가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
 - 누리과정의 직접 수혜자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잘 적용되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 일반과제 연구보고서인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분석 연구를 토대로 구성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이정림·최효미·정주영·오유정·이정아, 2014)에서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작한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3~5세 누리과정 적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3~5세 누리과정을 경험하는 유아들의 발달 및 행동 결과를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하여 유아가 속한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기관유형, 교사변인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전국적으로 3~5세 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무선 표집하여 2014년 4월(사전조사)과 10월(사후조사) 2차례에 걸쳐 3,4,5세 담임교사를 통하여 평가하고자 하였음.
 - 사전 및 사후조사를 모두 완료한 기관, 교사, 유아 수는 다음과 같았음.

〈표 1〉 사전-사후조사를 모두 완료한 기관, 교사, 유아 수

구분	3세	4세	5세
유치원	396개소	420개소	547개소
어린이집	513개소	324개소	370개소
유아 수	1,029명	850명	1,056명

- 자료 분석 방법
 -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사전, 사후조사 결과를 분석함.
 - 패널 1차 차분 모형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량을 분석함.

2.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가.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1) 사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 교사의 경력,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이었음.

- 여아,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교사의 경력은 짧을수록,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상호작용 점수는 높을수록 유아의 전체 점수도 높았음.

〈표 2〉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전조사)

(N=1,229)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3675 ***	1.9948 ***	1.9430 ***	1.3925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972 ***	-0.1991 ***	-0.1976 ***	-0.1950 ***
	기관 경험기간	0.0010	0.0012	0.0019 *	0.0019 *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320 ***	0.1303 ***	0.1271 ***
	취업모 여부(취업=1)		-0.0252	-0.0239	-0.0169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320	0.0557
	사립 유치원			0.0601 *	0.0530 †
	국공립 어린이집			0.0000	0.001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519	-0.0471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1128 *	0.1017 †
	직장 어린이집			-0.0404	-0.0338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5 **
	교수효능감				0.0753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29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기관 경험기간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
- 기관 유형 변인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 점수는 민간 어린이집 대비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이 높았으며, 예술경험 영역 점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점수가 높았음.
- 교사 경력은 짧을수록 영역별 점수가 높았지만,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의사소통 영역 점수의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음.
- 교수효능감은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만 유의한 양의 효과가 포착되었음.
-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예술경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아의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전조사)

(N=1,229)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1.7295 ***	1.4837 ***	1.4445 ***	1.3197 ***	0.9858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367 ***	-0.2428 ***	-0.2142 ***	-0.2797 ***	-0.1017 ***
	기관 경험기간	0.0024 ***	0.0027 **	0.0018 *	0.0011	0.0013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871 ***	0.1806 ***	0.1269 ***	0.0812 ***	0.1603 ***
	취업모여부 (취업=1)	-0.0146	-0.0366	-0.0256	0.0138	-0.0214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149	0.0622	0.0589	0.1098 *	0.0315
	사립 유치원	0.0159	0.0501	0.0576 †	0.0886 *	0.0515
	국공립 어린이집	0.0023	0.0110	-0.0328	0.0387	-0.010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298	-0.0743	-0.0369	-0.0386	-0.0574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432	0.1292 *	0.0644	0.1623 *	0.1088 †
	직장 어린이집	-0.0183	-0.0314	-0.0677	0.0099	-0.0603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2	-0.0003	-0.0005 **	-0.0009 ***
교수효능감	0.0460	0.0445	0.0561	0.0992 *	0.1302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856 **	0.0652 †	0.0875 **	0.0612	0.0648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사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전조사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과 가구 소득, 교수효능감 이었음.

〈표 4〉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후조사)

(N=1,044)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6412 ***	2.3223 ***	2.2683 ***	1.7848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820 ***	-0.1851 ***	-0.1845 ***	-0.1785 ***
	기관 경험기간	-0.0005	-0.0006	0.0005	0.0005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171 ***	0.1119 ***	0.1084 ***
	취업모 여부(취업=1)		-0.0289	-0.0283	-0.0250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371	0.0553
	사립 유치원			0.0650 *	0.0587 †
	국공립 어린이집			-0.0096	-0.000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1015 *	-0.0997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503	0.0416
	직장 어린이집			-0.0545	-0.0434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4 *
	교수효능감				0.1167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140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민간 어린이집 대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아의 전체 점수가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유아 기관 경험 기간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더 이상 유의한 변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교사 경력은 짧을수록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 사회관계 영역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음.
- 교수효능감은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만 유의한 양의 효과가 포착되었음.
- 사전조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보인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사후조사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음.



〈표 5〉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사후조사)

(N=1,044)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2.1832 ***	1.9140 ***	1.6934 ***	1.7318 ***	1.3982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128 ***	-0.2032 ***	-0.1976 ***	-0.2898 ***	-0.0901 ***
	기관 경험기간	0.0009	0.0012	0.0003	-0.0003	0.0005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649 ***	0.1304 ***	0.1110 ***	0.0903 ***	0.1447 ***
	취업모여부 (취업=1)	-0.0358 *	-0.0349	-0.0436 †	0.0101	-0.0214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150	0.0497	0.0722	0.1134 †	0.0316
	사립 유치원	0.0114	0.0500	0.0763 *	0.0762 †	0.0826 *
	국공립 어린이집	0.0286	-0.0431	-0.0069	0.0242	-0.0027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682 †	-0.1208 *	-0.0874	-0.1174 †	-0.1023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488	0.0351	0.0304	0.0663	0.0293
	직장 어린이집	-0.0609	-0.0266	-0.0277	-0.0347	-0.0653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0	-0.0002	-0.0004 †	-0.0009 ***	-0.0006 **
	교수효능감	0.0681 *	0.0872 *	0.1207 **	0.1511 **	0.1564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177	0.0065	0.0326	-0.0069	0.0212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관한 패널 1차 차분 모형 분석 결과

□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 5세 유아의 전체 점수 변화에는 유아의 성별, 기관 유형, 교수효능감 점수 변화량,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은 사전조사에서 여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이던 남아들은 점수 증가폭이 커서, 사후조사에서는 여아 점수에 근접한 수준의 점수를 보였다.
- 기관 유형에 따른 유아들의 점수 증가폭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점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5세 차분모형)

(N=1,056)

영역		전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0620 ***	0.0598 ***	0.0699 ***	0.0490 *	0.0609 *	0.0684 **
	가구소득 D	0.0048	-0.0040	0.0161	-0.0046	-0.0061	0.0230
가구 특성	취업모여부 D (취업=1)	0.0203	0.0212	0.0095	0.0250	0.0401	0.0033
	국공립 유치원	0.2217 ***	0.1571 ***	0.1835 ***	0.2032 ***	0.2895 ***	0.2773 ***
기관 유형	사립 유치원	0.1972 ***	0.1290 ***	0.1550 ***	0.1828 ***	0.2525 ***	0.2693 ***
	국공립 어린이집	0.2048 ***	0.1523 ***	0.1083 **	0.1940 ***	0.3046 ***	0.2649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1482 ***	0.0916 **	0.1246 **	0.1135 **	0.2136 ***	0.2005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1360 **	0.1305 **	0.0846 †	0.1354 **	0.1673 *	0.1654 **
	직장 어린이집	0.1934 ***	0.0869 †	0.1794 **	0.2178 **	0.2230 *	0.2553 **
교수 특성	교수효능감 D	0.0521 *	0.0257	0.0468	0.0341	0.0694 †	0.0833 *
	교사-유아 상호작용 D	0.0705 **	0.0418 †	0.0419	0.0866 **	0.0948 *	0.0862 **

주: 1) 각각의 변수들 뒤에 D가 붙은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로, 변화량의 효과를 나타냄
2)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교수효능감과 유아들의 점수 증가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예술 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 점수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의 증가도 의사소통 영역 점수 변화량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점수 변화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나. 5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결과

- 유아 집단은 사전조사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평균 점수 이상과 미만인 아이들로 구분하여 5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이상인 유아 집단과 평균 미만인 유아 집단 모두, 모든 영역에서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사전조사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의 영역별 사후조사 점수는 대부분 3점 근처에 집중됨.
-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분석 결과
 - 5세 유아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는 예술경험 영역(3세>5세>4세) 및 자연탐구 영역(3세>4세>5세) 점수가 3,4세 유아에 비해 높지 않았음.
 - 사후조사에서는 예술경험 영역(5세>3세>4세)과 자연탐구 영역(3세>5세>4세)에서 점수 변화의 폭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음.

3.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가. 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1) 사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 교사의 경력,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이었음.
- 여아,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교사의 경력은 짧을수록,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높을수록 유아의 전체 점수도 높았음.
- 교사 및 교수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경험 기간과 취업모 여부는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효과가 관측되었으며, 민간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유치원은 1% 유의수준에서 음의 효과가 관측됨.

〈표 7〉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전조사)

(N=1,05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3143 ***	1.9548 ***	1.9789 ***	1.4269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936 ***	-0.1959 ***	-0.1991 ***	-0.1933 ***
	기관 경험기간	0.0017 *	0.0017 *	0.0016 †	0.0014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171 ***	0.1135 ***	0.1110 ***
	취업모 여부(취업=1)		0.0414 *	0.0379 †	0.0331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1094 **	-0.0633
	사립 유치원			0.0067	-0.0006
	국공립 어린이집			0.0118	0.028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147	0.012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115	-0.0173
	직장 어린이집			-0.0066	-0.0181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8 ***
	교수효능감				0.0834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17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점수

- 기관 경험 기간이 길수록 신체운동·건강 영역 점수가 높았음
- 취업모 여부는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 영역 점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표 8〉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전조사)

(N=1,050)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1.7546 ***	1.5483 ***	1.2846 ***	1.2788 ***	1.2751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430 ***	-0.2527 ***	-0.1724 ***	-0.2798 ***	-0.1182 ***
	기관 경험기간	0.0025 **	0.0009	0.0010	0.0009	0.0017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943 ***	0.1252 ***	0.1292 ***	0.0832 ***	0.1231 ***
	취업모여부 (취업=1)	0.0181	0.0122	0.0201	0.0729 **	0.0435 †



(표 8 계속)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624	-0.0615	-0.0728	-0.0552	-0.0666
	사립 유치원	-0.0275	-0.0006	-0.0128	0.0176	0.0198
	국공립 어린이집	-0.0130	0.0478	0.0096	0.0386	0.058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245	0.0199	0.0473	0.0160	0.003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530	0.0331	-0.0637	0.0178	-0.0234
	직장 어린이집	-0.0147	0.0266	-0.0942	0.0097	-0.0142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6 ***	-0.0009 ***	-0.0007 ***	-0.0008 ***
교수효능감		0.0306	0.0552	0.1049 **	0.1049 **	0.1188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08 *	0.0987 **	0.0782 *	0.0638 †	0.0479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사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전조사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취업모 여부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표 9〉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후조사)

		(N=850)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5268 ***	2.1323 ***	2.1433 ***	1.5074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756 ***	-0.1746 ***	-0.1720 ***	-0.1684 ***
	기관 경험기간	0.0008	0.0011	0.0011	0.0006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246 ***	0.1224 ***	0.1173 ***
	취업모 여부(취업=1)		0.0469 *	0.0456 †	0.0460 *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409	-0.0279
	사립 유치원			0.0009	-0.0093
	국공립 어린이집			-0.0250	-0.016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479	0.0572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792	-0.0886
	직장 어린이집			0.0391	0.0240

(표 9 계속)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5 **
	교수효능감				0.0956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796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영역별 점수

- 신체운동·건강 영역 점수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대비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점수가 낮았음.
- 민간 어린이집 대비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경우 의사소통 영역 점수와 자연탐구 영역 점수가 낮았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예술경험 영역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누리과정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4세 사후조사)

		(N=850)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상수		1.7890 ***	1.6343 ***	1.5669 ***	1.3121 ***	1.2434 ***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1284 ***	-0.2026 ***	-0.1560 ***	-0.2871 ***	-0.0683 *
	기관 경험기간	0.0012	-0.0003	0.0015	-0.0010	0.0015
가구 특성	가구소득	0.1047 ***	0.1377 ***	0.1173 ***	0.0978 ***	0.1288 ***
	취업모여부 (취업=1)	0.0318	0.0631 *	0.0327	0.0667 *	0.0345
기관 특성	국공립 유치원	-0.0586	0.0056	-0.0532	0.0024	-0.0356
	사립 유치원	-0.0635 *	-0.0104	-0.0253	0.0477	0.0068
	국공립 어린이집	-0.0388	-0.0005	-0.0362	-0.0154	0.009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081	0.0650	0.0341	0.1096 †	0.0868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790	-0.0129 †	-0.1153	-0.0909	-0.1419 †
	직장 어린이집	-0.0143	0.0328	-0.0794	0.1229	0.0593



(표 10 계속)

영역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4 *	-0.0006 *	-0.0005 *	-0.0004	-0.0007 **
	교수효능감	0.0939 **	0.0926 *	0.0647	0.0915 †	0.1334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421	0.0646	0.0931 *	0.1156 *	0.0827 †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관한 패널 1차 차분 모형 분석 결과

□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 5세 유아의 전체 점수 변화에는 5세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성별, 기관 유형, 교수효능감 점수 변화량,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나. 4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결과

□ 대부분의 유아는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

□ 의사소통 영역

- 사후조사에서 3점에 근접한 유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영역임

□ 예술경험 영역

- 다른 영역에 비해 사전조사에서 유아들 간 점수 격차가 큰 편이었음.
- 사후조사에서 유아별 발달 속도가 상이하고 단계적 성장을 하는 영역인 것으로 분석됨.

□ 자연탐구 영역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미만인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아지긴 했으나, 사후조사에서도 여전히 2점 내외인 유아가 다수 있었음.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자연탐구 영역 점수는 3점에 근접한 유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자연탐구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유아의 성장 발달 정도에 따라 더딘 성장을 보이는 영역임을 암시함.

4.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분석

가. 3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1) 사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유아관찰척도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성별, 기관 경험 기간, 가구특성 중 가구소득, 교사의 경력 등이었음
- 5세, 4세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효과를 보인 교수효능감 점수와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는 3세의 사전조사 전체 점수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음.
- 기관 경험 기간의 경우에도 4세, 5세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만 부분적으로 유의하던 효과가 3세의 경우에는 사후조사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세 유아의 경우 처음 기관 경험 유아가 상대적으로 많아, 기관 적응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음.

〈표 11〉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3세 사전조사)

		(N=1,258)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2647 ***	1.9926 ***	2.0122 ***	1.7307 ***
유아 특성	성별(성별=1)	-0.1619 ***	-0.1567 ***	-0.1568 ***	-0.1569 ***
	기관 경험기간	0.0045 ***	0.0046 ***	0.0040 ***	0.0039 ***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913 ***	0.0925 ***	0.0891 ***
	취업모 여부(취업=1)		0.0017	0.0044	0.0064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1169 **	-0.0800 †
	사립 유치원			-0.0253	-0.0304
	국공립 어린이집			0.0012	-0.000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291	0.0304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096	-0.0139
	직장 어린이집			-0.0194	-0.0354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5 **
	교수효능감				0.0433
	교사-유아 상호작용				0.0391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2) 사후조사 OLS 회귀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에서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전조사와 달리 교수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민간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사전조사 전체 점수에서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었던 반면, 사후조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짐.
- 영역별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 점수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사회관계 영역 점수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 대비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3세 유아의 경우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가 사전조사뿐 아니라 사후조사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누리과정 전체 점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3세 사후조사)

(N=1,029)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2.4930 ***	2.2070 ***	2.2189 ***	1.8579 ***
유아 특성	성별(남아=1)	-0.1807 ***	-0.1796 ***	-0.1784 ***	-0.1752 ***
	기관 경험기간	0.0027 **	0.0028 **	0.0023 *	0.0022 *
가구 특성	가구소득		0.0954 ***	0.0980 ***	0.0957 ***
	취업모 여부(취업=1)		0.0006	-0.0008	0.0019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0.0635	-0.0439
	사립 유치원			-0.0243	-0.0266
	국공립 어린이집			0.0021	0.0003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0.0177	0.0247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0662	0.0707
	직장 어린이집			-0.0307	-0.0440
교사 및 교수 특성	경력				-0.0004 *
	교수효능감				0.0876 **
	교사-유아 상호작용				0.0127

주: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3)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관한 패널 1차 차분 모형 분석 결과

□ 사전-사후조사 점수 변화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

- 3세 유아의 전체 점수 변화에는 5세 및 4세와 마찬가지로 유아의 성별, 기관 유형, 교수효능감 점수 변화량,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 기관 유형

- 민간 어린이집 대비 다른 유형의 기관에 다니는 유아들의 점수 증가량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법인·단체등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의 점수 상승이 컸음.
- 이들 기관의 점수 상승폭이 큰 것은 예술경험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의 점수 증가가 큰 것에 기인하였음.

〈표 13〉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3세 차분모형)

(N=1,029)

영역		전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유아 특성	성별 (남아=1)	0.0609 ***	0.0702 ***	0.0709 **	0.0627 **	0.0266	0.0745 ***
	가구소득 D	0.0225	0.0207	-0.0084	0.0137	0.0349	0.0542 *
가구 특성	취업모여부 D (취업=1)	-0.0061	0.0111	-0.0155	-0.0048	-0.0003	-0.0248
	국공립 유치원	0.1976 ***	0.1936 ***	0.1809 ***	0.2227 ***	0.1821 ***	0.2097 ***
	사립 유치원	0.1674 ***	0.1548 ***	0.1427 ***	0.1529 ***	0.2043 ***	0.1830 ***
	국공립 어린이집	0.1662 ***	0.1343 ***	0.1384 ***	0.1748 ***	0.1892 ***	0.1936 ***
기관 유형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0.1682 ***	0.1662 ***	0.1662 ***	0.1428 ***	0.1857 ***	0.1773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0.2286 ***	0.1790 ***	0.2272 ***	0.2168 ***	0.2689 ***	0.2501 ***
	직장 어린이집	0.1515 ***	0.1303 **	0.1142 *	0.1251 *	0.2098 ***	0.1720 **



(표 13 계속)

	영역	전체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교수 특성	교수효능감 D	0.0396	0.0300	0.0072	0.0679 *	0.0349	0.0585 †
	교사-유아 상호작용 D	0.0404 †	0.0448 †	0.0451	0.0044	0.0577 *	0.0476

주: 1) 각각의 변수들 뒤에 D가 붙은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변수로 변화량의 효과를 나타냄

2) 기관유형은 민간어린이집 기준임

† $p < .1$, * $p < .05$, ** $p < .01$, *** $p < .001$.

□ 교사 변인

- 교수효능감과 교사-유아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이 유아관찰척도 점수 변화량에 미친 영향은 영역별로 상호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었음.
- 교수효능감 점수 변화량은 사회관계 영역과 자연탐구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었음.
- 교사-유아 상호작용 점수 변화량은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 점수에서 유의하였음.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미만인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아 지긴 했으나, 사후조사에서도 여전히 2점 내외인 유아가 다수 있었음.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 집단의 사후조사 자연탐구 영역 점수는 3점에 근접한 유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자연탐구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유아의 성장 발달 정도에 따라 더딘 성장을 보이는 영역임을 암시함.

나. 3세 영역×집단별 점수 분포 변화 분석 결과

- 5세, 4세와 마찬가지로 3세 유아들도 사전조사 점수에 비해 사후조사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었음.
- 전반적으로 집단 간 격차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음.
 - 3세 유아의 경우에는 사전조사 점수가 평균 이상이었던 유아들의 발달이 눈에 띄게 나타났음.

- 사전조사 전체 점수가 낮은 유아들의 경우에는 개인별 성장 속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5. 시사점

- 누리과정 효과 증진을 위한 연령별, 영역별에 따른 접근 필요
 - 연령에 따라 발달의 변화 속도 및 변화의 내용이 달랐음.
 - 연령별 발달 경향을 고려한 수업진행이 누리과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남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 및 배려 필요
 - 모든 연령, 영역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남.
 - 남아의 발달 속도와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 누리과정 취지인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원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 영유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영유아의 누리과정 학습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유아 개별 교육 및 학급 운영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
 - 유아 평정 결과로 개별 유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이 가능함.
 - 교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누리과정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용이함.
- 교사 연수 및 보수교육 등의 교사의 교수 지원 강화
 - 예술경험·자연탐구 영역은 젊고,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임.
 - 젊은 교사의 경우 교사 양성 기관에서 누리과정에 관한 학습을 실행할 가능성 있음.
 - 연수를 통하여 교수방법을 지원받으면 교수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
 - 연령과 경력이 높은 교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누리과정 효과 분석을 위한 종단자료 활용 가치
 - 동일한 코호트 내에서의 연령별 비교



- 다른 코호트에서의 연령별 비교
- 동일 연령에서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유형

6. 정책 제언

- 유아의 성별 및 가구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교수 제공
 - 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발달에서의 성차 및 가구소득을 고려한 적절한 교수 방법 등에 관한 학습 기회 제공
 - 저소득가정 유아 대상 교수 방법 제안
 - 교사는 가정과 긴밀한 연대를 가져야 함.
 - 해당 유아의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
 -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의 발달적 성취를 도울 수 있는 연계 활동을 제안 및 실행하도록 함.
- 교사의 관찰 능력 및 교수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 교육 제공
 - 유아에 대한 객관적 관찰 능력은 유아의 누리과정 성취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함.
 - 교사가 되기 위한 양성교육 과정에서부터 보수교육, 연수 등을 통하여 유아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능력이 학습되어야 하며 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유아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유아교육·보육 질제고
 - 유아 평가를 위한 방향을 정립해야 함.
 - 과도한 평가로 유아 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투입효과 평가가 가능해야 함.
 - 교사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통한 유아 관찰이 필요함.
 - 공급자 중심이 아닌 누리과정 대상 유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함.
 - 국가적 수준의 유아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제안함.
 - 유아 평가 자료의 체계적 수집,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유아 평가 체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이미화·정주영·엄지원·김희정·김명순·이경옥·이완정·이정옥·최일선·최혜영(2013). 3,4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최효미·정주영·오유정·이정아(2014). 「3-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를 활용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3~5세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현황과 강화 방안

김정숙, 장혜진

1. 취학 전·후 연계의 중요성
2.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요구
3.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 방안

요약

- 유아교육·보육과 초등학교의 문화나 운영방법이 매우 상이함으로 교육과정, 교사-유아 및 유아 간 상호작용, 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 유아 경험의 연속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누리과정의 이해정도가 낮았으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의 놀이와 자유선택활동의 실제적인 실행수준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초등학교에 비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음.
- 유치원·어린이집 5세 교사는 양육자(보호자),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교사로서의 교사 역할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의 교사-유아 및 유아 간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었음.
- 초등학교의 물리적 환경 중 화장실(변기), 책걸상 등의 시설·설비가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1학년 유아가 또래와 활동하고 놀이 할 수 있도록 교구와 놀잇감 및 공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수정 시 유아교육·보육, 초등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공동 참여’, ‘상호교육과정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교사대상별 연수 내용의 차별화’, ‘교육과정 해설서 및 지도서 공유·홍보방안 마련’, ‘초등학교에 놀이를 위한 비품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보조교사 지원’, ‘초등학교의 시설·설비 개선’, ‘생활기록부 이첩 의무화’, ‘1학년 수업시간의 융통적 운영’ 등의 정책을 제안함.

1. 취학 전·후 연계의 중요성

- 양질의 유아교육·보육을 위해서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과정은 무엇보다 필수적임.
 - 연계가 잘 이루어진 교육과정 내에서는 영유아의 경험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기관 간 원활한 전이를 도와줄 수 있음.



- 연계 측면에서 취학 전 교육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는 학문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왔지만 최근에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OECD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는 2014-15년 정책 아젠다 중 하나로 취학 전 유아와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포함시킴.
 - 유아가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인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나 지역사회를 통하여 유아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Britto, 2012; Unicef, 2012).
- 국내의 취학 전·후 연계는 유초 연계라는 주제로 문서상 교육과정의 계열성 분석이나 학기 초 적응을 위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누리과정은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개발되었으나 여전히 연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이 존재함.
 - 이는 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원만한 연계를 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 전 교육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간 유아의 경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데서 기인함.
- 국내에서도 취학 전 교육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문서상 연계를 벗어나 활동(수업)에 대한 철학, 교수·학습방법, 물리적 환경, 상호작용 등의 연계성 분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김창복·김민진, 2006; 윤은주, 2010).
 - 연계의 대상이 교육과정 자체만이 아니라 교육철학, 교수법, 교사의 발문형태, 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식되고 있어 연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
 - 교육과정 연계가 문서상의 연계를 벗어나 유아 경험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유아의 취학 전·후의 경험이 발달적으로 적합한지를 연계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보육과 초등학교의 문화나 운영방법이 매우 상이함으로 취학 전·후 연계를 위해 유아가 경험하는 내용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분석하는 것은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과정임.
- 취학 전·후 유아의 경험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지만 교육과정의 실행자가 교사라는 점에서 교사의 인식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음.

- 이에 본 연구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연계를 유아 경험의 연속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육과정, 교사-유아 및 유아 간 상호작용, 기관의 물리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 연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유아 경험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음.

2.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요구¹⁾

가. 교육과정

1)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 연계의 의미에 대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상호내용을 고려하는 교육과정 문서상의 연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54.6%, 초등학교에서 53.9%로 과반수이상으로 높았음.
-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정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편제 구성을 제외한 교육과정의 목표, 교과구성 체제, 교과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내외로 가장 많으며, 들어본 적만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30-40% 수준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낮음.

1) 연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제시 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의미이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조사 결과에서 함께 제시해야 할 경우 동일한 어휘로 통일하여 제시함)예. 유아·아동·학생→유아, 학급·반→학급, 교실·보육실→교실).



〈표 1〉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

단위: %(명)

영역	구분	전혀 모름	들어본 적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계	X ² (df)
편제 구성	유/어	8.0	33.6	50.0	8.4	100.0(700)	67.281 (3)***
	초등학교	14.3	49.0	31.4	5.3	100.0(700)	
교육과정의 목표	유/어	16.6	37.1	41.0	5.3	100.0(700)	121.031 (3)***
	초등학교	40.7	35.1	22.0	2.1	100.0(700)	
교과구성 체제	유/어	10.7	33.3	46.7	9.3	100.0(700)	324.024 (3)***
	초등학교	51.3	30.0	17.6	1.1	100.0(700)	
교과 내용	유/어	10.9	33.0	46.4	9.7	100.0(700)	401.842 (3)***
	초등학교	57.6	27.9	13.6	1.0	100.0(700)	
가르치는 방법	유/어	15.6	38.6	38.6	7.3	100.0(700)	97.520 (3)**
	초등학교	36.1	36.7	25.0	2.1	100.0(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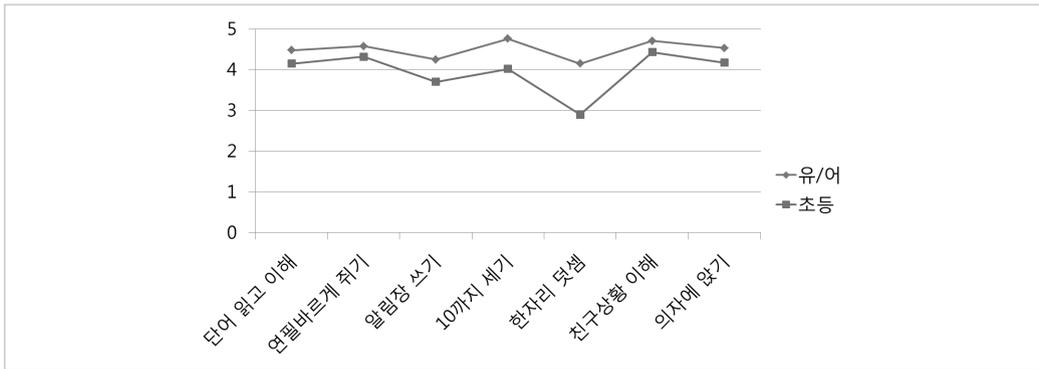
** $p < .01$, *** $p < .001$

□ 초등학교 입학 시 유아의 준비정도에 대해 의사소통, 수학, 일상생활 측면에서 각 2~3 문항을 추출하여 5세 교사와 초등 1학년 교사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5세 교사가 인식한 유아가 준비해야 하는 기대정도가 초등 1학년 교사보다 높음. 특히 수세기, 한 자리 덧셈의 문항에서 준비 정도를 인식하는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남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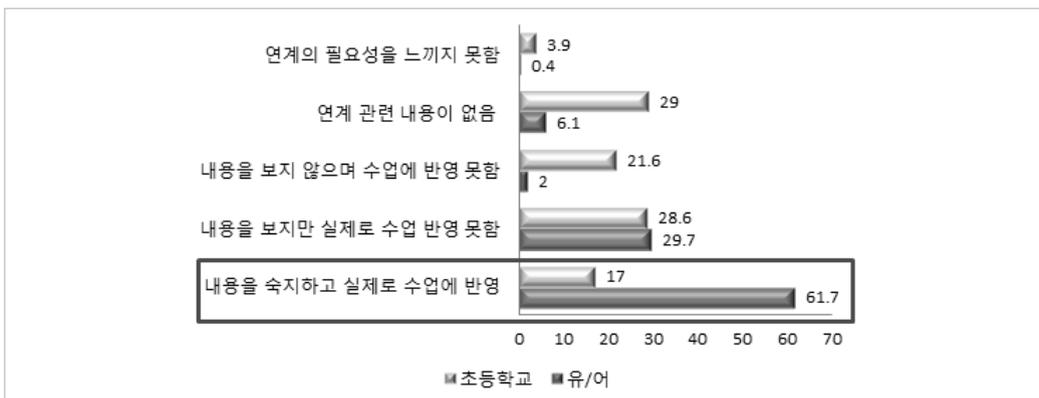
○ 초등학교에 입학 시 유아 학습에 초등 1학년 교사의 기대치가 높지 않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5세 교사가 생각하는 유아의 준비 수준이 적절한지를 재고려가 필요함.

2)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연계 관련 내용을 보고 반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5세 교사의 61.7%가 연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실제 수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29.7%는 실제 수업에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연계 관련 내용을 본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초등 1학년 교사의 경우 연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전체의 29.0%로 가장 많았으며 내용을 숙지하고 반영하는 경우는 17%에 지나지 않았음([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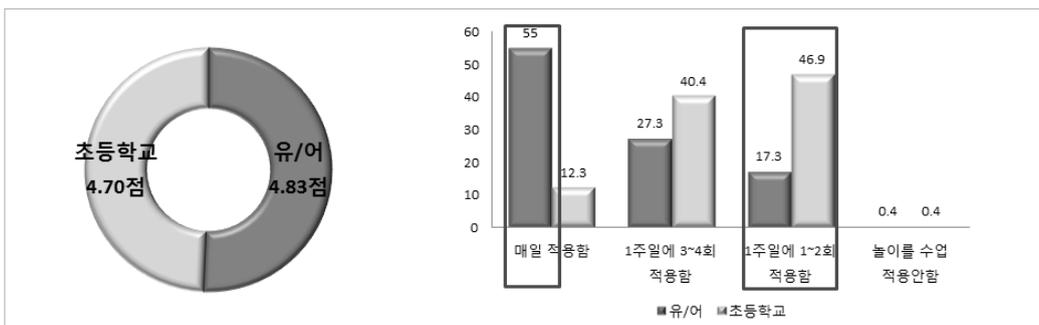


[그림 1] 초등학교 입학 시 유아의 준비정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비교



[그림 2] 수업 진행 시 상대교육과정의 연계 반영 정도

□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5세 교사와 초등 1학년 교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5세 교사는 수업에 놀이를 매일 적용한다는 응답이 55.0%, 초등 1학년 교사의 경우 1주일에 1-2회 적용한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아 대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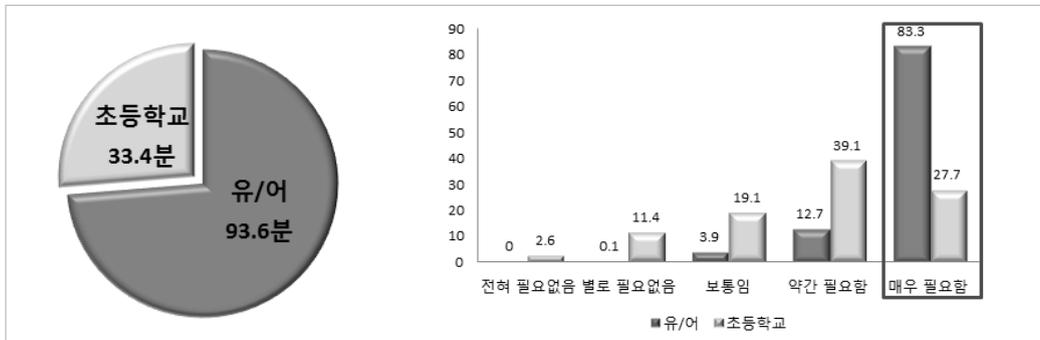


[그림 3] 놀이의 중요성 및 적용빈도



□ 흥미영역을 이용하여 유아가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자유선택활동에 대해 5세 교사의 경우 83.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초등 1학년 교사의 27.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임.

○ 실제 1일 평균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5세 반에서 93.6분, 초등 1학년 교실에서 33.4분으로 약 1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 자유선택활동의 필요성 및 1일 평균 시간

나. 교사-유아 및 유아 간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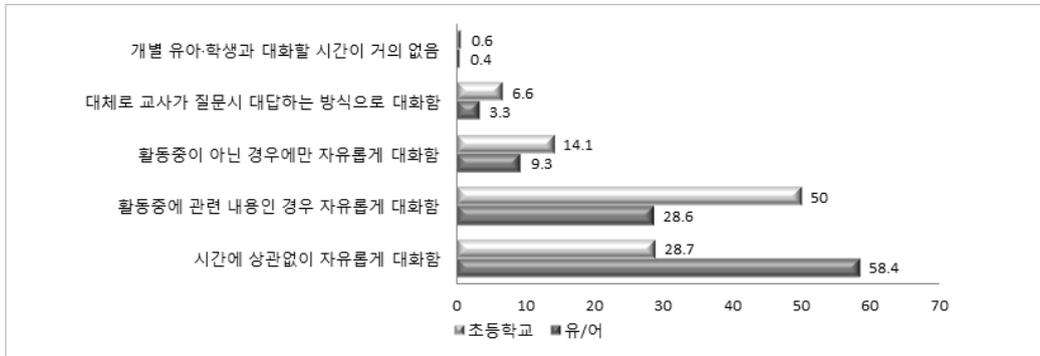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의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양육자(보호자)로서의 역할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순으로 높은 반면, 교수자로서의 역할은 초등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2> 유아와 상호작용 중 교사로서의 역할 정도

구분	단위: %(명)				계
	양육자(보호자) 평균(%)	교수자 평균(%)	안내자(격려자) 평균(%)	연구자 평균(%)	
전체	32.4	31.3	22.4	13.9	100.0(1,400)
유/어	35.9	27.5	21.8	14.8	100.0(700)
초등학교	28.8	35.0	23.1	13.1	100.0(700)
<i>t</i>	7.759**	-12.114***	-1.96	4.733***	
유치원(a)	33.6	27.9	23.3	15.2	100.0(440)
어린이집(b)	39.7	26.8	19.4	14.1	100.0(260)
초등학교(c)	28.8	35.0	23.1	13.1	100.0(700)
<i>F</i>	41.282***	74.063***	11.162***	11.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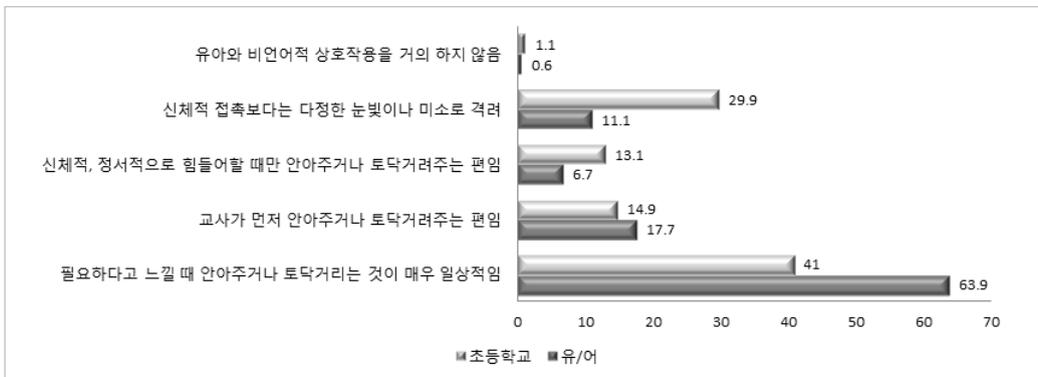
** $p < .01$, *** $p < .001$.

□ 교사-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5세 교사는 시간에 상관없이 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4%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수업(활동)중 이와 관련 내용인 경우 유아가 원할 때 자유롭게 대화함이 50%로 나타나 언어적 상호작용의 주제나 빈도 등이 다를 수 있음.



[그림 5] 교사와 유아 간 언어적 상호작용 모습

□ 교사와 유아 간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해 5세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 모두 안아 주거나 토닥거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일상적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림 6] 교사와 유아 간 비언어적 상호작용 모습

□ 5세 교사와 초등 1학년 교사 모두 대·소집단 활동 시 유아 간 상호작용이 빈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치원·어린이집에서는 82.3%, 초등학교에서는 51.1%로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



〈표 3〉 학급 내 유아 간 상호작용의 정도

단위: %(명)

구분	대집단/소집단 활동 시 모두 유아 간 상호작용이 빈번함	소집단활동 시 유아 간 상호 작용이 빈번함	거의 자유선택활동 시간 및 쉬는 시간에만 유아 간 상호작용이 일어남	교사가 주도할 때 유아 간 상호작용이 일어남	계	$X^2(df)$
전체	66.7	24.1	5.7	3.4	100.0(1,400)	
유/어	82.3	10.7	5.6	1.4	100.0(700)	171.834(3)***
초등학교	51.1	37.6	5.9	5.4	100.0(700)	
유치원	81.6	12.5	4.1	1.8	100.0(440)	
어린이집	83.5	7.7	8.1	0.8	100.0(260)	178.552(6)***
초등학교	51.1	37.6	5.9	5.4	100.0(700)	

*** $p < .001$

다. 물리적 환경

□ 5세 교사와 초등 1학년 교사에게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실 환경의 유아 발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5세 교사는 3.87점, 초등 1학년 교사는 3.44점으로 초등학교에서 보다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표 4〉 교실 전체 환경의 유아발달에 대한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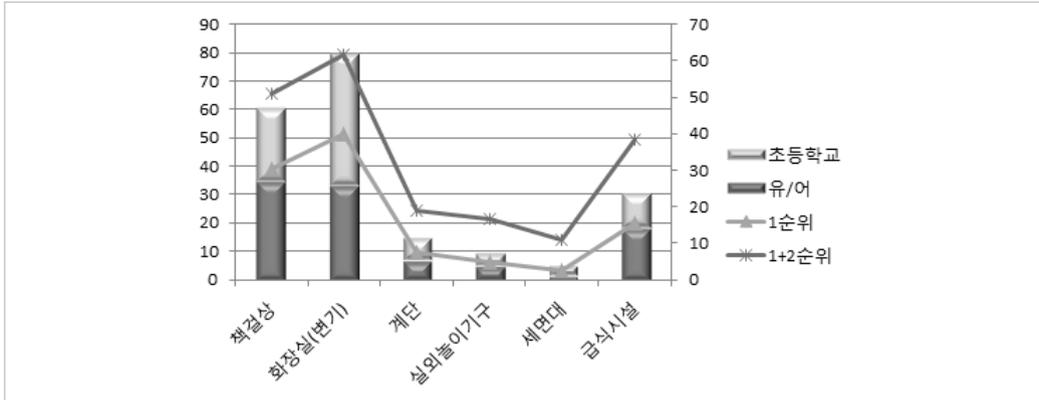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 절함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5점 평균	계	F/t
전체	1.6	8.8	30.5	40.4	18.7	3.66	100.0(1,400)	
유/어	1.0	3.3	26.0	47.1	22.6	3.87	100.0(700)	8.743***
초등학교	2.3	14.3	35.0	33.6	14.9	3.44	100.0(700)	
유치원(a)	1.1	3.0	25.0	46.8	24.1	3.90	100.0(440)	38.775*** c<b.a
어린이집(b)	0.8	3.8	27.7	47.7	20.0	3.82	100.0(260)	
초등학교(c)	2.3	14.3	35.0	33.6	14.9	3.44	100.0(7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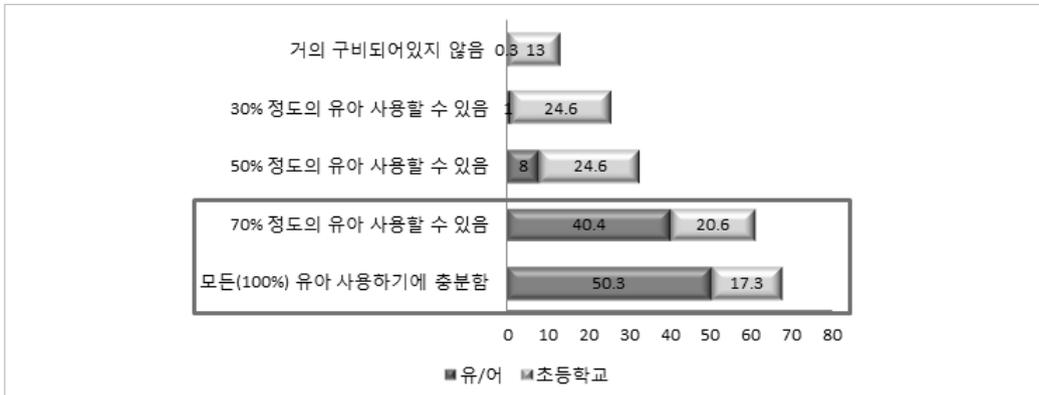
□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시 가장 어려워할 시설 1순위는 화장실(변기)이 약 40%로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책걸상(30.2%), 급식시설(15.4%), 계단(7.4%) 순으로 조사되었음.

-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도 화장실(변기) > 책걸상 > 급식시설 > 계단 순으로 동일한 경향성이 나타남.



[그림 7]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시 가장 어려워할 시설

- 교구나 놀잇감의 구비정도에 대해 70%이상의 유아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치원·어린이집은 90%, 초등 1학년은 40% 정도로 조사되었음.



[그림 8] 교구 및 놀잇감의 구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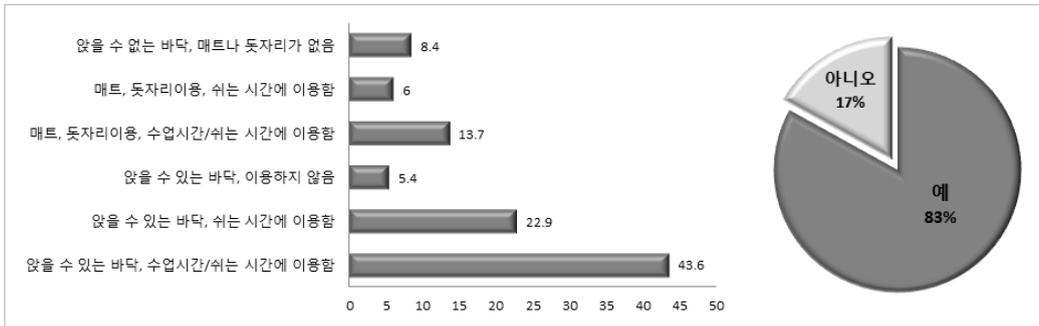
- 초등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유아가 교실 바닥에서 활동하는 시간대에 대해서 초등 1학년 교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앉을 수 있는 바닥이며 수업·쉬는 시간에 이용한다고 한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음.

- 앉을 수 있는 바닥이나 이용하지 않거나(5.4%) 앉을 수 없는 바닥, 매트, 돗자리가 없는 등(8.4%) 전체 초등학생의 약 14%는 바닥에 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가능성을 받



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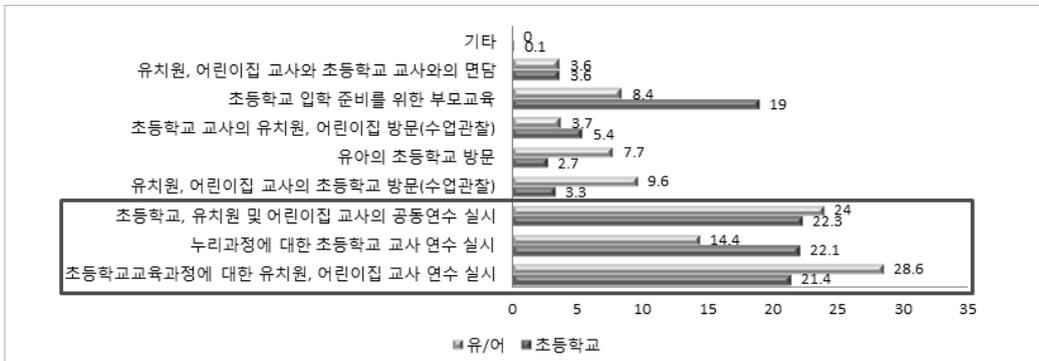
- 초등학교 교실 바닥에서 활동하는 장점에 대해 '쉬는 시간에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음'의 응답이 약 6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생의 또래 관계가 좋아짐'의 응답이 27.3%로 대부분을 차지함.
- 교실매트를 구비할 조건이 될 경우 사용여부에 대해 초등 1학년 교사는 전체적으로 '예' 83.1%, '아니요' 16.9%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음.



[그림 9] 초등 1학년 교실에서 바닥이용 모습 및 매트 사용 의사

라. 연계를 위한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초등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연수'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공동연수 실시'를 원하였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연수'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공동연수,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를 원함.



[그림 10]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 유초연계 지원을 위해 부모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라는 응답이 약 49%로 가장 높게 조사됨.

○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생활의 차이 인식’,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지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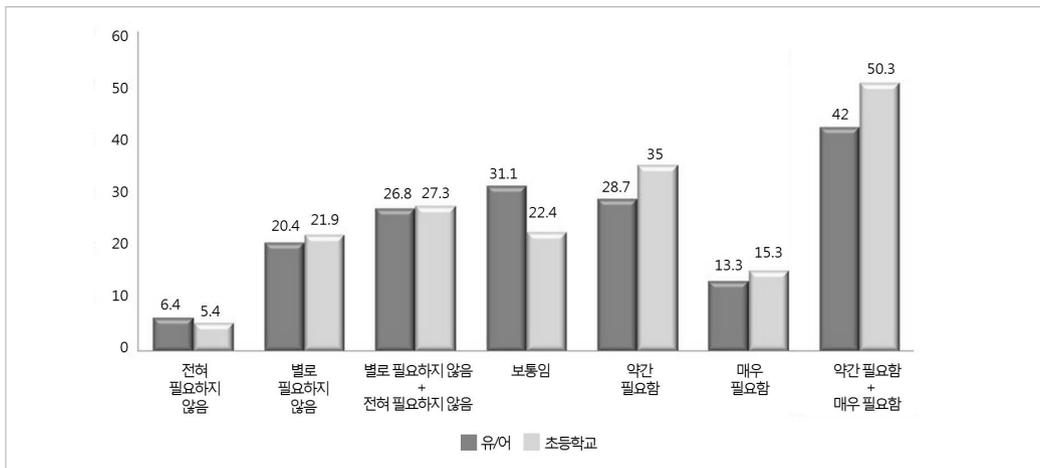
〈표 5〉 유초연계 지원을 위해 부모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생활의 차이 인식	유아의 기초학습 지원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 지도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	기타	계	$X^2(df)$
전체	37.3	5.6	48.8	8.3	0.1	100.0(1,400)	
유/어	44.6	6.6	36.6	12.1	0.1	100.0(700)	91.394(4)***
초등학교	30.0	4.6	61.0	4.4	0.0	100.0(700)	
유치원	43.4	7.0	37.0	12.5	0.0	100.0(440)	
어린이집	46.5	5.8	35.8	11.5	0.4	100.0(260)	95.923(8)***
초등학교	30.0	4.6	61.0	4.4	0.0	100.0(700)	

*** $p < .001$.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내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5세 교사는 42%,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50.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초등 1학년 교사가 5세 교사에 비해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1〕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생활기록부 의무적 이첩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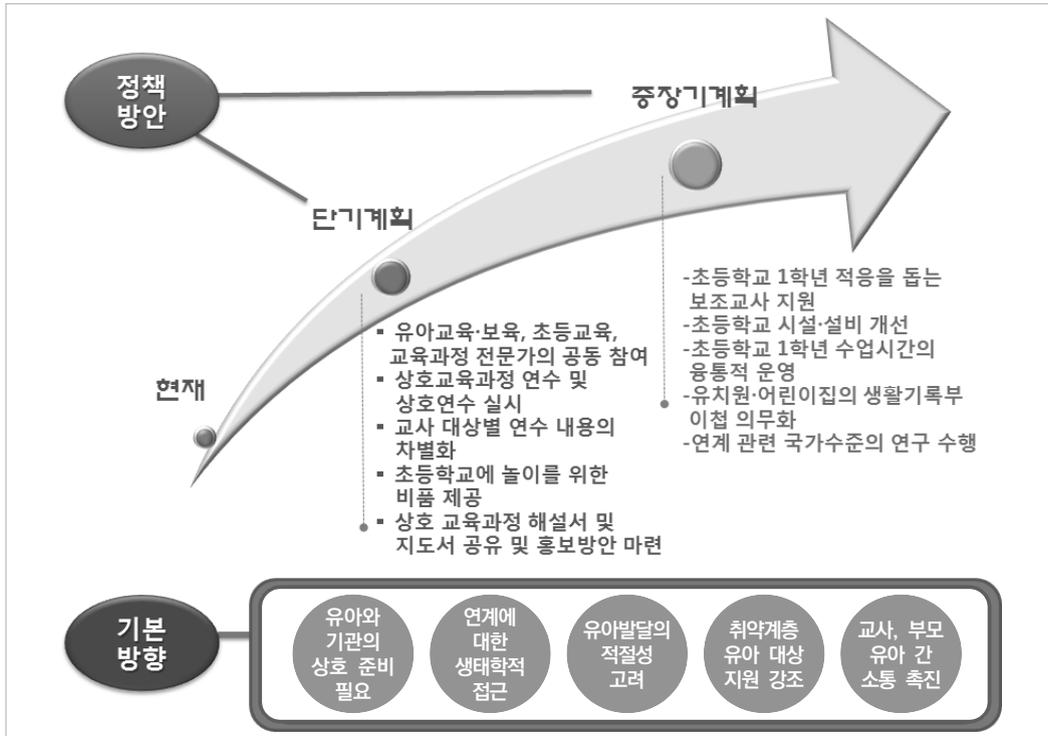


3.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 방안

□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단기, 중·장기 정책방안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12]와 같음.

가. 기본방향

□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기본 방향은 ‘유아와 기관의 상호 준비 필요’, ‘연계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유아 발달의 적절성 고려’, ‘취약계층 유아 대상 지원 강조’, ‘교사, 부모, 유아 간 소통 촉진’임.



[그림 12]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방안

나. 단기 정책방안

1) 유아교육·보육, 초등교육, 교육과정 전문가의 공동 참여

- 유아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수정 시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초등교육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 개발 시기 또한 동일하게 맞춰진다면 취학 전·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임.
- 초등학교교육과정 개발에도 유아교육·보육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1, 2학년의 활동 및 놀이를 활성화하고 유아의 발달과 필요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2) 상호교육과정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는 상호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방법을 알아야 함.
- 문서상 교육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교사가 수업을 상호 관찰하고 유아를 어떻게 가르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사 연수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연수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연수를 해주는 상호 연수를 실시함.

3) 교사대상별 연수 내용의 차별화

- 유치원·어린이집 5세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 간에는 유아발달에 대한 지식이나 유아에 대한 접근 방식, 놀이에 대한 신념 등의 측면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음.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학업적 측면보다는 기본생활습관이나 사회정서 관련 내용, 초등학교 교사는 유아 및 유아기에 대한 이해 관련 내용으로 연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유아가 초등학교 입학 초기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수가 필요할 것임.

4) 상호 교육과정 해설서 및 지도서 공유 및 홍보방안 마련

- 유치원, 어린이집 5세 교사와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상호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음.



- 상호 교육과정 해설서 및 지도서 공유를 위해 교육부나 관련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해설서, 지도서가 파일형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가 필요함.

5) 초등학교에 놀이를 위한 비품 제공

- 1학년 유아에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즉, 유아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책걸상 뿐만 아니라 앉아서 놀이하고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
- 비품으로 매트나 돗자리류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놀이가 다양해지고 확장됨으로써 정서적으로도 유아의 발달이나 또래관계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임.

6) 부모 교육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창구 마련

-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유아의 인지 능력보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음. 따라서 연계는 선행학습이 아닌 일상생활과 사회정서 측면의 발달이 중요하고 이후의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부모가 알 수 있도록 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함.
- 유아의 연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 부모와 교사 간 의사소통은 필수적임으로 초등학교 입학 초기 유아의 연계나 적응 정도에 대해서 교사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면양식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다. 중·장기 정책방안

1)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을 돕는 보조교사 지원

- 교사와 유아가 개별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 혹은 명예퇴직한 교사, 임용 대기자나 임용발령대기자가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아교육·보육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가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1학년 교사와 유아교육·보육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을 정서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을 것임.

2) 초등학교 시설·설비 개선

- 초등학교 1학년 교사는 화장실(변기), 책걸상 등 여러 가지 시설·설비가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입학하는 유아가 어려워하는 시설·설비(예. 화장실, 교실바닥 등)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마련해야 함.

3)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의 융통적 운영

- 초등학교 1학년 유아의 발달단계는 만 5세 유아와 유사하나 수업시간의 운영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차시당 40분 수업과 동일함.
- 1학년의 초등학교 적응 및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큰 학교 안에 작은 학교」라는 측면에서 1, 2학년 수업시간을 독립적,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4) 유치원·어린이집의 생활기록부 이첩 의무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교사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만 생활기록부 이첩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초등학교 교사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는 초등학교로부터 유치원으로 생활기록부 전송 요청이 있는 경우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으나 추후 유치원·어린이집 생활기록부를 초등학교로 전송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제안함.

5) 연계 관련 국가수준의 연구 수행

- 해외에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연계를 지원한 결과를 분석하거나 중단연구를 통해서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및 유아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정도에 관해 전국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의 연계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연계 관련 중단연구나 유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의 연계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라. 대상별 정책방안

- 유초 연계는 과거 유아의 전이나 적응에 초점을 둔 것에서 점차 부모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유아를 둘러싼 미시적, 거시적 체계의 관점에서 유아를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연계를 위한 단기, 중·장기별로 제안한 정책방안을 정부,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부모의 각 대상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음.

<표 6> 누리과정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대상별 정책방안

대상	정책 방안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개발 및 수정 시 유아교육·보육, 초등교육, 교육과정 전문가 공동 참여 - 상호 교육과정 해설서 및 지도서 공유 및 홍보 - 초등학교 1학년 적응을 돕는 보조교사 지원 - 연계 관련 국가수준의 연구 수행 				
기관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유치원·어린이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경험에 바탕을 둔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의 생활기록부 이첩 의무화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초등학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의 융통적 운영 - 학교 시설·설비 개선 </td> </tr> </table>	유치원·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경험에 바탕을 둔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의 생활기록부 이첩 의무화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의 융통적 운영 - 학교 시설·설비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와 경험에 바탕을 둔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의 생활기록부 이첩 의무화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간의 융통적 운영 - 학교 시설·설비 개선 				
교사	<table border="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유치원·어린이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교육과정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 교사 대상별 연수 차별화(초등학교 연계 준비를 위한 방법)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초등학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 교사 대상별 연수 차별화(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연수) - 놀이를 위한 비품 제공 </td> </tr> </table>	유치원·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교육과정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 교사 대상별 연수 차별화(초등학교 연계 준비를 위한 방법)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 교사 대상별 연수 차별화(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연수) - 놀이를 위한 비품 제공
유치원·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교육과정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 교사 대상별 연수 차별화(초등학교 연계 준비를 위한 방법)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및 상호 연수 실시 - 교사 대상별 연수 차별화(유아와 유아기에 대한 연수) - 놀이를 위한 비품 제공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의 의사소통 창구 활용 - 부모 교육 필요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창복·김민진(2006). 유·초등 연계 교육을 위한 1학년 교실 공간 구성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실태.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123-145.

윤은주(2010). 유초연계의 재개념화. 유아교육학논집, 14(6), 279-292.

해외문헌

Britto, P. R.(2012). School readiness: a conceptual Framework. Unicef.

Unicef(2012). School readiness and transition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PART 02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과 증진 방안
| 도남희
-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실태 및 개선방안
|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과 증진 방안

도남희

1. 들어가며
2.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3.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4.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5. 기대효과

요약

- 생애초기 경험하는 행복감은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가정 및 교육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들의 증가로 인해 어린 시기 행복감을 침해하고 있음.
-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행복한 편임 61.5%, 매우 행복함 36.0%로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나 2.5%의 부모는 유아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부모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른 유아의 행복감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음.
- 교사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유아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4%,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5%로 나타났음.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대체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느끼고 있었음.
-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관과 가정의 균형 있는 양육이 필요하며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근로시간 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 및 패밀리데이 등의 실행이 요구됨.

1. 들어가며

-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아동이 행복한 나라 플랜”을 마련하고자 발표하였으나 현실은 거리가 있음.
 - 한국아동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이며(72.5점/100점),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은 OECD 34개국 중 32위(GDP대비 0.8%)임.
 - 약 100만 명의 빈곤 아동과 약 3만 명의 가정해체 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필요함.
-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행복감은 행동과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



록 하며 이러한 경험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유아기 행복감은 이후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된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침.
- 최근 핵가족화, 이혼 가족의 증가, 조기 영어교육 열풍과 사교육의 증가와 같은 가정 및 교육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들의 증가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행복감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교사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유아기의 행복감 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유아기의 행복감 관련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유아기 행복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행복감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반영한여 주관적 웰빙과 가까운 의미임.

2.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가. 부모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수준

- 응답한 학부모는 어머니가 94.1%, 아버지가 2.6%이며 조부모는 3.0%였음.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43.5%, 중소도시는 52.5%, 읍면 지역은 나타났다.
 -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알아본 결과, 취업한 경우는 35.8%, 미취업인 경우는 62.1%였음.
 - 부모 소득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260만원 이하인 경우는 58.5%, 261만원~350만원은 18.9%, 351~450만원은 14.1%, 451만원 이상인 경우는 8.2%인 것으로 나타남.
- 주양육자(응답자)가 생각하는 유아 스스로의 소유물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약 3.3점이었으며 ‘좋아하는 편임’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66.6%, ‘매우 좋아함’이 30.7%, ‘좋아하지 않은 편임’이 2.5%로 나타났다.
 -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만족감의 정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유아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만족(주양육자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은 편임	좋아하는 편임	매우 좋아함	계(수)	평균	t/F
전체	.2	2.5	66.6	30.7	100.0(1,000)	3.28	
성별							
남아	.2	2.5	66.4	30.9	51.2(512)	3.28	.08
여아	.2	2.5	66.8	30.5	48.8(488)	3.28	
지역규모							
대도시	.5	2.3	65.3	32.0	43.5(435)	3.29	.30
중소도시	0.0	2.5	67.6	29.9	52.5(525)	3.27	
읍면지역	0.0	5.0	67.5	27.5	4.0(40)	3.23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	4.1	70.4	25.1	58.5(585)	3.20 ^a	11.16 ^{***}
261~350만원	0.0	0.0	66.1	33.9	18.9(189)	3.34 ^{ab}	
351~450만원	0.0	.7	56.7	42.6	14.1(141)	3.42 ^b	
451만원이상	0.0	0.0	57.3	42.7	8.2(82)	3.43 ^b	

*** $p < .001$.

□ 유아의 건강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준으로 신체활동과 식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주 3~4일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81.8% 정도로 나타났음.

〈표 2〉 신체활동과 식생활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함	주 1~2일	주 3~4일	주 5일 이상	계(수)
신체활동놀이 횟수	1.4	16.8	34.4	47.4	100.0(1,000)
식생활					
세끼 식사 횟수	.5	3.7	18.0	77.8	100.0(1,000)
과일/야채 섭취 횟수	.5	15.8	41.1	42.6	100.0(1,000)
인스턴트 식품 섭취 횟수	13.0	69.3	14.6	3.1	100.0(1,000)

□ 유아의 식생활은 하루에 세 끼 식사하는 횟수, 신선한 과일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 정도 및 편식 정도를 조사하였음.

○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에 세끼 식사하는 횟수를 알아본 결과, 주 5일 이상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는 77.8%, 주 3~4일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는 18.0%, 주 1~2일은 3.7%로 나타났음.

- 만 4~5세 유아들이 성장급등기임을 고려할 때, 주 3~4일과 주 1~2일이 21.7%나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 유아들의 일주일 기준 과일/야채 섭취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이상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는 경우는 42.6%, 주 3~4일은 41.1%, 주 1~2일은 15.8%였음
 - 주 3일 이상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경우는 83.7%정도였으며 전혀 안하는 경우는 0.5%로 나타났음.
 - 인스턴트 식품 섭취 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 5일 이상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는 3.1%, 주 3~4일은 14.6%, 주 1~2일은 69.3%, 전혀 안함은 13.0%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82.3% 정도의 유아가 일주일에 인스턴트 식품을 주1~2회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거주지역의 안전, 기관의 안전, 자녀에 대한 해로운 영향의 유무,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에 대한 염려를 조사하였음.

- 주양육자가 인지하는 안전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보육·교육기관이 평균 3.13점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녀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해 2.2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여서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음
 - 부모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60만원 이하의 경우 거주지역과 보·교육기관에서의 안전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451만원 이상은 나쁜 영향과 자녀를 괴롭히는 또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지역 규모에 따라 중소도시에서 거주지역이나 보육·교육기관을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3〉 지역사회의 안전

단위: 점

구분	거주지역의 안전	보육·교육기관	나쁜 영향	괴롭히는 도래에 대한 걱정
전체	2.93	3.13	2.23	2.43
성별				
남아	2.93	3.14	2.22	2.43
여아	2.93	3.12	2.25	2.44
<i>t/F</i>	.09	.53	-.66	-.25
지역규모				
대도시	2.81	3.08	2.27	2.37
중소도시	3.03	3.17	2.20	2.47
읍면지역	2.93	3.08	2.28	2.29
<i>t/F</i>	15.29***	3.97*	1.29	.16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2.86 ^a	3.07 ^a	2.31 ^b	2.48 ^b
261~350만원	2.94 ^{ab}	3.11 ^{ab}	2.25 ^b	2.50 ^b
351~450만원	3.09 ^b	3.27 ^{bc}	2.09 ^{ab}	2.32 ^{ab}
451만원이상	3.06 ^{ab}	3.32 ^c	1.95 ^a	2.18 ^a
<i>t/F</i>	6.27***	9.24***	7.86***	4.69**

주: 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포함.

* $p < .05$, ** $p < .01$, *** $p < .001$.

□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아버지, 어머니, 친구 및 교사 등의 타인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버지에 대한 만족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60점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유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부모소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소득이 351~450만원인 경우 260만원 이하집단에 비해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음.
-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에 있어 지역규모에 따라 도시지역인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규모와 관련된 기타 변수가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짐.
- 친구에 대한 만족감은 평균 3.71점으로 어머니에 대한 만족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교사나 주변 어른 등 타인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9점으로 높은 수



준임을 알 수 있으나, 부모 및 또래에 대한 만족감 점수보다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이는 유아는 대인관계에 있어 부모와 또래를 가장 가깝게 여기고 좋아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4〉 대인관계 대한 만족

단위: 점

구분	아버지	어머니	친구	타인(교사, 주변어른)
전체	3.60	3.76	3.71	3.39
성별				
남아	3.55	3.76	3.70	3.36
여아	3.65	3.76	3.73	3.43
<i>t/F</i>	-.29	-.77	-1.57	.31
지역규모				
대도시	3.64	3.78 ^a	3.73	3.41
중소도시	3.58	3.76 ^a	3.70	3.39
읍면지역	3.45	3.58 ^b	3.64	3.25
<i>t/F</i>	2.37	3.87*	1.05	1.35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54 ^a	3.75	3.68	3.33 ^a
261~350만원	5.59 ^{ab}	3.73	3.76	3.44 ^{ab}
351~450만원	3.74 ^b	3.79	3.77	3.52 ^b
451만원이상	3.72 ^{ab}	3.82	3.70	3.48 ^{ab}
<i>t/F</i>	5.49**	1.01	2.40	5.51**

주: X²검증 결과(어머니, 친구)는 '전혀 좋아하지 않음'을 제외한 값임.

* $p < .05$, ** $p < .01$.

○ 모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없는 집단의 평균은 3.52점으로 가장 높고, 미취업모 3.44점, 취업모 3.30점 순이었으며 차이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260만원 이하 집단과 351~450만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타인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 부모가 인지한 유아의 행복감을 조사한 결과, 평균은 3.33점이었으며, 행복한 편임 61.5%, 매우 행복함 36.0%로 대부분 긍정적인 응답이었으나 2.5%의 부모는 유아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모취업여부 및 부모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부모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400만원 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인식한 유아의 행복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났음.
 - 모취업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미취업모인 경우 유아의 행복 수준은 가장 높고 해당 없음 즉, 어머니가 없는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응답 분포에서도 어머니가 없는 집단에서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14.3%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음. 즉,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 주양육자가 인식한 유아의 행복감은 어머니가 있는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음.

〈표 5〉 유아의 행복감(부모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음	행복하지 않은 편임	행복한 편임	매우 행복함	계(수)	$X^2(df)$	평균	t/F
전체	.2	2.3	61.5	36.0	100.0(1,000)		3.33	
성별								
남아	.4	2.3	61.9	35.4	51.2(512)	2.07(3)	3.32	-.66
여아	0.0	2.3	61.1	36.7	48.8(488)			
지역규모								
대도시	.2	1.6	66.2	32.0	43.5(435)	10.65(6)	3.30	1.69
중소도시	.2	3.0	57.1	39.6	52.5(525)			
읍면지역	0.0	0.0	67.5	32.5	4.0(40)			
부모소득								
200만원미만	.3	4.3	66.5	28.9	39.1(391)	30.36(15)*	3.24	5.90***
200~299만원	0.0	1.9	61.1	37.0	21.6(216)			
300~399만원	.5	1.0	58.6	39.8	19.1(191)			
400~499만원	0.0	0.0	57.0	43.0	12.1(121)			
500만원이상	0.0	0.0	52.6	47.4	7.8(78)			

* $p < .05$, ** $p < .01$, *** $p < .001$



나. 부모가 보는 유아기 행복감 증진 요소

-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기관(교사)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하는 점이 무엇인지 유아의 주양육자를 통해 조사하였음.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로서 노력해야 하는 점을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38.7%,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존중하기 18.7%, 그 다음으로는 자녀에게 칭찬하기 12.8%,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 11.1%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노력에 대한 항목들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표 6〉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 노력(1순위)

구분								계(수)	X ² (df)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38.7	12.8	7.4	11.1	18.7	7.8	3.5	100.0(1,000)	
성별									
남아	41.8	11.9	6.8	10.0	17.4	7.6	4.5	100.0(512)	8.89(6)
여아	35.5	13.7	8.0	12.3	20.1	8.0	2.5	100.0(488)	
지역규모									
대도시	36.1	14.5	9.7	9.9	18.2	8.3	3.4	100.0(435)	23.46(12)*
중소도시	39.4	12.2	6.1	12.2	19.4	7.6	3.0	100.0(525)	
읍면지역	57.5	2.5	0.0	10.0	15.0	5.0	10.0	100.0(40)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36.4	14.0	8.7	11.6	16.6	8.4	4.3	100.0(585)	18.15(18)
261~350만원	42.3	10.1	6.3	10.6	22.2	6.9	1.6	100.0(189)	
351~450만원	39.0	12.1	4.3	12.8	22.0	7.1	2.8	100.0(141)	
451만원이상	46.3	12.2	6.1	6.1	19.5	6.1	3.7	100.0(82)	

주: 1) ①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② 자녀에게 칭찬하기 ③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하기 ④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스킨십 등) ⑤ 자녀 존중하기(자녀에게 귀 기울이기 등) ⑥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 ⑦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하기

2) * $p < .05$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1순위는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4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이 19.1%, 다음은 충분한 신체 활동 제공이 16.5%로 나타났음. 그 외에 유아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음.

〈표 7〉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관 노력(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2(df)$
전체	50.0	16.6	19.2	6.1	5.6	1.5	1.0	100.0(996)	
성별									
남아	52.7	15.1	19.8	5.5	4.3	1.6	1.0	100.0(510)	7.06(7)
여아	47.1	18.1	18.5	6.8	7.0	1.4	1.0	100.0(486)	
지역규모									
대도시	50.1	19.1	18.6	6.4	4.1	.9	.7	100.0(435)	35.22(14)
중소도시	49.5	14.3	19.9	6.1	6.9	2.1	1.1	100.0(523)	
읍면지역	55.3	18.4	15.8	2.6	5.3	0.0	2.6	100.0(38)	
부모소득									
260만원이하	48.7	15.8	19.3	7.2	6.4	1.2	1.4	100.0(581)	20.99
261~350만원	51.3	16.9	20.1	5.3	4.8	1.1	.5	100.0(189)	
351~450만원	47.5	23.4	16.3	3.5	5.7	2.8	.7	100.0(141)	
451만원이상	59.8	9.8	20.7	4.9	2.4	2.4	0.0	100.0(82)	

주: 1) ①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② 충분한 신체활동 제공 ③ 자유로운 활동(탐색)의 기회 제공 ④ 유아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⑤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⑥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 ⑦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
 2) * $p < .05$, ** $p < .01$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질문한 결과, 1순위로는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24.9%, 자녀양육을 위한 적 정 근로시간 준수 23.0%,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19.5%,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 14.5% 순의 의견이었으며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8.3% 의 의견이 있었음.

○ 이러한 항목은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

〈표 8〉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X^2(df)$
전체	23.0	24.9	19.5	14.5	5.0	4.7	8.3	100.0(999)	
성별									
남아	24.8	23.2	19.7	12.7	4.3	5.7	9.6	100.0(512)	11.23(7)
여아	21.1	26.6	19.3	16.4	5.7	3.7	7.0	100.0(487)	



(표 8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chi^2(df)$
지역규모									
대도시	23.0	25.5	20.2	13.6	5.1	5.3	7.4	100.0(435)	
중소도시	23.4	25.0	17.9	15.4	4.8	4.0	9.5	100.0(525)	35.60(14)**
읍면지역	17.5	17.5	32.5	12.5	7.5	7.5	2.5	100.0(39)	
260만원이하	23.1	23.6	21.4	13.9	5.8	5.3	6.8	100.0(584)	
261~350만원	21.7	27.0	16.9	16.4	5.3	4.2	8.5	100.0(189)	
351~450만원	25.5	24.1	17.7	14.2	2.1	3.5	12.8	100.0(141)	-
451만원이상	20.7	31.7	14.6	15.9	3.7	3.7	9.8	100.0(82)	

주: ① ① 자녀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③ 아이(가족)중심의 문화·여가 시설 확충 ④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⑤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강화 ⑥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 ⑦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⑧ 기타
 2) * $p < .05$, ** $p < .01$

3. 교사와 현장 전문가가 보는 유아의 행복감

- 일반인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교사 28.4%, 원장 및 원감 23.0%와 현장 전문가 48.6% 였음.
- 조사에 참여한 대상의 전공은 유아교육이 43.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아동복지/사회복지 33.9%, 기타, 아동/아동가족 전공, 교육/심리 순이었음.
- 조사대상자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취약계층지원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었음.

가.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보는 유아의 행복감 수준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현장 전문가들에게 유아들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유아들이 물질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러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3%,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7%로 나타났음. 물질적 환경을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2.95점이었음.
-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교사나 원장 및 원감은 유아의 물질적 환경 정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현장 전문가들은 평균 점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표 9〉 유아의 물질적 환경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5	20.2	60.6	17.7	100.0(941)	2.95
직업						
교사	1.5	6.7	62.2	29.6	(267)	3.20 ^a
원장 및 원감	.5	8.3	61.6	29.6	(216)	3.20 ^a
현장 전문가	2.0	33.6	59.2	5.2	(458)	2.68 ^b
$X^2(df)$		161.07(6)***			t/F	87.57(2)***

*** $p < .001$.

□ 유아의 식생활 건강에 대한 의견들을 확인한 결과,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염려된다는 의견은 51.7%,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8.4%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현장 전문가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음.
- 염려하는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47로서 평균점수도 응답자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들의 염려하는 정도가 더 높았음.

〈표 10〉 유아의 식생활과 신체활동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4.6	33.8	42.1	9.6	100.0(941)	2.47
직업						
식생활						
교사	25.8	32.6	31.8	9.7	(267)	2.25 ^a
건강						
원장 및 원감	19.0	42.6	28.7	9.7	(216)	2.29 ^a
현장 전문가	5.9	30.3	54.4	9.4	(458)	2.67 ^b
$X^2(df)$		88.84(6)***			t/F	27.42(2)**
전체	4.5	32.1	42.7	20.7	100.0(941)	2.80
직업						
충분한						
신체활동						
교사	3.0	12.7	42.7	41.6	(267)	3.23 ^a
원장 및 원감	2.8	20.4	50.0	26.9	(216)	3.01 ^b
현장 전문가	6.1	48.9	39.3	5.7	(458)	2.45 ^c
$X^2(df)$		200.13(6)***			t/F	106.68(2)***

** $p < .01$, *** $p < .001$



□ 충분한 신체 활동에 대한 정도를 확인한 결과,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63.4%, 그렇지 않다는 정도는 48.4%였음.

○ 신체활동에 대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80으로, 신체활동 정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 전문가 순으로 더 신체활동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음.

□ 유아의 또래와 따돌림의 경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그런 경험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는 36.5%,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는 63.45로 또래와의 따돌림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음.

○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만점에 2.20점으로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는 교사나 원장 및 원감보다 유아가 또래와의 따돌림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었음.

〈표 11〉 유아의 또래와의 따돌림과 성인학대 여부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9.2	44.2	34.1	2.4	100.0(941)	2.20
직업						
또래 교사	34.8	43.4	20.6	1.1	(267)	1.88 ^a
따돌림 원장 및 원감	27.8	50.9	19.4	1.9	(216)	1.95 ^a
현장 전문가	6.1	41.5	48.9	3.5	(458)	2.50 ^b
$\chi^2(df)$		147.55(6)**			t/F	79.81(2)***
전체	21.9	49.4	27.1	1.6	100.0(941)	2.08
직업						
성인의 교사	36.0	47.9	14.6	1.5	(267)	1.82 ^a
학대 경험 원장 및 원감	33.8	47.7	16.2	2.3	(216)	1.87 ^a
현장 전문가	8.1	51.1	39.5	1.3	(458)	2.34 ^b
$\chi^2(df)$		130.40(6)***			t/F	29.56(2)***

□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28.7%는 그런 편이라고 하였고, 71.3%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의견은 차이가 나타나 현장전문가 보다는 원장 및 원감이, 원장 및 원감보다는 교사가 그러한 경험은 적을 것으로 보았음.

- 평균 점수는 2.08로서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현장 전문가들이 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37.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62.1%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의견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 전문가 순으로 충분한 장소가 없다고 하였음
 - 평균 점수는 2.35인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교사는 충분한 장소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유아의 행복을 위한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36.7%는 동네가 안전하다고 하였으나 63.4%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러한 인식은 차이가 나타나 교사보다는 현장 전문가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유아와 가족을 위한 충분한 장소와 동네 안전

단위: %, 점

구분	전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0.0	52.1	31.0	6.9	100.0(941)	2.35
직업						
충분한 장소						
교사	4.9	42.7	39.0	13.5	(267)	2.61 ^a
원장 및 원감	8.3	47.7	36.1	7.9	(216)	2.44 ^b
현장 전문가	13.8	59.6	24.0	2.6	(453)	2.16 ^c
	$X^2(df)$		68.05(6) ^{***}		t/F	35.18(2) ^{***}
전체	14.8	48.6	32.1	4.6	100.0(941)	2.26
직업						
동네의 안전함						
교사	14.6	43.8	34.5	7.1	(267)	2.34
원장 및 원감	18.1	49.1	30.1	2.8	(216)	2.18
현장 전문가	13.3	51.1	31.7	3.9	(458)	2.26
	$X^2(df)$		10.57(6)		t/F	2.81(2)

- 유아가 충분한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72.9%는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27.1%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이러한 의견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교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평균 점수도 4점 만점에 2.87점으로 평균점수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현장전문가만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13〉 충분한 보/교육 서비스와 과도한 조기교육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2.0	25.1	57.1	15.8	100.0(941)	2.87
충분한 교육/보육 서비스						
직업						
교사	1.1	15.7	55.1	28.1	(267)	3.10 ^a
원장 및 원감	2.3	16.2	58.3	23.1	(216)	3.02 ^a
현장 전문가	2.4	34.7	57.6	5.2	(458)	2.66 ^b
$X^2(df)$		99.90(6)***			t/F	46.47(2)***
전체	4.1	29.8	48.1	18.0	100.0(941)	2.80
과도한 조기 교육						
직업						
교사	7.5	36.3	42.7	13.5	(267)	2.62 ^a
원장 및 원감	6.5	33.8	40.3	19.4	(216)	2.73 ^a
현장 전문가	1.1	24.0	55.0	19.9	(458)	2.94 ^b
$X^2(df)$		43.59(6)***			t/F	15.55(2)***

□ 과도한 조기교육을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66.1%는 유아들이 과도한 조기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이는 교사와 원장 및 원감, 현장전문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점수도 2.80점으로 과도한 조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평균 점수 또한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 유아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22.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7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평균점수도 2.11점이었음.

- 이러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점수에 의한 차이도 뚜렷이 나타나 교사, 원장 및 원감, 현장전문가 간의 차이를 나타냈음.

□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지도 조사한 결과, 유아들이 또래와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는 의견은 72.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7.7%였음.

-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2.84로서 또래와의 시간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이러한 충분한 시간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평균 점수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했음.

〈표 14〉 유아의 부모나 또래와의 충분한 시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3.0	64.7	20.3	2.0	100.0(941)	2.11	
부모와 충분한 시간	직업						
	교사	10.9	52.4	32.6	4.1	(267)	2.30 ^a
	원장 및 원감	18.1	63.4	17.1	1.4	(216)	2.02 ^b
	현장 전문가	11.8	72.5	14.6	1.1	(458)	2.05 ^c
	$\chi^2(df)$	52.66(6)***			t/F	16.80(2)***	
전체	3.0	24.7	58.1	14.2	100.0(941)	2.84	
또래와 충분한 시간	직업						
	교사	1.9	11.2	59.2	27.7	(267)	3.13 ^a
	원장 및 원감	2.3	12.5	64.4	20.8	(216)	3.04 ^a
	현장 전문가	3.9	38.2	54.6	3.3	(458)	2.57 ^b
	$\chi^2(df)$	151.17(6)***			t/F	76.22(2)***	

* $p < .05$, ** $p < .01$

□ 유아의 환경 중에서 ‘성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80.7%,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9.3%로 나타났음.

- 유아가 성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95로서 평균 점수도 응답자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가 더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15〉 성인으로부터 존중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6	18.7	66.1	14.6	100.0(941)	2.95
성인으로부터 존중	직업					
	교사	0.0	6.7	62.5	30.7	(267)



(표 15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성인으로 부터 존중	원장 및 원감	.5	10.2	67.6	21.8	(216)	3.11 ^b
	현장 전문가	1.1	29.7	67.5	1.7	(458)	2.70 ^c
$X^2(df)$		-				<i>t/F</i>	95.63(2) ^{***}

□ 유아의 환경 중에서 ‘대체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에 대해 문의한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4%,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1.5%로 나타났다.

- 유아의 행복감 정도의 평균 점수는 4점 척도 만점에 2.88이었음.
- 응답자 직업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대체로 더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느끼고 있었음.

□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도 확인할 결과,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0.2%,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9.8%로 나타났다.

- 유아의 향후 행복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79로서 현장 전문가, 원장 및 원감, 교사 순으로 유아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16〉 유아 행복한 정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유아의 행복감 정도	전체	.7	20.8	67.7	10.7	100.0(941)	2.88
	직업						
	교사	.4	7.9	67.0	24.7	(267)	3.16 ^a
	원장 및 원감	0.0	11.1	75.0	13.9	(216)	3.03 ^b
	현장 전문가	1.3	33.0	64.6	1.1	(458)	2.66 ^c
$X^2(df)$		-				<i>t/F</i>	87.20(2) ^{***}
유아의 향후 행복 정도	전체	1.7	28.1	59.9	10.3	100.0(941)	2.79
	직업						
	교사	2.2	16.5	57.3	24.0	(267)	3.03 ^a
	원장 및 원감	.9	26.9	64.4	7.9	(216)	2.79 ^b

(표 16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유아의 향후 행복 정도	현장 전문가	1.7	35.4	59.4	3.5	(458)	2.65 ^c
	$\chi^2(df)$	94.10(6)***			t/F	32.52(2)***	

□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한 결과, '정책이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31.4%,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68.7%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의견들에 대한 교차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교사들이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음.
-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4점 척도 만점에 2.23이었으며 응답자 직업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 교사들이 느끼는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가 더 높았음.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책이 취약 계층의 유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34.9%,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은 65.2%로 나타났음.

- 취약계층 행복 증진 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2.27점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교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행복 증진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음.

〈표 17〉 정책의 유아 행복 증진에 적절성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0.1	58.6	30.0	1.4	100.0(941)	2.23	
정책의 행복 증진 정도	직업						
	교사	8.6	52.1	36.3	3.0	(267)	2.34 ^a
	원장 및 원감	11.1	60.2	27.3	1.4	(216)	2.19 ^b
	현장 전문가	10.5	61.6	27.5	.4	(458)	2.18 ^b
	$\chi^2(df)$	16.64(6)*			t/F	5.72(2)**	



(표 17 계속)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전체	10.0	55.2	33.2	1.7	100.0(941)	2.27
직업						
취약계층						
행복 증진정도						
교사	9.4	50.2	36.3	4.1	(267)	2.35
원장 및 원감	10.6	54.2	34.7	.5	(216)	2.25
현장 전문가	10.0	58.5	30.6	.9	(458)	2.22
$\chi^2(df)$		17.25(6)**			t/F	3.38(2)*

나.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보는 유아기 행복감 증진 요소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부모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가 47.1%,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가 14.8%, ‘자녀 존중하기’가 14.5%.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가 12.6% 순의 의견이 있었음.
-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노력에 대한 항목들은 응답자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표 18〉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부모 측면

단위: %, 점

구분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 제공하기	자녀 존중하기	자녀에게 애정표현하기	자녀에게 칭찬하기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 습득하기	자녀에게 균형 잡힌 식사 제공하기	계(수)
전체	47.1	14.8	14.5	12.6	5.4	5.2	.4	100.0(941)
직업								
교사	56.6	10.5	14.6	10.1	4.5	3.4	.4	(267)
원장 및 원감	47.7	19.9	9.7	8.3	4.6	8.8	.9	(216)
현장 전문가	41.3	14.8	16.6	16.2	6.3	4.6	.2	(453)
$\chi^2(df)$				39.91(12)***				

주: 기타 의 항목 내용은 없음.

*** $p < .001$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기관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47.4%로 가장 많았고,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가

18.4%,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이 14.1%,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가 7.0%의 의견이 있었음.

〈표 19〉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기관 측면

단위: %, 명

구분	유아에 대한 존중과 수용	낮은 유아 대 교사 비율 유지	자유로운 활동의 기회 제공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확대	유아 중심의 물리적 환경 제공	충분한 신체활동 제공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	기타	계(수)
전체	47.4	18.4	14.1	7.0	4.7	4.6	3.4	.4	100.0 (941)
직업									
교사	45.7	26.6	11.2	7.5	3.0	3.0	3.0	0.0	(267)
원장 및 원감	45.4	17.1	13.9	12.0	4.2	3.2	3.2	0.9	(216)
현장 전문가	49.3	14.2	15.9	4.4	5.9	6.1	3.7	0.4	(458)
$X^2(df)$	-								

주: 기타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연계하는 부모교육, 교사의 인성 교육 등의 의견이 있음.

□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문의한 결과,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가 31.2%, '보육기관의 질 향상'이 19.0%,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14.8%. '아의 중심의 문화 여가 시설 확충'이 12.1%,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11.5% 순의 의견이었음.

〈표 20〉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정책적 측면

단위: %, 명

구분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정 근로 시간 준수	보육 교육 기관의 질 향상	아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아이 중심의 문화 여가 시설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	기타	계(수)
전체	31.2	19.0	14.8	12.1	11.5	7.2	3.7	.4	100.0 (941)
직업									
교사	32.6	18.4	17.2	10.1	9.0	9.4	3.0	.4	(267)
원장 및 원감	36.6	20.8	14.4	10.6	8.8	5.1	3.2	.5	(216)
현장 전문가	27.9	18.6	13.5	14.0	14.2	7.0	4.4	.4	(458)
$X^2(df)$	-								

주: 정부예산 확충, 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확대 등의 의견이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 취약계층의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해소 30.6%,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18.1%, 상담활동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18.1%,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11.5%,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10.4%로 순으로 나타났음.
- 그 외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지 불안 해소 8.2%, 균형 잡힌 식사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4.9% 등이었다. 직업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21〉 취약 계층의 유아 행복감 증진 방안 : 정책적 측면

단위: %, 명

구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해소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상담활동 등 심리적 건강을 위한 지원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지 불안 해소	균형 잡힌 식사 등 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	기타	계(수)
전체	30.6	18.1	15.9	11.5	10.4	8.2	4.9	.4	100.0 (941)
직업									
교사	26.6	15.4	17.6	16.9	11.6	5.2	6.7	0.0	(267)
원장 및 원감	38.4	15.3	14.4	13.4	5.6	10.2	2.8	0.0	(216)
현장 전문가	29.3	21.0	15.7	7.4	12.0	9.0	4.8	.8	(453)
$X^2(df)$	-								

주: 기타 의견으로는 부모의 인식변화, 정부예산 확충, 교사의 인성 함양 등임.

* $p < .05$, ** $p < .01$, *** $p < .001$

4.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아이를 위한 균형적 양육이 필요함.
 - 지금까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책 대부분은 실제 수요자인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육육과 생활을 반영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 경감을 우선으로 하는 공급자와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취업모를 위한 기관보육을 강조하고 무상보육으로 인해 국가가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까지 확대되어 왔음.
 - 유아기의 아이들은 가정, 구체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등에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정책이나 사회구조는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기관에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제도, 지원과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함.
 - 유아들은 부모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활동을 하였을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더 필요한 것도 부모와의 시간이었음.
 - 유아에게 부모는 행복의 근원이므로 자녀와의 질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위한 적정근로시간 준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출근제와 패밀리 데이 실시 등을 통한 일하는 부모의 가족 시간 확보가 필수적임.
- 가구 특성에 따른 요구 파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행복감을 높임.
 - 유아의 행복감은 지역 규모, 취업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가구의 특성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구하는 제도 지원이나 양육 지원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 파악을 통해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
 -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취약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낮은 심리적 웰빙 수준을 완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유아와 아동의 최적 발달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체계를 사회적으로 형성함.
 - 가정, 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유아를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인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의 지원이 필요함.
 - 유아가 안전함을 걱정하지 않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유아들에게 충분한 여가와 놀이 제공이 필요함.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중요함.
 - 유아들에게 스포츠 및 레저 활동, 놀이, 교제활동 등을 선택하도록 함.
 -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가족들이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원, 문화공간과 예술 체험 하도록 함.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사업과 민간사업 간의 연계 강화로서 현존하는 정부사업과 민간사업이 연계되어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정부사업이, 수혜자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요구들은 민간사업이 다가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이나 사회서비스 사업이 확장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정부사업이나 민간사업의 전달체계와 서비스체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개인 당 서비스 제공 인원이 많고 항상 이동을 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음. 그러므로 취약계층을 접하는 종사자들의 인력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향상이나 처우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이의 행복감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필요함.
 -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보다 인지능력의 성장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우선하고 현재의 행복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음.
 - 잃어버린 아동기를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유아기의 행복감에 대한 기획 홍보와 이를 위한 부모 인식 전환과 교육 캠페인을 제공해야 함.

5. 기대효과

- 유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부모의 지원을 강화함.
- 국가 미래 주역으로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성 제시함.
- 유아기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축적 가능

참고문헌

국내문헌

도남희·배운진·김지예(2014). 유아기 행복감 증진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실태 및 개선방안

이정림

1.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관리의 중요성
2.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 실태
3. 저소득 가정 영유아 영양 실태
4. 정책 제언

요약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영양 실태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과 저소득 가정 영유아 부모 54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임.
- 농어촌 지역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는 비만 위험이, 도시 지역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는 저성장 위험 비율이 더 높음.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율과 구강검진율은 유의하게 낮음.
- 기초생활수급(130만원 이하) 가정 영유아 대상의 구강관리 교육과 치료가 필요함.
- 최저생계비 가정 영유아의 에너지적정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저소득 가정 영유아들은 비타민C, 비타민A, 나이아신 섭취 불균형을 나타냄.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영유아들은 간식으로 과자, 사탕, 초코렛을 먹는 비율이 20.2%로 261만원 이상 소득 집단 12.8%에 비해 더 높음.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건강관리 지식수준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음.

1.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관리의 중요성

-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영유아 시기의 건강과 영양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며 생애주기별 건강에 대한 지원은 주요한 국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임.
 - 질병발생 기전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인 생애과정접근모형(life course approach)에 따르면 생애 초기와 그 이후 생애 동안의 위험요인 노출이 상호작용하거나 가산적으로 함께 작용하여 생애 후기에 걸쳐 고혈압, 당뇨병, 암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Hertzman, Power, Matthews, & Manor, 2001).
- 201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사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도 일반과제 연구보고서인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을 토대로 구성됨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극히 일부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 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임.

○ 이제 시행 2년차에 접어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아직까지 명확한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진행 경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영양 관련 사업은 그동안 다른 보육·교육 관련 사업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음.

○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먹을 것이 부족 하며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김희연·임지영, 2010).

- 저소득층의 건강과 영양 문제는 저소득 가정에 성장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문제가 영유아 시기만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과 함께 축적 되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특히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건강 및 영양문제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영양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 요함.

□ 이에, 본고에서는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행복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본고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과 저소득 가정 대상 실태조사 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임.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2010~2012) 자료를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한 후 만1세~5세 자료 분석

-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200%이

하, 그 외 소득집단으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음.

- 2014년도에 최저생계비 200%이하 저소득 가정 만1세~5세 영유아 부모 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유아 건강 및 영양 실태 설문조사 자료 분석
 - 전국의 16개 시도별로 2014년도 지역보건취약지표¹⁾에 의해 지역보건취약지역²⁾으로 선정된 상위 10개 지역의 보건소 유형을 도시형(대도시형/중소도시), 농어촌형으로 분류함.
 - 해당 지역의 해당 보건소에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정 영유아 부모 544명 대상으로 전문조사원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지에는 크게 건강 행태와 영양관리 행태,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영유아 신체성장과 관련한 내용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에서 만2세~5세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분석하였음.

〈표 1〉 지역별-보건소 유형별 상위 10개 지역보건취약지역

지역	도시형(대도시)	도시형(중소도시)	농어촌형(군형)
부산	영도구, 북구, 강서구, 동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동구,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동구		
강원		태백시, 삼척시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 정읍시	
전남		나주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함평군
경북		안동시	영양군,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통영시, 밀양시	

자료: 한국건강증진재단, 『시도별 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 2014. 재구성

- 1) 지역낙후성 지표와 보건의료취약성 지표로 구성되며, 두 지표를 종합한 종합지표를 한국건강증진재단(2014)에서 개발·배포함.
- 2)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필요도,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의 차이로 지역보건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임.



2.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 실태

가. 신체성장 상태

- 대한소아과학회(2007)에서 “신체계측의 정상 범위를 5~95백분위수로 규정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 2007:64) 저성장 위험과 과체중 위험군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5백분위수 미만은 저체중에 해당하고, 5-95백분위수는 정상범위에 속하며, 95백분위수 초과인 경우는 과체중에 해당함(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 2007:64).
- 만2세~만5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1) 국민건강조사 자료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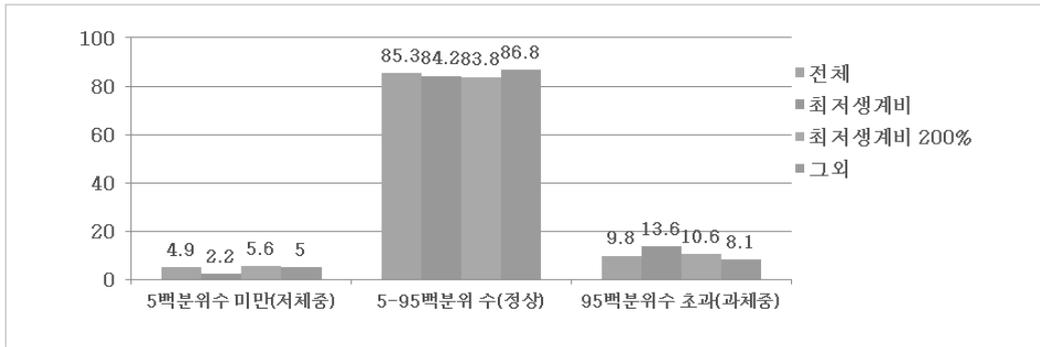
- 신체성장
 - 저소득 가정(최저생계비 및 최저생계비 200%이하) 영유아는 과체중에 해당되는 비율이 13.6%, 10.6%로 최저생계비 200%를 초과한 가정의 8.1%에 비해 비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소득별 영유아 체질량지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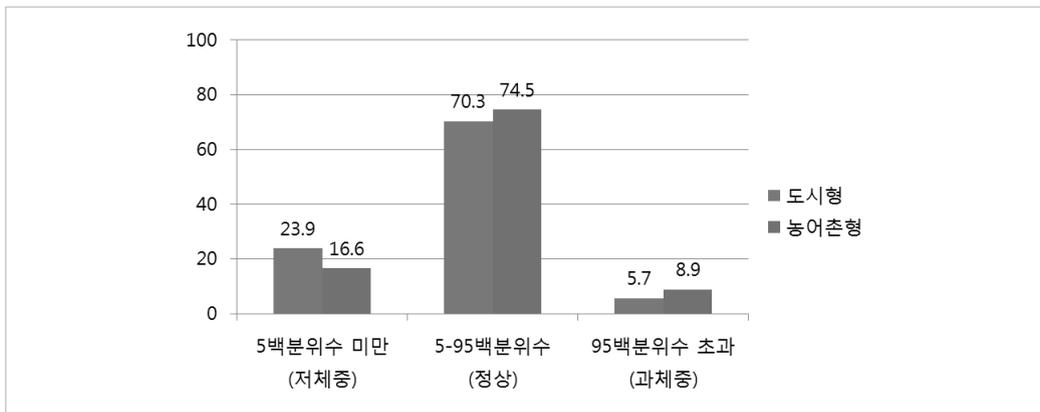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5백분위수 미만 (저체중)	5-95백분위수 (정상)	95백분위수 초과 (과체중)	계
전체	4.9	85.3	9.8	100.0(1,731,014)
최저생계비	2.2	84.2	13.6	100.0(232,486)
최저생계비200%이하	5.6	83.8	10.6	100.0(670,244)
최저생계비200%초과	5.0	86.8	8.1	100.0(828,283)
$\chi^2(df)$		4.358(4)		

주: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07)에서 체질량 지수에 대한 표준 성장도표 백분위수가 제시된 24개월 이상 영유아에 한해 분석하였음.



[그림 1] 가구소득별 영유아 체질량 지수



[그림 2] 지역규모별 영유아 체질량 지수

2) 육아정책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 신체성장

- 전체 조사 대상 영유아의 20.8%가 저성장 위험군에 속하였고 2.1%가 과체중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지역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는 비만 위험이, 도시 지역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는 저성장 위험 비율이 더 높았음.



〈표 3〉 지역규모별 영유아의 체질량 지수 분포

단위: %(명)

구분	5백분위수 미만 (저체중)	5-95백분위수 (정상)	95백분위수 초과 (과체중)	계
전체	20.8	72.1	7.1	100.0(366)
지역규모				
도시형	23.9	70.3	5.7	100.0(209)
농어촌형	16.6	74.5	8.9	100.0(157)
$X^2(df)$	3.8677(2)			

주: 부모의 자가기입식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측정시기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07)에서 체질량 지수에 대한 표준 성장도표 백분위수가 제시된 24개월 이상 영유아에 한해 분석하였음.

□ 영유아기 질환력

- 영유아 중 의사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질환력을 조사한 결과, 질환력이 있는 경우 폐렴(11.6%), 아토피 피부염(8.5%), 성장발달 지연(6.3%) 순으로 나타났음.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저소득층에서 폐렴, 아토피 피부염, 요로감염 순으로 영유아기 유병률이 높았던 것과 동일한 결과임.
- 특히 가구소득이 낮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 때 상대적으로 질환 경험률이 높았음.

〈표 4〉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환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없음	폐렴	아토피 피부염	성장발달 지연	요로감염	선천성 기형	기타1)	계(수)
전체	72.2	11.6	8.5	6.3	2.4	1.5	4.1	100.0(544)
교육수준								
고졸 이하	69.2	15.4	9.1	5.8	2.4	2.4	6.2	100.0(208)
대졸 이상	74.1	9.2	8.0	6.5	2.4	0.9	2.7	100.0(336)
가구소득								
130만원 이하	69.0	13.1	8.3	9.5	2.4	2.4	7.2	100.0(84)
131~160만원	61.4	11.4	10.0	12.9	4.3	1.4	2.8	100.0(70)
161~260만원	75.9	10.5	7.8	3.9	1.9	0.8	3.6	100.0(257)
261만원 이상	72.9	12.8	9.0	5.3	2.3	2.3	3.8	100.0(133)

주: 기타 (질환력 1.4% 이하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시각문제, 청각문제, 선천성 심장질환, 천식 포함)

나. 건강관리 현황

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결과

□ 신생아 대사 이상 검사율과 구강검진율

- 최근 1년간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신생아 대사 이상 검사율과 구강검진율은 유의하게 낮음.

〈표 5〉 영유아의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여부 및 영유아의 1년 간 구강검진율

소득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수)	단위: %(명) $\chi^2(df)$
신생아 대사이상 검사	전체	96.2	3.8	100.0(2,483,927)	7.85(2)**
	최저생계비	91.6	8.4	100.0(278,679)	
	최저생계비200%이하	96.3	3.7	100.0(1,025,623)	
	그 외	97.3	2.7	100.0(1,179,626)	
구강 검진율	전체	39.3	60.7	100.0(2,590,899)	23.20(2)***
	최저생계비	24.2	75.8	100.0(317,957)	
	최저생계비200%이하	35.4	64.6	100.0(1,043,711)	
	그 외	46.6	53.4	100.0(1,572,138)	

** $p < .01$, *** $p < .001$.

2) 육아정책연구소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실태조사 결과

□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 구강관리

- 기초생활수급(130만원 이하) 가정 영유아 대상의 구강관리 교육과 치료가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영유아는 전혀 칫솔질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8%이었고,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 33.3% 이었음.

□ 영유아기 병원 이용 특성

- 기초생활수급 가정 영유아는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 이용함.
 - 기초생활 수급 가정의 영유아는 입원율이 35.7%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외래 치료율은 낮아 심각한 증상 시에만 병원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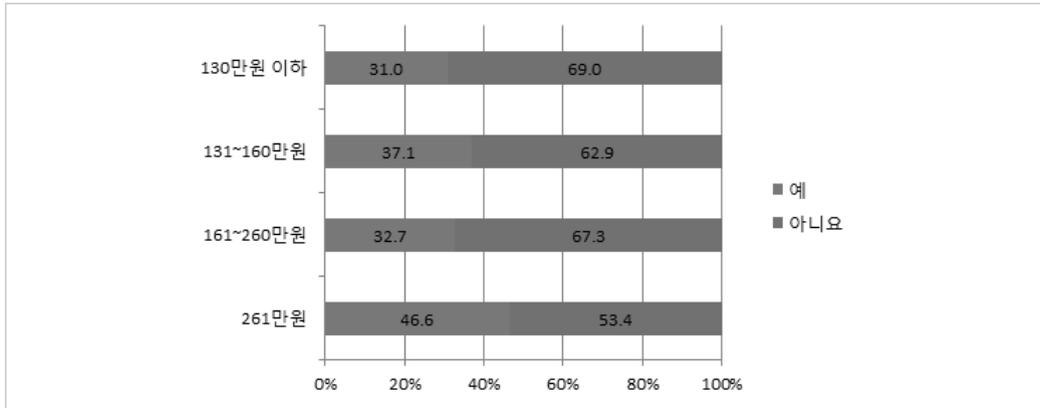
〈표 6〉 최근 1년 간 입원 여부 및 횟수

단위: %, 회

구분	최근 1년 입원 여부			횟수		
	예	아니오	계(수)	$\chi^2(df)$	평균(표준편차)	F
전체	25.7	74.3	100.0(544)		1.8(1.44)	
가구소득						
130만원 이하	35.7	64.3	100.0(84)	8.16(3)*	2.1(2.11)	2.756*
131~160만원	31.4	68.6	100.0(70)		2.0(1.69)	
161~260만원	23.7	76.3	100.0(257)		1.4(0.71)	
261만원 이상	20.3	79.7	100.0(133)		2.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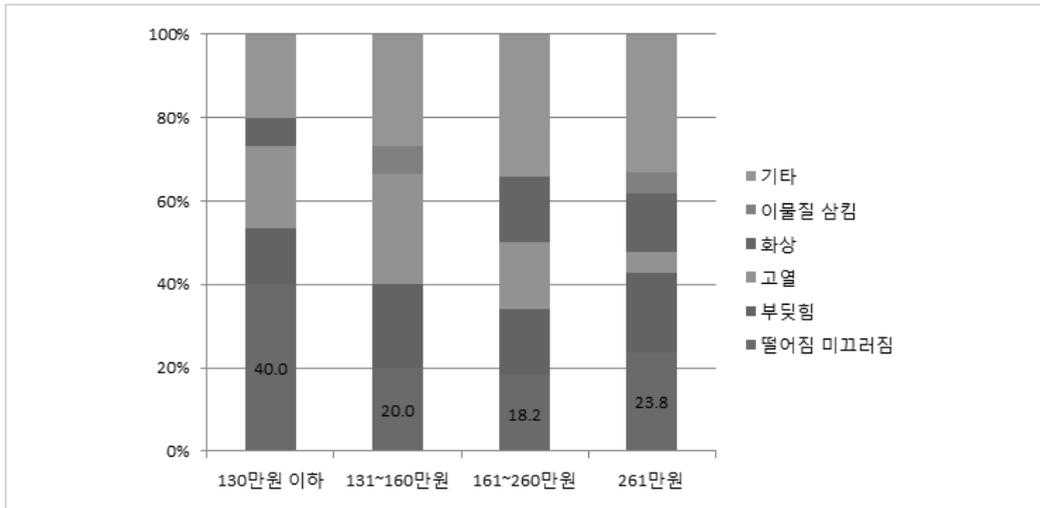
주: 횟수는 입원경험자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 $p < .05$, *** $p < .001$.



[그림 3] 가구소득별 외래치료 경험여부

- 기초생활수급 가정 영유아의 응급실 이용 원인은 주로 가정에서는 떨어짐, 미끄러짐의 비율이 40%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음.



[그림 4] 가구소득별 사고 및 중독의 발생원인

3. 저소득 가정 영유아 영양 실태

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결과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영양 관리 상태

- 최저생계비 가정 영유아의 에너지적정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최저생계비 가정 영유아들이 적정 비율에 못 미치거나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는 탄수화물 52.4%, 지방 44%로 나타났음.
- 저소득 가정 영유아들은 비타민C, 비타민A, 나이아신 섭취 불균형이 나타났음.

〈표 7〉 영유아의 부적절한 영양소 섭취 현황

단위: %					
소득 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A	티아민
전체	46.4	3.8	36.8	26.0	13.2
최저생계비	52.4	2.4	44.0	37.5	20.0
최저생계비200%	48.5	3.7	37.3	25.4	13.4
그 외	43.6	4.2	35.1	23.5	11.6
$X^2(df)$	2.203(2)	0.875(2)	2.415(2)	7.167(2)*	4.371(2)



(표 7 계속)

소득 구분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C	칼슘	철
전체	19.0	21.8	33.2	55.8	34.1
최저생계비	23.9	29.5	43.1	64.7	41.2
최저생계비200%	21.0	23.5	35.2	55.1	34.4
그 외	16.1	18.6	28.1	54.0	32.1
$X^2(df)$	3.751(2)	6.383(2)*	7.980(2)*	4.014(2)	2.306(2)

주: 보건복지부(2010)에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연령별 에너지 적정비율과 평균필요량(EAR)을 제시한 영양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준값에 미달(또는 초과)한 영유아의 백분율을 제시함.

* $p < .05$.

□ 식생활 수준

-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가끔 부족했다는 응답은 전체 영유아의 2.3%로 나타났다.

〈표 8〉 영유아 가구 소득에 따른 식생활 수준

단위: %(명)

소득 구분	충분한 양, 다양한 종류 ¹⁾	충분한 양, 다양하지 못함 ²⁾	가끔 부족 ³⁾	자주 부족 ⁴⁾	계(수)
전체	42.9	54.8	1.8	0.5	100.0(2,519,244)
최저생계비	25.4	54.3	15.8	4.5	100.0(310,963)
최저생계비200%	35.3	61.4	2.9	0.4	100.0(1,007,000)
그 외	56.1	43.6	0.3	0.0	100.0(1,201,281)

주: 1)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2)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3)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4)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5) 셀 빈도 부족으로 카이검정분석이 불가능함.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719). 2012 국민건강통계 설문내용 인용.

-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를 먹을 수 있었거나, 다양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었다는 답변이 최저생계비 초과 가구에서 90%이상으로 나타났다.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라는 응답이 15.8%, ‘자주 부족했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2) 육아정책연구소 저소득 가정 영유아 건강·영양 실태조사 결과

□ 영유아가 주로 먹는 간식

- 가구소득이 261만원 이상일 때 과일(33.1%), 빵과 떡(12.8%)을 많이 먹었으며 130만원 이하에서 과자, 사탕, 초코렛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영유아들은 간식으로 과자, 사탕, 초코렛을 먹는 비율이 20.2%로 261만원 이상 소득 집단 12.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주로 먹는 간식

구분	우유/ 유제품	과일	과자, 사탕, 초코렛	빵, 떡	음료수	기타	계(수)	단위: %(명)
								$\chi^2(df)$
전체	46.5	27.0	13.2	8.8	3.1	1.3	100.0(544)	
가구소득								
130만원 이하	42.9	27.4	20.2	6.0	1.2	2.4	100.0(84)	
131~160만원	54.3	22.9	14.3	4.3	2.9	1.4	100.0(70)	
161~260만원	48.6	24.9	10.9	8.9	5.4	1.2	100.0(257)	
261만원 이상	40.6	33.1	12.8	12.8	0.0	0.8	100.0(133)	

주: 일부 표에서 셀 빈도 부족으로 카이제곱검정 불가함.

* $p < .05$, ** $p < .01$.

□ 저소득 가정 부모의 건강관리 지식수준

- 영유아 부모들은 하루 당 우유 및 단백질 섭취 권고사항과 빈혈 예방 식품에 대해서도 80%이상 잘 알고 있었음.
- 또한 과자와 음료수가 적절하지 않은 간식임을 88.1%의 부모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야 함을 92.5%의 부모가 숙지하고 있었음.
- 그러나 뼈 성장을 위해 철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86.8%였고 끼니를 거르는 것이 비만과 관련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도 22.4%로 나타났음.
- 또한 아이가 세 끼 식사만 잘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46.3%였고, 성장기 아이에게 고기나 생선위주의 식사가 곡류나 채소보다 더 필요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45.6%로 나타났음.
-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을 시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는 18.8%임.



〈표 10〉 자녀 건강관리 지식수준- 항목별 비교

구분	단위: %(명)		
	그렇다	아니다	계(수)
아이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하루에 우유를 두 컵 이상은 마셔야 한다.	81.1	18.9	100.0(544)
아이의 적절한 성장을 위해 매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중의 적어도 한 가지는 먹이는 것이 좋다.	98.0	2.0	100.0(544)
아이의 빈혈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식품은 살코기와 달걀 등이다.	88.6	11.4	100.0(544)
성장기 아이에게 건강한 뼈의 성장을 위해서는 철분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86.8	13.2	100.0(544)
아이가 끼니를 거르면 다음 끼니에 과식을 하게 되어 비만이 될 수도 있다.	77.6	22.4	100.0(544)
성장기 아이에게는 곡류와 채소보다는 고기나 생선 위주의 식사가 필요하다.	54.4	45.6	100.0(544)
아이는 세 끼 식사만 잘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46.3	53.7	100.0(544)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우유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18.8	81.3	100.0(544)
과자와 음료수는 아이의 간식으로 적당한 식품이다.	8.6	91.4	100.0(544)
채소와 과일은 모두 같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를 먹일 필요는 없다.	7.5	92.5	100.0(544)

주: 보건복지부(2012:155). 유아보호자용 영양지식 및 태도 설문지 인용.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건강관리 지식수준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음.
-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지식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음.
 - 교육수준을 보면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자녀 건강관리 지식수준이 7.5점으로 0.4점 높게 나타났음.
 - 기초생활수급 가구(130만원 이하)에서는 평균 6.9점, 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 5분위(261만 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평균 7.5점으로 나타났음.

〈표 11〉 자녀 건강관리 지식수준- 총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사례수	단위: 점(명)
						t/F
전체	7.3	1.3	10.0	3.0	(544)	
교육수준						
고졸 이하	7.1	0.1	10.0	3.0	(208)	14.57***
대졸 이상	7.5	0.1	10.0	3.0	(336)	

(표 11 계속)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사례수	t/F
가구소득						
130만원 이하	6.9	0.1	9.0	3.0	(84)	4.59**
131~160만원	7.1	0.2	10.0	3.0	(70)	
161~260만원	7.4	0.1	10.0	4.0	(257)	
261만원 이상	7.5	0.1	10.0	4.0	(133)	

주: 총 10개 문항에 대한 옳은 응답의 총합을 활용하였음.

** $p < .01$, *** $p < .001$.

3)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건강·영양 실태에 대해 신체건강, 건강관리 행태, 식생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첫째, 신체 성장 지표로써 체질량지수 분석 결과, 정상성장 범위에 속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국민건강영양조사 5기 분석결과 보다 13.2%p 더 높은 27.9%로 나타났음.
 - 한편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질환력으로 폐렴이 11.6%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 피부염 8.5%, 성장발달 지연 6.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질환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둘째, 저소득층의 건강관리 행태로써 건강검진, 구강검진, 칫솔질, 병의원, 약국 이용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음.
 - 출산 직후 이뤄지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구강검진은 가구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생활수급 가구(130만원 이하)에서 칫솔질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로, 이들에 대한 구강관리 교육과 치료를 위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영유아는 입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래치료율은 낮아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셋째, 영유아의 식생활 특성으로 최근 식생활의 형편, 주 간식 내용, 부모의 건강관리 지식수준에 대해 살펴보았음.



- 최근 1년간 식생활 형편으로 충분한 양을 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높았음.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기초생활수급 가구(130만원 이하)에서 21.5%로 높게 나타났음.
- 가구소득이 130만원 이하 가정의 영유아들은 간식으로 과자, 사탕, 초코렛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의 칼슘, 철, 비타민C, 비타민B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건강관리 지식수준은 높았음.

4. 정책 제언

□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의 영유아 건강 및 영양사업 집중 지원 필요

- 영유아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본 연구의 영유아 체질량지수와 식생활형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는 저성장 위험과 과체중 위험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초생활수급 가구(130만원 이하)에서 치솔질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식생활형편에 관하여는, 최근 1년간 충분한 양을 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영양사업 개선

-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영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지역 보건소에서 전문영양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숙련된 인력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보 필요
 - 영양사를 임시로 채용할 경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비숙련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영양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식품 배송 시 직접 배송하는 것보다는 교환카드 혹은 쿠폰 등을 제공하여 사업의 수혜자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식품을 수령해 가는 방안 제안함.
- 영양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영양 관련 교육 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매뉴얼 개정 및 보완 작업 필요

□ 가정방문사업을 통한 영유아부모 지원

- 잘못된 건강관리 행태를 유지하는 저소득 가정을 포함하여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건강관리 행태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저소득 가정 영유아 부모의 건강관리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저소득 가정 부모의 경우, 지역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려는 동기 부족, 이동 수단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저소득 가정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영유아 영양 및 건강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

- 현재 정부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전달체계, 사업 내용 평가 및 관리 등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통합사업의 전달체계인 정부 부처, 지자체, 통합지원단, 지역 보건소 등이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각 전달체계들이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운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통합사업 우수사례 등에 관한 매뉴얼 제공,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을 해야 함.
- 각 지자체 보건소는 해당 지역의 주민건강실태조사 등에 기초하여 서비스 수요 조사를 실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유아 대상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수혜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함.



- 사업별로 수혜 기준이 최저생계비, 평균소득 등 적용 기준이 각각이고 가족사항 기준도 모두 다름.
 - 지역사회 영유아들의 전반적인 건강·영양 상태 향상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돼야함.
 - 사업에 관한 관리 및 평가체제를 통합사업 형태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변화시켜야 함.
 - 영유아를 포함한 지역주민 건강조사 및 사업관리, 홍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규 인력 충원이 필요함.
 - 지역사회의 가구 및 저소득 가정 현황 파악 등을 포함해서 각 가정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상시 배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이러한 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주도의 드림스타트 사업 및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 지자체 주도의 위스타트 사업 등과 연계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희연·임지영(2010).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제5기(2010~2012)
-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2007). 2007년 소아·청소년 표준 성장도표.
- 한국건강증진재단(2014). 시도별 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

해외문헌

- Hertzman, C., Power, C., Matthews, S. & Manor, O. (2001). Using an interactive framework of society and lifecourse to explain self-rated health in early adulthood. *Social Science & Medicine*, 53(12), 1575-1585.

PART 03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 권미경
-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 김은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및
 인력 현황과 개선 방안
 | 도남희
-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 이미화
-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
 | 최은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권미경

1. 연구배경 및 방법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법적기초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적절성 검토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요약

- 본 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선정업무 담당자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을 토대로 현재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전국의 229개 지자체 위탁 기준인 보육조례 중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관련 부분을 분석하고 위탁제 선정관리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함.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 시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법인 우선위탁을 고려할 것. 둘째,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보육조례에 명시하고, 위탁제 총위탁 기간 제한 규정마련이 필요함. 셋째, 위탁희망 주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인사 및 회계 운영관리, 위탁전입금 지원 계획, 자체평가 등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등 참고기준 자료의 보강이 필요함. 다섯째,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 및 부모의 견조사 등 평가 방법의 다면화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의 제도화하고 위탁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1. 연구배경 및 방법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국가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선호가 뚜렷함.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으며, 향후 5년간 316조를 투입하기로 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곳 이상 확충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함.
-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효과를 위해 기존의 신축 방법과 병행하여 민간시설매입, 민관연대, 증·개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 설치를 추진 중임.

- 이렇듯 다양화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상황에서 현재 운용되는 위탁체 선정관리의 기준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임.
 -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영유아보육법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제시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있음(2014 보육사업안내:14).
 - 단일 기준으로 적용 중인 기준이 최근 다양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상황에 일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않아 그 개선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음.
- 그와 동시에 보육의 질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위탁운영체라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주체 사이에 위탁체 선정관리 과정에서 우선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우선점 사이의 균형 있는 절충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함.
-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준을 검토하고, 선정관리 현황을 파악하며, 선정업무 담당자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함을 토대로 현재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¹⁾

나. 연구 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를 문헌 고찰함.
- 전국의 229개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위탁체 선

1) 이하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도 수시연구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권미경·김길숙·함철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정 관련 보육조례를 수합 분석함.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실태를 유형별 현황, 설치 및 설치계획,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재위탁 관련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함.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법적기초

가. 관련법 및 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위탁공고, 위탁신청서와 첨부 서류, 서류기재 사항, 위탁계약의 체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항목, 재위탁규정, 위탁사항 변경, 운영위탁 근거 등을 제시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 별표8의 2로 2012.2.3. 신설된 기준으로 일반기준, 심사기준, 심사결정, 그 밖의 조례 기준을 제시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나. 전국 지방정부 보육조례 분석

- 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위탁제의 선정관리에 대한 기준을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명시하고 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제 선정관리를 포함하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보육조례’라는 명칭으로 관련조례명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추세임.
 - 현재 전체의 60.2%의 지자체에서 ‘보육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39.8%에서는 타 조례명을 사용하고 있음.



- 전체 위탁기간에 대한 상한선 마련이 필요함.
 - 조례 상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경우(54.9%)가 가장 일반적이나 사실상 재위탁을 불허하는 경우는 단지 1.3%이고,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88.8%)가 많아 실질 운영기간은 훨씬 길 수 있음.
 - 원장에게는 예측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회의 배분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위탁기간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구됨.
- 조례 상 원장에 대한 정년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79%)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는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기준을 지자체마다 다르게 해석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원장과 교사를 구분하여 공무원 5급과 6급의 기준에 준하기도 함.²⁾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 위탁자의 수탁 수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지자체 조례 중 72.8%에서 위탁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과 법인, 단체 사이에 차등을 두어 개인 위탁자의 수탁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음.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실태

-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확충유형별 설치 및 계획,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공개경쟁예외 위탁, 재위탁 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임.
-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229개 지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담당자 전수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합된 205개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함.

2) 현재는 2008년의 관련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2008.6, 지방공무원법 2008.12 개정)에 의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통일되었음. 단, 개정 이후 현재에도 일부 지역의 보육 관련 조례에서는 조문의 수정 없이 그대로 시행 중인 곳이 존재함.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현황

- 2014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에 답한 205개 지자체의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은 2,140개소이며, 위탁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지역	직영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단체	개인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단위: 개소(%)
										계
전체	83 (3.8)	340 (15.8)	100 (4.6)	259 (12.1)	123 (5.7)	139 (6.4)	1,046 (48.8)	9 (0.4)	41 (1.9)	2,140 (100.0)
대도시 n=65	1 (0)	264 (25.2)	55 (5.2)	193 (18.4)	105 (10.0)	80 (7.6)	315 (30.1)	8 (0.7)	23 (2.2)	1,044 (100.0)
중소도시 n=80	53 (5.8)	56 (6.2)	43 (4.7)	51 (5.6)	17 (1.8)	59 (6.5)	606 (67.2)	1 (0.1)	15 (1.6)	901 (100.0)
읍면지역 n=60	29 (14.8)	20 (10.2)	2 (1.0)	15 (7.6)	1 (0.5)	.	125 (64.1)	.	3 (1.5)	195 (100.0)

자료: 권미경, 김길숙, 함철규(201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p. 28, <표 Ⅲ-1-1>임.

- 전체적으로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가 48.8%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15.8%, 종교법인 12.1%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 개인위탁의 비율이 60%를 상회하였고, 법인위탁 비율은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위탁체 유형에 대하여 선행연구(서수경 외, 2013; 양미선 외, 2012)는 국공립어린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 위탁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임.
- 양미선 외(2012:202)는 위탁체의 비영리성 확보가 필요하나, 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위탁자에게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려움을 들어 개인을 가능한 배제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주자고 제언함.
 - 서수경 외의 연구(2013:98)에서도 위탁체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³⁾ 제시하면서, 안전성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미 개인 위탁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음을 들어 위탁 신청에서 개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3) 위탁체 유형별 장단점 비교표를 부록으로 소개함.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유형별 설치 및 계획 현황

□ 최근 3년,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유형별로 확충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합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설치 및 계획

지역	년도							단위: 개소(%)
		신축	증개축	민간매입	민관연대	리모델링	기타	계
전체	2012	37	5	2	14	24	12	94
	2013	44	8	7	28	31	23	141
	2014	79	13	10	35	38	14	189
	2015	70	8	1	26	24	12	141
	합계	230 (40.7)	34 (6.0)	20 (3.5)	103 (18.2)	117 (20.7)	61 (10.8)	565 (100.0)
대도시		94 (30.3)	7 (2.3)	15 (4.8)	88 (28.4)	66 (21.3)	40 (12.9)	310 (100.0)
중소도시		113 (54.3)	21 (10.1)	3 (1.4)	15 (7.2)	40 (19.2)	16 (7.7)	208 (100)
읍면지역		23 (48.9)	6 (12.8)	2 (4.3)	0 (0.0)	11 (23.4)	5 (10.6)	47 (1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에 기초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56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사례 중 ‘신축하는 경우’가 40.7%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이 20.7%, ‘민관연대’가 18.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신축이 가장 보편적인 확충방법이나, 대도시에서 민관연대를 통한 방법의 비중(28.4%)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대도시에서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나 건물 비용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

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전체 위원 중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 100분의 20 이

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0분의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0분의 10 이하로 할 것을 제시함.

□ <표 3>에서와 같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은 전체 평균 기준, 보호자 및 공익 대표 47.1%, 보육전문가 17.7%, 관계공무원 15%, 어린이집원장 10.1%, 보육교사 8.6%로 전체 유형별 정원 권장 기준이 잘 준수됨.

<표 3>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단위: 명(%)

구분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기타	계
권장기준	45%이상	20%이하	15%이하	10%이하	10%이하		
전체	1,204 (47.1)	452 (17.7)	383 (15.0)	259 (10.1)	219 (8.6)	40 (1.6)	2,557 (100.0)
대도시	379 (46.6)	153 (18.8)	125 (15.4)	83 (10.2)	63 (7.7)	10 (1.2)	813 (100.0)
중소도시	508 (48.4)	195 (18.6)	143 (13.6)	99 (9.4)	90 (8.6)	15 (1.4)	1,050 (100.0)
읍면지역	317 (45.7)	104 (15.0)	115 (16.6)	77 (11.1)	66 (9.5)	15 (2.2)	694 (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2) 위원 재임기간

□ 전반적으로는 2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최대 4년까지 재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의 경우는 평균 1.76년, 보육전문가 1.98년, 관계공무원 1.66년, 어린이집원장 1.88년, 보육교사 1.76년으로 조사되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는 평균 2년 남짓임.

<표 4>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평균 재임 기간

단위: 년

지역	집단	평균(편차)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전체	1.76(0.52)	1.98(0.60)	1.66(0.65)	1.88(1.30)	1.76(0.75)	
대도시	1.67(0.57)	1.96(0.57)	1.96(0.69)	1.57(0.69)	1.57(0.65)	



(표 4 계속)

지역	집단		평균(편차)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중소도시	1.74(0.48)	2.02(0.48)	2.02(0.59)	1.65(0.59)	1.65(0.70)
읍면지역	1.87(0.49)	1.94(0.49)	1.94(0.50)	1.77(0.50)	1.77(0.56)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라. 공개경쟁 예외 위탁 현황

-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제2항의 단서로 명시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시 공개경쟁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수를 최근 3년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음.

<표 5> 공개경쟁 예외 위탁 현황

단위: 사례 수(%)

지역	민간어린이집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무상 사용	주택법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타	계
전체	9(11.2)	57(71.3)	11(13.8)	3(3.7)	80(100.0)
대도시	5(9.2)	38(70.4)	8(14.8)	3(0.6)	54(100.0)
중소도시	1(6.6)	11(73.4)	3(20.0)	0	15(100.0)
읍면지역	3(27.2)	8(72.8)	0	0	11(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 전체 80건의 사례가 있었고, 세 가지의 유형 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위탁한 경우가 57건(71.3%)으로 가장 많음.

마. 재위탁 현황

1) 재위탁 방법

-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방법은 ‘현재 운영 위탁자에 대해 단독평가 후 재위탁 하는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완전공개 경쟁하는 경우’가 22%로 조사됨.
 - 이렇듯 단독평가 후 재위탁 방법을 선호함은 선행연구에서(양미선 외, 2012:101) 지

적하였듯이 이 방법이 운영권을 확보해주고 운영 전반의 지도감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위탁도 완전 공개경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조례 개정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음.

〈표 6〉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

단위: 사례 수(%)

구분	단독평가 후 재위탁	자동 재위탁	공개경쟁 시 가산점 부여	완전 공개경쟁	기타	계
전체	142(69.4)	3(1.4)	6(2.9)	45(22.0)	9(4.3)	205(100.0)
대도시	50(76.9)	2(3.1)	2(3.1)	9(13.8)	2(3.1)	65(100.0)
중소도시	49(61.3)	0(0)	1(1.2)	26(32.5)	4(5.0)	80(100.0)
읍면지역	43(71.7)	1(1.6)	3(5.0)	10(16.7)	3(5.0)	60(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2) 재위탁 적용 기준

- 현재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재위탁의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음.

-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국공립어린이집 공통심사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기준표를 기초로 평가를 위한 기타 보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25.4%로 많았고,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7.3%로 나타남.
- 대도시에서 공통심사 기준표의 적용 비율(60.0%)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표 7〉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적용 기준

단위: 사례 수(%)

구분	공통심사 기준표	지자체 조례로 규정	기타 보완	무응답 해당없음	계
전체	107(52.2)	15(7.3)	52(25.4)	31(15.1)	205(100.0)
대도시	39(60.0)	4(6.2)	16(24.6)	6(9.2)	65(100.0)
중소도시	38(48.2)	5(6.3)	25(31.6)	11(13.9)	80(100.0)
읍면지역	30(50.0)	6(10.0)	11(18.3)	13(21.7)	60(100.0)

주: 전국 205개 지자체 보육담당자의 응답을 기초로 구성한 자료임.



바. 정책적 시사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개인위탁이 48.8%로 가장 많았음을 고려할 때, 보육소신과 전문성을 지니고 운영하는 개인 위탁자가 많으나, 법인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탁체로서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높음도 사실인 만큼 개인 위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2012년~2015년 사이 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신축이 40.7%로 가장 우위를 차지하나,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확충을 위해 민간매입, 리모델링, 민관연대 등의 방법이 병행되고 있음.
 - 이런 추세는 적은 확충비용이라는 경제성의 효과 기대만큼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니는 공공성에의 침해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진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 심사를 담당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 중이나 지자체마다 공익대표라는 범주를 해석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공개경쟁을 예외로 하고 운영권을 부여함은 일종의 특혜로 위탁체의 보육관련 전문성에 대한 검토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 동안의 신규나 변경 위탁 시 공개경쟁 예외 위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0건의 사례 중 71.3%인 57건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이나 무상사용의 경우로 확충 방법으로 보면 민관연대에 해당함.
- 재위탁과 관련한 실태결과는 지자체 수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지고 있어 고무적임.
 - 재위탁 방법은 ‘단독평가 후 재위탁(69.4%)’이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나 ‘완전 공개경쟁’의 비율도 22%로 나타남.
 - 심사의 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았고, 기준표를 기초로 평가를 위한 기타 보완 기준을 추가로 적용하

는 경우도 25.4%로 많아 선행연구 조사 시 보다 바람직한 추세로 변화 또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적절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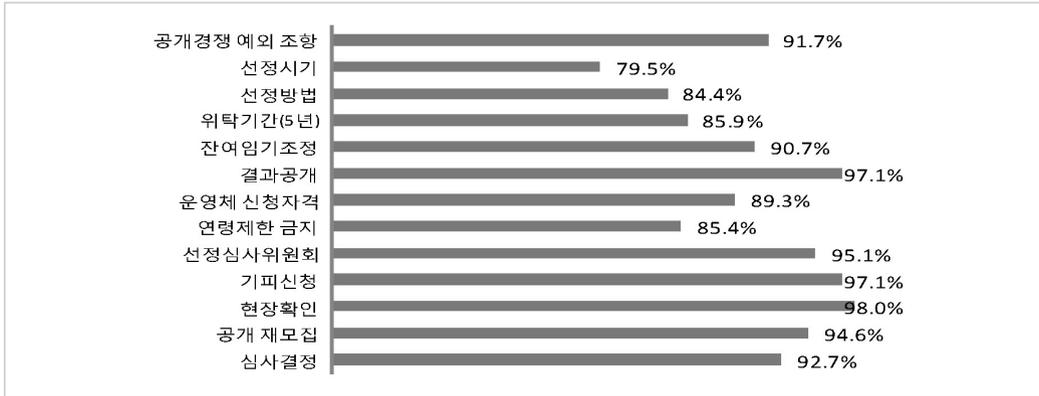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2014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된 현행 선정 관리 기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함.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를 실행하는 전국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보육전문가의 자문내용을 반영함.

가. 적절성 평가

- 시군구 보육담당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 선정관리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고 그 동의비율을 산출함.
- <표 8>과 같이 심사 시 현장 확인 실시(98%), 위탁관련 절차와 방법, 결과를 공개하는 것(97.1%)과 신청 운영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 피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97.1%)에 대해 적절하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음.
- 그에 반해 선정시기(79.5%), 선정방법(84.4%),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85.4%), 위탁기간(85.9%) 등의 현 기준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표 8>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성 동의율

		단위: 명(%)	
구분	적절성 동의	구분	적절성 동의
공개경쟁 예외 조항	188(91.7)	연령제한 금지	175(85.4)
선정시기	163(79.5)	운영조건	181(88.6)
선정방법	173(84.4)	선정심사위원회	195(95.1)
결과공개	199(97.1)	(기피신청)	199(97.1)
위탁기간(5년)	176(85.9)	심사원칙 (현장확인)	201(98.0)
잔여임기조정	186(90.7)	(공개 재모집)	194(94.6)
운영체 신청자격	183(89.3)	심사결정	190(92.7)



[그림 1]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기준별 적절성 동의율

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

1)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 법인 우선 위탁 고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비영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관건임.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해야 함.
 - 서수경 외의 연구(2013:26)에서 지적하듯 개인 위탁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유화 될 소지를 안고 있고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보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것임.
 - 양미선 외(2012:202)의 연구에서는 개인 위탁체 선정을 제한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로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폐기됨에 따라 개인 위탁체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음을 지적함.
 - 본 조사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주체가 개인위탁이 48.8%, 시군구 직영이 3.8%,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가 44.6%로 개인 위탁이 여전히 가장 많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인위탁의 안전성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이미 개인에게 위탁자격을

제한하거나 개인 위탁의 수탁 수 상한을 조례에 반영하는 지자체가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임.

2) 위탁체의 수탁수 제한에 대한 명문화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보육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언함.

○ 본 조사 결과 72.8%인 163건의 지자체 조례에는 위탁체의 수탁 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았음.

□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나는 공공성과 위탁 운영체의 비영리성 담보를 위해서는 수탁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편중되어 사유화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음에 대한 선견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 위탁자의 경우 복수 수탁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져야 함.

○ 조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탁 개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조례에 두는 경우는 법인과 단체, 개인으로 구분하여 제한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수탁 허용 개수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나, 위탁체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문화함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사료됨.

3) 위탁체의 총 위탁 기간제한 규정 마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제시함에 따라, 전체의 54.9%인 123개 지자체 조례에는 5년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2012년 선행연구(양미선 외:95) 조사시점에서는 위탁기간 3년(88.5%)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과 비교할 때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더불어 달라진 부분임.

○ 그러나 재위탁을 허용 규정을 조례로 명시한 지자체가 199곳으로 88.8%를 차지하여 주류를 이루나, 재위탁 횟수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58.5%,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36.6%로 조사됨.

○ 이를 종합하여보면, 1회 재위탁 만을 허용하는 경우라도 실제 위탁 기간은 최소 10년 정도가 될 수 있음을 뜻함.



- 이렇듯 위탁 운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그와 동시에 시설 운영의 해이와 사유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함.
- 능력 있는 위탁 희망주체 간 기회를 공유하고,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신규위탁 5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위탁 체도 동일한 조건에서 완전 공개경쟁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임.
 - 다른 위탁 주체가 합당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공개경쟁으로 다시 위탁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시 되지 않을 것임.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

1)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하도록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하고, 그 비율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의 대표성, 전문성, 의결권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유지를 위해 보육 현장 경험과 이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자질을 지닌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그 선결조건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제시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임.
 - 선행연구(양미선 외, 2012:205)의 제언처럼 본 의견수렴의 과정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의 배재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구성 비율에서 보육전문가의 비중을 늘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부모, 보육교사의 비중은 낮출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부모대표의 경우 개인차는 있으나 보육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됨.

-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육사업안내(2014:154)에는 공익을 대표자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나, 예시한 공익대표가 보육에의 이해나 전문성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움.
 - 본 연구 조사과정에서도 이 범주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 마다 차이를 보임.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중 보호자 및 공익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45%이상으로 위탁체의 선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을 고려할 때, 최소한 보육사업안내의 예시에 ‘보육 관련 업무나 경험을 지닌 자’라는 문구를 넣어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는 공익의 의미 안에 보육 관련성 여부를 구체화하여 반영할 것을 제언함.
- 이미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보육정책위원의 공개모집을 명시한 경우처럼 보육정책위원의 선정과정과 결과 공개가 요구됨.
 - 서수경 외(2013:100)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심사, 공표의 3단계로 나누어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성단계에서 보육정책위원회 3배수를 추천받아 이를 공표하고, 심사단계에서는 이해집단에 속하는 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심사단으로 하여금 추천받은 보육정책 위원들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는 방안을 제시함.

2) 위탁 심의절차 및 기준, 결과 공개 및 신규 공모 지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6조의 2는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위탁체 모집공고나 심의 결과 및 선정결과의 공개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위탁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이나 다른 요인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짧은 공모기간과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탁체 선정 관련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나 종사자들은 진입이 수월하지는 않은 실정임.
- 유능한 위탁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질적 수준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신규 진입 안내 지원이 필요함.
-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기관을 통해 그 공모내용, 자격, 응모과정준비 등을 관심 있는 위탁 희망 주체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언함.

3) 위탁체 선정 기준 개선 및 강화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 4항 및 5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을 살펴보면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함.
- 그러나 위탁체 선정 심사 시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서류만을 가지고는 보육 사업 이행을 위한 전문성, 공공성, 투명성, 체계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또한 법인 및 단체 위탁처럼 위탁체와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현재의 기준이 운영체의 기준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위탁체 관련 실적을 반영하기도 어려움.
-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체계에 포함되는 정관, 이사회 의결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 인사 및 회계 운영관리, 위탁전입금 지원 계획, 자체평가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자료 등 참고기준 자료의 보강이 필요함.

4) 재위탁체 선정과정의 기준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운영 기회를 개방하여 경쟁을 통한 질관리를 도모할 것인지 또는 운영 경험 평가를 통한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지 사이의 균형적 선택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 및 부모의견조사 등 평가 방법의 다면화
 - 재위탁의 경우 단독평가 후 재위탁이 69.4%로 가장 선호되는 방법임을 감안할 때, 단

독 평가 대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보완되어야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평가기준으로 현장 관찰과 부모의견조사를 추가할 것을 제언함.

- 재위탁은 위탁 기간 종료 전에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현재의 기준은 제출하는 서류에만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현장 관찰 등이 지표로 반영하여야 더욱 실제 운영현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될 것임.
- 재위탁 심사 기준과 관련한 쟁점 중 다른 하나는 현재 재위탁 심사기준표를 적용한 심사에서 간과, 누락된 부분이 이용아동 부모의 평가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관리기준표 적용의 문제

- 현재 신규 위탁 및 변경 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을 해야 하지만 재위탁의 경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공개경쟁 없이 재위탁 됨이 일반적이며, 이 때 사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장 사용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안정적 운영이 강점이기는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제한적인 기회를 특권적으로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분명한 사실이므로 재위탁 심사는 기존 위탁체에게 운영권을 재부여할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심사기준이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양미선 외, 2012:203)는 재위탁 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제의하였으나 본 연구의 지자체 조례분석 결과와 지자체에서 자체 적용하는 재위탁 지표를 살펴보면 오히려 현장관찰이나 지표내용을 세분화하고 첨부자료를 강화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보다 강화된 평가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도모하는 사례들도 있음.
- 현재의 기준이 의무적용 제도화보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이라고 생각되는 면도 있으나, 또 일부에서는 미흡하고 불합리한 기준의 임의 적용이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최소 수준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의 제도화는 필요함.

5)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모니터링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운영체의 운영과정



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 양미선 외(2013:205)는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위탁체의 보육업무 수행을 지원할 중앙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서수경 외(2013:104)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자치구 위탁관리 모니터링이라는 간접방식을 통해서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모니터링의 범위와 내용은 위탁체, 보육정책위원회, 위탁과정, 위탁심사지표인 4개의 범주로 정하고 지자체 위탁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배포함을 포함함.
- 질적 수준의 제고도 좋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위탁체 운영관리의 실질적 주체가 지자체임을 감안할 때 자칫 이러한 모니터링은 지자체나 자치구에 대한 중앙 차원의 개입으로 여겨지기 쉬워,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의 개념이 아닌 지원 개념으로의 모니터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지원의 허브로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할 것을 제언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원요구를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여 시의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매뉴얼, 동영상 자료 등 보조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 상담 등을 병행함으로써 질적 수준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4a). 영유아보육법령집.
- 보건복지부(2014b).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권미경·김길숙·함철규(201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수경·유정민(201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유치원 회계 실태와 개선점

김은설

1. 문제제기
2.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3. 유치원 회계 실태 분석
4. 개선점

요약

-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치원의 공공성,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회계 관리 개선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이슈페이퍼는 공·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현황을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음.
- 유치원의 회계 업무는 사립원장이나 공립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회계 관련 교육이나 관리 매뉴얼 보급이 부족하며,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회계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정책 제언으로서, 회계 담당 전담인력 배치 지원, 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 강화, 예·결산 양식의 표준화와 매뉴얼 전수 보급, 초등병설유치원의 독립 회계 수행, 실제 예·결산과 정보공시 내용을 일치 유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함.

1. 문제제기

- 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높아지면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유치원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유치원의 회계 관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2013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실시하고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공립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월 7만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공공 재정은 급격히 늘어난 상황임.
- 공립유치원은 초·중등 학교와 동일한 체계로 유치원 회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원칙적으로 사립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

* 본 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된 것임.



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이전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회계에 대한 관리도 없었음.

-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과 교사 수당 등의 국가 재정 지원이 늘어난 현 시점에서는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투명성 또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유치원의 회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본 페이퍼에서는 공·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현황을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취약점 및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현황

가. 유아교육 정책 사업

□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 정책 사업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지원 등 다섯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인적자원운용은 공립유치원의 인건비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가 이 사업에 포함됨.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단위 사업으로서 유아교육진흥이라는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은 다시 다양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이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 방향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음.
- 교육복지 지원은 유아 개개인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누리과정 지원과 급식비 지원이라는 단위 사업이 관련되어 있음.
- 학교재정운영관리와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공립유치원의 운영비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을 의미함. 이 때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는 유치원환경 개선과 유아교육진흥원설립 등이 포함됨.

〈표 1〉 정부의 유치원 지원 정책 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정규교직원인건비	기타공립정규교직원인건비
	비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기간제(시간제)교사인건비	기타공립유치원비정규직원인건비
교수-학습 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유치원 교원멘토링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3세대 하모니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세대간 지혜나눔
		사립유치원운영비	희망유아교육사
		유아학비지원시스템	누리과정 교원연수
		유치원정보공시	누리과정 자료보급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 평가	유치원 교재교구
		유아교육 네트워크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유치원 종합컨설팅단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공립단설유치원 제외)
		유치원 수석교사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기타유아교육진흥사업비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유치원 교원동아리			
교육복지 지원	누리과정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다문화가정교육비지원
		3~4세 유아학비 지원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기타유아학비지원사업비
	농어업인 유아학비 지원		
급식지원	저소득층유아급식비지원	기타유아급식지원 사업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운영비지원	기타공립유치원운영지원 사업비
학교교육 여건개선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기타원아수용시설설립비
	교육환경 개선시설	공립단설유치원 환경개선비	기타유치원교육환경개선시설비
	유아교육진흥원설립비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60.

나. 유아 및 사립교원에 대한 지원

- 정부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 사업에 속하지만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사업으로서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비(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포함) 지원과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정부가 학부모에 대해 유아의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이 그것임.
 -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기본과정 교육비가 전



액 지원됨으로써 취학전 3년간 유아교육이 무상교육화 되어 있음. 즉, 가구 소득수준이나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일일 3~5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시간 동안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비는 행정상 부모에게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방식이며 금융기관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가가 지원한 교육비를 부모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의 단가는 2015년 현재 3~5세 전 연령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월 220,000원이며,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는 월 60,000원이 아동별로 부모에게 지원됨.
- 누리과정과 더불어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의 부모에게 국가는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금액은 국·공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사립유치원은 70,000원임.
- 지원 조건은 반드시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함.
 - 15일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유치원 자체 예산이 충당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실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는 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교사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으로 구분됨.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지원 수준이 조금 높아진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는 평균 월 400,000원이 모든 교사에게 지급되고 있음. 시·도별로 일부 차이가 있음.
 -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당 교사 1인에 대해 월 110,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기본급 외에 월 510,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음.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밖의 수당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음.

다. 유아교육 예산

- 2014년 국가 유아교육 총 예산 규모¹⁾는 <표 2>에서 보듯이 5,078,926백만원이고, 이 중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 1,567,477백만원을 제외하면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 예산은 3,511,450백만원임.
- 이는 전해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증액된 셈임. 유아교육 국가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예산 자료를 교육부가 수합하여 총계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
 - 유아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교육비를 제외하고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재정의 규모는 교수-학습 활동지원비 2,640억원임.
 - 지자체에 따라 별도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는 바,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에서 서울과 인천은 사립유치원에 각각 2,263백만원과 7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과 전북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어린이집에 각각 156백만원과 70백만원을 지원함.

<표 2> 2014년 각 시·도별 유아교육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합계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공립	공립	예산 ¹⁾	예산 ²⁾		
서울	42,961	2,404	43,632	12,514	241,028	295,003	39,251	26,119	702,912	407,909			
부산	17,331	6,080	25,734	4,630	120,842	68,215	6,089	12,684	261,605	193,390			
대구	15,635	951	11,885	5,199	96,922	43,421	773	0	174,786	131,365			
인천	25,607	4,254	10,626	9,673	96,938	83,941	10,139	2,562	243,740	159,799			
광주	19,717	2,432	11,278	5,490	59,924	51,160	2,485	9,935	162,421	111,261			
대전	23,306	1,658	12,907	4,358	67,803	45,019	3,011	66	158,128	113,109			
울산	14,546	2,086	8,740	3,574	49,879	33,519	6,015	583	118,942	85,423			
세종	5,079	1,446	166	3,983	1,131	12,347	1,457	73,260	98,869	86,522			
경기	135,369	16,020	63,537	42,179	431,042	410,534	46,598	155,960	1,301,239	890,705			
강원	48,844	6,319	6,101	8,931	37,012	53,101	7,156	41,991	209,455	156,354			
충북	46,702	8,160	4,112	10,906	31,625	64,106	7,749	7,838	181,198	117,092			
충남	43,813	10,121	6,772	15,447	55,383	83,879	11,758	3,752	230,925	147,046			
전북	52,557	9,903	9,998	9,750	46,372	61,857	16,978	1,638	209,053	147,196			
전남	73,665	8,028	7,138	9,755	28,223	63,303	13,062	1,810	204,984	141,681			

1) 2015년 총 유아교육 예산은 5월 현재 교육부 내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합 중이므로 정확한 규모파악이 어려움.



(표 2 계속)

구분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 교육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합계	
	공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공립	공립	공립	예산 ¹	예산 ²		
경북	152,267	23,832	17,557	15,322	95,878	53,344	5,946	9,217	373,363	320,019			
경남	67,048	7,023	22,631	18,807	123,446	107,967	9,325	19,290	375,537	267,570			
제주	12,845	1,978	1,490	4,236	12,253	36,761	2,140	65	71,768	35,007			
총계	232,160	32,833	41,678	38,365	231,577	198,072	17,411	28,572	820,669	622,598			

주: 예산¹은 지역별 항목 합계이며 예산²은 예산¹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복지지원액을 제외한 합계임.
 자료: 교육부(2014). 2014년 유아교육 예산안. 내부자료.

- 연도별 유아교육 예산을 보면, 5세를 위한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결과를 알 수 있음. 매년 1조 이상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임.

〈표 3〉 연도별 유아교육 예산 총액 변화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¹⁾	2014
예산	1,012,019	1,235,853	1,500,018	1,923,903	3,027,984	4,139,704	5,304,268

주: 1) 2013년 자료는 결산에 의한. 나머지 연도는 모두 예산에 의한.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은설·황성운·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3. 유치원 회계 실태 분석

- 유치원에서 회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조사는 2014년 8월~9월에 걸쳐 공·사립 유치원 총 600여개 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조사는 온라인 방식이었으며 설립유형뿐 아니라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소재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을 표집함.
 - 조사의 내용은 기본현황, 인건비 산출 관련 자료, 회계 및 예결산, 정보공시탑재, 회계 관리 현황 및 애로점 등으로 구성되었음.

가. 회계 담당자

- 예·결산 및 회계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보면, 전체 유치원 중 42.3%가 담당 행정직원(정규직)이 예·결산 및 회계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24.8%는 원장이, 14.2%는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음(〈표 4〉 참조).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는 6.5%이며, 행정보조원, 원감 담당이 각각 3.9%, 2.7%를 차지함.
-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읍면지역 51.9%, 중소도시 38.9%, 대도시 36.8%로 도시지역일수록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공립의 경우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으며, 27.6%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반면 사립은 49.8%가 원장이 담당하고 행정직원이 담당하는 경우는 20.1%임.
 -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원장이 예·결산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특히 외부 전문 업체 담당 비중이 증가함.

〈표 4〉 예·결산 및 회계업무 담당자

단위: %, (개원)

	담당 행정직원	행정 보조원	원장	원감	담임교사	외부 전문업체	기타	계(N)	$X^2(df)$
전체	42.3	3.9	24.8	3.7	14.2	6.5	4.6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36.8	1.5	29.4	7.4	7.4	8.8	8.8	100.0(138)	
중소도시	38.9	4.4	24.3	3.1	17.7	8.0	3.5	100.0(227)	36.9(12)***
읍면	51.9	5.1	21.5	1.3	15.2	2.5	2.5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64.4	3.5	0.0	0.0	27.6	0.0	4.6	100.0(263)	n.a.
사립	20.1	4.3	49.8	7.3	0.8	13.1	4.6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58.2	5.1	8.9	0.6	21.5	0.0	5.7	100.0(159)	
중규모	33.9	3.7	27.5	3.2	20.6	6.9	4.2	100.0(191)	103.4(12)***
대규모	37.0	2.9	36.4	6.9	0.6	12.1	4.1	100.0(174)	

*** $p < .001$



나. 회계업무 연수 및 매뉴얼 구비 현황

- <표 5>는 유치원에서의 최근 3년 이내 예·결산 운영관리에 대한 담당자 연수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임. 연수 경험이 있는 유치원의 비중은 전체의 67.3%이고 나머지 32.7%는 경험이 없었음.
- 지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수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높아짐.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각각 58.5%, 67.8%, 76.6%임.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은 56.5%, 사립은 78.2%로 사립의 유경험 응답율이 높음.

<표 5> 최근 3년 이내 예·결산 운영관리 연수 경험 여부

	있음	없음	계(N)	단위: %, (명) $\chi^2(df)$
전체	67.3	32.7	100.0(523)	
지역 규모				
대도시	76.6	23.4	100.0(137)	11.1(2)**
중소도시	67.8	32.2	100.0(227)	
읍면	58.5	41.5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56.5	43.5	100.0(262)	27.9(1)***
사립	78.2	21.8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54.1	45.9	100.0(159)	32.3(2)***
중규모	64.2	35.8	100.0(190)	
대규모	82.8	17.2	100.0(174)	

** $p < .01$, *** $p < .001$

- 회계업무 담당자의 예·결산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연수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68.5%임. 보통이라는 의견이 8.1%, 전혀 필요없음이 2.3%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규모나 설립유형, 유치원 규모별로 큰 차이 없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0%수준이므로, 유치원 현장에서 상당한 인력이 예·결산 운영 관리에 대한 연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회계업무 담당자 연수 필요성

단위: %, (개원)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별로 필요없음	전혀 필요없음	계(N)	$X^2(df)$
전체	68.5	19.0	8.1	2.1	2.3	100.0(521)	
지역 규모							
대도시	73.7	16.1	5.8	2.9	1.5	100.0(137)	
중소도시	65.8	19.6	9.8	1.8	3.1	100.0(225)	5.2(8)
읍면	67.9	20.8	7.6	1.9	1.9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67.1	16.9	10.0	2.3	3.8	100.0(261)	9.2(4)
사립	70.0	21.2	6.2	1.9	0.8	100.0(260)	
유치원 규모							
소규모	60.8	20.9	11.4	3.2	3.8	100.0(158)	
중규모	67.2	22.2	6.4	2.1	2.1	100.0(189)	14.4(8)
대규모	77.0	13.8	6.9	1.2	1.2	100.0(174)	

□ 예산 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 현황을 보면, 80.1%의 유치원에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표 7〉 참조). 도시지역일수록 67.9%, 65.8%, 73.7%로 매뉴얼 보유 유치원 비중이 높음. 공립, 사립 모두 매뉴얼 보유수준이 각각 81.3%, 78.4%로 비슷함.

〈표 7〉 예산운영 관리 매뉴얼 보유 여부

단위: %, (개원)

	있음	없음	계(N)	$X^2(df)$
전체	80.1	19.9	100.0(523)	
지역 규모				
대도시	83.9	16.1	100.0(137)	
중소도시	78.4	21.6	100.0(227)	1.7(2)
읍면	79.2	20.8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81.3	18.7	100.0(262)	0.5(1)
사립	78.9	21.1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80.5	19.5	100.0(159)	
중규모	77.4	22.6	100.0(190)	1.7(2)
대규모	82.8	17.2	100.0(174)	



□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아, 읍면이거나 유치원규모가 작을 경우에 3년 이내 예·결산 회계업무 관련 연수경험 비중이 낮고, 매뉴얼 보유비율도 낮으며, 연수 필요성을 느끼는 의견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결산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됨.

다. 예·결산의 정보공시

□ 다음 <표 8>은 예·결산 자료의 정보공시와 관련한 부분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예·결산 양식과 정보공시에 탑재하는 양식과의 차이 정도를 알아봄. 조사한 결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예·결산 자료와 유치원정보공시(‘유치원 알리미’)에 올린 자료와 예·결산 항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의견이 73.8%로 나타나고 4.2%는 조금 일치하는 정도인 것으로 보임.

- 설립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공립유치원은 정보공시자료와 실제 예·결산이 81.7%에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사립은 65.9%정도에 그침.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시되는 예·결산과 실제 항목이 다른 비율이 높은 편임.

<표 8> 유치원 정보공시 자료와 실제 예·결산 항목 간 일치 여부

단위: %, (개원)

	완전히 일치	상당 부분 일치	어느 정도 일치	계(N)	$\chi^2(df)$
전체	73.8	22.0	4.2	100.0(523)	
지역 규모					
대도시	75.9	21.9	2.2	100.0(137)	
중소도시	74.9	21.2	4.0	100.0(227)	3.6(4)
읍면	70.4	23.3	6.3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81.7	15.3	3.1	100.0(262)	16.9(2)***
사립	65.9	28.7	5.4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76.1	18.9	5.0	100.0(159)	
중규모	73.2	23.2	3.7	100.0(190)	1.6(4)
대규모	72.4	23.6	4.0	100.0(174)	

*** $p < .001$

- 예·결산 자료 탑재 업무 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가 하는 경우가 전체의 37.2% 정도이며, 담당 행정직원이 24.3%, 원장 17.6%, 원감 14.4%로 나타남(〈표 9〉 참조).
- 지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담임교사와 담당행정직원이 예·결산 자료를 유치원 정보공시에 탑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오히려 원감이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공립, 소규모, 읍면지역에서 담임교사가 탑재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많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특징적인 점으로 공립의 경우, 담임교사가 64.5%까지 담당하고, 담당 행정직원이 32.1%였으나, 사립의 경우, 원장이 35.4%, 원감이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사립 간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9〉 예·결산 자료 정보공시 탑재 업무 담당자

							단위: %, (개원)	
	담당 행정직원	원장	원감	비담임교사	담임교사	기타	계(N)	$\chi^2(df)$
전체	24.3	17.6	14.4	3.3	37.2	3.3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17.7	14.7	25.0	5.9	34.6	2.2	100.0(138)	
중소도시	21.2	21.2	13.7	3.5	35.7	4.9	100.0(227)	41.8(10)***
읍면	34.6	15.1	6.3	0.6	41.5	1.9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32.1	0.0	0.0	0.4	64.5	3.1	100.0(263)	300.4(5)***
사립	16.5	35.4	28.9	6.2	9.6	3.5	100.0(261)	
유치원 규모								
소규모	26.4	5.0	1.9	0.0	63.5	3.1	100.0(159)	
중규모	20.0	20.5	9.0	3.2	43.2	4.2	100.0(191)	169.2(10)***
대규모	27.2	26.0	31.8	6.4	6.4	2.3	100.0(174)	

*** $p < .001$

- 〈표 10〉은 예·결산 등록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조사 결과임. 실제 유치원에서는 양식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이 49.8%에 달함. 다음은 양식에 이기하는 작업의 번거로움이 14.0%를 차지하고 그 밖에 사이트 내 탑재 과정의 불편함, 양식에서 자동 전자계산이 되지 않는 불편함, 예·결산서 탑재 시기의 불편함 등이 제시됨.



〈표 10〉 예·결산 등록 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명)

	세부항목 이해	이기 작업	탐재 과정	자동계산 불가	탐재 시기	실제 양식격차	기타	계(N)	$\chi^2(df)$
전체	49.8	14.0	9.2	9.9	9.0	7.0	1.1	100.0(524)	
지역 규모									
대도시	51.7	10.3	3.5	14.7	10.3	8.6	0.9	100.0(138)	
중소도시	46.9	17.0	8.8	10.8	9.3	6.2	1.0	100.0(227)	20.3(12)
읍면	52.2	12.7	14.9	4.5	7.5	6.7	1.5	100.0(159)	
설립 유형									
공립	50	14.1	11.7	6.8	10.7	5.3	1.5	100.0(263)	9.2(6)*
사립	49.6	13.9	7.1	12.6	7.6	8.4	0.8	100.0(261)	

* $p < .05$

라. 예산 부족 및 과잉 경험

□ 유치원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남거나 부족했던 경험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유치원의 76.3%가 예산을 남긴 경험이 있고 74.4%는 예산부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1〉 참조).

- 남은 예산에 대한 추후 처리방법은 90.43%가 이월처리하고 있으며, 시설비로 사용한다는 곳이 3.48%, 기타, 불용액조서, 다음 년도 필요 교재교구 구입 반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 설립유형별로 보면 예산부족 경험은 공립에서의 응답비율이 높고 예사과잉 경험은 사립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산 부족을 경험한 유치원에 한하여 추후 처리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94%에 달하는 유치원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하고 있음. 그 밖에 설립자 부담, 차입금, 이사장 부담, 타 예산 집행시 건축행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부족에 대한 추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11〉 예산이 남거나 부족했던 경험 여부

단위: %

	예산과잉 경험있음	예산부족 경험있음
전체	76.3	74.4
지역 규모		
대도시	75.2	65.7
중소도시	77.1	76.0
읍면	76.1	79.8
설립 유형		
공립	71.0	83.4
사립	81.6	65.5
유치원 규모		
소규모	79.9	82.9
중규모	74.2	71.8
대규모	75.3	69.5

주: '경험없음' 해당 비율은 생략함.

마. 회계업무 개선사항

□ 기타 지자체 지원, 예산수립, 집행, 결산보고,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업무 간소화에 대한 개선요구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표 12〉 참조). 다음으로 재정 담당 인력 배치 및 회계 연수 등에 대한 필요를 23.3%가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예산 지원 시기와 사업개시일 불일치로 인한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꼽았음.

〈표 12〉 유치원 회계업무 관련 개선 요구

단위: (개원), %

개선 요구 내용	사례수	계
전체	(193)	100.0
업무의 간소화(예산집행, 서류업무)	(54)	28.0
재정담당 인력 배치 및 회계 연수 필요	(45)	23.3
예산지원 시기와 사업개시일의 부조합	(18)	5.2
예산 지원 부족(방과후 예산, 지자체 지원예산 안정화 등)	(18)	5.2
정보공시(회계시스템, 양식, 시기, 정보연동, 정보신뢰성 검증 등)	(16)	9.3
유치원 별도 회계규칙 필요	(14)	7.3
매뉴얼 필요	(10)	8.3
기타	(18)	9.3



바. 회계처리와 예·결산 양식

1) 공립 초등병설 유치원

-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결산현황을 분석해보면, 공립초등병설유치원은 대부분 초등학교회계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써 별도 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음.
 - <표 13>에 제시된 조사결과를 보면, 예·결산서 독립작성이 전체의 22.9%이며,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이 77.1%임. 즉,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의 예·결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서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 하는 경우가 80.6%에 달함.
 - 초등학교의 예·결산서와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유치원은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하지 않음.

<표 13> 초등병설유치원 예·결산서 작성 현황

단위: %, (개원)

	유치원 예·결산서 독립 작성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 작성	계(N)	$\chi^2(df)$
전체	22.9	77.1	100.0(218)	
지역 규모				
대도시	19.4	80.6	100.0(36)	
중소도시	24.4	75.6	100.0(90)	0.4(2)
읍면	22.8	77.2	100.0(92)	
유치원 규모				
소규모	19.9	80.2	100.0(136)	
중규모	28.1	72.0	100.0(82)	1.9(1)

- 유치원 예·결산서를 독립작성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독립작성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독립예산과 별도 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0%이고, 별도 인력이 없으나 독립예산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2.0%, 초등학교 행정실 업무 미지원이 2.0%임.
 - 예·결산서를 독립작성하는 유치원 중 82.0%가 인력이 없어도 초등학교와 독립예산을 쓰기 때문에 독립작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별도 인력의 유무보다는 독립 예산을 보유로 인해 예·결산서 독립작성을 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대도시의

경우 독립예산과 별도인력을 보유로 인하여 예·결산서 독립작성한다는 응답이 28.6%로 다른 지역규모에 비해 높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14〉 병설유치원의 예·결산서 초등학교와 독립 작성 이유

단위: %, (개원)

	별도 인력 있고, 독립예산 보유	별도 인력 없으나, 독립예산 보유	초등 행정실의 업무 미지원	기타	계	$\chi^2(df)$
전체	14.0	82.0	2.0	2.0	100.0(50)	
지역 규모						
대도시	28.6	71.4	0.0	0.0	100.0(7)	
중소도시	9.1	86.4	4.6	0.0	100.0(22)	4.2(6)
읍면	14.3	81.0	0.0	4.8	100.0(21)	
유치원 규모						
소규모	14.8	81.5	0.0	3.7	100.0(27)	2.1(3)
중규모	13.0	82.6	4.4	0.0	100.0(23)	

□ 예·결산서를 독립 작성할 경우의 회계표 담당자는 전체의 50.0% 정도가 (업무담당) 교사임(〈표 15〉 참조). 나머지 32.0%가 담당 전문인력, 2%는 원감이 회계표를 담당함.

○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에서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42.9%로 가장 비중이 높고, 중소도시는 72.7%에서 업무담당 교사가 하는 경우가 많음.

〈표 15〉 예·결산 독립작성 초등병설유치원의 회계표 담당자

단위: %, (개원)

	(업무담당) 교사	원감	담당 전문인력	기타	계(N)	$\chi^2(df)$
전체	50.0	2.0	32.0	16.0	100.0(50)	
지역 규모						
대도시	14.3	14.3	42.9	28.6	100.0(7)	
중소도시	72.7	0.0	18.2	9.1	100.0(22)	14.6(6)*
읍면	38.1	0.0	42.9	19.1	100.0(21)	
유치원 규모						
소규모	40.7	0.0	48.2	11.1	100.0(27)	7.8(3)*
중규모	60.9	4.4	13.0	21.7	100.0(23)	

* $p < .05$

□ 초등학교와 예·결산서 통합작성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통합작성 시 불편한 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불편한 점으로는 학교 행정직원의 유치원 이



해부족 50.4%였고, 다음으로 35.0%인 유치원에서 제공하고 설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유치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작성하지 않다는 것 6.5%, 초등학교의 예·결산 양식과 유치원 양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 5.7% 등이 제시됨.

〈표 16〉 공립병설유치원이 초등학교와 예·결산 통합작성 시 불편한 점

단위: %, (개원)

	유치원 이해부족	유치원 선호 예산작성 불가	설명 필요한 업무량이 많음	초등 예·결산 양식과 미동일	기타	계(N)	$\chi^2(df)$
전체	50.4	6.5	35.0	5.7	2.4	100.0(123)	
지역 규모							
대도시	70.8	4.2	16.7	4.2	4.2	100.0(24)	
중소도시	38.5	9.6	42.3	7.7	1.9	100.0(52)	9.0(8)
읍면	53.2	4.3	36.2	4.3	2.1	100.0(47)	
유치원 규모							
소규모	47.4	7.9	35.5	6.6	2.6	100.0(76)	
중규모	55.3	4.3	34.0	4.3	2.1	100.0(47)	1.3(4)

2)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 양식을 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회계양식은 전체 58.4%가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이라고 응답함. 32.2%는 회계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전체 5.9%가 유치원 자체양식을, 3.5%가 지역 사립유치원의 보편적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일수록 교육청 양식을 따르는 경우가 높아 보이나 실제로 응답에서 지역이나 기관규모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음.

〈표 17〉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양식

단위: %, (개원)

	교육청 양식	유치원 자체양식	지역 사립유치원의 보편적 양식	회계 전문업체 양식	계(N)	$\chi^2(df)$
전체	58.4	5.9	3.5	32.2	100.0(255)	
지역 규모						
대도시	59.3	8.8	3.3	28.6	100.0(91)	
중소도시	58.5	3.4	2.5	35.6	100.0(118)	5.0(6)
읍면	56.5	6.5	6.5	30.4	100.0(46)	

(표 17 계속)

	교육청 양식	유치원 자체양식	지역 사립유치원의 보편적 양식	회계 전문업체 양식	계(N)	$\chi^2(df)$
유치원 규모						
소규모	52.4	0.0	14.3	33.3	100.0(21)	
중규모	59.8	8.1	3.5	28.7	100.0(87)	10.4(6)
대규모	58.5	5.4	2.0	34.0	100.0(147)	

□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보면,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개별 유치원마다 또는 지역별로 특정 비용을 임의적으로 일부 항목에 계상하고 있어 회계 정보 비교 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음.

-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회계처리 계상 방식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인건비를 임시직 급여 항목에 작성하는 경우가 전체의 54.6%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건비에 계상하는 경우는 24.2%임. 공통운영비에는 3.3%, 학부모 부담경비로 회계항목에 작성하는 경우는 1.7%로 매우 다양함.
- 비정규 직원의 경우도 임시직 급여 인건비로 58.5%가 작성하나,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건비항목에 작성하는 경우 또한 18.3%임. 특성화 교육 강사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운전기사의 경우 임시직 급여 인건비 항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37.2%이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예·결산서에 항목 작성하는 경우가 26.9%, 공통운영비로는 전체 유치원의 18.2%가 작성하고 있음.
- 급식관련 종사자의 인건비의 경우, 임시직 급여 인건비 항목으로 작성하는 비중이 30.3%로 가장 높지만,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24.6%임.

〈표 18〉 사립유치원 비정규직 인건비의 계상 항목

비정규직 구분	단위: %, (개원)					
	인건비-임시직 급여	인건비-정규직 항목	공통운영비	학부모 부담경비	기타	계(N)
교사	54.6	24.2	3.3	1.7	16.3	100.0(240)
직원	58.5	18.3	6.6	2.1	14.5	100.0(241)
특성화 강사	21.3	10.4	10.8	37.1	20.4	100.0(240)
운전기사	37.2	26.9	18.2	9.1	8.7	100.0(242)
급식 종사자	30.3	24.6	9.0	24.2	11.9	100.0(244)



□ 유치원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후 예·결산서 항목으로 계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16.9%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함(〈표 19〉 참조).

〈표 19〉 사립유치원에서 지출 비용 계상 항목 선정이 어려웠던 경험 여부

	예	아니오	계(N)	단위: %, (개원) $\chi^2(df)$
전체	16.9	83.1	100.0(249)	
지역 규모				
대도시	16.5	83.5	100.0(91)	
중소도시	17.5	82.5	100.0(115)	0.1(2)
읍면	16.3	83.7	100.0(43)	
유치원 규모				
소규모	4.8	95.2	100.0(21)	
중규모	15.7	84.3	100.0(83)	3.0(2)
대규모	19.4	80.6	100.0(145)	

4. 개선점

- 분석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바탕으로 현행 유치원 회계에서 개선점 되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함.
- 유치원에 회계 담당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또는 교육청 소속 순환 사무인력 파견 등의 방안을 제시함. 공립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행정인력을 함께 활용하도록 행정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고려할 만함.
 - 유치원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인력이 별도로 없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립 유치원은 50% 정도 비율로 원장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28%에서는 교사가 회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립유치원의 원장은 많은 경우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유치원의 운영 결과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입장임. 예·결산 수립과 집행을 모두 원장이 진행하게 되면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투명성이나 정확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걱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사립 유치원에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

- 원이 있어야 할 것임.
-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경우 다연령을 지도해야 한다거나 별도 행정원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 업무를 봐야 하는 등 교사의 업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회계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교사 업무 과중이 우려됨. 대부분 공립병설유치원이므로 초등학교의 행정인력이 유치원 회계업무를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행정원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동인을 부여해야 함.
-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해 유치원 예·결산 운영 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립유치원에서 교사가 회계를 담당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회계 관련 업무 연수가 필요함.
- 회계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88%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사립은 90%가 넘는 요구를 보였음.
 - 공립유치원의 경우 43.5%가 최근 3년 이내 예·결산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해 보임. 특히 공립의 28%가 교사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회계 업무 교육이 더욱 필요함.
- 예·결산 양식의 표준을 제시하고 각 관·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시가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를 전체 유치원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사립유치원의 경우 예·결산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또는 개별 유치원별로 자의적으로 회계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같은 지출 내역도 유치원에 따라 다른 항목에 계상하는 경우가 많아 유치원간 회계 결과를 비교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동일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자의적인 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동일 설립유형(공립-사립) 간에는 일정한 양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예·결산 관·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된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유치원에 일제 보급할 필요가 있음.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20%정도의 유치원은 회계 관련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유치원 전수에 대한 개정 매뉴얼 보급이 있어야 할 것임.
- 공립초등병설유치원 회계는 초등학교와 별도의 독립 회계로 수행해야 함.



- 조사에 의하면, 병설유치원의 77%가 초등학교 회계와 분리 없이 그 일부로 포함하여 회계를 수행하고 23%만이 독립회계를 한다고 보고함.
 - 현행과 같이 학교 회계에 포함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예·결산 양식은 해당 유치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직무가 유명무실할 수 있음. 학부모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회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음.
 - 독립 회계를 한다고 응답한 유치원의 96%가 독립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므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도 기관으로서 독립 예·결산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초등학교 행정인력이 유치원 회계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이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유치원에 적절한 예산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유치원 측에서 보이고 있으므로, 독립 작성이 정상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음.
 - 회계 담당 별도 인력 유무와 무관하게 초등병설유치원의 회계는 학교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유치원의 결과가 유치원 정보공시에 공개되어야 할 것임.
- 실제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예·결산서 양식과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에 탑재하는 양식이 일치되도록 정비해야 함. 즉, 유치원의 예·결산 통일 양식이 필요함.
- 실제 예·결산 양식과 정보공시 자료의 일치 정도를 확인한 질문에서 완전히 일치한다고 한 사립유치원은 66% 정도이므로, 34%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실제 사용하는 예·결산과 공시하는 회계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사용하는 실제 양식이 공시되는 양식과 다르다는 점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낳을 뿐 아니라 실제 회계의 일부가 공시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도 실제 회계가 그대로 공시될 수 있도록 회계 방식과 양식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은설·김정숙·이동하(2014). 2014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황성운·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부·경상남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및 인력 현황과 개선 방안

도남희

1. 문제제기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 시설 설비 현황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 인력 현황
3. 결론 및 정책 제언

요약

- 영유아기의 영양과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운영을 위해서는 설비와 인력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하여 급간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조리실은 구비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의 조리실 규모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식당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또한 유치원의 조리실은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사 유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영양사 보유 비율은 매우 높음. 조리사의 경우도 유치원의 배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는 병설인 경우가 많아 실제 유치원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배치는 더 적을 것으로 추측됨.
-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 제공을 위해서는 먼저 영유아들을 위한 조리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리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균형잡힌 조리를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의 현실적인 배치가 요구됨.

1. 문제제기

-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변화, 여성 취업률의 증가와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인해 기관 이용율이 증가함.
 - 기관 이용율과 이용 시간의 증가로 영유아들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 기관에서 급식과 간식을 제공 받음.
- 영유아기는 성장의 급등기로서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이나 가정보다 기관에서 급간식을 통해 영양을 섭취함.
 - 영유아기의 영양과 식습관은 이후의 신체적 건강과 식습관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 학부모의 27.1%(통계청, 2012)는 학교 및 시설의 급식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 영유아기의 영양과 식습관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운영을 위해서는 설비와 인력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급식운영을 위한 시설설비와 인력 현황이 시설 유형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기관에 따라 정부 지원도 다름.
 - 영양 기준이나 표준식단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시설설비와 인력에 관한 논의는 많지 않았음.
 - 시설설비와 인력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600개소, 유치원 400개소의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실시함.
-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을 위해 시설설비와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알아봄.

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 시설 설비 현황

가. 조리실

- 어린이집에서 조리실 여부에 대해 99.0%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조리실의 위치는 상당수(93.8%)가 지상이었음.
 - 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법인·단체 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인이나 단체 시설의 공간 배치에 따라 다른 공간을 배정하고 남는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됨.
 - 시설 유형에 따른 조리실 위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1〉 조리실 여부 및 위치-어린이집

구분	조리실 여부			조리실 위치			단위: %(개소)
	있음	없음	$\chi^2(df)$	지하	지상	$\chi^2(df)$	계(수)
전체	99.0	1.0		6.2	93.8		100.0(600)
시설유형							
국공립	100.0	0.0		8.6	91.4		100.0(139)
사회법인	98.5	1.5		4.6	95.4		100.0(65)
법인·단체	97.8	2.2	11.16(4)*	15.2	84.8	10.39(4)*	100.0(46)
민간	100.0	0.0		4.3	95.7		100.0(230)
가정	96.7	3.3		4.2	95.8		100.0(120)

* $p < .05$

□ 유치원의 98.5%가 조리실이 있다고 응답함.

- 조리실의 위치는 지상과 지하가 각각 84.3%, 15.8%이었음
- 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는 사립이 공립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공간배치의 효율성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됨.
- 시설유형에 따른 조리실 위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2〉 조리실 여부 및 위치-유치원

구분	조리실 여부			조리실 위치			단위: %(개소)
	있음	없음	$\chi^2(df)$	지하	지상	$\chi^2(df)$	계(수)
전체	98.5	1.5		15.8	84.3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93.8	6.3		6.3	93.8		100.0(16)
공립병설	98.0	2.0	3.98(3)	5.3	94.7	23.93(3)***	100.0(152)
사립법인	97.8	2.2		26.1	73.9		100.0(46)
사립사인	99.5	.5		22.6	77.4		100.0(186)

*** $p < .001$

□ 어린이집의 조리실 규모는 10-19㎡이 가장 많았음(57.8%).

- 20-49㎡가 32.7%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리실의 규모는 49㎡ 이하이며, 조리실 평균은 21.95㎡였음.



-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이, 지역규모로는 읍면지역이 조리실의 면적이 넓은 비율이 많으며, 현원이 증가할수록 조리실의 규모도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시설유형, 지역규모 및 현원에 따른 조리실 규모의 차이가 있음.

〈표 3〉 조리실 규모-어린이집

							단위: %(개소), m ²
구분	10-19	20-49	50-99	100 이상	계(수)	평균	X ² (df)
전체	57.8	32.7	3.7	5.8	100.0(600)	21.95	
시설유형							
국공립	46.8	45.3	4.3	3.6	100.0(139)	23.19	
사회·법인	40.0	50.8	4.6	4.6	100.0(65)	27.18	
법인·단체	47.8	39.1	4.3	8.7	100.0(46)	24.28	76.51 (12)***
민간	55.7	33.9	3.9	6.5	100.0(230)	23.39	
가정	88.3	3.3	1.7	6.7	100.0(120)	13.82	
지역규모							
대도시	60.0	33.5	3.1	3.4	100.0(355)	21.94	
중소도시	59.9	26.9	5.5	7.7	100.0(182)	22.05	23.78 (6)**
읍면지역	39.7	44.4	1.6	14.3	100.0(63)	21.72	
현원							
20명 이하	85.5	5.6	1.6	7.3	100.0(124)	14.02	
50명 이하	76.2	16.2	2.3	5.4	100.0(130)	16.36	
80명 이하	51.8	42.9	3.6	1.8	100.0(112)	21.95	126.29 (12)***
100명 미만	43.6	47.3	3.6	5.5	100.0(110)	28.06	
100명 이상	29.0	54.8	7.3	8.9	100.0(124)	30.18	

** $p < .01$, *** $p < .001$

□ 유치원은 조리실 규모는 100m² 이상이 많았음(35.5%).

- 유치원의 20-49m²가 32.0%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실 평균은 어린이집보다 높은 78.43m²였음.
- 시설유형별로는 공립이 사립에 비해, 지역규모로는 읍면지역의 조리실 면적이 넓은 비율이 많으며, 현원이 적음에도 조리실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공립유치원인 경우, 초등학교 조리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과다하게 추정된 경향이 있음.
- 조리실 규모에 대한 시설유형, 지역규모, 현원규모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음.

〈표 4〉 조리실 규모-유치원

단위: %(개소), m²

구분	10-19	20-49	50-99	100 이상	계(수)	평균	X ² (df)
전체	21.8	32.0	10.8	35.5	100.0(400)	78.43	
시설유형							
공립단설	6.3	37.5	12.5	43.8	100.0(16)	65.46	
공립병설	4.6	9.2	14.5	71.7	100.0(152)	154.27	180.81
사립법인	28.3	43.5	15.2	13.0	100.0(46)	37.07	(9)***
사립사인	35.5	47.3	6.5	10.8	100.0(186)	30.84	
지역규모							
대도시	27.8	32.3	9.9	30.0	100.0(223)	68.64	
중소도시	13.7	34.4	9.9	42.0	100.0(131)	90.52	16.07(6)*
읍면지역	15.2	23.9	17.4	43.5	100.0(46)	91.42	
현원							
20명 이하	5.9	5.9	11.8	76.5	100.0(17)	167.08	
50명 이하	15.6	9.4	10.4	64.6	100.0(96)	137.55	
80명 이하	16.7	19.4	11.1	52.8	100.0(72)	107.44	120.80
100명 미만	37.0	33.3	3.7	25.9	100.0(27)	56.96	(12)***
100명 이상	26.1	50.5	11.7	11.7	100.0(188)	36.16	

* $p < .05$, *** $p < .001$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실의 구비 정도는 모두 90~95%로서 대부분 조리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실 규모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작게 나타났으나 유치원은 시설유형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전반적으로는 미비한 곳이 더 많을 수 있음.

나. 식당

- 어린이집의 식당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10% 정도임.
 - 법인·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집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해 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식당구비 비율이 높았음.
 - 현원이 증가할수록 식당이 설치되어 있음.



- 식사장소로는 교실(91%), 식당+교실(4.8%), 식당(3.5%)순으로 대부분의 식사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식당 유무의 차이는 시설유형, 지역규모, 현원규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식사장소는 현원규모별에 따른 차이만 유의하게 나타남.

〈표 5〉 식당 유무 및 식사 장소-어린이집

구분	식당 유무			식사장소				X ² (df)	계(수)
	있음	없음	X ² (df)	식당	교실	식당 + 교실	기관 내 기타 장소		
전체	10.0	90.0		3.5	91.0	4.8	0.7		100.0(600)
시설유형									
국공립	11.5	88.5		5.8	89.9	3.6	0.7		100.0(139)
사회법인	18.5	81.5		3.1	87.7	9.2	0.0		100.0(65)
법인·단체	19.6	80.4	21.45 (4) ^{***}	4.3	84.8	6.5	4.3	19.55 (12)	100.0(46)
민간	9.6	90.4		3.0	91.3	5.2	0.4		100.0(230)
가정	0.8	99.2		1.7	95.8	2.5	0.0		100.0(120)
지역규모									
대도시	7.6	92.4		3.1	91.8	4.5	0.6		100.0(355)
중소도시	12.1	87.9	7.04 (2) [*]	3.8	90.1	5.5	0.5	1.73 (6)	100.0(182)
읍면지역	17.5	82.5		4.8	88.9	4.8	1.6		100.0(63)
현원									
20명 이하	0.8	99.2		1.6	96.0	2.4	0.0		100.0(124)
50명 이하	6.2	93.8		.8	93.8	3.8	1.5		100.0(130)
80명 이하	9.8	90.2	28.37 (4) ^{***}	1.8	92.0	6.3	0.0	26.94 (12) ^{**}	100.0(112)
100명 미만	14.5	85.5		3.6	90.9	4.5	0.9		100.0(110)
100명 이상	19.4	80.6		9.7	82.3	7.3	0.8		100.0(124)

* $p < .05$, ** $p < .01$, *** $p < .001$

□ 유치원은 37.0%가 식당을 보유하고 있었음.

- 식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공립인 경우 사립에 비해 높았음.
 - 이는 공립의 단설이나 병설의 경우가 많았음.
-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식당구비 비율이 높았으며, 현원이 적을수록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음.

- 식사장소로는 교실(66.0%), 식당(28.5%), 식당+교실(4.8%)순으로 대부분의 식사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식당유무와 식사장소의 차이는 시설유형, 지역규모, 현원규모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음.

〈표 6〉 식당 유무 및 식사 장소-유치원

구분	식당 유무		X ² (df)	식사장소				X ² (df)	단위: %(개소)
	있음	없음		식당	교실	식당 + 교실	기관 내 기타 장소		계(수)
전체	37.0	63.0		28.5	66.0	4.8	0.8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62.5	37.5		50.0	31.3	12.5	6.3		100.0(16)
공립병설	65.8	34.2	100.86	55.3	41.4	2.6	.7	110.30	100.0(152)
사립법인	17.4	82.6	(3)***	13.0	80.4	6.5	0.0	(9)***	100.0(46)
사립사인	16.1	83.9		8.6	85.5	5.4	.5		100.0(186)
지역규모									
대도시	26.0	74.0		15.7	78.5	4.5	1.3		100.0(223)
중소도시	43.5	56.5	37.76	38.2	56.5	5.3	0.0	53.74	100.0(131)
읍면지역	71.7	28.3	(2)***	63.0	32.6	4.3	0.0	(6)***	100.0(46)
현원									
20명 이하	76.5	23.5		64.7	23.5	11.8	0.0		100.0(17)
50명 이하	58.3	41.7		52.1	47.9	0.0	0.0		100.0(96)
80명 이하	52.8	47.2	67.69	38.9	58.3	2.8	0.0	80.98	100.0(72)
100명 미만	14.8	85.2	(4)***	7.4	88.9	3.7	0.0	(12)***	100.0(27)
100명 이상	19.7	80.3		12.2	78.7	7.4	1.6		100.0(188)

*** $p < .001$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식당을 따로 구비하고 있는 비율은 어린이집 10%, 유치원은 37.0%로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인데, 식습관과 위생 관리를 위해서는 식당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건물의 경우는 새로 확보하기 어려운 공간임.



다. 급식시설 설비기준 인지 여부

1) 설비기준 적합수준

-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 급식시설 설비기준 인지여부에 대해 평균 3.18점으로 대체로 잘 알고 있었음.
 -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법인인, 지역규모로는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원규모가 증가할수록 높았음.
 - 기관의 조리실이 급식시설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평균 3.27점으로 대체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음.
 - 조리실의 급간식 제공에 있어서 적정성에 대해 평균 3.35점으로 대체로 조리실이 급간식을 제공하는데 있어 적당하고 생각하고 있었음.

〈표 7〉 급식시설 설비기준 및 조리실 급간식 제공 적당정도-어린이집

단위: 점, %(개소)

구분	급식시설 설비기준 인지여부	조리실 설비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의 급간식 제공 적당 정도	계(수)
전체	3.18	3.27	3.35	100.0(600)
시설유형				
국공립	3.20	3.27	3.21	100.0(139)
사회법인	3.28	3.38	3.43	100.0(65)
법인·단체	3.17	3.37	3.54	100.0(46)
민간	3.17	3.27	3.33	100.0(230)
가정	3.09	3.15	3.43	100.0(120)
지역규모				
대도시	3.22	3.29	3.35	100.0(355)
중소도시	3.12	3.23	3.35	100.0(182)
읍면지역	3.10	3.25	3.33	100.0(63)
현원				
20명 이하	3.08	3.13	3.40	100.0(124)
50명 이하	3.12	3.21	3.23	100.0(130)
80명 이하	3.15	3.32	3.37	100.0(112)
100명 미만	3.30	3.36	3.36	100.0(110)
100명 이상	3.24	3.34	3.40	100.0(124)

-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급식시설 설비기준 인지여부에 대해 평균 3.16점으로 대체로 잘 알고 있었음.
- 시설유형별로는 공립이, 지역규모로는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음.
- 기관의 조리실이 급식시설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 평균 3.34점으로 대체로 잘 갖추고 있었음.
- 조리실의 급간식 제공에 있어서 적정성에 대해 평균 3.38점으로 대체로 리실이 급간식을 제공하는데 있어 적당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급식시설 설비기준 및 조리실 급간식 제공 적당정도-유치원

단위: 점, %(개소)

구분	급식시설 설비기준 인지여부	조리실 설비기준 준수 여부	조리실의 급간식 제공 적당 정도	계(수)
전체	3.16	3.34	3.38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3.38	3.50	3.50	100.0(16)
공립병설	3.22	3.61	3.49	100.0(152)
사립법인	3.33	3.37	3.54	100.0(46)
사립사인	3.05	3.09	3.24	100.0(186)
지역규모				
대도시	3.13	3.30	3.35	100.0(223)
중소도시	3.14	3.34	3.38	100.0(131)
읍면지역	3.33	3.48	3.52	100.0(46)
현원				
20명 이하	3.12	3.47	3.35	100.0(17)
50명 이하	3.35	3.65	3.56	100.0(96)
80명 이하	2.99	3.35	3.26	100.0(72)
100명 미만	3.33	3.30	3.26	100.0(27)
100명 이상	3.10	3.16	3.35	100.0(188)

2) 전처리 및 조리과정

- 어린이집에서는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의 다름에 대해서 94.7%가 알고 있으나,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에 따른 조리실 공간 구분 정도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25.0%로, 인지 정도와 실제 기관 내 조리실의 공간 구분에 차이를 보였음.



〈표 9〉 전처리 및 조리 과정의 인지 정도-어린이집

단위: %(개소)

구분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의 다른 인지 정도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에 따른 조리실 공간 구분 정도			계(수)
	알고 있지 않음	알고 있음	평균	구분되어 있지 않음	구분되어 있음	평균	
전체	5.3	94.7	3.38	25.0	75.0	3.00	100.0(600)
시설유형							
국공립	2.2	97.8	3.44	25.2	74.8	2.98	100.0(139)
사회법인	1.5	98.5	3.52	16.9	83.1	3.14	100.0(65)
법인·단체	4.3	95.7	3.43	21.7	78.3	3.15	100.0(46)
민간	8.3	91.7	3.35	26.5	73.5	2.97	100.0(230)
가정	5.8	94.2	3.26	27.5	72.5	2.95	100.0(120)

□ 유치원에서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의 다른에 대해서는 91.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에 따른 조리실 공간 구분 정도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19.3%로 나타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인지 정도와 실제 기관 내 조리실의 공간 구분에 차이를 보였음.

〈표 10〉 전처리 및 조리 과정의 인지 정도-유치원

단위: %(개소), 점

구분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의 다른 인지 정도			전처리 과정과 조리 과정에 따른 조리실 공간 구분 정도			계(수)
	알고 있지 않음	알고 있음	평균	구분되어 있지 않음	구분되어 있음	평균	
전체	8.3	91.8	3.38	19.3	80.8	3.18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6.3	93.8	3.63	12.5	87.5	3.56	100.0(16)
공립병설	10.5	89.5	3.55	7.2	92.8	3.53	100.0(152)
사립법인	8.7	91.3	3.30	13.0	87.0	3.20	100.0(46)
사립사인	6.5	93.5	3.24	31.2	68.8	2.85	100.0(186)

□ 급식시설 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대체로 잘 알고 있었으며 급간 식 제공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전처리 과정과 조리과정에 대한 구분은 유치원에서 더 잘 인지하고 있었음.

라. 조리실 내 기기품목의 충분성

□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실 내 구비된 기기품목에 대해 대체로 충분하다라는 응답이 69.3%, 매우 충분하다가 25.3%로, 응답자의 94.6%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11〉 조리실 구비 기기품목 충분성-어린이집

단위: %(개소)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별로 충분하지 않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수)	평균	$\chi^2(df)$	
전체	0.2	5.2	69.3	25.3	100.0(600)	3.20		
시설유형								
국공립	0.0	5.8	67.6	26.6	100.0(139)	3.21		
사회법인	0.0	1.5	61.5	36.9	100.0(65)	3.35		
법인·단체	0.0	4.3	65.2	30.4	100.0(46)	3.26	11.09(12)	
민간	0.4	5.7	70.4	23.5	100.0(230)	3.17		
가정	0.0	5.8	75.0	19.2	100.0(120)	3.13		

□ 유치원에서도 대체로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가 각각 63.3%, 30.5%로 전체 응답자의 93.8%가 충분하다고 인식하였음.

○ 조리실 구비 기기품목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시설유형의 차이는 유치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12〉 조리실 구비 기기품목 충분성-유치원

단위: %(개소)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별로 충분하지 않다	대체로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수)	평균	$\chi^2(df)$	
전체	1.0	5.3	63.3	30.5	100.0(400)	3.23		
시설유형								
공립단설	0.0	6.3	62.5	31.3	100.0(16)	3.25		
공립병설	2.6	3.3	42.1	52.0	100.0(152)	3.43		
사립법인	0.0	0.0	73.9	26.1	100.0(46)	3.26	70.75(9)***	
사립사인	0.0	8.1	78.0	14.0	100.0(186)	3.06		

*** $p < .001$

□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조리실 내 기기품목에 대해서는 93%~95%정도 모두 조리를 위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마. 설비기준 표준안 준수 및 설비 개선

1) 조리실의 표준안 제시 및 개선 의사

□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조리실의 '설비기준 표준안' 제시 시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안이 제시되는 경우의 준수여부를 질문한 결과, 92.2%가 준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급식시설 설비 개선할 의사여부에는 그렇지 않다가 33.3%로 나타났음.

〈표 13〉 조리실의 표준안 제시 시 준수 정도 및 개선의사-어린이집

단위: %(개소)

구분	조리실의 설비기준 표준안 제시 시 준수 정도			급식시설 설비 개선 의사			계(수)
	준수하지 않을 것 같음	잘 준수 할 것 같음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전체	7.8	92.2	3.31	33.3	66.7	2.83	100.0(600)
시설유형							
국공립	3.6	96.4	3.35	25.2	74.8	3.04	100.0(139)
사회법인	6.2	93.8	3.43	36.9	63.1	2.83	100.0(65)
법인·단체	4.3	95.7	3.39	28.3	71.7	2.89	100.0(46)
민간	9.6	90.4	3.27	34.8	65.2	2.79	100.0(230)
가정	11.7	88.3	3.25	40.0	60.0	2.67	100.0(120)

□ 동일한 질문을 유치원에 제시한 결과, 조리실의 '설비기준 표준안' 제시시 준수여부에 대해 표준안이 제시된다면, 96.5%가 준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급식시설 설비 개선할 의사여부에는 그렇지 않다가 24.8%로 나타났음.

〈표 14〉 조리실의 표준안 제시 시 준수 정도 및 개선의사-유치원

단위: %(개소)

구분	조리실의 설비기준 표준안 제시 시 준수 정도			급식시설 설비 개선 의사			계(수)
	준수하지 않을 것 같음	잘 준수 할 것 같음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평균	
전체	3.5	96.5	3.43	24.8	75.3	2.98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0.0	87.5	3.88	37.5	62.5	2.69	100.0(16)
공립병설	0.0	73.0	3.73	23.7	76.3	3.18	100.0(152)
사립법인	2.2	54.3	3.52	23.9	76.1	2.89	100.0(46)
사립사인	7.0	20.4	3.13	24.7	75.3	2.87	100.0(186)

2) 설비 개선 투자 비용

-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시설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 비용으로 500만원 미만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할 의사가 없음도 28.7%로 나타났다.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8.3%로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높았음.
- 시설유형, 지역규모와 현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표 15〉 급식시설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 비용-어린이집

단위: %(개소)

구분	투자할 의사 없음	500만원 미만	500~ 1000만원 미만	1000~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계(수)	$\chi^2(df)$
전체	28.7	57.7	11.2	1.8	0.7	100.0(600)	
시설유형							
국공립	24.5	52.5	17.3	3.6	2.2	100.0(139)	35.32 (16)**
사회법인	13.8	69.2	12.3	3.1	1.5	100.0(65)	
법인·단체	21.7	60.9	15.2	2.2	0.0	100.0(46)	
민간	31.7	59.1	8.3	0.9	0.0	100.0(230)	
가정	38.3	53.3	7.5	0.8	0.0	100.0(120)	
지역규모							
대도시	25.6	60.0	13.0	0.8	0.6	100.0(355)	19.42 (8)*
중소도시	33.0	54.9	9.3	2.7	0.0	100.0(182)	
읍면지역	33.3	52.4	6.3	4.8	3.2	100.0(63)	
현원							
20명 이하	37.9	53.2	8.1	.8	0.0	100.0(124)	34.72 (16)**
50명 이하	37.7	53.1	7.7	.8	.8	100.0(130)	
80명 이하	28.6	59.8	8.9	1.8	.9	100.0(112)	
100명 미만	22.7	54.5	17.3	4.5	.9	100.0(110)	
100명 이상	15.3	67.7	14.5	1.6	.8	100.0(124)	

* $p < .05$, ** $p < .01$

- 유치원에서는 급식시설 설비 개선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고, 투자 의사 없음(19.5%), 500~1000만원 미만(17.0%)순이었음.
- 이는 시설유형과 현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사립에서 투자 의사가 많았고, 100명 미만에서 투자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6〉 급식시설 설비 개선을 위한 투자 비용-유치원

단위: %(개소)

구분	투자할 의사가 없음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계(수)	$\chi^2(df)$
전체	19.5	50.5	17.0	6.5	6.5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25.0	43.8	25.0	6.3	0.0	100.0(16)	
공립병설	28.3	30.3	17.1	11.2	13.2	100.0(152)	61.59
사립법인	6.5	63.0	23.9	2.2	4.3	100.0(46)	(12)***
사립사인	15.1	64.5	14.5	3.8	2.2	100.0(186)	
지역규모							
대도시	17.5	54.7	16.1	5.8	5.8	100.0(223)	
중소도시	17.6	48.9	19.1	7.6	6.9	100.0(131)	10.78 (8)
읍면지역	34.8	34.8	15.2	6.5	8.7	100.0(46)	
현원							
20명 이하	17.6	23.5	29.4	17.6	11.8	100.0(17)	
50명 이하	29.2	35.4	15.6	11.5	8.3	100.0(96)	
80명 이하	23.6	47.2	11.1	4.2	13.9	100.0(72)	44.53 (16)***
100명 미만	11.1	63.0	18.5	3.7	3.7	100.0(27)	
100명 이상	14.4	60.1	18.6	4.3	2.7	100.0(188)	

*** $p < .001$

□ 조리실의 설비기준 표준안 제시 시 준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92%~97%정도 잘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설비 개선 의사에 관해서는 66%~75% 정도로 나타났음.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 인력 현황

가. 영양사

□ 어린이집의 영양사의 유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양사가 있는 경우가 26.8%임.

-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 법인과 민간의 경우 높게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현원별로는 50명 이하가 11.5%, 80명 이하 15.2%, 100명 미만 15.5%로 집단 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 형태를 확인한 결과, 공동 관리인 경우가 42.2%로 가장 높았고, 정규직(36.6%), 계약직(15.5%) 순이었음.

〈표 17〉 영양사 유무 및 고용형태-어린이집

단위: %(개소)

구분	영양사 유무		고용형태			계(수)
	있음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공동관리	
전체	26.8	36.6	15.5	5.6	42.2	100.0(161)
시설유형						
국공립	23.7	33.3	6.1	0.0	60.6	100.0(33)
사회법인	36.9	37.5	20.8	0.0	41.7	100.0(24)
법인·단체	15.2	57.1	14.3	0.0	28.6	100.0(7)
민간	38.7	34.8	16.9	10.1	38.2	100.0(89)
가정	6.7	50.0	25.0	0.0	25.0	100.0(8)
지역규모						
대도시	28.7	35.3	14.7	4.9	45.1	100.0(102)
중소도시	21.4	41.0	20.5	5.1	33.3	100.0(39)
읍면지역	31.7	35.0	10.0	10.0	45.0	100.0(20)
현원						
20명 이하	6.5	50.0	25.0	0.0	25.0	100.0(8)
50명 이하	11.5	60.0	13.3	0.0	26.7	100.0(15)
80명 이하	15.2	41.2	11.8	0.0	47.1	100.0(17)
100명 미만	15.5	29.4	23.5	0.0	47.1	100.0(17)
100명 이상	83.9	32.7	14.4	8.7	44.2	100.0(104)

□ 유치원의 영양사의 유무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82.5%로 나타남.

○ 시설 유형별로는 공립이 사립에 비해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음.

○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인 경우가 47.9%로 가장 높았으며, 공동관리(27.6%), 계약직(20.3%) 순이었음.



〈표 18〉 영양사 유무 및 고용형태-유치원

구분	영양사 유무		고용형태			계(수)
	있음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공동관리	
전체	82.5	47.9	20.3	4.2	27.6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87.5	57.1	28.6	7.1	7.1	100.0(14)
공립병설	97.4	81.8	16.9	0.0	1.4	100.0(148)
사립법인	80.4	29.7	21.6	16.2	32.4	100.0(37)
사립사인	70.4	13.7	22.9	5.3	58.0	100.0(131)
지역규모						
대도시	81.2	43.1	21.5	3.3	32.0	100.0(223)
중소도시	83.2	54.1	19.3	6.4	20.2	100.0(131)
읍면지역	87.0	52.5	17.5	2.5	27.5	100.0(46)
현원						
20명 이하	94.1	56.3	31.3	0.0	12.5	100.0(17)
50명 이하	86.5	84.3	14.5	0.0	1.2	100.0(96)
80명 이하	75.0	77.8	14.8	1.9	5.6	100.0(72)
100명 미만	37.0	70.0	30.0	0.0	0.0	100.0(31)
100명 이상	88.8	18.0	23.4	7.8	50.9	100.0(184)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사 유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가 있는 경우는 26.8%이며 유치원에 영양사가 있다는 경우가 82.5%로 나타남. 한편 고용 형태는 정규직의 비율이 36%~48% 정도에 그치고 있어 기관의 안정된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나. 조리사

-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조리사를 보유하고 있음(86.8%).
 - 기관 내 조리종사자의 평균은 1.55명이며, 이중 자격증을 보유한 조리사는 1.03명이었음.
 - 조리사가 없는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중소도시, 현원 20명 이하인 경우 높게 나타났음.
 - 시설유형 및 현원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표 19〉 조리사(취사부) 유무 및 조리종사자 수-어린이집

단위: %(개소), 명

구분	조리사 유무		조리 종사자 수 자격증 보유자 수		계(수)	X ² (df)
	있음	없음	평균	평균		
전체	86.8	13.2	1.55	1.03	100.0(600)	
시설유형						
국공립	100.0	0.0	1.57	1.23	100.0(139)	200.19 (4) ^{***}
사회법인	100.0	0.0	1.71	1.14	100.0(65)	
법인·단체	100.0	0.0	1.43	1.04	100.0(46)	
민간	92.6	7.4	1.64	1.03	100.0(230)	
가정	48.3	51.7	1.10	0.41	100.0(120)	
지역규모						
대도시	87.6	12.4	1.57	1.08	100.0(355)	5.13(2)
중소도시	83.0	17.0	1.46	0.93	100.0(182)	
읍면지역	93.7	6.3	1.73	1.05	100.0(63)	
현원						
20명 이하	51.6	48.4	1.09	0.44	100.0(124)	184.82(4) ^{***}
50명 이하	86.2	13.8	1.13	0.79	100.0(130)	
80명 이하	100.0	0.0	1.28	0.98	100.0(112)	
100명 미만	100.0	0.0	1.78	1.25	100.0(110)	
100명 이상	99.2	0.8	2.22	1.41	100.0(124)	

*** $p < .001$

□ 유치원의 조리사는 대다수(97.8%)가 있음.

- 기관 내 조리종사자의 평균은 2.88명이며, 이중 자격증을 보유한 조리사는 1.65명이었음
- 조리종사자의 수는 공립(4.57)이 사립(1.68)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현원별로는 50명이하가 다른 규모에 비해 더 많은 조리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음.
 - 병설유치원 등 초등학교 급식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조리사 수를 함께 산정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추측됨.



〈표 20〉 조리사(취사부) 유무 및 조리종사자 수-유치원

구분	조리사 유무		조리종사자 수	자격증 보유자 수	계(수)	X ² (df)
	있음	없음	평균	평균		
전체	97.8	2.3	2.88	1.65	100.0(400)	
시설유형						
공립단설	100.0	0.0	2.69	1.88	100(16)	1.46(3)
공립병설	96.7	3.3	4.78	2.54	100(152)	
사립법인	97.8	2.2	1.78	1.13	100(46)	
사립사인	98.4	1.6	1.65	1.05	100(186)	
지역규모						
대도시	98.2	1.8	2.65	1.52	100.0(223)	4.34(2)
중소도시	98.5	1.5	3.23	1.90	100.0(131)	
읍면지역	93.5	6.5	3.02	1.60	100.0(46)	
현원						
20명 이하	88.2	11.8	2.93	1.87	100.0(17)	14.30(4)**
50명 이하	94.8	5.2	4.47	2.43	100.0(96)	
80명 이하	100.0	0.0	3.69	1.85	100.0(72)	
100명 미만	100.0	0.0	1.96	1.56	100.0(27)	
100명 이상	98.9	1.1	1.92	1.20	100.0(188)	

** p < .01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사 보유정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의 86.8%정도가 조리사를 보유한 반면, 유치원은 97.8%정도가 조리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조리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유치원의 조리종사자 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조리사 자격증 보유자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기관의 유형을 반영하여 해석을 요함.

다. 급간식 관련 직무 담당자

- 급간식관리의 책임자는 원장이라는 응답이 81.5%로 가장 높았으며, 조리사(12.0%), 영양사(4.0%) 순이었음.
 - 원장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99.2%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원이 적을수록 응답률은 높았음.
- 식단 작성자는 원장(32.3%), 영양사(23.8%), 없다(19.7%) 순으로 나타났음.

- 식단 수정자는 원장(54.2%), 조리사(16.3%) 순이었는데, 이는 식단 수정에 있어 조리 과정을 담당하는 조리사의 의견이 반영됨을 시사함
- 식재료 구매는 주로 원장(55.0%)과 조리사(31.8%)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장이 담당하는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추측됨.
- 검식 담당자로는 위와 유사하게 원장(45.0%)과 조리사(37.2%)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배식은 주로 교사(51.3%)와 조리사(35.5%)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1〉 급간식 관련 직무 담당-어린이집

구분	단위: %(개소)							계(수)
	원장	원감	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없다	
급간식책임	81.5	1.5	1.0	4.0	12.0	-	-	100.0(600)
식단작성	32.3	3.5	4.5	23.8	11.7	4.5	19.7	100.0(600)
식단수정	54.2	6.3	4.7	12.3	16.3	3.7	2.5	100.0(600)
식재료구매	55.0	3.7	3.7	4.8	31.8	-	1.0	100.0(600)
검식담당	45.0	4.8	6.5	5.0	37.2	-	1.5	100.0(600)
배식담당	9.8	1.2	51.3	1.8	35.5	0.2	0.2	100.0(600)

- 유치원의 급간식관리의 책임자는 원장이라는 응답이 71.8%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사(18.5%), 조리사(4.3%) 순이었음.
- 식단 작성자와 수정자가 영양사라는 응답이 각각 71.3%, 49.0%로서 어린이집과 달리 영양사의 비율이 높았음.
- 식재료 구매는 주로 영양사(43.3%)와 원장(25.5%), 조리사(23.3%)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검식 담당자로는 영양사(42.5%)와 조리사(29.5%)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식은 주로 교사(49.5%)와 조리사(30.0%)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2〉 급간식 관련 직무 담당-유치원

구분	단위: %(개소)							계(수)
	원장	원감	교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없다	
급간식책임	71.8	3.5	2.0	18.5	4.3	-	-	100.0(400)
식단작성	13.8	2.3	4.0	71.3	5.3	0.3	3.3	100.0(400)
식단수정	31.0	5.8	4.8	49.0	8.3	0.8	0.5	100.0(400)
식재료구매	25.5	3.0	2.5	43.3	23.3	1.3	1.3	100.0(400)
검식담당	17.0	3.8	6.3	42.5	29.5	-	1.0	100.0(400)
배식담당	1.5	0.8	49.5	16.3	30.0	0.5	1.5	100.0(400)

□ 급간식 관련 직무에 대하여 식단 작성 및 수정에서 검식담당까지 많은 부분을 원장이 관여하고 있는데, 급간식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임을 배려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조리실 보육 정도는 매우 높으나 식당의 보유비율은 높지 않음.
 - 조리실의 규모가 어린이집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균일하나 유치원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여지므로 통합을 앞 둔 시점에서 조정이 필요함.
 - 식당의 보유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생관리와 건전한 식습관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에는 식당의 구비를 권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양사의 보유 정도는 유치원의 영양사 보유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의 영양사 비율은 낮은 편임. 또한 조리사의 보유 비율도 유치원이 더 높게 나타남.
 - 영양사는 기관의 아동들의 영양, 급식 및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하나 어린이집에서의 보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고려할 때 영양사는 필요한 존재임.
 - 조리사의 경우도 조리업무는 복잡하고 노동강도가 높으므로 현원이 증가 하는 경우는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정책제언

1)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

□ 조리시설 설비 최소 기준안 마련

- 실제로 보육실에 대한 최소기준은 있지만 조리실 면적 기준에 대한 제시는 없는 상황임. 그러나 영유아 1인당 적정면적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실과 식당의 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조리실 확장이나 시설 설비에 대한 지원요구가 많은 실정임.
- 전체면적과 보육실에 준하여 조리실의 표준안과 기본설비의 표준안을 현실성있게 제시해야 함.
- 기관의 시설 설비의 정비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이 필요함.

□ 규모 및 설립유형을 고려한 시설 설비 방안 제공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들에게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이나 설립유형에 따라 시설 설비 조건이 상이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과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나, 학교 시설과는 거리가 있으며 육아지원기관의 시설 유형이나 정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
- 조리실 규모를 영아나 유아 인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시설과 설비 기준이 제시되면 실효성이 높을 것임.

2) 급식관리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확대

□ 영유아의 영양 기준 준수와 식단제공 및 조리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영양사는 필요함.

- 현재 100인 이상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로 하고 상시 근무가 힘든 경우는 5곳이 공유하여 순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원 100인 이상의 급간식을 하는 곳은 교사와 기타 교직원을 포함하여 급식 대상자도 많고 조리실규모나 관련 업무를 고려할 때 공동 순회영양사는 개별 식단 제공이나 위생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관 수를 줄이거나 현원 100인 기관은 1인 영양사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대부분의 기관에 조리사를 확보하고 있으나 조리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영양사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 기관은 영양사의 업무를 병행하거나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 조리사는 조리업무 외 업무도 많음.
 - 현재 조리사는 현원 40인 이상 1인, 그리고 현원 80인의 경우 조리사 1인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조리사 배치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업무량에 있어 상당히 노동 강도가 높으므로 현원에 따라 추가 지원으로 서 보조 조리사나 조리사에 대한 다른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시설 설비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한 시설설비 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관련 인력 현황 파악을 통한 시설설비 통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간식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도남희·김진미(2014).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2012). 사회조사.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영아보육과정 운영실태 및 지원방안

이미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연구결과
3. 정책제언

요약

- 영아보육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공통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보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영아보육과정 운영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임.
- 더불어 전체 영아 인구의 절반이상이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질 격차가 큰 상태에서 보육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양질의 영아 보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체인 영아 보육과정만의 특성화가 필요함.
- 실제 영아교사 80~90%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수업 운영에 충실이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함. 하지만 39.4%의 교사는 표준 보육과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부족, 평가에 대한 부담, 영아의 개별성 고려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담당교사 급여수준 향상,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 보조인력 지원강화, 참고자료의 활용성 제고 순으로 응답하였음.
- 향후 영아보육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아반이 지닌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한 보육환경, 보육과정 내용, 교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본고는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정주영·엄지원(2014)이 집필한 「영아보육 질 제고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임.

** 본 고에서 사용한 '영아보육과정'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중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을 합한 것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영아 보육의 중요성

- 영아기는 가정, 특히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서, 좋은 양육을 받은 영아는 그러한 양육을 제공해주는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하면서 자신이 아닌 대상에게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게 되면서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형성해 감(심미경, 2012).
- 이렇듯 영아기는 생애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그 시기에 경험하는 양육이나 보육의 질은 향후 영아의 성장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엇보다 영아기에 양질의 보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보육의 연령이 점차 하향화되고 가정보육과 시설보육 등 영아보육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공통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보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과정 운영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음.

나. 영아보육과정 운영 및 문제점

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개발 배경

- 표준보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영아 보육프로그램들이 영아의 요구와 연령적 특성에 적합하지 않게 실시되는 경우가 있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종합적 서비스로서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단순한 보호적 배려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옴(이미화, 2004).
- 이에 국가 수준에서의 보육목표와 영유아의 발달과 개인차를 고려하여 영유아들이 경험하게 될 보편적인 보육내용을 제시하고, 국가의 보육 방향을 규정하며 나아가 미래의 능력 있는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개발되었음(이미화 외, 2013).
- 더불어 2013년에 보급된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은 표준보육과정의 실행을 위한 영역별 세부 활동으로 영아기 발달에 적합한 우수한 활동, 0~1

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수준별 내용을 균형 있게 경험할 활동, 영아의 요구와 흥미에 맞추어 교사와의 민감한 상호작용을 강조한 개별화된 활동, 0~2세 영아의 발달적 연계와 영아 유아간의 연계를 고려한 활동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개발되었음(이미화 외, 2013).

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현황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영아반 교사가 얼마나 이해하고 보육과정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는 보육과정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보육활동에도 충실히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하지만 약 40%의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영역이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보육과정 실행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는 ‘영아 간 개인차가 커서 활동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과반수였고, 적절한 교재·교구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표준보육과정과 함께 제공된 활동자료의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음.
 - 보육과정 운영 시 교사는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부족, 평가에 대한 부담, 영아의 개별성 고려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음.
- 한편,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의 과반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근거하여 영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영역별로 체크할 수 있는 영아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특히 영아평가의 목적 중에서도 ‘영아의 발달상 변화를 발견’하고, ‘영아의 개별적인 목표 및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보육과정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됨.
 - 이러한 영아평가의 결과는 교사가 영아의 발달 수준과 행동 특성을 객관적 평가에 근거하여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영아의 개별화된 흥미와 요구를 보육활동으로 연계하는데 활용하며, 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자료 및 교사의 수업 지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궁극적으로 영아보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음.



3) 문제 제기

□ 영아 보육기관의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영아보육과정의 특성화 필요

- 영아보육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서는 영아의 발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기관보육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어옴.
- 성인에의 의존도가 높고,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에는 기관에서의 집단 보육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별 양육이 적절함을 상기시켜 볼 때, 부득이 기관보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영아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보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영아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영아는 발달특성상 가정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2년부터 0~2세 보육료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가구여건과 관계없이 영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경향이 나타남.
 - 한편, 2013년 3월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기관 보육 영아수가 전년에 비해 약 10만명 가량 감소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영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관보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높은 서비스 질 격차를 전제로 보육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기관에서 양질의 영아 보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체인 영아보육과정의 특성화가 필요함.

□ 영아보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영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함양 기회 부족

- 영아는 월령에 따라 발달차가 크고, 보육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변수 상황이 많으므로 영아교사는 다수의 영아를 집단 보육함에 있어서 개별 상황에 맞는 보육 활동을 융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함. 따라서 영아교사는 더 높은 전문성과 보육 경력을 요구받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어린이집 가운데서도 영아를 주로 맡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직률이 낮고 경력이 긴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경상일보, 2015.04.12.)
 - 더불어 생애 주기 중 영아기의 특수성이 강조되듯, 해당 시기의 영아를 보육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에도 그 특수성의 측면이 위임되어야함. 영아교사는 영아

기의 발달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발달 시기에 적절한 영아용 보육활동을 상황에 맞게 계획하여 전문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현재의 영아보육과정은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에 불과하고, 이를 실제 영아들에게 적용하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보육과정 운영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내용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즉, 영아보육은 결국 교사의 질과 상응함. 같은 맥락에서 영아보육과정의 내실화는 곧 영아 보육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직결됨을 염두에 두고, 영아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2. 주요 연구결과

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 실태

1) 보육내용

-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96.9%가 영아의 연령, 흥미, 계절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는 보육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88.1%가 일과운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95.9%가 활동 간 균형을 고려하여 운영하며, 82.6%가 영아반 보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었음.
- 중점을 두는 보육내용으로는 전 연령에 걸쳐 '안전한 생활 습관'에 중점을 두고, 0세반은 '청결과 위생', 1세반은 '놀이중심의 활동구성', 2세반은 '놀이중심의 활동 구성'과 '음악과 미술을 통한 예술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
- 영아반 영역별 보육활동은 4점 만점에 평균 3점대로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며, 교재 교구 비치 또한 어느 정도 충분(평균 3점대)한 것으로 나타남.

2) 활용자료

- 2013년 발행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영아보육프로그램」을 보유한 어린이집은 78.2% 가량이며, 이를 활용하고 있는 보유어린이집은 93.2%이며, 보유하였으나 활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7~14%)이 많았음



- 활용의 어려움은 영아 개인차로 인한 적용 어려움, 교재교구 준비 어려움, 내용숙지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나 영아반 보육교사를 위한 보수교육 시 영아의 개인차를 고려한 프로그램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영아보육 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반면 프로그램집 보유율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보육과정 홍보 및 보급, 프로그램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한 영아보육프로그램 이해 및 적용을 주제로 한 교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나.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식 및 요구

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도 및 충실도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영아반 교사 총 624명 중 84.6%가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5.3%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영아반 경력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교사가 2.76점으로 가장 낮았고, 3~5년 미만 교사가 3.00점으로 가장 높았음. 1년 미만인 교사의 경우 74.7%, 3~5년 미만 교사는 92.5%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대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수업에 충실히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624명 중 91.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함.

- 설립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의 평균값이 2.99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정어린이집은 3.02점,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어린이집의 평균값은 3.11점으로 나타남. 또한 민간 어린이집 교사 중 87.6%, 가정어린이집은 93.1%,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어린이집 교사의 95.2%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수업에 충실히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1〉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이해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	X ² (df)	4점 평균
전체	0.6	14.7	78.7	5.9	100.0(624)		2.90
지역							
대도시	0.7	10.2	83.2	5.8	100.0(137)	3.296 (2)	2.94
중소도시	1.0	14.7	76.7	7.7	100.0(313)		2.91
읍면	0.0	18.4	78.7	2.9	100.0(174)		2.84
설립유형							
국공립 외 ¹⁾	0.6	11.9	80.4	7.1	100.0(168)	1.614 (2)	2.94
민간	1.0	16.2	76.7	6.2	100.0(210)		2.88
가정	0.4	15.4	79.3	4.9	100.0(246)		2.89
교사 최종학력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0.0	13.7	79.7	6.6	100.0(182)	1.514 (2)	2.93
전문대학 졸	1.3	15.9	77.2	5.6	100.0(302)		2.87
4년제 이상	0.0	13.6	80.7	5.7	100.0(140)		2.92
총 경력							
1년 미만	1.8	23.5	71.7	3.0	100.0(166)	19.342*** (3)	2.76
1~3년 미만	0.0	14.4	81.0	4.6	100.0(174)		2.90
3~5년 미만	1.1	6.4	84.0	8.5	100.0(94)		3.00
5년 이상	0.0	11.6	80.0	8.4	100.0(190)		2.97
영아반 경력							
1년 미만	1.4	20.5	75.8	2.3	100.0(215)	12.788** (3)	2.79
1~2년 미만	0.0	15.8	78.9	5.3	100.0(133)		2.89
2년~3년 미만	0.0	9.7	83.5	6.8	100.0(103)		2.97
3년 이상	0.6	9.8	79.2	10.4	100.0(173)		2.99
교사 연령							
20대	0.7	17.7	78.7	2.8	100.0(141)	1.568 (2)	2.84
30대	0.9	12.6	79.0	7.5	100.0(214)		2.93
40대 이상	0.4	14.9	78.4	6.3	100.0(269)		2.91

주: 1) 국공립 외는 설립유형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 포함임.

** $p < .01$, *** $p < .001$

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학급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총 624명 중 60.5%가 적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고, 39.4%가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



과정」을 학급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 지역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읍면지역의 평균이 2.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는 2.35점으로 동일하게 도출되었음. 또한 읍면 지역 영아반 교사 총 174명 중 47.7%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대도시(33.5%), 중소도시(36.4%)에 비해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학급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보육과정 실행 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영역에 대한 질문에 총 624명 중 21.3%가 의사소통영역을, 17.9%가 자연탐구영역을, 13.3%가 예술경험영역을, 12.5%가 사회관계영역을 선택함. 그리고 기본생활영역(5.6%)과 신체운동영역(5.3%)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한 영역으로 나타남.
 - 지역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영아반 교사의 경우, 29.2%가 어려운 영역이 없다고 답하였고, 자연탐구영역(16.8%), 예술경험영역(16.1%), 의사소통영역(11.7%)의 순으로 실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소도시 영아반 교사의 경우, 의사소통영역(24%)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자연탐구영역(21.1%), 사회관계영역(11.8%)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읍면지역 영아반 교사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영역(24.1%), 예술경험영역(16.1%), 사회관계영역(15.5%)의 순으로 어려움을 느껴 지역별로 표준보육과정 실행 시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달랐음.

〈표 2〉 표준보육과정 영역별 어려움

단위: %, %(명), 점

구분	의사 소통	자연 탐구	예술 경험	사회 관계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없음	모름	계	$\chi^2(df)$
전체	21.3	17.9	13.3	12.5	5.6	5.3	18.9	5.1	100.0(624)	
지역										
대도시	11.7	16.8	16.1	10.2	4.4	4.4	29.2	7.3	100.0(137)	28.249** (12)
중소도시	24.0	21.1	10.5	11.8	6.4	5.4	16.0	4.8	100.0(313)	
읍면	24.1	13.2	16.1	15.5	5.2	5.7	16.1	4.0	100.0(174)	
설립유형										
국공립 외 ²⁾	24.4	19.0	7.1	14.3	4.2	6.5	20.2	4.2	100.0(168)	19.608 (12)
민간	22.4	18.1	15.2	9.0	7.1	7.1	15.7	5.2	100.0(210)	
가정	18.3	17.1	15.9	14.2	5.3	2.8	20.7	5.7	100.0(246)	

(표 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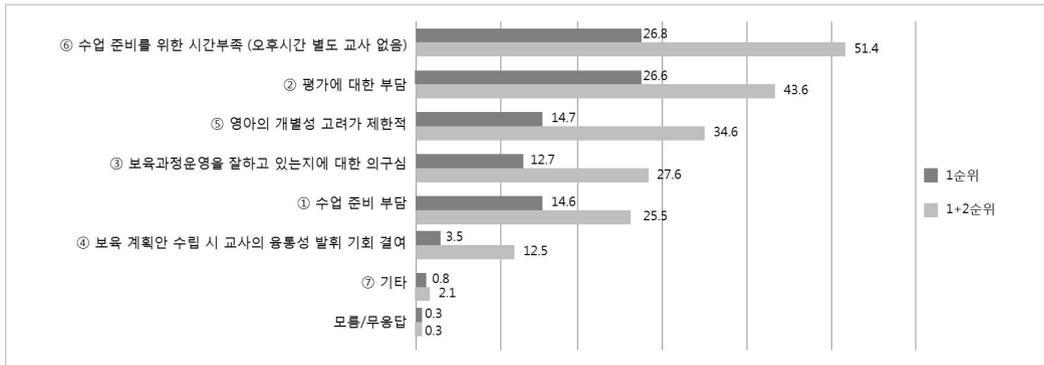
구분	의사 소통	자연 탐구	예술 경험	사회 관계	기본 생활	신체 운동	없음	모름	계	$X^2(df)$
교사 최종학력										
보육교사교육원 수료	20.9	17.6	13.2	11.0	4.4	2.7	24.2	6.0	100.0(182)	19.209 (12)
전문대학 졸	21.9	17.5	14.9	13.9	7.3	6.0	13.2	5.3	100.0(302)	
4년제 이상	20.7	19.3	10.0	11.4	3.6	7.1	24.3	3.6	100.0(140)	
총 경력										
1년 미만	27.7	14.5	13.3	11.4	7.2	6.0	16.3	3.6	100.0(166)	n.a
1~3년 미만	20.7	17.2	16.1	10.3	3.4	5.7	20.1	6.3	100.0(174)	
3~5년 미만	23.4	21.3	11.7	12.8	5.3	5.3	13.8	6.4	100.0(94)	
5년 이상	15.3	20.0	11.6	15.3	6.3	4.2	22.6	4.7	100.0(190)	
영아반 경력										
1년 미만	26.5	18.6	11.6	10.2	6.5	5.6	16.7	4.2	100.0(215)	25.466 (18)
1~2년 미만	23.3	16.5	12.8	9.0	6.8	7.5	18.8	5.3	100.0(133)	
2년~3년 미만	19.4	11.7	13.6	18.4	1.9	4.9	24.3	5.8	100.0(103)	
3년 이상	14.5	22.0	15.6	14.5	5.8	3.5	18.5	5.8	100.0(173)	
교사 연령										
20대	20.6	20.6	12.8	10.6	4.3	9.2	19.1	2.8	100.0(141)	17.075 (12)
30대	26.6	14.0	10.7	13.6	6.5	5.1	18.2	5.1	100.0(214)	
40대 이상	17.5	19.7	15.6	12.6	5.6	3.3	19.3	6.3	100.0(269)	

주: 1) na는 x2검증 부적절을 의미

2) 국공립 외는 설립유형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 포함임.

** $p < .01$

- 표준보육과정 실행 시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총 474명 중 51.1%가 ‘개인차가 커서 활동계획 수립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19.6%는 ‘적절한 교재·교구 또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17.5%는 ‘표준보육과정과 함께 제공된 활동자료의 활용성이 부족함’을 꼽았음.
- 「제3차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에 관한 질문에 총 624명 중 26.8%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함’에 응답하였고, 26.6%가 ‘평가에 대한 부담’을, 14.7%가 ‘영아의 개별성 고려가 제한적임’을 1순위로 선택하였음. 2순위 선택에서는 총 608명 중 24.6%가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부족’을, 19.9%가 ‘영아의 개별성 고려가 제한적’을, 17%가 ‘평가에 대한 부담’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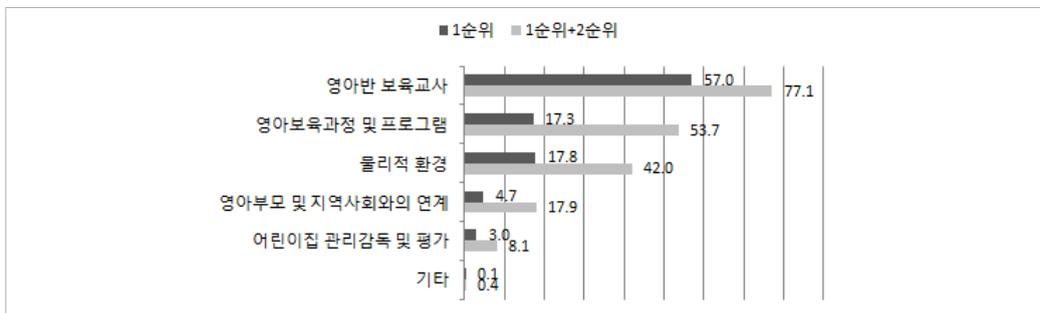
[그림 1]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

다. 영아반 운영의 내실화 방안¹⁾

1) 영아보육의 중요영역 및 운영 개선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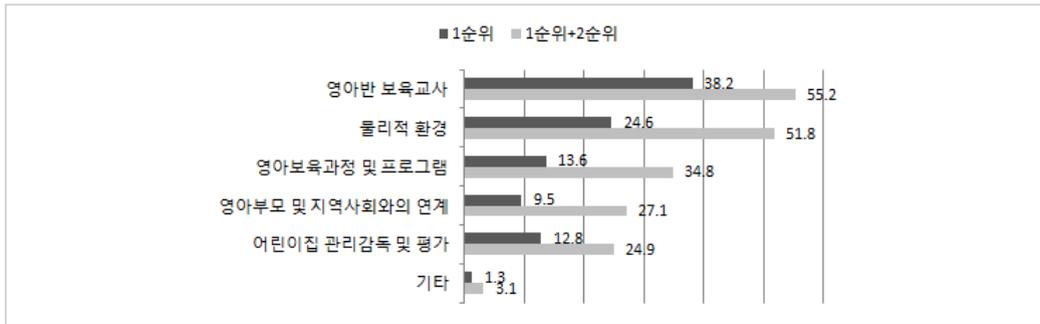
□ 이미화·민정원 외(2013)의 연구에서 영아보육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한 영역과 시급히 개선해야할 영역을 묻는 질문에 원장, 교사 모두 '영아반 보육교사'라고 응답함. 이는 영아에게 수준 높은 보육활동의 전달과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실질적인 통로인 교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

- 또한 중요영역과 시급영역 모두 영아반의 물리적 환경, 영아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변인 이외에도 보육과정 및 보육 환경에 대한 내실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그림 2] 영아보육 질 제고의 중요영역(원장, 교사): 1, 2순위

1)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이 집필한 「영아보육 운영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결과 일부를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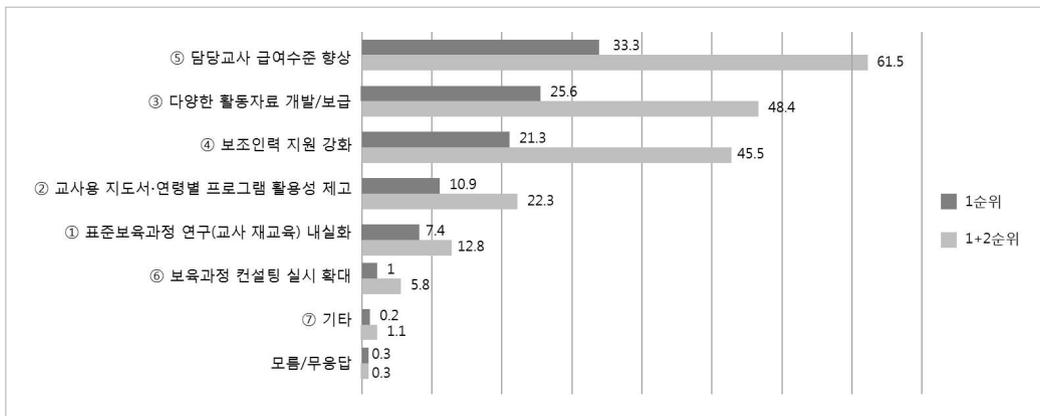


[그림 3] 영아보육 질 제고를 위한 개선 시급영역(원장, 교사): 1, 2순위

2)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 요구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총 624명 중 33.3%가 ‘담당교사 급여수준 향상’을, 25.6%가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을, 21.3%가 ‘보조인력 지원강화’를, 10.9%가 ‘교사용 지도서, 연령별 프로그램 활용성 제고’를 1순위로 선택함.

○ 2순위 선택에서는 총 610명 중 28.9%가 ‘담당교사 급여수준 향상’을, 24.8%가 ‘보조인력 지원강화’를, 23.3%가 ‘다양한 활동자료 개발·보급’을 11.6%가 ‘교사용 지도서, 연령별 프로그램 활용성 제고’를 꼽았음.



[그림 4] 「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개선점



3. 정책제언

가. 보육 환경 측면

1) 교사 대 영아비율의 하향화 및 초과보육 제한

□ 보육의 구조적 질 측면에서 이상적인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교사가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개별화된 상호작용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의미함.

○ 실제 연구들에 의하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낮을 때, 영유아들은 자율적으로 의견을 활발히 표현하고, 협동 등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Ritchie&Willer,2008).

○ 또한 이미화 외(2013)의 연구 결과에서는 초과 보육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였을 때 보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가 다소 증가하였고 적극적인 활동보다 소극적 활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관찰됨. 합반 시에도 (팀티칭) 단일반보다 영아의 긍정적 정서의 비율이 줄어들었고, 특히 3개 합반 시에는 교사 활동 중에 사무, 청소 비중이 높아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 및 생활지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영아보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관점에서 교사 대 영아비율을 하향화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교사 대 영아의 비율 규정을 준수하여 초과보육하지 않도록 하며, 영아 집단의 크기가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교구·교재 등 물리적 환경 지원과 보조인력 지원 등 인적 자원 지원 필요

○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담당교사 급여수준의 향상, 다양한 활동자료의 개발 및 보급, 보조인력 지원 강화 순으로 나타남.

- 결국 영아보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영아에게 보육을 행하는 영아반 교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함께 보육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교구·교재 비치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 교사-영아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격려하기 위한 보조인력 지원 등 인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나. 보육과정 내용 측면

1) 영아가 중심이 되는 영아보육 내용의 내실화

- 영아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아가 중심이 되는 어린이집의 하루일과가 이루어지도록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내실있는 영아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적용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함.
 - 영아의 발달적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라 함은, 우선 영아기 발달단계를 기본 전제로, 교사가 영아간 개인차를 고려하여 융통적으로 보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함.
 -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영아와 상호작용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지원전략이나 지도방안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안내하고, 각 영역별 활동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활동안 등이 제시된다면 영아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2) 영아, 유아의 보육과정의 상호 연계성 확립

- 표준보육과정의 제정으로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경험 할 수 있게 되었고, 평등한 조건 속에서 성장·발달을 격려하는 환경 제공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따라서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공통보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영아와 유아의 보육과정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지속 보완해나가야 함.

다. 영아교사 측면

1) 영아반 보육교사의 정체성 및 직무 확립

-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교사 1급과 2급 자격자를 적합한 교사자격으로 명시하고 정부지원금이 유아반과 영아반 교사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교사가 영아반에 배치될 가능성이 더욱 크며 나아가 영아반 배치를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영아교사의 차별 없는 정부지원이 지속되어야하고, 영아교사를 양성하는 기



관 및 대학에서는 영아반 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 자신이 영아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확립해야함.

- 동시에 영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표준화된 영아반 교사의 직무가 개발되어야 함. 물론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부 직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영아반 교사가 하루 종일, 한 달, 일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각 어린이집 단위에서도 반 별, 교사별 직무가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분담되고 실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직무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

2) 수요자 맞춤형 영아 전문 보수교육 마련

- 영아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영아반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보수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다양한 보수교육과정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영아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3) 결과에 따르면, 영아반 교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영아와 상호작용을 잘 하는 교사'를 꼽았음. 따라서 영아보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실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영아와 상호작용 시 교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으로는 부정적 행동에 대응하기 (64.0%)였으며, 보수(재)교육으로 필요한 내용은 교사와 영아 간 상호작용 방법을 가장 많이 택했으며(37.9%), 보수교육은 중규모 집단의 집합교육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교사에게 영아가 보육실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정적 정서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과 적극적 놀이참여 방법을 재(보수)교육과 실습, 우수기관 방문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지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영아교사들은 영아보육과정을 영아간 개인차를 고려해 융통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영아반 교사 추가 배치 지원

□ 영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은 교사의 학력, 경력, 소지 자격증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교사가 감당해야 할 영아반의 규모와 영아 간의 월령 차이, 합반이었을 때 상대 교사와의 업무분담의 조정이 영아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영향변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 특히 영아반에 비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 중에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1-3년 경력있는 반 소속 보조교사를 하루 3-5시간씩 연중 활용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교사들은 순환주임 또는 순환보조 보다는 경력과 자격이 있는 교사가 반에 소속되어 담임교사를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함. 이를 반영하여 영아 보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교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영아보육실태조사(이미화 외, 2013)에서는 영아반 합반(팀티칭)의 다소 부정적인 면이 관찰된바 있음.

- 단일반에 비해 합반 일 때, 교사가 준비 또는 기타(사무, 청소 등) 활동이 많고 교사의 영아활동에 대한 정교집중적인 개입의 비중도 2개 합반, 단일반, 3개 합반 순으로 나타나 3개반 이상의 합반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2개 합반 시에도 교사 간 업무 분담 실패 및 책임회피, 집중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 드러남.
- 이는 영아보육과정의 질 제고와도 직결되는 요소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일괄 줄이거나 팀티칭 위주로 일괄 재편성하는 것보다는 영아반의 규모, 영아 집단의 월령 차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특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순환성 보조 인력을 영아반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영아반에 교사 추가 배치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심미경(2012). 행복한 삶의 베이스캠프로서의 가정양육(주제발표 I). 한국아동학회 2012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자녀양육지원의 통합적 체계 확립을 위한 모색, 7-20.
- 이미화(2004). 보육시설 운영매뉴얼 및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 젠더리뷰, 6, 111-116.
-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권미경·이윤진·오유정·김명순·서영숙·이미정·이완정·최혜영·이운선·황혜정·박진옥 (2013).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정주영·엄지원(2014). 영아보육 질 제고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육아정책 연구소.

해외문헌

- Ritchie, S. & Willer, B. (2008). Leadership and Management: A Guide to the NAEYC Early Childhood Program Standard and Related Accreditation Criteria.

보도자료

- 경상일보(2015. 4. 12). 영아보육엔 경험 많은 교사 절실.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

최은영

1. 연구의 배경
2.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및 현황
3.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4.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개선사항
5.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향 및 과제

요약

- 본 글에서는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와 업무계획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주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청 전문직과 유아교육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진흥원의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 방안을 제안함.
- 지역의 거점 유아교육지원 체계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확대 설립을 추진하여 2014년 현재 15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이 병행 설치된 형태로 경기, 전북, 경남은 별도의 유아체험교육원이 있고, 경북은 9개의 유아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가 운영됨.
-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1순위 개선사항은 인력의 전문성 강화였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의 바람직한 역할은 지역 유치원의 거점센터 역할, 지역 유아교육정책 총괄 기능 순임. 또한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중앙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방안과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검토되어야 함.
-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운영,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1. 연구의 배경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을 확대 설치하여 광역단위 유아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교원, 행정직 및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음(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9. 12. 9).
- 유아의 체험교육 기회 제고를 위하여 지역 교육청 단위로 1개 이상의 소규모 유아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체험시설의 관리·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의 유아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최은영, 이진화, 오유정, 2014)로 수행된 연구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교육지원체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단설유치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012년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 업무에 체험교육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각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대부분이 유아체험시설을 갖추고 체험교육을 실시함.
 - 그러나 일부 시·도의 경우 별도의 유아체험교육원 혹은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에게 체험교육·교원 직무연수·학부모 연수 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성과를 얻고 있으나 현재의 기관 수, 조직과 인력 규모로는 지역 내 유아들의 체험활동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인력 구성도 전문직 1~2명을 제외한 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이거나 파견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무여건조차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김영옥 외, 2013).
 - 따라서 향후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의 지원체계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글에서는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와 업무계획자료 등을 활용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주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청 전문직과 유아교육 관련 교수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진흥원의 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의 발전 방안을 제안함.

2.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근거 및 현황

가. 법적 근거

-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법 제 3조와 제 6조에 기초하여 설립
 - 2012년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교육기능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한 유아교육법의 개정이 이루어짐.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09. 12. 9)의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분야에서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계획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 업무에 체험교육을 포함하도록「유아교육법」을 개정함('12. 3).
 - 구체적 법령과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와 운영은 17

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1〉 유아교육진흥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유아교육법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2014년 5월 14일 인출.

나. 설립 현황

- 2012년 기준, 전국적으로 12개의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13개의 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가 설립
 - 유아교육진흥원 이용아 수 약 18만, 체험교육원 이용아 수 8만 명 정도로 시·도에 따라 편차가 심하여 전체 취원아 수 대비 43.8%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최은영·김정숙·송신영, 2013).
 - 2013년에는 대전 유아교육진흥원, 전남 유아교육진흥원이 2개 증설되어 유아교육진흥원과 체험센터를 포함한 유아체험교육원은 2014년 현재 각 시·도별로 전국에 총 29개(유아교육진흥원 15개, 유아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 14개)가 설치됨.
 - 경기, 전북, 경남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외부에 별도로 유아체험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설립되어 있지 않고 체험센터 형태로 9개가 운영됨.
 - 인천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 유아체험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으나 2016년 하반기에 유아체험교육원을 개원할 예정임.
 - 경남 유아교육원과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체험교육 업무를 각각 경남 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전북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 전북 유아교육진흥원이 실내유아체험교육을 담당하며, 유아체험교육원(석교 유아종합학습분원)이 실외유아체험교육을 담당하는 등과 같이 유아체험교육의 기능 또한 이원화되어 있음.



〈표 2〉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현황

시·도	기관명	부지	개원일
1	서울 유아교육진흥원	5,401㎡	2008.3
2	부산 유아교육진흥원	7,811㎡	2009.9
3	대구 유아교육진흥원	13,317㎡	2012.9
4	인천 유아교육진흥원	426㎡	2012.3
5	광주 유아교육진흥원	5,641㎡	2010.9
6	대전 유아교육진흥원	11,493㎡	2013.3
7	울산 유아교육진흥원	11,729㎡	2011.3
8	경기 유아교육진흥원	2,984㎡	2012.9
9	강원 유아교육진흥원	9,468㎡	2010.2
10	충북 유아교육진흥원	5,028㎡	2012.5
11	충남 유아교육진흥원	19,340㎡	2010.9
12	전북 유아교육진흥원	19,235㎡	2012.9
13	전남 유아교육진흥원	4,961㎡	2013.9
14	경남 유아교육원	3,201㎡	2003.7
15	제주 유아교육진흥원	15,917㎡	2012.9

주: 1) 부산유아교육진흥원은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부’로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09.9 진흥원으로 승격
 2) 경남유아교육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진흥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설립된 것으로 그 명칭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음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2014. 5. 16)

□ 2014년 4월 김해 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하여 17개 시·도에서 유아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는 총 14개로 경북 지역에 9개원이 밀집해 있으며, 경남은 2개원, 부산, 경기, 전북은 각각 1개원씩 운영됨.

〈표 3〉 유아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 설립 현황

시·도	기관명	부지	개원일
부산	부산 유아체험학습교육원	9,846㎡	2006. 7
경기	경기 유아체험교육원	12,503㎡	2004.10
전북	석교 유아종합학습분원	29,198㎡	1998. 7
	경주 유아체험교육장	-	2011. 4
	김천 유아교육체험센터	-	2012.10
	포항 유아교육체험센터	6,771㎡	2011.11
경북	경산 유아교육체험센터	-	2011. 5
	구미 유아교육체험장	7,166㎡	2011. 6
	영주 유아교육체험센터	248㎡	2012. 6

(표 3 계속)

시·도	기관명	부지	개원일
경북	상주 유아교육체험관	-	2011. 5
	칠곡 유아체험센터	-	2011. 5
	영천 체험실 (구 영천유아자료 공유센터)	-	2006.11
경남	경남 유아체험교육원	44,991㎡	2008.12
	김해 유아체험교육원	10,616㎡	2014. 4

주: 영주, 칠곡 체험센터는 초등학교 내에 위치함.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2014. 5. 16)

3.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¹⁾

가. 법적 기능별 주요 업무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는 교사들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연구회 및 연구동아리, 공모전, 교원연구대회 등을 통해 이루어짐.
 - 공모전 및 교원연구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교사에 대한 시상 및 인센티브가 주어짐.
 - 연구동아리 및 연구회를 구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팀을 구성하여 특정주제에 대한 자료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는 교사의 교수신장 및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 및 보급에 있다고 볼 수 있음.

2) 유아교육 관련 정보 제공

- 유아교육진흥원은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1) 본 절은 시·도별 유아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당 기관의 운영계획, 정보 등을 통해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제시함.



- 학부모 대상으로는 주로 학부모 연수, 학부모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부모 연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수가 많음.
- 교사를 대상으로는 교재교구 및 도서, 유치원 행사기기 등의 대여와 같은 교단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진흥원 내 홈페이지나 별도의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서 교사 및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함.

가) 학부모

(1) 학부모 연수

- 학부모 연수는 주로 부모역할 강화를 위한 연수로 강연회, 워크숍 등의 형태로 이루어짐.
 - 아버지 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아버지 교육 및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하며, 조부모 연수를 실시하기도 함.

(2) 학부모 및 유아 상담

- 학부모 상담은 상담의 효율성을 위해 도서, 음악 등을 접목하기도 함으로써 학부모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 형태로 운영됨.

나) 교원

- 교원을 위한 정보제공으로는 교단지원 차원의 교재교구, 도서대여, 플로터 출력 등이 일반적이며, 교재교구 대여 시 왕복 택배비용을 유아교육진흥원이 분담하기도 함.
 - 이외에도 소식지를 발간을 하거나 홈페이지에 유아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이용해 홍보활동 등이 이루어지기도 함.

3)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유아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은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함.
 - 유아교육진흥원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진흥원 내 관련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하여 유치원의 교재교구 제작에 도움을 줌.

-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의 주제는 교육과정과도 연결되는데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하여 연령별 누리과정 평가도구, 누리과정 관련 장학자료 제작, 누리과정 영역별 자료개발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관내 유치원에 보급하고 있음.

4) 유치원교원 연수

-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직무 연수, 자격 연수, 특수분야 자율연수, 원격연수 등이 이루어지며, 시·도의 특성과 유치원 교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교원연수, 교원 동아리 연수 등을 실시함.
- 유아체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주로 유아의 효율적인 체험활동을 위한 교사 사전 연수의 형태임.

5) 유치원 평가

- 일부 시·도에서는 유치원 평가결과 우수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며, 우수사례를 홈페이지나 책자 등에 공개하고 있음.

6) 유아 체험교육

가)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 프로그램

- 단체체험, 가족체험, 문화공연체험, 특별체험 등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가족체험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하여 토요일에 이루어짐.
- 진흥원 외에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과학, 공연 등을 유치원 내에서도 유아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아들도 체험 가능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함.

나) 유아체험교육원 및 유아체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 체험교육원의 규모에 따라 1일 30명~400명까지 정원에 차이가 있음.
- 체험프로그램 외에 유치원 행사에 필요한 의상 및 기계, 교재교구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개최하거나 연수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함.



나. 서비스 대상별 주요 업무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는 서비스 실시 대상에 따라 교원 지원, 학부모 지원, 유아 체험, 특색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교원 지원은 교사의 전문성 및 현장지원을 위한 교사연수, 자료개발, 현장연구 등
 - 학부모 지원은 학부모의 역할 및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학부모 연수, 부모 상담
 - 유아 체험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대상이나 주제에 따라 단체체험, 가족체험, 특별체험 등 운영
 - 각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의 특성이나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교원, 학부모, 유아를 위하여 매년 특색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

4.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개선사항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중 가장 강화되어야 할 업무의 순위
 - 교원연수(교육) 프로그램(42%)을 가장 많이 선택함. 유아체험교육이 22%로 그 뒤를 이었고, 상대적으로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10%), 유아교육정보제공(7%), 교재교구개발 및 보급(6%)은 낮았음.

〈표 4〉 강화되어야 할 업무: 1순위

구분	단위: %(명)						X ² (df)
	교원연수 (교육) 프로그램	유아체험 교육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	유아교육 정보제공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계	
전체	42.0	22.0	10.0	7.0	6.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46.0	26.0	8.0	8.0	2.0	100.0(50)	5.718
유아교육과 교수	38.0	18.0	12.0	6.0	10.0	100.0(50)	(8)

주: 1) 응답순위 1~6순위까지 표기.

2) 교원 연구(동아리활동) 프로그램과 유치원 평가(각각 6순위, 5.0%), 유아도서, 교재 교구 및 행사물품 대여 등 지원프로그램(8순위, 2.0%), 가족지원프로그램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9순위, 1.0%) 응답 미표기.

- 유아교육진흥원 강화 업무의 1, 2순위 합산
 - 교원연수(교육) 프로그램이 31.5%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체험

교육이 16.5%, 유아교육정보제공 11%, 교재교구개발 및 보급 10.5%,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 9%, 유치원 평가 8% 순임.

〈표 5〉 강화되어야 할 업무: 1+2순위

단위: %(명)

구분	교원연수 (교육) 프로그램	유아체험 교육	유아교육 정보제공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	유치원 평가	계
전체	31.5	16.5	11.0	10.5	9.0	8.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36.0	18.0	11.0	7.0	7.0	8.0	100.0(50)
유아교육과 교수	27.0	15.0	11.0	14.0	11.0	8.0	100.0(50)

주: 1) 응답순위 1~6순위까지 표기.

2) 유아도서, 교재 교구 및 행사물품 대여 등 지원프로그램(7순위, 6.0%), 교원 연구(동아리 활동)프로그램(8순위, 5.5%),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9순위, 2.0%) 응답 미표기.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중 축소되어야 할 업무

- 유치원 평가(3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16%), 유아체험교육(12%), 유아도서 교재교구, 행사물품대여 등 지원(11%),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각각 8%) 순임.

〈표 6〉 축소되어야 할 업무: 1순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평가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유아체험 교육	유아도서, 교재교구, 행사 물품 대여 등 지원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계	$\chi^2(df)$
전체	32.0	16.0	12.0	11.0	8.0	8.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26.0	16.0	12.0	14.0	12.0	4.0	100.0(50)	11.143
유아교육과 교수	38.0	16.0	12.0	8.0	4.0	12.0	100.0(50)	(8)

주: 1) 응답순위 1~6순위까지 표기.

2) 유아교육정보제공(7순위, 5.0%), 교원연수(교육)프로그램과 교원 연구(동아리 활동) 프로그램(각각 8순위, 4.0%) 응답 미표기.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중 축소되어야 할 업무의 1, 2순위 합산

- 유치원 평가(20%)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체 프로그램 19.5%, 지원 프로그램 13.5%,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 11.5%, 유아체험교육 10%, 교원 연구(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7.5% 순임.

〈표 7〉 축소되어야 할 업무: 1+2순위

단위: %(명)

구분	유치원 평가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유아도서 교재교구, 행사 물품 대여 등 지원 프로그램	학부모 교육(연수) 프로그램	유아체험 교육	교원 연구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계
전체	20.0	19.5	13.5	11.5	10.0	7.5	100.0(100)
교육청 전문직	18.0	23.0	14.0	11.0	12.0	7.0	100.0(50)
유아교육과 교수	22.0	16.0	13.0	12.0	8.0	8.0	100.0(50)

주: 1) 응답순위 1~6순위까지 표기.

2) 유아교육 정보제공(7순위, 7.5%), 교재교구개발 및 보급(8순위, 6.5%), 교원 연수(교육) 프로그램(9순위, 4.0%) 응답 미표기.

□ 유아교육진흥원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 유아교육전문가의 47%는 1순위로 유아교육진흥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선택했고,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형태의 중앙기구 설립필요 25%, 조직 및 업무 분장의 명확성 확보 11% 순으로 응답함.

〈표 8〉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개선사항: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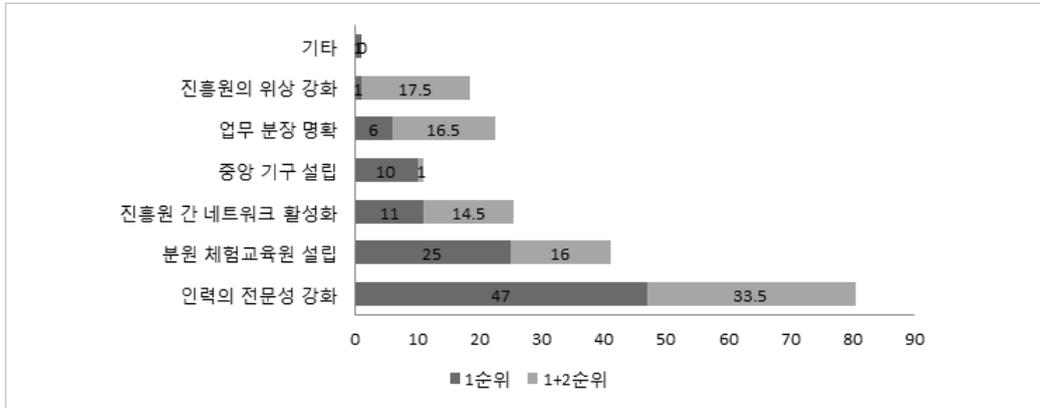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진흥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중앙기구 설립필요	조직 및 업무 분장의 명확성 확보	진흥원의 위상 강화	진흥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분원 체험 교육원 설립으로 제 기능 활성화	기타	$X^2(df)$
전체	47.0	25.0	11.0	10.0	6.0	1.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54.0	22.0	8.0	8.0	6.0	2.0	100.0(50)	3.621 (5)
유아교육과 교수	40.0	28.0	14.0	12.0	6.0	0.0	100.0(50)	

□ 유아교육진흥원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의 1순위와 2순위 합산

-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33.5%)이었으며, 각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체험교육원 설립으로 제 기능 활성화 17.5%, 각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16.5%,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형태의 중앙기구 설립필요 16%, 조직 및 업무 분

장의 명확성 확보 14.5% 순으로 높았음.



[그림 1]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의 개선사항: 1+2순위

□ 바람직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 지역 유치원들의 거점센터역할을 1순위(44%)로 선택했고, 지역 유아교육정책 총괄 기능 30%,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포괄하는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발전 23%, 향후 다른 초중등의 동일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통폐합 3% 순임.

<표 9> 바람직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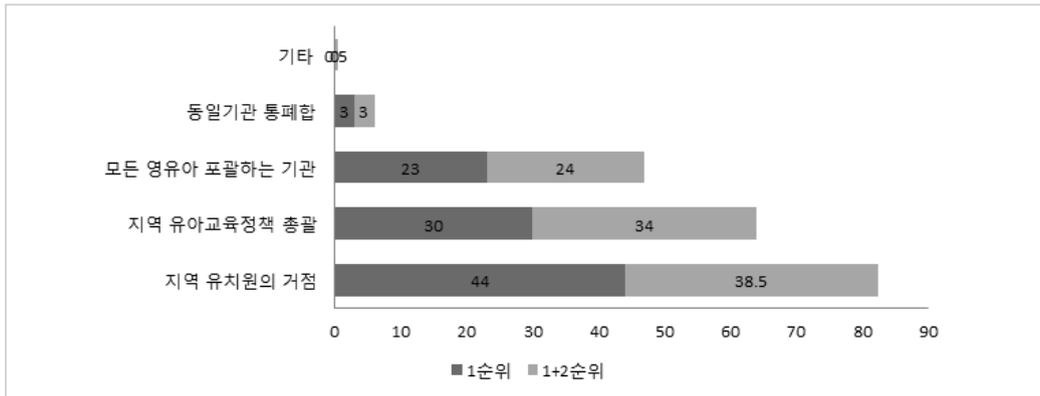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지역 유치원들의 거점센터역할	지역 유아 교육정책 총괄 기능	모든 영유아를 포괄하는 기관으로 발전	동일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통폐합	계	$\chi^2(df)$
전체	44.0	30.0	23.0	3.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50.0	38.0	10.0	2.0	100.0(50)	10.633
유아교육과 교수	38.0	22.0	36.0	4.0	100.0(50)	(3)*

* $p < .05$.

□ 바람직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의 1순위와 2순위 합산

- 지역 유치원들의 거점센터역할이 38.5%였으며, 지역 유아교육정책 총괄 기능 34%, 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영유아를 포괄하는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발전 24%, 향후 다른 초중등의 동일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통폐합 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바람직한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 1+2순위

□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의 바람직한 설립 형태

- 유아교육전문가의 41%는 유아교육진흥원 내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선택했고, 유아교육진흥원 및 별도 유아체험교육원 설립(35%)이 그 뒤를 이었으나 유아교육진흥원 단독 설립(18%), 별도 유아체험교육원만 설립(2%)은 낮은 비율을 보임.

<표 10> 유아교육진흥원의 바람직한 설립 형태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 진흥원 내 유아 체험 교육원 설립	유아교육 진흥원 및 별도 유아 체험교육원 설립	유아교육 진흥원 단독설립	기타	별도 유아체험 교육원만 설립	계	$X^2(df)$
전체	41.0	35.0	18.0	4.0	2.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42.0	36.0	20.0	2.0	0.0	100.0(50)	3.275
유아교육과 교수	40.0	34.0	16.0	6.0	4.0	100.0(50)	(4)

□ 유아교육진흥원의 독립운영 필요 여부

- 유아교육전문직의 53%는 유아교육진흥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함.

<표 11> 유아교육진흥원의 독립운영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아니오	예	계	$X^2(df)$
전체	53.0	47.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50.0	50.0	100.0(50)	0.361(1)
유아교육과 교수	56.0	44.0	100.0(50)	

□ 유아교육진흥원 독립운영 필요 이유

- 유아를 위한 체험교육은 안전시설 등 업무특성상 분리운영을 이유로 든 비율이 63.8%로 과반수를 차지함.

〈표 12〉 유아교육진흥원의 독립운영 필요 이유

단위: %(명)

구분	체험교육은 안전시설 등 업무특성상 분리운영	유아교육 진흥원 업무범위가 포괄적임	초중등도 학생수련원(체험원)이 독립 운영되고있음	기타	계	$X^2(df)$
전체	63.8	29.8	4.3	2.1	100.0(47)	
교육청 전문직	76.0	24.0	0.0	0.0	100.0(25)	5.249
유아교육과 교수	50.0	36.4	9.1	4.5	100.0(22)	(3)

□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 여부

- 유아교육전문직의 70%가 예라고 응답해, 대부분이 중앙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응답함.

〈표 13〉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필요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X^2(df)$
전체	70.0	30.0	100.0(100)	
교육청 전문직	68.0	32.0	100.0(50)	0.190(1)
유아교육과 교수	72.0	28.0	100.0(50)	

5.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향 및 과제

가.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확대

1) 거점 유아교육 지원체계로의 정착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

- 유아교육법 제6조의 ‘유아교육진흥원은(중략)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설치한다’라는 강제성을 부여함.

- 현재 미설치 지역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명시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



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2) 분원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센터 설치 확대

- 유아교육진흥원이 15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역 규모에 따라서 하나의 기관으로 시설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 대도시 지역의 체험시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체험교육원 설치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경북 지역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9개의 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유아교육진흥원을 본원으로 하여 교원의 연구활동, 연수,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분원 형태의 체험교육원 및 체험센터를 설치하여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중앙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각 시·도의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기관 간의 연계와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중앙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은 각 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임.
 - 단, 중앙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된다면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하며, 현재 일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유치원 평가의 중앙 기구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활성화

1)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가) '유아교육사' 명칭 정립 및 고용 안정성 보장

- 유아교육진흥원의 대부분의 인력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유아교육사는 비정규직으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일부 시·도에서는 유아교육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나) 전문인력 추가 배치

□ 유아체험시설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안전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배치해야 함.

- 또한 전산 전문인력, 행정 전문인력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상 황으로 안전, 행정 관련 전문인력의 추가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기존 업무의 내실화, 선별적 강화 및 축소

□ 유아교육진흥원의 인력 규모에 비해 체험, 연수, 연구, 유치원 평가 등 다양한 사업들 을 수행하면서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하나의 기관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일부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치원 평가는 독립된 평가기관을 통해 객관성,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치 원평가 기능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지역사회 유아교육 기반으로서 학부모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에게는 체험시설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하여 교사연수, 연구, 프로그램 등 현장의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로서 정착되어야 함.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표준 운영 기준(안)을 제안함.

〈표 14〉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및 표준 운영 기준(안)

명칭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원
설치 근거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조건: 이용수요, 안전, 대중교통 접근성 등 고려 • 설비 기준: 자료실, 상담실, 연수실 등 최소 필요공간 설치
인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력 • 비정규 인력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연수, 학부모(가족) 지원, 유아체험 총괄 지원 •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 시·도 유아교육진흥원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표 14 계속)

명칭	유아교육진흥원 ⇒ 유아교육원		
시·도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연수, 자율연수, 원격연수 등 교원 실행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연구동아리 운영 교재·교구 대여
	학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족) 상담 학부모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 동아리 운영 가족지원활동(체험 등) 운영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체험시설 운영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 상담(문제행동 등)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정보 제공 정보지, 자료집 등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홍보

다. 유아교육진흥원 발전 방안

1) 유아교육진흥원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 기구 상시화

- 현재 각 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중앙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정례 모임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협의 기구를 조직, 상시화하여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2) 교육청과의 업무 배분 체계화 및 연계 강화

-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육청 간의 일부 업무가 중복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세부적인 업무 분장과 협력이 필요함.
 -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과 시·도교육청의 하위조직인 지역교육청과의 연계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과중으로 협의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
- 유아교육진흥원과의 합리적인 업무 배분과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간의 연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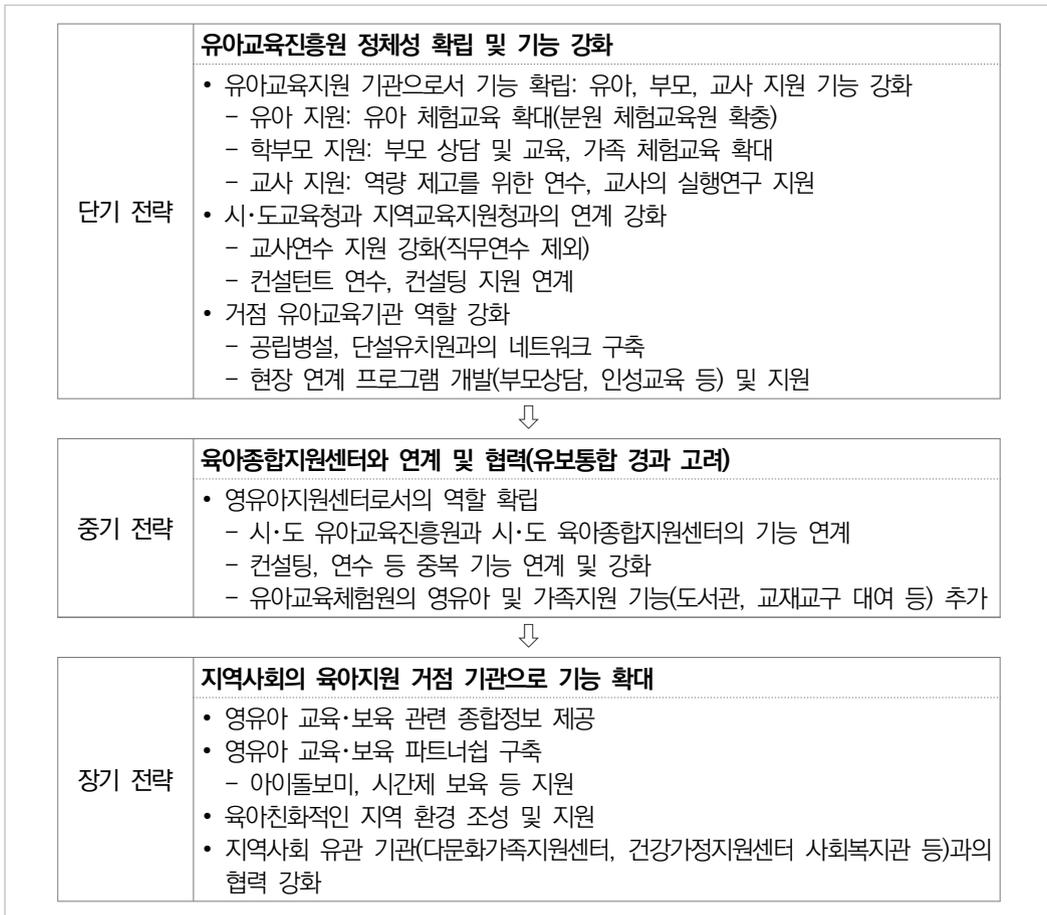
3) 지역사회 육아지원 협력 체계 구축

- 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 유아교육 지원체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지

역사회지원을 위한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시·도에서 체험시설 이용을 어린이집에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학부모의 만족도와 요구가 높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모든 영유아, 학부모들을 위한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이 유아교육진흥원의 단계적 발전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함.



[그림 3] 유아교육진흥원의 단계적 발전 방안 및 전략



참고문헌

국내문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 12. 9).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 -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김영옥·이기숙·신은수·문미옥·박은혜·장명립·정미라·이화룡·조부경·우명숙·문무경·조형숙·최윤정·김진영·김은영·서현(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정책수립 정책연구. 교육과학기술부·광주광역시교육청.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

강원유아교육진흥원: <http://www.gwch.go.kr/>

경기유아교육진흥원: <http://www.giece.go.kr/>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http://www.kench.or.kr/>

경상남도유아교육원: <http://www.gnchild.go.kr/>

경상남도유아체험교육원: <http://www.gnphei.go.kr/>

경주유아체험교육장: <http://cafe.daum.net/kyoungju-child/>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http://iedu.gen.go.kr/>

김천유아교육체험센터: http://www.gimcheon-e.go.kr/content/04teaching/12_01.asp/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http://www.daegu-i.go.kr/>

대전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http://dje-i.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http://child.pen.go.kr/>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http://www.seoul-i.go.kr/>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http://www.uskids.kr/>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http://www.iecedi.or.kr/>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http://iedu.jne.kr/>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http://www.jb-i.kr/>

제주유아교육진흥원: <http://www.jkids.go.kr/>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n-i.go.kr/>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biedu.go.kr/>

PART 04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정책 방안
 | 유해미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양미선
- 육아지원 센터 이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이윤진
-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형평성 제고 방안
 | 이정원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요구 및 정책 방안

유해미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3.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수요
4. 정책 방안

요약

- 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 등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은 여전하며,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맞벌이 가구 역차별이 우려되는 등 여성고용 증진 효과가 의문시됨.
- 취업모는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해 0~1세아는 부모 직접 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를 넘고, 해당 연령의 경우 육아휴직, 양육수당제도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남.
- 취업모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기관보육 운영 시간과 운영 일수,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비용 부문에서 낮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요구도는 돌봄 시간 지원 부문 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차출근제 활성화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책 방안으로는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 기구 설치 운영을 통한 성과 모니터링 강화, 맞벌이 가구의 기관 입소 우선순위 및 입소관리 강화, 아이돌봄서비스의 영아 종일제 위주 내실화,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등을 제안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 2011년부터 추진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사회적 돌봄 정책 관련 주요 대책들에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이 강조되고 관련 세부대책이 강화되어 왔으나 정책 효과는 의문시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지원이 강조되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의 일상화에 주력함(대한민국 정부, 2010).
 - 2013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정체되어 있고(통계청, 2014b: 23), 결혼과 육아 등으로 30대 여성의 고용율이 하락하는 M자 곡선도 여전히 나타남(통계청,



2014b: 24).

- 2014년 15~54세 기혼여성(956.1만) 중 결혼, 임신·출산, 자녀 양육·교육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213만9천명에 달함.

○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대비(1.30명) 감소하여 2003년 수준에 머물고 있음(통계청, 2014a: 1).

□ 최근 정부는 2013년 이후 실시된 무상보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2017년까지 고용율 70%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무상보육 실시로 인한 맞벌이 역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적 확대와 시간연장형서비스(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 내실화 등을 제시함(보건복지부, 2013: 5).

○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2013, 6),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2014, 2)에 이어 지난 해 10월에는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으로 ‘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¹⁾

□ 이 글에서는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수요를 분석하여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 차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양육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함.

나. 일·가정 양립지원과 효과성 논의

□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1) 보육서비스 2) 휴가·휴직제도 3) 유연근무제를 들 수 있음.

○ 보육서비스는 경제활동 중인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임.

○ 휴직제도는 특히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게 함.

1)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해 보육실·놀이터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대상 설치비, 신축 매입비, 인건비 지원 강화, 의무이행수단 강화 등을 제시함(기획재정부, 2013) ;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에서는 임신·출산 시기의 대체인력 지원 강화, 영유아 시기의 시간제보육 반 시범사업 실시, 초등 시기의 초등돌봄교실 제공과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컨설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14: 27-28).

- 유연근무제도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육아기에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함.
- 이들 양육지원과 합계출산율, 여성고용율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보고됨.
 - 1980년대 이전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의 관계는 음(-)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환경의 구축에 기인한다고 분석됨(아마구치 가즈오, 2010: 127).
 - 종일제 보육 운영과 영아 대상 기관보육은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도움이 되며(Misra, Budig, and Boeckmann, 2012: 28), 특히 만 3세 이전 공보육의 질이 높을수록 여성고용률은 높게 나타남(Misra et al., 2012: 28).
 - 육아휴직은 자녀 출산 이전에 근무하는 비율을 높이나, 휴직 기간에 따라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하어 유급 휴직 기간이 20주를 초과할 경우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Hegewisch and Gornick, 2012: 8).
 - 휴직 기간은 영아보육과 동전의 양면으로(Misra et al., 2012: 37), 질 높은 영아 보육이 제공될 경우 취업모의 출산 후 직장복귀는 빨라지고 장기간 휴직의 필요성은 줄어들음.
 -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이 용이한 경우 고용주들은 여성의 고용과 승진을 기피할 수 있고(Hegewisch and Gornick, 2012: 14),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여성의 임금 축소가 우려되므로 양성평등적인 제도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2.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양육지원 중 일하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1) 서비스 지원과 2) 돌봄 시간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서비스 지원

대표적인 서비스 지원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기관보육과, 가정에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가정내 보육을 들 수 있음.



1) 기관보육

-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에 이어 2013년부터는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시간제보육반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됨.
 - 시간연장보육 지원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취업모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임(관계부처 합동, 2014: 8).
- 주요 지원으로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보장, 종일제 보육 의무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등임.
 - 부모가 취업중인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자로 규정되나, 1순위 대상은 모두 9개 항목에 걸쳐 있어 맞벌이 가구가 우선적으로 입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어린이집은 보육 실수요자를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반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되나, 어린이집 미휴원율은 79.1%에 그치고, 해당 휴원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2.3%임(이미화·서문희·이정원·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 2012: 12).
 - 시간연장형보육에는 시간연장(19:30~24:00), 야간보육(19:30~익일), 24시간보육, 휴일(토요일 제외)보육이 포함되며, 지원 대상은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2013년 기준 시설수는 1.4%, 정원수는 2.5%를 차지함(보건복지부, 2014: 6).
-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 구조로 공보육 인프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취업모 자녀가 차별받는 상황이 초래됨 (관계부처 합동, 2014: 7).
 - 2012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대기 기간은 9.7개월에 달함(이미화 외, 2012: 148-149).

2) 가정내보육

- 국가 차원의 가정내보육 지원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일함.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내 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3년 이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 위주 서비스를 강화해 옴.
 - 2014년부터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관계부처 합동, 2014: 8), 2015년에 영아종일제 대기시스템을 도입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는 시간제 돌봄은 2010년 27,339명에서 2013년 47,700가구, 종일제 돌봄은 2010년 124명에서 2013년 3,369명으로 급증함(여성가족부, 2014a: 3).
-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은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 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이며, 이용 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함.
 -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2014년에 1) 취업 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저소득 가정, 2) 취업 한부모, 취업 및 맞벌이 일반가정 순으로 조정됨(여성가족부, 2014b: 1).
 - 사업 내용은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특별서비스(긴급보육, 기관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으로 구분됨.
- 주된 문제점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와 취업모에 대한 배려 부족이 지적되어 왔음(여성가족부, 2014a: 4).
- 2014년 9월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월 평균 대기 가구는 시간제 1,116 가구, 종일제 582 가구임.

나. 돌봄 시간 지원

- 휴가·휴직제도
- 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를 운영 중임.
 - 산전후 휴가 기간은 총 90일로 반드시 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며, 90일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시 5일까지 청구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2014: 11).
-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01년 이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을 살펴보면, 양 제도 모두 사용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2007년에 3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2012년에 약 49%에 달함(박진희·이시균·윤정혜, 2013: 121).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이며, 최대 사용 기간은 1년이며(고용노동부, 2014: 20), 이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양자를 합하여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3년 기준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 12.5%, 시차출근제 7.6%, 탄력적 근로 8.8%, 재택근무 1.5%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4a: 37).

□ 2013년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522개로,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체(43,484개) 중 1.2% 수준임(여성가족부, 2014a: 37).

3. 영유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 수요

2014년 전국 지역의 영유아를 둔 취업모 총 1,736명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²⁾

가. 양육방식 선호도

-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은 아동 연령별로 차별화된 인식을 보임.
 - 0세아와 1세아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육박하

2) 이하 내용은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는 반면, 4세아와 5세아는 기관 이용이 우세함.

- 기관을 선호하는 비율은 4세아는 어린이집 36.6%, 5세아는 유치원 41.9%로 나타남.

〈표 1〉 부모가 일할 때 적합한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부모 직접돌봄	66.4	60.4	49.1	38.9	23.8	18.6
조부모/친인척돌봄	17.6	21.9	24.2	33.1	13.8	11.8
어린이집 이용	10.8	13.0	21.4	18.7	36.6	25.1
가정내비혈연돌봄	2.6	3.3	3.9	6.0	2.9	2.6
유치원 이용	2.5	1.2	1.3	3.2	22.8	41.9
기타	0.2	0.2	0.1	0.1	0.1	0.1
$X^2(df)$	82.164(25)***					
계(수)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100.0(1,736)

주: 1순위 응답 결과임.

*** $p < .001$

○ 양육 방식에 대한 자녀 연령별 선호도의 차이는 실제 주양육자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0세아의 경우는 조부모 돌봄이 지배적이어서 해당 비율은 약 60%선에 이르며, 어린이집 이용율은 0세아는 28.2%에 그치나, 2세아 69.6%, 3세아 64.8%로 증가하고, 5세아는 유치원 이용율이 46.8%로 어린이집 이용율을 초과함.

○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대상 양육지원은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지향하되, 아동 연령에 따른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됨을 말해줌.

□ 긴급보육 시 희망 돌봄자로는 조부모나 직접 돌봄을 선호함.

○ 급작스런 야근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부모/친인척과 기관을 선호하며, 자녀가 아플 경우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74.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긴급 상황 시 희망 돌봄자

구분	아근 등	단위: %(명)	
		자녀가 아플 경우	
부모가 직접 돌봄	-	74.0	
조부모/친인척	71.3	20.6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	19.7	3.6	
친구 및 이웃	5.4	1.3	
비혈연 대리양육자	2.5	0.4	
기타	1.2	0.1	
계(수)	100.0(1,271)	100.0(1,271)	

나. 양육지원 수요 전반

- 양육지원정책별 필요도는 일부 항목에서 자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표 3〉 참조).
 - 육아휴직제도와 가정양육수당은 0세아와 1세아에서 두드러진 수요를 보이며, 직장어린이집과 입소대기시스템은 0세아에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나타냄.
 - 반면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무제,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등은 자녀 연령에 따른 필요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전반에 걸친 적용이 요구됨을 말해줌.
-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요구는 돌봄 시간 지원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표 4〉 참조).
 - 1순위 응답 기준으로 육아휴직 활성화 18.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5.4%, 시차출근제 활성화 14.3% 순임.
 - 1순위와 2순위를 합하면, 시차출근제 27.9%, 육아휴직 활성화 2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3.7% 순임.

〈표 3〉 자녀 연령별 양육지원정책 필요도 인식

구분	자녀 연령						영유아 구분			전체	(수)
							영아	유아	t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출산전후휴가제도	4.6	4.5	4.5	4.5	4.4	4.5	4.5	4.5	2.143	4.5	(1,736)
유사산후휴가제도	4.2	4.2	4.2	4.0	4.1	4.1	4.2	4.1	3.435**	4.1	(1,736)

(표 3 계속)

구분	자녀 연령						영유아 구분			전체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아	유아	t		
배우자출산휴가	4.3	4.3	4.1	4.1	4.0	4.1	4.2	4.1	3.848***	4.2	(1,736)
임신·출산비지원	4.6	4.6	4.5	4.5	4.4	4.4	4.5	4.4	3.626***	4.5	(1,736)
난임시술비지원	4.1	4.2	4.1	4.1	4.0	4.1	4.1	4.1	1.913	4.1	(1,736)
산모신생아도우미	4.2	4.2	4.2	4.2	4.0	4.1	4.2	4.1	2.456*	4.2	(1,736)
근무중 수유	4.0	4.0	3.9	3.9	3.8	3.8	4.0	3.9	2.081	3.9	(1,736)
육아휴직제도	4.6	4.5	4.5	4.5	4.4	4.4	4.5	4.4	3.492***	4.5	(1,736)
가족돌봄휴가제도	4.4	4.2	4.3	4.3	4.1	4.3	4.3	4.2	1.518	4.3	(1,736)
근로시간단축	4.3	4.3	4.3	4.3	4.2	4.3	4.3	4.3	1.503	4.3	(1,736)
탄력근무제	4.3	4.3	4.3	4.3	4.2	4.4	4.3	4.3	0.497	4.3	(1,736)
가족친화기업인증	3.8	3.8	3.8	3.6	3.6	3.6	3.8	3.6	3.186**	3.7	(1,736)
직장어린이집	4.4	4.2	4.2	4.3	4.2	4.1	4.3	4.2	1.904	4.2	(1,736)
입소대기시스템	4.2	4.0	4.0	3.9	3.8	3.8	4.1	3.8	5.500***	3.9	(1,736)
방과후돌봄지원	4.3	4.2	4.2	4.2	4.2	4.2	4.2	4.2	1.440	4.2	(1,736)
시간연장보육료	4.3	4.3	4.2	4.2	4.2	4.2	4.3	4.2	1.949	4.2	(1,736)
시간제보육	4.2	4.1	4.2	4.1	4.1	4.0	4.1	4.1	1.949	4.1	(1,736)
가정양육수당	4.4	4.4	4.3	4.1	4.0	4.1	4.4	4.1	6.533***	4.2	(1,736)
영아아이돌봄	4.1	4.0	4.0	4.0	3.8	3.9	4.1	3.9	3.215**	4.0	(1,736)
시간제아이돌봄	4.1	4.1	4.1	4.1	3.9	4.0	4.1	4.0	2.241*	4.1	(1,736)

주: 평균은 각 항목에 대해 '전혀불필요' 1점~'매우필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 후속출산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직장일과 양육의 병행이 힘들어서' 41.5%, 그 다음으로 양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0.6%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의 근로 특성과 가구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임(〈표 5〉 참조).

- 양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와 모가 전일제 근로자인 경우는 직장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후속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이며, 이는 일반근무자에 비해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자의 경우 더욱 그러함.
- 200만원 이하 가구는 양육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가 되는 반면, 이들보다 높은 소득가구에서는 직장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후속 출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드러남.



〈표 4〉 일·가정 양립지원 요구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육아휴직 활성화	18.3	2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5.4	23.7
시차출근제(탄력근무제) 활성화	14.3	27.9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강화	13.0	24.1
종일제 보육(7:30~19:30)·교육 운영 시간 준수	8.8	17.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8.0	15.8
양육비(현금) 지원	5.5	14.2
장시간 보육(시간 연장, 야간보육 등) 기관 확충	5.4	16.3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5.2	13.9
배우자(남편)와의 평등한 육아 분담	3.1	9.3
가정내 보육(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1.6	5.8
민간 베이비시터 지원 강화(비용 지원, 인력 관리 등)	1.1	3.6
기타	0.3	0.5
계(수)	100.0(1,736)	

〈표 5〉 후속출산 미의향 사유

구분	단위: %(명)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계
전체	41.5	30.6	25.6	2.0	0.3	100.0(1,198)
가구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45.7	28.5	23.9	1.6	0.4	100.0(966)
전일제+시간제	24.1	39.2	32.8	3.9	-	100.0(232)
본인 근로형태						
전일제	43.8	29.9	24.1	1.8	0.4	100.0(1,037)
시간제	26.7	34.8	35.4	3.1	-	100.0(161)
근무형태						
일반근무	40.2	30.9	26.7	2.0	0.3	100.0(1,020)
교대근무	45.2	30.1	21.9	2.7	-	100.0(73)
야간근무	51.4	27.6	18.1	1.9	1.0	100.0(105)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16.4	40.3	38.8	4.5	-	100.0(67)
300만원 미만	39.3	36.5	23.3	0.9	-	100.0(219)
400만원 미만	41.3	31.8	24.0	2.5	0.4	100.0(242)

(표 5 계속)

구분	직장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어서	양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계
500만원 미만	41.3	33.8	23.0	1.4	0.5	100.0(213)
600만원 미만	47.7	29.1	21.5	1.2	0.6	100.0(172)
600만원 이상	45.6	21.1	30.2	2.8	0.4	100.0(285)

다. 주요 정책 및 제도별 수요

서비스 지원 부문인 기관보육, 가정내보육,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와 돌봄 시간 지원에 대한 수요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기관보육

□ 대기 현황 및 선호 기관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입소·입학 시에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이며, 평균 대기 기간은 약 8개월로 조사됨.
 -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대기 유경험률은 각각 약 75%과 약 67%에 달하며, 해당 기간은 약 12개월과 약 11개월임.
-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 중인데도 타 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둔 응답자(162명)에게 해당 사유를 질문한 결과, ‘국공립기관(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38.3%, ‘집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옮기려고’ 33.3% 순으로 조사됨.

□ 기관보육 이용 시기의 적절성 인식

- 기관을 이용한 시기별로 해당 시기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0세아와 1세아의 경우는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5%, 75.2%에 달하고, 2세아의 경우는 60%선에 육박함.³⁾
- 막내 자녀가 기관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응답한 경우 당시 희망했던 양육 방식은 부모의 직접 돌봄이 80.3%로 가장 많았고(다중응답),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24.2%로 나타남.

3) 최초 기관 이용 시기는 평균 약 21개월로 조사됨.



〈표 6〉 최초 기관 이용 시기의 적절성 인식

단위: 개월, %(명)

최초 이용시 자녀연령	너무 이르다	적절하다	너무 늦다	잘 모르겠다	계(수)
0세	72.5	25.0	-	2.5	100.0(40)
1세	75.2	20.4	1.8	2.7	100.0(113)
2세	60.2	33.9	0.5	5.4	100.0(186)
3세	53.3	41.5	0.9	4.4	100.0(229)
4세	43.9	50.0	0.9	5.3	100.0(228)
5세	45.3	48.6	1.2	4.9	100.0(243)

〈표 7〉 퇴근 시각 이전 하원 비율 및 해당 사유

단위: %(명)

구분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	남아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	장시간 기관 이용을 원치 않아서	아이가 힘들어 해서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타 시설 기관에 보내려고	기타	퇴근 시각보다 빨리 하원시키지 않음	계(수)
전체	22.8	20.4	12.5	11.1	7.4	5.0	2.6	18.2	100.0(1,039)

□ 기관 이용시간

- 본인의 퇴근 시각 이전에 하원시키는 주된 이유는 ‘집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 22.8%, ‘남아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서’ 20.4%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도 원장 또는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퇴근 시각 이전에 하원을 시킨다고 응답한 비율도 7.4%로 나타남(〈표 7〉 참조).
- 과거에 시간연장형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직접 또는 가족이 양육하는 것이 가능해서, 아이에게 부담이 되거나 이용하는 아동이 적어서 등이 지적됨.
 -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서, 원장 및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등 비자발적인 이유도 지적됨.
- 이들 사유는 시간연장형보육을 전혀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지적됨.

〈표 8〉 시간연장정보육 이용 중단 사유

구분	단위: %(명)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직접 양육이 가능해서	20.3(37)	8.3(4)	11.5(3)	16.2(17)
가족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서	13.2(24)	14.6(7)	3.8(1)	16.2(17)
아이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18.1(33)	22.9(13)	11.5(3)	9.5(10)
이용 아동이 적어서	1.1(2)	2.1(1)	-	6.7(7)
기관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0.5(1)	2.1(1)	3.8(1)	1.9(2)
원장 및 교사 눈치가 보여서	3.8(7)	-	3.8(1)	5.7(6)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서	9.9(18)	4.2(2)	-	4.8(5)
비용 부담 때문에	2.2(4)	2.1(1)	3.8(1)	2.9(3)
(수)	(182)	(48)	(26)	(105)

〈표 9〉 기관보육·교육 이용 만족도

구분	단위: %(명, 점)					계(수)	평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시설 및 환경	0.3	3.6	29.0	49.4	17.7	100.0(1,034)	3.8
교육·보육내용(프로그램)	0.6	2.5	27.0	49.7	20.2	100.0(1,032)	3.9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1.0	4.0	31.2	45.6	18.2	100.0(1,028)	3.8
교사의 전문성	0.9	6.4	34.0	41.1	17.6	100.0(1,032)	3.7
부모참여(부모교육 등)	1.6	5.6	43.2	37.3	12.4	100.0(1,027)	3.5
급·간식	0.5	6.1	34.4	40.4	18.6	100.0(1,027)	3.7
이용비용(보육료, 교육비 등)	3.2	13.1	34.6	30.2	18.9	100.0(1,027)	3.5
등원 시각	0.8	4.5	26.2	49.9	18.7	100.0(1,028)	3.8
하원 시각	1.4	8.5	27.8	44.6	17.7	100.0(1,028)	3.7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2.6	9.6	39.5	34.9	13.4	100.0(998)	3.5
운영 일수(방학 운영 등)	2.7	13.8	35.3	33.5	14.7	100.0(1,029)	3.4

주: 이용 만족도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이용 만족도

-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해 5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방학 운영 등 운영 일수에 대해 3.2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부모참여, 이용비용, 긴급보육 대응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냄(〈표 9〉 참조).
- 이용 중단 사유가 기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룸.

-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44.1%, 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4.2%, 보육·교육 프로그램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각각 28.8%, 22.5%, 기관 운영시간과 근로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관 이용을 변경한 경우는 21.6%로 조사됨.

2) 가정내보육

□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는 ‘기관 이용 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 59.8%’(다중응답), 그 다음으로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36.4%,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20.3% 순으로 조사됨.

-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라고 응답한 비율은 0세아와 1세아에서 각각 69.1%와 61.4%로 높게 나타남.

〈표 10〉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사유

단위: %(명)

구분	기관 이용 후 돌봄 사람이 필요해서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자녀가 원해서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기타	(수)
전체	59.8	36.4	20.3	9.4	7.7	7.0	5.6	(858)
자녀연령								
0세	33.0	69.1	26.6	13.8	3.2	12.8	6.4	(94)
1세	44.8	61.4	25.5	6.2	2.8	13.1	6.2	(145)
2세	62.0	38.0	20.9	8.6	4.9	7.4	3.7	(163)
3세	69.8	24.9	13.6	10.1	9.5	5.3	6.5	(169)
4세	73.9	18.8	19.6	12.3	10.1	2.2	5.8	(138)
5세	64.4	18.8	18.8	7.4	14.1	3.4	5.4	(149)
영유아 구분								
영아	49.0	53.7	23.9	9.0	3.7	10.7	5.2	(402)
유아	69.3	21.1	17.1	9.9	11.2	3.7	5.9	(456)

주: 다중응답 결과임.

□ 비혈연 대리양육자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활동(돌봄서비스)내용, 부모와의 소통, 이용시간, 이용 일수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나,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임(〈표 11〉 참조).

- 민간베이비시터 월 평균 이용비용은 704,000원으로 이용 중인 육아지원서비스 중 가장 높고, 해당 비용 부담은 4.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음.
-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주된 사유로는 돌보미의 전문성 신뢰성 부족과 과도한 이용비용이 지적됨(〈표 12〉 참조).
- 혈연 또는 비혈연 대리양육자가 갑자기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는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경우가 각각 37.1%, 3.0%로 조사되어 긴급보육 시 고충이 예상됨.

〈표 11〉 비혈연 대리양육자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활동(돌봄서비스)내용	2.0	6.1	34.7	44.9	12.2	100.0(49)	3.6
부모와의 소통	8.2	8.2	38.8	16.3	55.1	100.0(49)	3.6
이용시간	4.1	8.2	32.7	34.7	20.4	100.0(49)	3.6
이용 일수	4.1	6.1	40.8	28.6	20.4	100.0(49)	3.6
물리적 환경	4.2	4.2	43.8	41.7	6.3	100.0(48)	3.4
돌봄 인력의 전문성	4.1	12.2	49.0	18.4	16.3	100.0(49)	3.3
긴급보육 요청 시 대응 정도	4.1	14.3	38.8	34.7	8.2	100.0(49)	3.3
이용비용	10.2	22.4	34.7	20.4	12.2	100.0(49)	3.0

주: 만족도 평균점수는 '매우불만족' 1점~'매우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12〉 비혈연 대리양육자 불만족내용

단위: (명)

구분	(수)
돌보미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17)
이용비용이 비싸다	(17)
시간 조정이 어렵다	(9)
돌보미 개인 집에서 양육 등 양육 환경을 신뢰하기 어렵다	(3)
보육 신청 후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1)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	(1)

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 기관보육·교육 등 보육지원 이외에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의 필요도는 모든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남.



- 특히 아동발달검사, (어린이)도서 대여,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높은 필요도를 보임.

〈표 13〉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필요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가족)체험프로그램	0.7	8.0	59.3	32.0	100.0(1,147)	3.2
부모교육	0.9	10.9	58.0	30.2	100.0(1,169)	3.2
부모상담	0.6	12.1	56.6	30.7	100.0(1,171)	3.2
육아정보제공	0.5	7.2	53.2	39.0	100.0(1,178)	3.3
아동발달검사	0.4	5.2	45.8	48.6	100.0(1,178)	3.4
품앗이 육아	1.5	24.2	49.0	25.3	100.0(1,122)	3.0
일시보육	2.0	20.1	45.1	32.8	100.0(1,132)	3.1
장난감 대여	1.9	14.3	47.8	36.0	100.0(1,182)	3.2
도서 대여	0.9	8.4	46.4	44.2	100.0(1,191)	3.3
아이돌봄서비스	2.0	11.9	43.0	43.1	100.0(1,166)	3.3

주: 평균은 각 서비스에 대해 '전혀필요하지않음' 1점~'매우필요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이처럼 높은 필요도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임.

- 어린이 도서, 장난감 대여 서비스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각각 51.6%, 49.6%인 반면, 품앗이 육아(공동육아나눔터)와 일시보육 인지도는 각각 15.5%, 16.8%에 불과.
- 근로 형태별로는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 근로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4) 돌봄 시간 지원

□ 취업모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었고, 해당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47.1%에 달함.

- 육아휴직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희망 이용기간은 26.4개월로, 실제 이용기간 보다 16개월 길게 나타남.
- 육아휴직 이용기간은 직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임.

〈표 14〉 육아휴직제도 이용기간 및 수요

단위: 개월, %(명)

구분	이용 기간	이용기간 충분성		희망 이용기간	
		충분성 불충분함	계(수)	평균	(수)
육아휴직제도	10.9	47.1	(295)	26.4	(139)
직장규모					
5인미만	13.1	23.5	(17)	11.0	(4)
5-9인	9.1	43.7	(16)	27.4	(7)
10-29인	8.2	46.8	(47)	26.8	(22)
30-99인	12.3	49.3	(75)	26.8	(37)
100-299인	8.2	60.9	(46)	26.0	(28)
300인 이상	12.4	43.6	(94)	27.4	(41)
$F/X^2(df)$	2.704*	7.972(5)		0.688	
업종					
광공업	7.5	42.9	(21)	30.1	(9)
건설업	10.3	40.0	(20)	22.8	(8)
도소매 /숙박업	20.3	33.3	(6)	15.0	(2)
전기/운수/통신/금융	9.0	38.2	(26)	29.8	(1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12.4	47.5	(118)	29.4	(56)
$F/X^2(df)$	3.038*	1.292(4)		0.484	

주: 이용기간의 충분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희망 이용기간은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에게 조사한 결과임.

* $p < .05$

□ 배우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이용기간은 평균 12개월이며, 해당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0%임.

○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희망 기간은 약 18개월로, 실제 이용기간 보다 6개월 길게 나타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이용기간은 평균 약 13개월이며, 해당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임(〈표 15〉 참조).

○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희망 기간은 약 37개월로, 실제 이용기간 보다 24개월 길게 나타남.



〈표 15〉 남성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이용기간 및 수요

단위: 개월, %(명)

구분	이용기간	이용기간 충분성		희망 이용기간	
		불충분함	(수)	평균	(수)
남성휴직제도	12.4	75.0	(24)	18.3	(18)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12.5	40.7	(54)	37.2	(22)

주: 이용기간의 충분성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희망 이용기간은 이용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에게 조사한 결과임.

□ 육아기 근로시간 변경을 희망하는 비율은 62.2%로 조사됨(〈표 16〉 참조).

- 해당 비율은 자녀가 어릴수록 높게 나타나 0세 부모는 72.2%에 달하며,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자의 해당 비율은 각각 68.1%, 72.8%임.
- 대체로 현재의 근로시간 즉 전일제와 파트타임 근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육아와의 병행이 용이하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기를 희망하며, 전일제 근로자가 파트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약 31%임.
- 근로시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 근로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 이후에 시작하여 오후 7시 이전 종료이며,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한 경우는 오전 10시 이후 근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 이전 종료를 원함(〈표 17〉 참조).

〈표 16〉 근로시간 변경 희망

단위: %(명)

구분	근로시간 변경희망			변경 희망 근로유형				계(수)
	희망 비율	전체 (수)	전일제 근무	파트타임 근무	현재의 전일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기타	
전체	62.2	(1,736)	5.4	30.4	57.9	5.4	0.9	100.0(1,079)
가구 근로형태								
전일제+전일제	64.0	(1,421)	5.5	29.3	63.5	0.9	0.9	100.0(909)
전일제+시간제	54.0	(315)	4.7	36.5	28.2	29.4	1.2	100.0(170)
$X^2(df)$	10.963(1)***				250.348(4)***			
본인 근로형태								
전일제	58.5	(1,509)	-	31.1	68.0	-	0.9	100.0(883)
시간제	24.2	(227)	9.1	-	-	87.3	3.6	100.0(55)

(표 16 계속)

구분	근로시간 변경희망		변경 희망 근로유형					계(수)
	희망 비율	전체 (수)	전일제 근무	파트 타임 근무	현재의 전일제를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기타	
$X^2(df)$	1.410(1)		312.073(4)***					
근무형태								
일반근무	60.4	(1,451)	4.7	31.7	57.9	5.0	0.7	100.0(877)
교대근무	68.1	(116)	15.2	26.6	41.8	15.2	1.3	100.0(79)
야간근무	72.8	(169)	4.1	23.6	68.3	1.6	2.4	100.0(123)
$X^2(df)$	11.669(2)**		45.213(8)***					

주: 근로시간 변경 희망 비율은 변경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 $p < .01$, *** $p < .001$

<표 17> 변경 희망 근로유형별 희망 근로시간

구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단위: 시, (명) (수)
전일제근무로 변경	9.2	6.9	(58)
파트타임 근무로 변경	10.0	5.8	(328)
현재의 전일제로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9.5	6.8	(625)
현재의 파트타임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변경	9.7	5.7	(58)

4. 정책 방안

위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맞벌이 가구 대상 양육지원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그리고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가.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방향으로 향후 보다 강조되어야 할 바는 1) 일하는 부모의 돌봄 권리 증진을 통한 선택권 보장, 2)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적 돌봄 문화의 실현, 3) 노동 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임.



- 기존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은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간연장형보육을 강화해왔으나, 일·가정 양립의 주된 갈등은 ‘시간’ 부족으로 나타나므로 ‘자녀를 돌볼 권리’에 주목하여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추구함.
 - 장시간 근로 등 가정과의 병행이 어려운 직장 환경 하에서는 보육서비스 강화만으로 일·가정 양립 갈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 부문(기업)의 일·가정 양립지원에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 강화를 추구함.
 - 단, 돌봄 시간 지원 강화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이용이 여성에게 치중될 경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 등에 따른 출산 기피와 육아기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남성의 부모권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
- 기본 방향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1) 서비스 지원과 돌봄 시간 지원간의 균형적 설계와 2) 맞벌이 가구 특성별 정책 설계가 요구됨.
- 기존의 양육지원은 서비스 지원 특히 기관보육 지원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므로 ‘돌봄 시간’ 지원의 실효성 강화에 주력함.
 - 자녀 연령별, 근로 특성별로 세분화된 정책 설계를 요함.
 - 0~1세아는 부모의 직접 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므로 휴직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강화하며, 4세 이후는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므로 유치원의 종일제 보육을 내실화하며, (돌봄)시간 지원은 0~5세아에 걸쳐 실효성 강화가 요구됨.
 - 전일제 근로가구는 종일제 기관보육의 우선 입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야간근무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강화하며,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보육 이용 대상으로 규정함.

나.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내실화 방안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의 기반 조성

○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는 구분되는 양육 시 애로사항과 양육지원 수요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없음.
-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을 명시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들에서 일·가정 양립지

원은 여성고용 증진, 출산을 제고, 가정생활의 만족도 차원에서 각각 강조되므로 맞벌이 가구의 양육지원 방안으로는 한계를 지님.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된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일할 권리’와 ‘자녀를 돌볼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양육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세부사업별 목표치를 명시하여 실효성 제고가 요구됨.

○ 범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일·가정 양립지원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의 핵심 사업인 보육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의 주관 부처가 아니며,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더불어 부모권 보장 즉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지원의 핵심인 기관보육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일·가정양립대책위원회(가칭)’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성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맞벌이 가구 대상 종합서비스 기관 설치·운영

- 취업모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다양한 상담서비스와 취업모들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 종합서비스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 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됨(동법 제23조).
-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취업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육아관련 각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운영 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 기관보육 내실화

○ 보육 실수요를 반영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 현행 어린이집 입소는 1순위자 대상자가 9개 항목에 달하여 맞벌이 가구의 우선 입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맞벌이 가구는 저소득층, 장애부모,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과 더불어 기관보육 수요가 높고, 일차적인 종일제 보육 수요자로서 인식됨(유해미·배운진·김문정, 2014: 156-157 ; 유해미·이정원·이세원, 2013a: 109-111).
- 맞벌이 가구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상향조정 하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우선 입소를 보장함.

○ 입소관리 강화

- 맞벌이 가구 증빙 서류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어린이집 52.3%, 유치원 약 40%선에 머물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기관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소 시 한차례만 확인하는 비율이 약 67%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유해미·배운진·김문정, 2014: 163).
- 3월 입소 시에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증빙서류를 잘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 분기별로 조정한 기록을 점검하며, 맞벌이 가구 적용 기준 즉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 대한 면밀한 선별을 명시함.

○ 연중 운영과 종일제 운영 정상화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운영 일수와 운영 시간은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나 이는 사실상 운영 시간의 단축이 가능함을 암시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평일 운영시간도 지도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12시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운영 일수와 관련하여 휴가 계획의 수립 공지와 근로자의 날 사전 보육 수요조사는 임의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 지침에서 일괄 삭제함.

○ 영아 대상 공보육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영아 기관보육의 질적 수준 보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지니므로 영아 대상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함.

○ 시간연장형 보육 운영 적절성 제고

- 시간연장보육을 제외하면 휴일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의 수요는 낮은 수준이므로 특히 시간연장보육의 내실화가 요구됨.
- 기관 차원에서 시간연장보육 운영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교사 채용 및 배치 문제가 지적되므로 유치원에 비해 보조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의 보조인력 추가 지원 방안이 요구됨.

○ 맞벌이 가구의 기관 운영 참여 지원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시에 보호자 대표로서 맞벌이 가구의 일정 비율 이상 참여를 권고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등 각종 부모참여 기구나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구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하고,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참여토록 권고함.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 시간,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심의하므로 맞벌이 가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참여토록 권고함.
 - 교원과 학부모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맞벌이 가구가 일정 비율 참여토록 권고함.

□ 가정내보육의 선택권 강화

- 0~1세아를 둔 취업모의 경우 기관보육에 비해 가정내보육 수요가 두드러지므로 아이 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종일제 근로가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위주로 운영함.
- 이를 위해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영아 종일제 제공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희망 이용 시간은 휴직제도에 비해 길게 나타나므로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양성평등적인 제도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 접근성 보장

- 기관보육 이외에도 부모상담 등 지역사회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전일제 취업모와 비전형적 근로시간에 근무하는 취업모는 시간제 취업모에 비해



서비스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수준임.

- 평일 1회 야간 운영과 토요일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

□ 기업의 돌봄 시간 지원 실효성 강화

- 육아휴직 활성화는 일·가정 양립 지원 중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나, 정책 효과 차원에서 남성의 이용율이 중요하므로 해당 실적을 가족친화제도 인증 지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남성의 제도 이용이 용이한 사회 환경을 구축함.
-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 휴직제도에 비해 제도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일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현행 규정(「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해당 내용을 직원과 일반에 공지하도록 함(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b: 174).
 -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가족친화 직장교육 대상에 담당 부서의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함.
-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포럼을 내실화하되, 참여 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운영하여 제도 운용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 일·가정 양립 갈등의 주된 원인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며, 특히 미취학 아동을 둔 맞벌이 가구의 초과근로나 야간근로 등을 금지함.
 - 근로시간 변경을 희망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 이전으로 전일제 근로 대비 소폭의 감소를 보이므로 장시간 근로 문화의 개선으로 수요를 포괄할 여지가 있음.

□ 기타

- 정책 홍보 강화
 - 취업모들의 양육지원정책 인지도는 제도별로 그 격차가 심하여 휴가와 휴직제도, 양육수당 등 비용지원정책의 인지도는 높은 반면, 기업의 역할이 수반되는 가족친화기업인증, 근로시간단축, 탄력근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이므로 제도 홍보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용 사례를 담은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모색함(유해미·정주영·양유진, 2013b: 175).
-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 강화
 - 남성의 양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성 대상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되(아버지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 이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해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기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2014).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 관계부처 합동(2014).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일하는 부모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 방안.
- 기획재정부(2013). 보도자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대한민국 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박진희·이시균·윤정혜(2013).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노동시장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보건복지부(2013). 보도자료: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2013. 12. 31).
- 보건복지부(2014).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2014. 4.29).
- 야마구치 가즈오(山口一男)(2010).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이충남 역.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4a).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안).
- _____ (2014b). 201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유해미·이정원·이세원(2013a). 어린이집 입소 우선 입소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정주영·양유진(2013b).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자녀 양육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미화·서문희·이정원·도남희·권미경·양미선·손창균·김경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14a). 보도자료: 2013년 출생통계(2014. 8. 26).
- 통계청(2014b).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여성가족부.

해외문헌

- 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The impact of work-family policies on women's employment: review of research from OECD countri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 Misra J., Budig M., & Boeckmann I. (2012). "Work-family policies and the effects of children on women's employment hours and wages". Work and Family Policy: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Routledge.

보도자료

- 통계청(2014a). 보도자료: 2013년 출생통계(2014. 8. 26).

웹사이트

-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검색일 2015년 5월 30일)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양미선

1. 서론
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및 요구
3.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및 요구
4. 개선 방안

요약

- 본 연구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의 참여정도, 비용, 교재교구비, 부담정도 및 참여 이유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특별활동 및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중심의 보육교육 과정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동의서 작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참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며, 저소득층에게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일부 지원하고, 부모 교육을 강화함.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 부모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으나, 부모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음.
 -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보육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유치원도 교육비 외에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등 수혜성 경비 등이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외부강사가 오후 시간에 운영하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임.
 - 일부 어린이집은 운영비로 특별활동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킴.
 -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에 따른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 상한제를 운영

* 본고는 양미선 김길숙, 손창균, 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임.



하고 있음. 특별활동 상한액은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있음.

- 정부는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막기 위하여 2009년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2013년에는 2세 미만 영아의 특별활동 운영기준과 대체 프로그램 운영, 참여동의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유치원은 학기 중 평일, 토요일, 방학 중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육아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양미선 외, 2013 재인용).

- 유치원에서의 과도한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을 막기 위하여 2014년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음. 구체적으로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참여 시 아동 1인당 1일 1개, 1과목당 1시간 이내, 1주일 5개만 가능함.

- 이 외에도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과목별 비용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함.

□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과 유치원에서의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다. 연구방법

□ 전국 100개 조사구에서 2,509가구, 영유아 3,611명에 대한 자료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함.

- 조사내용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여부, 이용 이유, 과목, 비용, 만족도, 비용 부담정도 등으로 구성

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및 요구

가. 참여 정도

□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은 23.3% 정도이고, 나머지 76.7%는 1개 이상을 하고 있음.

- 이용 시 특별활동 수는 평균 3.1개이고, 3개가 30.8%로 가장 많음.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비율과 특별활동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1〉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개

구분	참여					소계	미참여	계(수)	이용 시 평균
	1개	2개	3개	4개	5개이상				
전체	5.9	14.1	30.8	18.7	7.2	76.7	23.3	100.0(2,125)	3.1
영유아구분									
영아	5.8	15.6	21.7	11.7	2.3	57.1	42.9	100.0(1,163)	2.8
유아	5.9	12.7	40.0	25.9	12.2	96.7	3.4	100.0(962)	3.3
$\chi^2(df)/F$	508.0(5)***								-8.5***
기관유형									
국공립	8.3	17.1	35.5	14.3	3.7	78.9	21.2	100.0(190)	2.8
사회복지법인	4.1	23.0	21.6	31.1	3.4	83.2	16.9	100.0(177)	3.1
법인단체등	8.2	23.0	34.4	4.9	4.9	75.4	24.6	100.0(63)	2.8
민간	4.9	11.0	35.3	24.3	11.4	86.9	13.1	100.0(1,164)	3.3
가정	7.6	16.3	19.6	3.3	0.5	47.3	52.7	100.0(509)	2.4
직장	7.7	7.7	46.2	15.4	-	77.0	23.1	100.0(15)	3.0
부모협동	-	21.4	-	50.0	-	71.4	28.6	100.0(7)	3.4
$\chi^2(df)/F$	-								23.6***
2013년조사 ¹⁾	8.2	16.8	23.4	13.5	7.1	69.0	31.0	100.0(2,033)	2.9
2012년조사 ²⁾	12.4	14.8	16.5	11.5		55.2	44.8	100.0(1,971)	-

*** $p < .001$.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영아가 42.9%, 유아 3.4%로 영아가 월등히 높음. 이용 시 특별활동 수는 영아가 2.8개, 유아 3.3개로 유아가 유의미하게 더 많음.

1) 서문희 외(2012).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특별활동 미참여 비율은 영아보육 중심인 가정이 52.7%로 가장 높고 민간이 가장 낮음. 이용 시 특별활동 수는 민간이 평균 3.3개이고, 가정이 평균 2.4개로 차이가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과목은 영어로 84.3%가 참여함. 다음으로 체육 74.5%, 음악 63.8%, 미술 28.1%, 교구 23.4% 순임.

- 영어를 제외하고 주로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과목의 참여율이 높은 편임. 참여율이 높은 영어와 체육, 음악, 미술 모두 조사 때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영유아별로 보면, 영아는 체육이 77.5%, 유아는 영어가 95.4%로 다수를 차지함. 교구와 카드, 통합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모두 유아가 영아보다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음.

〈표 2〉 어린이집 과목별 특별활동 참여 비율

단위: %(명)												
구분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수)
전체	6.6	2.5	84.3	8.6	63.8	28.1	74.5	23.4	0.3	4.6	4.9	(1,506)
영유아구분												
영아	3.5	1.6	65.8	4.8	61.0	25.0	77.5	25.0	0.9	7.2	2.6	(585)
유아	8.4	3.0	95.4	10.9	65.5	30.0	72.8	22.5	-	3.0	6.2	(921)
$\chi^2(df)$	13.8 (1)***	3.1 (1)#	234.7 (1)***	17.2 (1)***	3.2 (1)#	4.3 (1)*	4.1 (1)*	1.2(1)	8.4 (1)**	14.0 (1)***	9.7 (1)**	
기관유형												
국공립	7.6	-	92.4	18.7	53.5	11.8	62.6	25.9	-	7.6	1.8	(137)
사회복지법인	12.2	-	92.7	4.9	49.6	47.2	62.6	27.6	-	0.8	4.9	(149)
법인단체등	-	2.1	78.7	8.5	83.0	10.6	55.3	12.8	-	2.1	8.5	(48)
민간	6.4	3.6	90.9	8.5	68.0	28.1	78.8	25.1	0.3	3.8	5.4	(953)
가정	5.0	0.5	42.0	2.5	54.7	33.0	77.6	14.9	1.0	9.0	1.0	(207)
직장	-	-	90.0	-	100.0	20.0	90.0	-	-	-	-	(10)
부모협동	-	-	70.0	30.0	70.0	70.0	30.0	-	-	-	70.0	(2)
$\chi^2(df)$	-	-	319.7 (6)***	-	46.3 (6)***	63.0 (6)***	52.9 (6)***	20.3 (6)**	-	-	-	
2013년조사	7.0	2.9	79.3	9.3	51.6	30.3	67.4	28.1	0.6	6.1	2.4	(1,398)
2012년조사	15.1	10.5	68.9	11.0	38.3	30.9	48.3	23.8	2.0	9.9		(1,046)

$p < .1$, * $p < .05$, ** $p < .01$, *** $p < .001$.

□ 자녀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의무 참여였는지 아니면 부모가 아동의 발달이나 흥미, 가정형편에 따라 선택한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50% 내외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과목 중 한글이 54.5%로 높고, 다음으로 통합활동 54.3%, 음악 53.2%, 체육 52.6%, 영어 50.7%, 수학 50.0% 순임.
-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체로 과목별 의무 참여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참여동의서 의무화에 따라 부모 선택 기회가 확보되고 있음을 의미함.

〈표 3〉 어린이집 특별활동 과목별 의무참여 비율

단위: %(명)											
구분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전체	54.5	50.0	50.7	44.3	53.2	47.8	52.6	44.2	100.0	54.3	54.8
영유아구분											
영아	28.6	11.1	52.7	48.1	54.5	62.0	53.9	44.4	100.0	48.8	40.0
유아	61.2	62.1	49.9	43.3	52.6	40.7	51.7	44.1	-	62.1	58.6
기관유형											
국공립	28.6	-	38.6	21.9	49.5	-	38.3	13.6	-	66.7	-
사회복지법인	6.7	-	43.9	50.0	54.8	36.2	48.1	38.2	-	-	16.7
법인단체등	-	100.0	48.6	-	53.8	-	53.8	50.0	-	-	50.0
민간개인	68.9	47.2	54.0	52.4	54.1	46.1	55.0	51.5	100.0	47.2	53.8
가정	70.0	100.0	47.6	100.0	50.9	75.8	54.8	36.7	100.0	66.7	100.0
직장	-	-	22.2	-	20.0	100.0	22.2	-	-	-	-
부모협동	-	-	100.0	-	100.0	100.0	-	-	-	-	100.0
(수)	(54)	(19)	(704)	(66)	(557)	(241)	(650)	(177)	(4)	(40)	(34)
2013년조사	53.1	46.3	63.6	61.5	61.5	66.5	65.0	50.6	87.5	69.0	60.6

나. 비용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23.3%는 특별활동 비용을 내지 않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아동 중 25.9%는 5~7만원, 20.7%는 7~10만원, 18.9%는 3~5만원 순임. 10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도 3.7% 정도임.

- 영유아별로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비율이 영아 42.9%, 유아 3.6%로 유아가 비용을 내고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 부모가 특별활동 비용으로 매월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은 월평균 56,900원임. 이는 전년도 조사들보다 높아진 수치임.

- 특별활동비를 내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영아 51,600원, 유아 60,100원으로 유아가 유의하게 많음.
- 이용 어린이집별로도 법인단체 등과 국공립을 다니는 경우 각각 38,000원, 41,400원을 부담하는데 반해, 민간 이용 영유아는 63,900원을 냄.

□ 비용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이 2013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0~5세 중 2세와 3세의 내는 비용의 증가폭이 큼.

〈표 4〉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분포와 평균

									단위: %(명), 천원	
구분	지불 안함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2013년 조사	2012년 조사
전체	23.3	7.4	18.9	25.9	20.7	3.7	100.0(2,125)	56.9	53.0	55.9
연령구분										
영아	42.9	8.3	16.3	19.2	11.4	1.9	100.0(1,163)	51.6	47.5	51.3
유아	3.6	6.4	21.5	32.8	30.2	5.6	100.0(962)	60.1	56.8	59.6
$X^2(df)/t$			474.9(5)***					-7.4***	-7.2***	18.3***
시설유형										
국공립	21.2	19.4	37.3	22.1	-	-	100.0(190)	41.4	37.6	44.2
사회복지법인	16.9	18.2	19.6	37.8	7.4	-	100.0(177)	46.0	45.4	44.4
법인단체등	24.6	16.4	44.3	11.5	3.3	-	100.0(63)	38.0	40.5	49.4
민간	13.2	2.6	15.9	28.7	32.8	6.7	100.0(1,164)	63.9	60.9	64.8
가정	52.7	8.3	14.2	18.2	6.6	-	100.0(509)	47.4	46.6	43.8
직장	25.0	-	-	66.7	8.3	-	100.0(15)	60.8	38.7	34.9
부모협동	28.6	21.4	-	-	50.0	-	100.0(7)	62.3	55.0	-
$X^2(df)/F$			-					58.2***	37.1***	24.9***
2013년조사	31.0	9.8	21.6	20.4	14.0	3.1	100.0(2,033)	53.0		
2012년조사	44.6	8.2	16.5	13.4	11.2	6.0	100.0(1,971)	55.9		

주: '지불 안함'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p < .001$.

다. 부담 정도

- 어린이집에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는 응답이 46.4%이며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3점임.
-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부담정도는 차이가 없으나 부담된다는 비율은 다소 늘어남.
- 영아 부모의 특별활동 부담정도는 평균 3.1점이고 유아 부모는 3.4점으로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3.5점으로 비용 부담이 컸고, 그 다음이 부모협동,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순으로 각각 3.4점, 3.1점임.

〈표 5〉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부담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조금 부담	매우 부담	계(수)	평균 (5점)
전체	0.9	23.5	29.1	41.1	5.3	100.0(1,506)	3.3
영유아구분							
영아	0.9	28.3	33.0	34.8	3.0	100.0(585)	3.1
유아	0.9	20.7	26.8	44.9	6.7	100.0(921)	3.4
$X^2(df)/t$							-5.2***
시설유형							
국공립	3.5	40.9	42.7	12.9	-	100.0(137)	2.7
사회복지법인	-	32.0	27.0	38.5	2.5	100.0(149)	3.1
법인단체등	8.7	34.8	32.6	23.9	-	100.0(48)	2.7
민간	0.2	15.2	28.2	48.3	8.0	100.0(953)	3.5
가정	1.0	40.3	23.9	34.3	0.5	100.0(207)	2.9
직장	-	33.3	22.2	44.4	-	100.0(10)	3.1
부모협동	-	30.0	-	70.0	-	100.0(2)	3.4
$X^2(df)/F$							34.5***
2013년조사	1.7	22.1	30.5	39.8	5.9	100.0(1,390)	3.3
2012년조사	4.9	19.3	35.7	34.8	5.3	100.0(1,032)	3.1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p < .001$.



라. 참여 이유

- 어린이집에 내는 특별활동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특별활동을 시키는 이유를 조사함.
-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가 4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가 28.2%,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 15.2% 순임. 나머지 이유는 5% 내외로 소수임.
- 영유아별로 영아의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가 전체 비율보다 다소 높음.
- 이용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특별활동을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음. 민간은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법인단체 등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서가 많음.
- 정부는 2014년부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혼자 방치됨을 걱정하여 절반 이상의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특별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6〉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우수해서	학원보다 비용 저렴해서	이동없이 다양한 교육받을 수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	하원 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6.0	4.3	28.2	44.8	15.2	1.4	0.1	100.0(1,506)
영유아구분								
영아	5.8	2.3	29.6	42.6	18.7	1.1	-	100.0(585)
유아	6.1	5.5	27.4	46.1	13.1	1.6	0.2	100.0(921)
$X^2(df)$				19.0(6)**				
시설유형								
국공립	9.9	8.2	24.0	46.2	10.5	1.2	-	100.0(137)
사회복지법인	3.3	5.7	26.2	51.6	9.0	4.1	-	100.0(149)
법인·단체등	6.4	8.5	12.8	51.1	21.3	-	-	100.0(48)
민간	5.5	3.5	31.4	41.5	16.8	1.0	0.2	100.0(953)

(표 6 계속)

구분	프로그램 우수해서	학원보다 비용 저렴해서	이동없이 다양한 교육받을 수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	하원 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기타	계(수)
가정	5.0	2.0	23.9	53.7	15.4	-	-	100.0(207)
직장	-	20.0	20.0	20.0	-	40.0	-	100.0(10)
부모협동	30.0	-	-	70.0	-	-	-	100.0(2)
$\chi^2(df)$				-				

** $p < .01$.

마. 특별활동 참여동의서 의무 정책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 71.7%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참여동의서를 받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참여 여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됨.

- 영유아별로 보면, 영아 47.9%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참여동의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유아는 대다수가 받은 적이 있고, 또한 참여 여부를 작성함.
- 이용 어린이집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이 18.6%로 가장 낮고, 나머지는 20~55%대로 고루 분포함.

〈표 7〉 특별활동 참여동의서 작성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작성 여부				부모 선택기회 보장 정도				평균	(수)
	받은 적 없음	받았으나 참여 여부 미작성	참여 여부 작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8.3	0.9	70.8	5.1	40.5	15.7	31.7	6.9	2.4	(2,124)
영유아 구분										
영아	47.9	0.2	51.9	5.1	38.9	18.1	32.2	5.7	2.0	(1,162)
유아	8.6	1.6	89.8	5.2	42.2	13.3	31.2	8.1	2.8	(962)
$\chi^2(df)$	380.6(2)***				12.8(4)*				-21.2***	
시설유형										
국공립	26.4	-	73.6	2.3	38.1	17.2	33.5	8.8	2.5	(189)
사회복지법인	20.4	0.7	78.9	5.4	39.2	14.9	38.5	2.0	2.6	(177)
법인·단체등	38.7	-	61.3	3.2	40.3	16.1	33.9	6.5	2.2	(63)
민간	18.6	1.5	79.8	6.1	40.9	14.1	31.2	7.8	2.6	(1,164)



(표 7 계속)

구분	작성 여부				부모 선택기회 보장 정도				평균	(수)
	받은 적 없음	받았으나 참여 미작성	참여 여부 작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정	55.9	-	44.1	4.2	40.3	19.8	30.0	5.7	1.9	(509)
직장	23.1	-	76.9	15.4	61.5	-	23.1	-	2.6	(15)
부모협동	30.8	-	69.2	-	61.5	-	38.5	-	2.4	(7)
$\chi^2(df)$					-				39.2***	

주: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부모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항임.

* $p < .05$, *** $p < .001$.

바. 특별활동 운영의 적절성 및 자녀교육비 경감 효과

□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 응답자 중 74.4%가 적절하다고 답함.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7점임.

- 지역 및 막내자녀 연령 간에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특히, 적절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으나,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음.

□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이 자녀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인 50.4% 정도만 동의하고, 동의 정도는 5점 평균 3.1점임.

-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고, 영아보다는 유아 부모가 부담 경감 효과에 동의하였고, 동의정도는 지역 및 막내자녀 연령별로 차이가 유의함.

〈표 8〉 특별활동 운영의 적절성 및 비용 경감 효과

단위: %(명)

구분	운영의 적절성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						평균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0.7	8.9	15.9	70.7	3.7	3.7	3.3	35.3	11.0	46.5	3.9	3.1	100.0 (2,509)
지역규모													
대도시	0.9	9.0	14.7	71.9	3.6	3.7	0.7	30.5	12.2	49.3	4.7	3.2	100.0 (1,029)

(표 8 계속)

구분	운영의 적절성						자녀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중소도시	0.5	9.4	18.0	67.8	4.2	3.7	0.7	40.5	10.2	42.5	3.4	3.0	100.0 (1,006)
읍면지역	0.9	7.5	14.0	75.1	2.5	3.7	0.7	34.6	10.0	49.3	3.4	3.2	100.0 (474)
$\chi^2(df)/F$			12.8(8)		0.8		27.9(8)***				10.1***		
막내자녀연령													
0세	0.8	7.3	13.6	74.4	4.0	3.7	2.9	30.6	16.6	46.8	3.1	3.2	100.0 (578)
1세	0.3	11.7	14.4	71.5	2.1	3.6	1.5	41.0	12.9	41.6	3.0	3.0	100.0 (561)
2세	0.2	7.6	17.7	70.7	3.7	3.7	2.2	31.8	10.6	52.7	2.7	3.2	100.0 (425)
3세	1.0	8.9	16.3	70.3	3.6	3.7	5.5	38.6	8.9	42.4	4.6	3.0	100.0 (383)
4세	0.6	9.9	14.6	69.6	5.4	3.7	4.1	35.0	6.4	49.4	5.1	3.2	100.0 (263)
5세	1.3	8.9	18.8	68.3	2.7	3.6	3.0	36.7	10.3	45.2	4.8	3.1	100.0 (299)
$\chi^2(df)/F$			-		1.8		62.8(20)***				2.3*		

* $p < .05$, *** $p < .001$.

사. 특별활동의 교육적 효과성

자녀의 특별활동 참여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소질 및 재능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조사함.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해 74.6%가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3.7점임.

- 영유아 연령별로 보면, 특별활동 참여율이 높은 유아는 영아보다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고,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가정이 가장 낮음.

특별활동 참여가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 결과, 51.5% 정도



만 동의하였고 동의정도는 5점 평균 3.2점임.

- 영유아별로는 영아보다 유아가, 또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동의하는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민간을 다니는 경우 타 유형보다 동의정도가 유의하게 높음.

〈표 9〉 특별활동에 대한 기대 효과

단위: %(명), 점

구분	교육기회 제공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0	8.5	15.9	71.1	3.5	3.7	2.5	25.3	20.7	49.1	2.4	3.2	100.0 (2,125)
영유아구분													
영아	1.4	9.3	19.3	67.3	2.6	3.6	2.7	26.9	22.7	45.1	2.6	3.2	100.0 (1,163)
유아	0.5	7.7	12.4	74.9	4.5	3.7	2.3	23.7	18.7	53.2	2.1	3.3	100.0 (962)
$\chi^2(df)/t$	29.4(4)***			-4.5***			13.4(4)*			-2.7**			
시설유형													
국공립	-	7.9	13.4	73.1	5.6	3.8	1.4	29.6	18.5	46.3	4.2	3.2	100.0 (190)
사회복지법인	3.4	9.4	12.8	73.2	1.3	3.6	3.4	26.8	16.1	53.0	0.7	3.2	100.0 (177)
법인·단체등	-	11.5	8.2	77.0	3.3	3.7	1.6	28.6	19.0	47.6	3.2	3.2	100.0 (63)
민간	0.5	7.7	15.7	72.3	3.8	3.7	2.5	21.7	20.3	53.3	2.2	3.3	100.0 (1,164)
가정	1.9	10.4	20.2	64.9	2.6	3.6	2.8	31.4	23.9	39.5	2.4	3.1	100.0 (509)
직장	-	-	8.3	75.0	16.7	4.0	-	41.7	8.3	33.3	16.7	3.2	100.0 (15)
부모협동	-	7.7	7.7	84.6	-	3.7	-	7.7	61.5	30.8	-	3.2	100.0 (7)
$\chi^2(df)/F$	-			3.3**			-			3.3**			

* $p < .05$, ** $p < .01$, *** $p < .001$.

아. 개선사항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대비 교육서비스 수준이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 1,2순위를 합산하면,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개선 요구, 교육비 인하와 강사의 질 향상, 교육내용 공개, 아동 평가자료 공개 순으로 높음.

〈표 10〉 특별활동 개선사항: 1+2순위

단위: %(명)

구분	강사의 질 향상	교육비 인하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 내용 공개	강사 관련 정보 제공	특별활동 예정안 내역 공개	프로그램 제공 업체선정	운영 시간	아동 평가 자료 제공	기타	계(수)
1순위	16.9	25.3	22.6	12.9	6.4	2.1	2.7	2.4	8.4	0.4	100.0 (2,125)
2순위	13.0	13.6	21.8	13.7	7.3	4.1	6.3	3.1	17.1	-	100.0 (1,860)
1+2순위	29.9	38.9	44.4	26.6	13.7	6.2	9.0	5.5	25.5	0.4	(2,125)

3.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및 요구

가. 참여 정도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은 32.9%이고, 나머지는 1개 이상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함. 참여 시 평균 2.6개를 함.
- 전년도와 비교하여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15%p 가까이 증가함. 특히 특성화활동 2개 이상 참여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평균 활동 수는 거의 차이가 없음.
- 아동 연령별로 2.5~2.6개로 차이가 없고, 다니는 기관에 따라서도 2.6~2.7개로 차이가 없음.

〈표 11〉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이용 여부

단위: %(명), 개

구분	이용					소계	미이용	계(수)	참여시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전체	14.3	20.1	19.5	8.6	4.6	67.1	32.9	100.0(763)	2.6
연령									
3세	20.9	12.0	17.3	15.2	3.7	69.1	30.9	100.0(191)	2.6



(표 11 계속)

구분	이용						미이용	계(수)	참여시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소계			
4세	12.9	24.2	19.3	10.2	5.0	71.6	28.4	100.0(268)	2.6
5세	12.4	20.1	20.8	4.3	4.8	62.4	37.6	100.0(304)	2.5
$X^2(df)/F$	42.8(10)***								0.2
기관유형									
국공립	5.4	1.2	6.6	6.0	-	19.2	80.8	100.0(153)	2.7
사립	16.0	23.9	22.2	9.2	5.7	77.0	23.0	100.0(610)	2.6
$X^2(df)/t$	216.1(5)***								0.7
2013년조사	11.9	15.7	12.1	9.1	5.1	53.9	46.1	100.0(856)	2.7
2012년조사	21.6	11.6	11.1		11.5	55.7	44.3	100.0(688)	-

주: 2012년 조사는 특별활동 수를 1개, 2개, 3개, 4개 이상 4개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함.

*** $p < .001$.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하는 유아가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은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어 과목임.

- 유치원 이용 유아 중 62.8%가 영어에 참여하고, 체육과 미술이 각각 49.8%, 48.4%, 과학, 음악, 교구활동은 각각 20%대, 나머지는 5% 내외이었음. 2013년 조사에서 영어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본 조사에서 2012년 수준으로 떨어짐.
- 영어는 연령에 상관없이 60%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었음. 대신 과학, 음악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교구활동은 반대로 감소함.
- 이용 기관별로는 사립은 영어, 한글, 수학 등의 교과활동과 미술, 교구활동 등의 참여 비율이 국공립에 비해 높음.

〈표 12〉 유치원 과목별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이용 여부

구분	단위: %(명)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수)
전체	8.4	6.1	62.8	23.9	25.7	48.4	49.8	21.4	0.2	1.8	0.9	(495)
연령												
3세	9.1	8.3	64.4	12.1	19.5	43.2	43.2	44.7	-	2.3	-	(119)
4세	9.2	6.5	58.1	25.0	26.5	46.2	61.2	20.8	0.4	1.2	0.4	(176)
5세	7.3	4.6	66.7	28.7	28.0	53.3	41.8	10.3	-	2.3	1.9	(200)

(표 12 계속)

구분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수)
기관유형												
국공립	3.0	-	53.1	54.5	63.6	15.6	75.0	3.1	-	3.1	-	(39)
사립	8.9	6.3	63.1	22.2	23.8	50.1	48.5	22.4	0.2	1.9	0.8	(456)
2013년조사	8.2	4.1	70.5	17.3	31.6	39.9	51.3	25.7	100.0	2.2	7.8	(474)
2012년조사	16.4	10.1	61.3	8.7	24.5	40.5	32.3	21.8	1.2	9.4	-	(378)

□ 유치원에서 참여한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이 의무적이었는지, 아니면 부모 선택에 의해 실시한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표 13〉 유치원 과목별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의무참여 비율

구분	단위: %(명)											
	한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교구	카드	통합	기타	
전체	78.6	85.0	55.4	70.3	52.7	66.8	63.1	69.8	100.0	75.0	40.0	
연령												
3세	75.0	81.8	47.1	87.5	57.7	52.6	63.2	64.4	-	100.0	-	
4세	76.0	88.2	55.6	80.0	40.6	67.8	65.4	74.1	100.0	-	-	
5세	84.2	83.3	59.2	58.1	62.2	71.7	59.6	73.1	-	100.0	50.0	
기관유형												
국공립	100.0	-	88.2	61.1	75.0	60.0	62.5	50.0	-	100.0	-	
사립	80.0	85.0	54.1	71.0	49.7	66.7	63.1	69.1	100.0	75.0	40.0	
(수)	(71)	(35)	(309)	(109)	(157)	(193)	(242)	(98)	(1)	(11)	(8)	
2013년조사	31.6	30.0	54.3	46.3	49.3	33.7	51.1	40.3		55.6	52.8	

- 수학과 한글이 각각 85.0%, 78.6%로 높고, 다음으로 과학 70.3%, 교구 69.8%, 미술 66.8%, 체육 63.1%, 영어 55.4%, 음악 52.7% 순임.

- 2013년 조사보다 전반적으로 의무 참여비율이 상승함. 특히 영어, 한글 등 교과 위주 활동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함.

나. 비용

□ 유치원 이용 아동 중 32.8%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비용을 내지 않음.

- 비용을 지불하는 아동 중 19.1%는 7~10만원, 15.4%는 10만원 이상, 12.8%는 5~7



만원, 11.7%는 3~5만원을 지불함.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비용을 낸다는 비율과 내는 비용 모두 크게 상승함.

- 3,4세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참여 비율이 5세보다 높기 때문에 비용을 낸다는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비용 지불 시 평균 금액은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함.
- 다니는 기관별로 보면, 국공립이 26,500원, 사립이 77,300원으로 차이가 유의함.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율도 사립이 국공립보다 4배 가까이 많음.

〈표 14〉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분포와 평균

단위: %(명), 천원

구분	지불 안함	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7~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계(수)	지불시 평균
전체	32.8	8.1	11.7	12.8	19.1	15.4	100.0(763)	74.8
연령								
3세	30.9	9.9	15.2	25.7	6.3	12.0	100.0(191)	63.7
4세	28.4	8.3	11.6	8.3	25.3	18.2	100.0(268)	74.6
5세	37.5	7.2	10.3	11.0	19.6	14.6	100.0(304)	80.6
$\chi^2(df)/F$			67.9(10)***					5.7**
기관유형								
국공립	80.4	9.5	9.5	0.6	-	-	100.0(153)	26.5
사립	22.9	7.8	12.3	15.4	22.9	18.7	100.0(610)	77.3
$\chi^2(df)/t$			234.8(5)***					-17.3***
2013년조사	46.0	4.4	15.3	12.2	13.3	8.8	100.0(859)	67.0
2012년조사	44.6	4.9	13.6	12.5	14.1	10.3	100.0(688)	65.6

** $p < .01$, *** $p < .001$.

다. 부담 정도

□ 유치원에 매월 내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에 대해 응답자 중 38.0%가 부담된다고 답함.

- 부담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1점임. 2013년 조사보다 부담된다는 비율과 부담정도 모두 낮아짐. 이는 교육비보다 특성화비가 저렴하고 방과후과정비 7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임.

〈표 15〉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부담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별로 부담 안됨	적당	조금 부담	매우 부담	계(수)	평균
전체	4.3	26.8	30.9	31.1	6.9	100.0(495)	3.1
연령							
3세	13.6	21.2	32.6	30.3	2.3	100.0(119)	2.9
4세	2.7	26.6	28.6	34.0	8.1	100.0(176)	3.2
5세	1.1	29.8	32.4	28.6	8.0	100.0(200)	3.1
$X^2(df)/F$	44.0(8)***						4.7**
기관유형							
국공립	15.6	37.5	40.6	6.3	-	100.0(39)	2.4
사립	3.7	26.2	30.4	32.5	7.1	100.0(456)	3.1
$X^2(df)/t$	-						-4.2***
2013년조사	1.9	15.6	33.8	40.0	8.7	100.0(470)	3.4
2012년조사	2.9	10.7	32.0	45.9	8.5	100.0(375)	3.5

** $p < .01$, *** $p < .001$.

- 아동 연령별로는 4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음. 부담정도도 4세가 평균 3.2점으로 3세 2.9점, 5세 3.1점과 차이가 유의함.
- 다니는 기관유형에 따라서도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2.4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평균 3.1점으로 사립이 유의하게 높음.

라. 참여 이유

□ 다음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가 33.8%,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30.2%,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14.7%,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2.4% 순이며 나머지는 5% 미만임.
- 3세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지만, 4세는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5세는 이들 이유 모두가 30% 내외로 다빈도를 나타냄.
- 이용 기관별로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음.



〈표 16〉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우수해서	학원보다 비용 저렴	이동없이 다양한 교육받을 수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서	하원 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기타	계(수)
전체	14.7	12.4	33.8	30.2	3.2	5.1	0.6	100.0(495)
아동연령								
3세	24.4	7.6	29.0	34.4	3.1	1.5	-	100.0(119)
4세	5.4	10.0	45.2	32.6	2.3	4.2	0.4	100.0(176)
5세	19.2	17.2	24.9	25.7	4.2	7.7	1.1	100.0(200)
$X^2(df)$	66.9(12)***							
기관유형								
국공립	9.1	18.2	39.4	24.2	3.0	6.1	-	100.0(39)
사립	15.0	12.2	33.6	30.4	3.2	5.0	0.6	100.0(456)
$X^2(df)$	-							

*** $p < .001$.

마.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기준

□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 1인당 1일 1개에 대해 45.9%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함.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이, 유아보다 영아 부모가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음.
- 1과목당 1일 1시간 제한은 필요가 65.9%, 매우 필요가 7.9%로 다수가 필요하다고 봄.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막내자녀가 유아보다 영아인 부모가 더 필요하다고 답함.
- 1인당 주 5개 이내 실시에 대해서는 필요가 58.5%, 매우 필요가 5.8%로 과반수 이상이 필요성에 대해 인식함.

〈표 17〉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운영기준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1인당 1일 1개				1과목당 1일 1시간				1인당 주5개 이내				계(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4점 평균		
전체	6.1	48.0	40.4	5.5	2.5	1.7	24.5	65.9	7.9	2.8	1.4	34.3	58.5	5.8	2.7	100.0 (703)
지역규모																
대도시	10.6	41.5	39.9	8.0	2.5	2.1	22.1	65.7	10.1	2.8	0.8	27.7	63.5	8.0	2.8	100.0 (317)

(표 17 계속)

구분	1인당 1일 1개					1과목당 1일 1시간					1인당 주5개 이내					계(수)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4점 평균	전혀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4점 평균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4점 평균	
중소도시	2.8	55.3	37.6	4.3	2.4	1.0	28.3	64.1	6.6	2.8	2.3	42.9	50.8	4.0	2.6	100.0 (270)
읍면지역	3.0	44.4	50.4	2.3	2.5	2.2	20.1	71.6	6.0	2.8	0.8	27.1	67.7	4.5	2.8	100.0 (116)
$\chi^2(df)$	41.9(6)***		0.9		10.7(6)*		1.6		32.0(6)***		14.7***					
막내자녀연령																
0세	5.5	43.8	47.9	2.7	2.5	-	21.9	67.1	11.0	2.9	-	26.0	64.4	9.6	2.8	100.0 (91)
1세	18.5	30.8	46.2	4.6	2.4	1.5	13.6	75.8	9.1	2.9	9.2	24.6	58.5	7.7	2.6	100.0 (113)
2세	4.3	31.4	62.9	1.4	2.6	-	37.7	56.5	5.8	2.7	-	21.7	75.4	2.9	2.8	100.0 (79)
3세	9.5	45.9	38.5	6.1	2.4	5.4	18.2	69.6	6.8	2.8	1.4	35.1	54.1	9.5	2.7	100.0 (123)
4세	4.0	48.2	42.3	5.5	2.5	1.1	23.9	67.3	7.7	2.8	0.4	32.4	61.0	6.3	2.7	100.0 (140)
5세	4.0	57.8	30.7	7.6	2.4	1.4	28.1	62.2	8.3	2.8	1.4	43.5	52.5	2.5	2.6	100.0 (157)
$\chi^2(df)$	-		1.4		-		1.8		-		4.4**					

* $p < .05$, ** $p < .01$, *** $p < .001$.

바.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의 효과성

□ 유치원에서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참여가 자녀에게 교육기회 제공 및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의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해 71.9%가 동의하였고, 동의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6점임.
- 아동연령별로 보면, 3세 유아 부모가 4,5세에 비해 동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동의정도는 모두 평균 3.6점으로 차이가 없으나 다니는 기관별로는 국공립이 사립 유치원에 비해 동의 비율과 동의정도가 유의하게 높음.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의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 기여에 대해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46.5%만 동의함. 동의 정도는 5점 평균 3.1점임.

- 연령별로는 3,5세 부모가 4세보다 동의 비율이나 동의 정도가 높음.



-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도 국공립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많고, 동의정도도 국공립 3.4점, 사립 3.1점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표 18〉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참여 효과

단위: %(명), 점

구분	교육기회 제공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						계(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6	14.0	13.6	68.1	3.8	3.6	3.2	28.3	22.1	43.8	2.7	3.1	100.0 (763)
아동연령						0.4						5.0**	
3세	0.5	12.5	12.0	73.4	1.6	3.6	5.2	21.2	25.4	46.6	1.6	3.2	100.0 (191)
4세	1.1	16.0	12.4	65.6	5.0	3.6	4.4	33.5	20.3	39.0	2.7	3.0	100.0 (268)
5세	0.2	12.9	15.3	67.8	3.8	3.6	1.2	27.0	22.0	46.7	3.1	3.2	100.0 (304)
$X^2(df)/F$			-							22.1(8)**			
시설유형													
국공립	0.6	4.8	17.3	66.1	11.3	3.8	1.2	22.6	25.6	39.9	10.7	3.4	100.0 (153)
사립	0.5	15.9	12.7	68.7	2.2	3.6	3.6	29.5	21.2	44.7	1.0	3.1	100.0 (610)
$X^2(df)/F$			-			4.4***				56.0(4)***		3.3**	

** $p < .01$, *** $p < .001$.

사. 개선사항

□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개선사항을 1,2순위로 조사한 결과,

- 개선사항 1순위로 교육비 인하가 2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사의 질 향상 21.0%, 프로그램 다양화 18.3%, 아동평가자료 제공 13.7%, 교육내용 공개 13.2% 순임.
- 2순위로는 프로그램 다양화가 22.8%로 가장 높고, 강사의 질과 아동평가자료 제공이 각각 17% 정도, 교육비 인하와 교육내용 공개가 10% 정도, 나머지는 5% 내외 정도임.
- 1,2순위를 합산하면, 프로그램 다양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강사의 질, 교육비 인하, 아동 평가자료 제공 순으로 높음.

〈표 19〉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개선사항: 1순위

단위: %(명)

구분	강사 질 향상	교육비 인하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 내용 공개	강사 관련 정보 제공	특별활동 예결산 내역 공개	프로그램 제공 업체 선정	운영 시간	아동 평가 자료 제공	기타	계(수)
1순위	21.0	22.9	18.3	13.2	4.5	1.3	1.6	2.3	13.7	1.2	100.0 (763)
2순위	17.9	12.9	22.8	10.4	6.9	3.4	6.1	1.8	17.6	-	100.0 (678)
1+2순위	38.9	35.8	41.1	23.6	11.4	4.7	7.7	4.1	31.3	1.2	(7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결과임.

4. 개선 방안

-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동의서 작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함.
 - 정부는 2014년부터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그러나 본 조사결과, 특별활동에 참여한 경우 참여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70.8%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도 28.3%로 약 1/3 정도임.
 - 또한 특별활동 참여동의서 의무화에 따라 특별활동 과목별 의무 참여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절반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부모 중 38.6% 정도만 특별활동 참여동의서가 부모의 선택 기회를 보장한다고 보았고, 45.6%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
 - 특별활동 신청 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특별활동 참여동의서 의무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미참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함.
 - 특별활동 참여 이유를 보면,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가 44.8%,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 15.2%로 특별활동이 필요해서 참여시키는 경우는 매우 적음.
 - 보건복지부가 2008년 마련한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특별활



동 미참여 아동을 위해 별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특별활동이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됨에 따라 보육교사가 미참여 아동에게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을 통제하거나 외부 강사를 지원하게 됨.
-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참여 이유를 보면,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가 30.2%,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 3.2%로 약 1/3이 필요에 의해 특성화활동에 참여하기보다 미참여 시 자녀가 방치되는 것이 걱정되어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음.

□ 저소득층에게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일부 지원함.

-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시행으로 부모 부담이 크게 줄었으나 추가 보육료교육비와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기타 경비 등이 부모 부담이 되고 있음.
- 사회계층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를 지원함.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대한 부모 교육을 강화함.

- 특별활동 및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라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부모들이 교육적 필요보다는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또는 우리 아이만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별활동의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부모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특별활동에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고

육아지원 센터 이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

이윤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육아지원 센터 설치 현황
3. 육아지원 센터 이용 현황 및 거주지에 대한 평가
4. 육아지원 센터의 이용 활성화 방안

요약

- 2014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관할)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부 관할)는 가정 내 양육지원 및 가족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과 운영시스템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 센터의 인지도 조사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3.5%, 건강가정지원센터는 49.6%로 적지 않게 나옴. 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5.3%가 이용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2.2%가 이용함. 이용 만족도는 육아종이 3.0점, 건가가 3.3점임.
- 중소도시, 대도시, 군지역 순으로 현재 거주지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통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생각하는 좋은 양육환경이란 생활기반 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임일 알 수 있음.
- 육아지원 센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특히, 양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많지만 인지도가 낮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사업을 하는 센터로 주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양육지원서비스도 실시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육아지원 센터는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거나, 인근 공공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승용차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화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한 군지역에 육아지원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나, 영유아 인구수를 고려하여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면 군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육아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함.

* 본고는 이윤진·조혜주(2014)의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보완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기관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만으로는 개별 가정의 육아문제나 다양한 육아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GDP 대비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약 1.0%로 OECD에서 권장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육아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음.
 - 재정 지원 외에도 기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을 확충하거나 기관의 운영시간을 늘리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나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될 수 없음.
 - 기업 근로자의 72.9%가 자녀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운데 여성(76.3%)뿐 아니라 남성(69.9%)도, 맞벌이(76.9%)뿐 아니라 외벌이(66.1%)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도남희, 이정원, 김문정, 2012: 71-72).
- 정부는 다양한 육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육아지원서비스를 위해 공공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표적인 기관임. 그런데 이들 센터가 최근 기능과 운영 상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명칭을 변경하고(구, 보육정보센터) 어린이집 지원 중심에서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함.

〈표 1〉 육아종합지원센터(구, 보육정보센터) 기능 확대

구분	종전	영유아보육법 개정('13. 12. 5~)
명칭	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시설보육 지원)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 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시설보육 지원) 종전과 같음 (가정양육지원) 일시보육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보호자 상담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423.

- 전국의 모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봉사단은 「모두가족봉사단」으로 가족 품앗이는 「모두가족품앗이」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단위의 공통브랜드화를 꾀하는 등

‘가족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함(여성가족부, 2014: 34)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을 목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추진 중임. 이를 위해 2014년 3월부터 12월 까지 전국 10개의 시범지역을¹⁾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가족센터의 모델을 정립,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센터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여성가족부, 2014b: 28).

나. 연구목적

- 본고는 정부가 대국민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최근 그 기능과 운영시스템을 가정 내 육아지원 및 가족돌봄 강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의 각 센터에서 제공하는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실태를 알아보고, 이용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을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다. 용어정의

- 본고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센터를 통칭하여 ‘육아지원 센터’라고 하겠음.
- 여성가족부가 관할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지원의 일환으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음.

2. 육아지원 센터 설치 현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육아지원기관으로써, 2014년 사업내용에 가정양육지원이 추가되면서 주요 사업내용은

1) 서울 관악, 부산 사상, 대구 달성, 광주 남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 충남 아산, 전남 광양, 경북 경산, 경남 하동



1) 어린이집 시설보육지원 2) 가정양육지원 3) 정부기타사업으로 크게 구분됨.

-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일시보육 서비스,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보호자 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보건복지부, 2014: 423)

□ 1993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77개가 설치, 운영 중임.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총 19개이며,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58개가 설치되어 있음.

□ 시·도 및 시·군·구 규모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자치구 수 대비 100% 설치된 지역은 서울이 유일함. 설치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 세종시, 인천, 울산, 제주시로 집계됨.

- 도시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 지역이 많은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지역은 설치비율이 한 자리수로 집계되어 지역규모별로 설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시·도 및 시·군·구 수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현황			비율 (B/A)
	시·도	시·군·구	소계(A)	시·도	시·군·구	소계(B)	
합계	17	230	247	18	57	76	32.5
서울	1	25	26	1	25	26	100.0
부산	1	16	17	1	2	3	17.6
대구	1	8	9	1	0	1	11.1
인천	1	10	11	1	4	5	45.5
광주	1	5	6	1	0	1	16.7
대전	1	5	6	1	0	1	16.7
울산	1	5	6	1	1	2	33.3
세종	1	1	2	1	0	1	50.0
경기	1	31	32	2	19	21	65.6
강원	1	18	19	1	1	2	10.5
충북	1	12	13	1	0	1	7.7
충남	1	15	16	1	1	2	12.5
전북	1	14	15	1	1	2	13.3

(표 2 계속)

구분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현황			비율 (B/A)
	시·도	시·군·구	소계(A)	시·도	시·군·구	소계(B)	
전남	1	22	23	1	0	1	4.3
경북	1	23	24	1	1	2	8.3
경남	1	18	19	1	2	3	15.8
제주	1	2	3	1	0	1	33.3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p.20-21.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법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동령의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임.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여성가족부, 2014: 5).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여성가족부, 2014: 15).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3개소(용산, 여수, 김해)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갔다. 중앙센터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에 개소되었다가 2011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가원)으로 전환되었다. 2014년 기준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154개가 운영 중임.



〈표 3〉 시·도 및 시·군·구 수 대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시·도 및 자치구 수			센터 설치 현황			비율 (B/A)
	시·도	시·군·구	소계(A)	시·도	시·군·구	소계(B)	
합계	17	230	247	7	147	154	62.3
서울	1	25	26	1	26	27	100+
부산	1	16	17	1	8	9	52.9
대구	1	8	9	0	7	7	77.8
인천	1	10	11	0	9	9	81.8
광주	1	5	6	0	5	5	83.3
대전	1	5	6	1	0	1	16.7
울산	1	5	6	1	1	2	33.3
세종	1	1	2	1	0	1	50.0
경기	1	31	32	1	32	33	100+
강원	1	18	19	0	7	7	36.8
충북	1	12	13	0	4	4	30.8
충남	1	15	16	0	10	10	62.5
전북	1	14	15	0	6	6	40.0
전남	1	22	23	0	9	9	39.1
경북	1	23	24	0	9	9	37.5
경남	1	18	19	1	12	13	68.4
제주	1	2	3	0	2	2	66.7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introduce/status/list.do>) 검색일: 2014년 12월 8일

3. 육아지원 센터 이용 현황 및 거주지에 대한 평가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1) 인지도부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1,000명 대상으로²⁾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알고 있는냐고 질문한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6%, 들어본 적이 있다 35.9%로 집계됨. 모른다는 응

2) 모집단 층화는 영유아 자녀의 센터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판단되는 지역규모와 지역의 육아지원 센터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본배분은 지역규모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과 지역의 육아지원 센터수별로 영유아 인구 수를 기준으로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 방법을 실시함.

답도 33.5%로 적지 않음.

-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변인은 유아, 비취업모, 대도시, 월 7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임.
- 군지역의 인지 정도가 낮게 나온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시 중심으로 설립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계(수)	$\chi^2(df)$
전체	30.6	35.9	33.5	100.0(1,000)	
자녀연령					
영아	26.4	37.4	36.2	100.0(503)	8.51(2)*
유아	34.8	34.4	30.8	100.0(497)	
모취업여부					
취업	29.4	38.5	32.1	100.0(379)	1.82(2)
비취업	31.3	34.3	34.4	100.0(621)	
지역규모					
대도시	31.7	40.7	27.5	100.0(432)	21.25(4)***
중소도시	31.4	31.6	36.9	100.0(509)	
군지역	13.8	37.9	48.3	100.0(58)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30.7	34.0	35.3	100.0(351)	5.43(6)
300~500만원 미만	30.8	37.2	32.0	100.0(524)	
500~700만원 미만	26.2	37.8	36.0	100.0(105)	
700만원 이상	51.0	28.3	20.7	100.0(17)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2) 이용 경험 여부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 중 실제 이용 여부(설문조사 실시 기준 지난 1년 동안 이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 65.3%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 이용률이 높은 변인을 살펴보면, 유아, 취업모, 중소도시, 월평균 100~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로 집계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군지역의 이용 경험자



가 거의 표집되지 않았음.

- 잘 알고 있다는 응답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던 변인들과 비교해 보면, 유아와 도시 거주자가 잘 알고 있으면서 실제 이용도 많이 했던 반면, 비취업모와 고소득가구는 잘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용에서는 비취업모와 저소득가구보다 낮음.

〈표 5〉 지난 1년 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

구분	단위: %(명)			X ² (df)
	이용함	이용한적 없음	계(수)	
전체	65.3	34.7	100.0(306)	
자녀연령				
영아	57.2	42.8	100.0(133)	6.83(1)**
유아	71.5	28.5	100.0(173)	
모취업여부				
취업	68.5	31.5	100.0(111)	0.60(1)
비취업	63.4	36.6	100.0(194)	
지역규모				
대도시	61.6	38.4	100.0(138)	2.047(2)
중소도시	68.8	31.2	100.0(160)	
군지역	55.6	44.4	100.0(9)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73.7	26.3	100.0(108)	9.24(3)*
300~500만원 미만	63.5	36.5	100.0(161)	
500~700만원 미만	44.3	55.7	100.0(28)	
700만원 이상	59.4	40.6	100.0(9)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3) 지난 1년 이용 횟수

□ 지난 1년 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부모들에게 이용 횟수를 알아본 결과, 일년에 2~5회가 33.4%, 한달에 2~3회 이상이 24.4%, 일년에 6~12회 23.2% 순으로 나타남.

- 두 달에 한 번꼴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주마다 한 번꼴로 가는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등 늘상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영아, 외벌이 가정, 대도시 거주자가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음.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6〉 지난 1년 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횟수

단위: %(명)

구분	1개월 4회 이상	1개월 2-3회 이상	1년 6-12회	1년 2-5회	1년 1회 정도	계(수)	$X^2(df)$
전체	8.9	24.4	23.2	33.4	10.1	100.0(199)	
자녀연령							
영아	9.1	24.9	22.6	36.3	7.1	100.0(76)	1.88(4)
유아	8.9	24.0	23.6	31.7	11.9	100.0(123)	
가구유형							
맞벌이	8.9	10.8	22.6	41.3	16.5	100.0(75)	15.39(4)**
외벌이	9.0	32.5	23.6	28.7	6.2	100.0(125)	
지역규모							
대도시	11.8	23.5	28.2	25.9	10.6	100.0(85)	7.44(8)
중소도시	7.3	23.6	19.1	40.0	10.0	100.0(110)	
군지역	0.0	40.0	20.2	20.0	20.0	00.0(5)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11.2	35.0	20.0	26.2	7.5	100.0(80)	15.04(8)
300~500만원 미만	7.8	18.6	25.5	35.3	12.7	100.0(102)	
500만원 이상	5.9	24.1	23.5	58.8	5.9	100.0(17)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4) 지난 1년 이용한 서비스

□ 이용한 서비스를 보면, 장난감도서관(61.3%)와 실내놀이실(47.5%)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나 함께 관람하는 공연프로그램 이용도 20.7%로 적지 않음.

- 영아는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실을 주로 이용하고, 유아는 영아에 비해 부모교육이나 가족행사, 공연프로그램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음.
- 맞벌이 가정은 부모교육, 가족행사·공연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외벌이 가정에 비해 높고, 외벌이 가정은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실 이용 비율이 높음.



〈표 7〉 지난 1년 동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장난감 도서관	실내 놀이실	부모 교육	지역사회 연계사업	가족행사, 공연프로그램	기타	사례수
전체	61.3	47.5	13.5	3.3	20.7	1.2	(199)
자녀연령							
영아	63.8	49.0	7.1	2.3	8.5	1.5	(76)
유아	59.8	46.6	17.4	3.9	28.3	1.0	(123)
가구유형							
맞벌이	51.5	41.3	18.4	4.9	33.6	1.7	(75)
외벌이	67.2	51.3	10.5	2.3	13.0	0.9	(125)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5) 이용 만족도 등

□ 이용자의 거의 대다수가 만족하는(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것으로 나타남. 점수로 환산하면, 3.0점(4점 만점)임.

○ 영아, 맞벌이, 고소득 가구의 만족도가 높음.

〈표 8〉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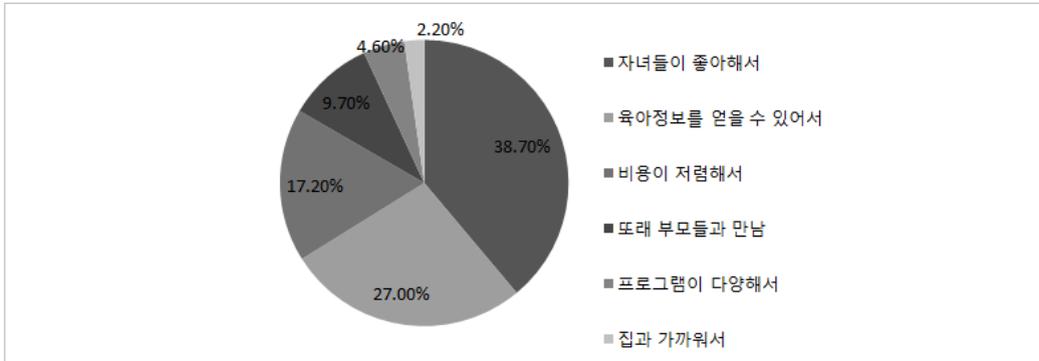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M(SD)	t/F
전체	1.6	6.2	82.0	10.2	100.0(199)	3.0(0.48)	
자녀연령							
영아	0.0	3.6	80.3	16.1	100.0(76)	3.1(0.43)	2.755**
유아	2.6	7.9	83.0	6.6	100.0(123)	2.9(0.50)	
가구유형							
맞벌이	3.1	3.3	77.7	15.9	100.0(75)	3.1(0.56)	1.274
외벌이	0.7	8.0	84.5	6.8	100.0(125)	3.0(0.42)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2.5	8.9	86.1	2.5	100.0(79)	2.9(0.46)	4.186*
300~500만원 미만	1.0	2.9	82.4	13.7	100.0(102)	3.1(0.45)	
500만원 이상	0.0	11.8	64.7	23.5	100.0(17)	3.1(0.61)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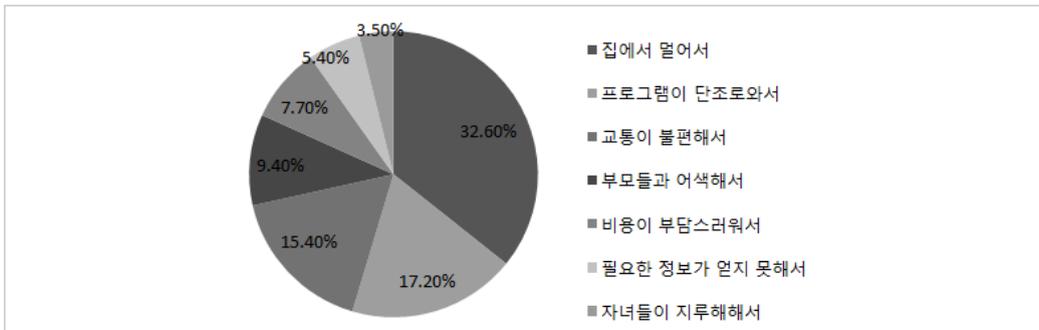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좋은 점은 ‘자녀들이 좋아해서’(38.7%)가 가장 많고,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27.0%), ‘비용저렴’(17.2%) 순임.
- 프로그램이 다양해서(4.6%), 집과 가까워서(2.2%)가 좋은 점으로 꼽은 비율은 낮았는데 이는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기도 함.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1]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좋은 점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집과 장거리’(32.6%), ‘프로그램 단조로움’(17.2%), ‘교통 불편해서’(15.4%) 순임.
- 앞서의 좋은 점에서 응답 비율이 낮은 항목이 불편한 점으로 꼽힘.
- 어린 자녀를 동반해야 하므로 접근성, 교통의 편리성이 센터 이용에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주 내지는 규칙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2]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시 불편한 점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1) 인지도부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하며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모른다고 응답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해 인지도가 낮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시군구에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잘 알고 있지는 않으나, ‘들어본 적 있다’는 군지역에서의 응답비율은(53.4%)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많음(37.9%).
- 영아, 외벌이, 월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에서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9〉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지 여부

구분	단위: %(명)			계(수)	X ² (df)
	잘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모른다		
전체	10.8	39.5	49.6	100.0(1,000)	
자녀연령					
영아	9.3	37.6	53.1	100.0(503)	5.54(2)
유아	12.3	41.5	46.1	100.0(497)	
가구유형					
맞벌이	10.8	41.8	47.4	100.0(377)	1.42(2)
외벌이	10.8	38.2	51.0	100.0(623)	
지역규모					
대도시	6.2	44.4	49.3	100.0(432)	28.17(4)***
중소도시	14.9	33.8	51.3	100.0(509)	
군지역	8.6	53.4	37.9	100.0(58)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9.7	37.3	53.0	100.0(351)	10.67(6)
300~500만원 미만	11.2	41.2	47.6	100.0(524)	
500~700만원 미만	9.6	43.6	46.8	100.0(105)	
700만원 이상	30.4	14.7	54.8	100.0(17)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1$

2) 이용 경험 여부

□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08명 대상으로 실제 이용 경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실제 이용했다는 응답은 22.2%로 많지 않음.

- 영아, 외벌이, 중소도시, 고소득 가구에서 이용 경험이 적음.
 - 외벌이보다 맞벌이의 이용 경험이 많은 것과 사례수가 일부이기는 하나, 군지역의 이용 비율이 66.7%로 매우 높게 나온 점이 눈에 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모가 인지하고 있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조건(예: 지리적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라면 이용할 확률이 높음.

〈표 10〉 지난 1년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경험

구분				단위: %(명)
	이용함	이용한적 없음	계(수)	$\chi^2(df)$
전체	22.2	77.8	100.0(108)	
자녀연령				
영아	16.4	83.6	100.0(47)	1.30(1)
유아	26.7	73.3	100.0(61)	
가구유형				
맞벌이	25.3	74.7	100.0(41)	0.28(1)
외벌이	20.4	79.6	100.0(67)	
지역규모				
대도시	28.6	71.4	100.0(28)	8.51(2)*
중소도시	17.1	82.9	100.0(76)	
군지역	66.7	33.3	100.0(6)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32.0	68.0	100.0(34)	3.01(3)
300~500만원 미만	20.5	79.5	100.0(58)	
500~700만원 미만	6.3	93.7	100.0(10)	
700만원 이상	9.4	90.6	100.0(5)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3) 지난 1년 동안 이용 횟수

□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24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년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횟수는 1년에 1회 정도가 34.9%로 가장 많았고, 2-5회가 26.4%, 한 달에 4회 이상



24.5% 순임.

-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자주 이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많지 않음. 사례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시군구 지역단위로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낮은 이용율의 이유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 달에 4회 이상 자주 이용하는 사례는 유아, 외벌이, 도시 거주 가구임.

〈표 11〉 지난 1년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횟수

구분	단위: %(명)					계(수)	X ² (df)
	1개월 4회 이상	1개월 2-3회 이상	1년 6-12회	1년 2-5회	1년 1회 정도		
전체	24.5	9.3	4.8	26.4	34.9	100.0(24)	
자녀연령							
영아	15.8	0.0	0.0	46.2	38.0	100.0(8)	n/a
유아	28.6	13.7	7.1	17.2	33.5	100.0(16)	
가구유형							
맞벌이	21.2	16.8	0.0	29.3	32.6	100.0(10)	n/a
외벌이	27.0	3.7	8.5	24.2	36.6	100.0(14)	
지역규모별							
대도시	42.9	0.0	0.0	28.5	28.6	100.0(7)	
중소도시	16.7	8.3	8.3	25.0	41.7	100.0(12)	n/a
군지역	0.0	25.0	0.0	25.0	50.0	100.0(4)	

주: 셀빈도 부족으로 카이검정 불가능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4) 지난 1년 이용한 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는 부모교육이 31.1%로 가장 많고, 육아나눔터, 지역사회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남. 기타 프로그램은 육아돌보미,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산후조리 등이라 응답함.
- 영아 자녀를 둔 부모는 부모교육을, 유아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나눔터,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용이 더 많음.
- 외벌이 가정은 부모교육을, 맞벌이 가정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함.

〈표 12〉 지난 1년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한 서비스(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부모 교육	가족(집단) 상담	가족 품앗이	공동 육아 나눔터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타	사례수
전체	31.1	7.2	2.1	22.1	21.6	26.8	(24)
자녀연령							
영아	44.0	0.0	6.5	15.8	17.4	22.8	(8)
유아	25.1	10.6	0.0	25.0	23.5	28.6	(16)
가구유형							
맞벌이	17.8	8.4	0.0	27.6	21.2	33.3	(10)
외벌이	41.2	6.3	3.7	17.9	21.8	21.8	(14)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5) 이용 만족도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만족도는 3.3점(4점 만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3.0점보다 높게 나옴. 이용자는 많지 않지만,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영아보다는 유아, 맞벌이 보다는 외벌이, 저소득 보다는 고소득 가구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13〉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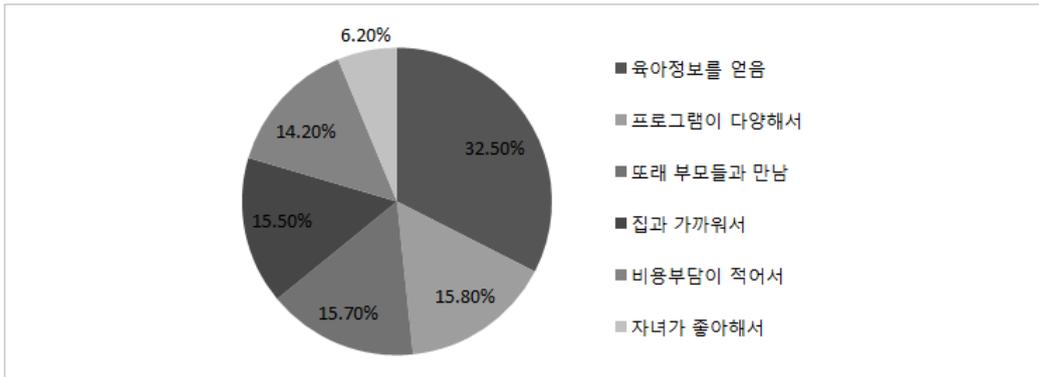
구분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M(SD)	t/F
전체	5.2	64.6	30.2	100.0(24)	3.3(0.55)	
자녀연령						
영아	16.2	68.0	15.8	100.0(8)	3.0(0.61)	-1.601
유아	0.0	63.0	37.0	100.0(16)	3.4(0.50)	
가구유형						
맞벌이	12.0	53.5	34.5	100.0(10)	3.2(0.68)	-0.192
외벌이	0.0	73.0	27.0	100.0(14)	3.3(0.46)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0.0	90.9	9.1	100.0(11)	3.1(0.33)	0.880
300만원 이상	8.3	41.7	50.0	100.0(13)	3.4(0.70)	

주: 셀빈도 부족으로 카이검정 불가능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32.5%)가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서’(15.8%), ‘또래 부모들과 만날 수 있어서’(15.7%), ‘집과 가까워서’(15.5%)로 비슷한 비율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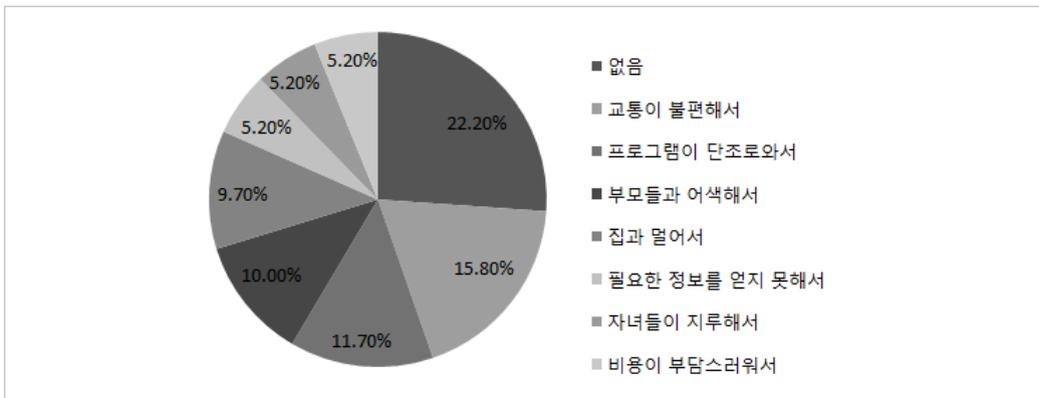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3]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시 좋은 점(복수응답)

□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으로 ‘없다’는 응답이 22.2%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교통이 불편해서’(15.8%), ‘프로그램이 단조로워서’(11.7%), ‘부모들과 어색해서’(10.0%) 순으로 나옴.

○ ‘프로그램의 단조로움’과 ‘교통 불편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시에도 불편한 점으로 상위를 차지한 이유임.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그림 4]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시 불편한 점(복수응답)

다. 현재 거주지 양육환경에 대한 평가

- 육아지원 센터의 설치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당장 모든 지역에 설치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육아지원 센터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거주지의 양육환경이 어떠한지를 알아봄.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좋은 양육환경인지를 평가한 결과, 대체로 좋은 양육환경이라는 응답이 70.7%로(2.8점/4점) 대다수 현재 거주 지역의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이는 대부분 변인들에서 뚜렷하게 드러남.
 - 그러나 군지역이 2.5점으로 유독 낮게 나옴. 군지역 거주 부모들이 바라는 양육환경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14〉 현재 거주지의 좋은 양육환경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계(수)	$X^2(df)$	M(SD)	t/F
전체	1.7	21.8	70.7	5.8	100.0(1,000)		2.8(0.56)	
자녀연령								
영아	1.6	24.2	68.8	5.5	100.0(503)	3.20(3)	2.8(0.56)	-1.329
유아	1.9	19.5	72.6	6.0	100.0(497)		2.8(0.55)	
가구유형								
맞벌이	1.4	20.8	72.0	5.8	100.0(377)	0.92(3)	2.8(0.54)	0.813
외벌이	2.0	22.5	69.8	5.7	100.0(623)		2.8(0.56)	
지역규모								
대도시	1.2	21.1	73.8	3.9	100.0(432)	24.69(6) ***	2.8(0.51)	4.042***
중소도시	1.8	20.6	70.5	7.1	100.0(509)		2.8(0.56)	
군지역	6.8	37.3	49.2	6.8	100.0(59)		2.5(0.73)	
가구소득								
100~300만원 미만	2.0	24.5	69.9	3.6	100.0(351)	9.55(9)	2.8(0.55)	1.908
300~500만원 미만	1.4	20.5	70.7	7.4	100.0(524)		2.8(0.56)	
500~700만원 미만	2.8	18.2	73.7	5.3	100.0(105)		2.8(0.56)	
700만원 이상	0.0	27.4	69.8	2.9	100.0(17)		2.8(0.51)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좋은 양육환경이 아니라고 평가한 사례(236명)를 대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닌 이유를 알아본 결과, 공원, 체육시설, 문화 공간 등의 인프라 부족을 51.8%로 가장 많이 꼽음. 다음으로 믿고 맡길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19.2%), 지자체 지원의 육아서비스 부족(17.2%) 순으로 나옴.

- 앞서 거주지역의 만족도가 낮게 나온 군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을 69.2%로 전체보다 많이 나옴.
- 자녀가 어릴 때에는 기저귀, 분유, 장난감 등을 쉽게 살 수 있는 마트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놀이공원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음. 군지역은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육아지원 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15〉 좋은 양육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믿고 맡길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	공원, 체육 시설, 문화 공간 등 인프라 부족	주변 상업 시설 많아 안전 문제 있음	지자체 지원육아 서비스 부족	서로 믿을 만한 이웃 없음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19.2	51.8	10.0	17.2	0.8	0.9	100.0(236)	
자녀연령								
영아	21.6	48.0	6.8	20.4	1.4	1.7	100.0(130)	9.66(5)
유아	16.2	56.4	13.9	13.4	0.1	0.0	100.0(106)	
지역규모								
대도시	20.8	52.1	10.4	15.6	0.0	1.0	100.0(96)	8.35(10)
중소도시	18.4	47.4	12.3	19.3	1.8	0.9	100.0(114)	
군지역	15.4	69.2	0.0	15.4	0.0	0.0	100.0(26)	

자료: 본 설문조사 결과임.

4. 육아지원 센터의 이용 활성화 방안

가. 센터의 대국민 홍보

- 육아지원 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
 -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홍보가 시급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수보

다 많지만 인지도가 낮음.

- 아이돌보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정 내 양육 지원사업 (가족품앗이, 아버지-자녀 함께하는 프로그램, 남성대상 교육, (조)부모 교육, 가족 상담 등)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함.

나. 설치 지역 단위를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접근성 제고

- 육아지원 센터의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집에서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육아지원 센터가 시군구 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여 부모가 보다 쉽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현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 단위까지 ‘지점’ 형태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데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겠음.
 - 영유아를 동반하는 부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든가, 인근 공공유희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승용차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든가 등의 노력이 필요함.

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의 단조로움’도 육아지원 센터의 이용 시 불편한 점으로 많이 지적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보다는 유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유아보다는 영아가 만족도가 낮게 나옴. 센터를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할 것임.
 - 각 센터들은 주로 이용하는 고객(아동)의 연령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기는 연령보다 생후 개월수에 따라 발달단계가 다르므로 프로그램도 연령별보다는 생후 개월수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 필요함.



라. 군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의 육아지원 센터 기능 담당

- 문화 및 생활기반 시설이 부족한 군지역에 육아지원 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겠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특수한 역할을 하므로 일반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 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겠음.
 - 영유아 인구수를 고려하여 설치,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면 군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육아지원 센터 기능을 부가할 것을 제안함.
 - 만 3세 이상 유아가 다니는 일본의 일부 유치원에서는 만 2세 영아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위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젓먹이 영아와 같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안심하게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수유나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도 함(이윤진·조혜주, 2014: 75-76).

참고문헌

국내문헌

- 도남희·이정원·김문정(201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5). 2014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4). 2014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4b).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여성·청소년·가족이 행복을 찾는 길 여성가족부가 같이 갑니다.
- 이윤진·조혜주(2014). 지역사회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이정원

1. 논의 배경 및 문제 제기
2. 조사 개요
3.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4.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
5. 정책 제언

요약

-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영유아의 가족 배경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나타나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격차는 해소해야 할 과제임. 아동의 생애초기 출발선 평등 보장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 2014년 7월 전국 16개 시도의 영유아 가구 1,250사례를 대상으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응답한 학부모의 95.8%가 영유아기 부터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리양육의 필요에 앞서 전인적 발달, 사회성 발달 등 자녀의 발달을 위해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응답한 학부모의 45.7%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서비스 이용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고 지적함.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인식은 가구소득과 지역의 보육·교육 서비스 인프라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보육·교육서비스 기관의 지역별 인프라 격차와 부모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기관’의 부족(기관간 서비스 질의 격차), 기관간 추가 부담 비용의 차이가 지적됨.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요구는 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 국공립 기관은 ‘기관의 증설’, 사립(민간) 기관은 ‘서비스 질의 제고’와 ‘비용 규제’ 등으로 나타남.
- 균질한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은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적정량의 공급, 수요자에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근거법률의 정비와 최소 기준 미달 기관의 점진적 도태 유도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균질화, 추가부담 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 저소득층 대상의 추가부담 비용 차등 지원 등 비용 규제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기본과제 연구보고서인 ‘사회통합관점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이정원·최효미·김진미·정주영, 2014)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임.



1. 논의 배경 및 문제 제기

□ 사회통합과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영유아기 교육·보육 경험이 영유아기의 발달 차이 뿐 아니라 증장기적으로도 다양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이 실증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임(Entwisle, 1995; Barnett, 1995; Currie and Thomas, 1999; Magnuson, Ruhm, and Waldfogel, 2007; Camilli et al., 2010; 김기현·신인철, 2012: 263에서).

□ 사회통합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영유아의 가족 배경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나타나는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나라에서 ‘교육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갈등 요인임.

- 교육격차에 대한 관심은 그간 초등교육 이상에 초점이 두어져 왔음.

- 그러나, 최근에는 영유아 대상 정책 변화로 영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 경험의 격차와 그 영향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교육격차의 해소 대상이 의무교육 연령 이상 뿐 아니라 영유아기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김기현·신인철, 2012: 262).

- OECD에서도 5세 이전 양질의 보육·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보육·유아교육 경험의 복지적 효과, 사회통합에의 기여 효과를 강조함(OECD, 2011).

□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 제기

- 그간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 지원과 기관 공급이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거주지역, 가족배경(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기회 제한과 기관 간 서비스 질 격차 및 비용 격차의 존재로 인한 ‘질 높은 서비스’에의 제한된 기회 등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 형평성 저해 요소가 보고되고 있음(김은정, 2014: 91-93; 서문희·이혜민, 2013: 26-28).

- 아동의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해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집단간 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영

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2. 조사 개요

□ 설문조사의 목적

○ 설문조사의 목적

-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파악
- 소득수준, 지역의 보육·교육 서비스 인프라에 따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와 차이 파악을 통한 이용 형평성의 실태 분석

□ 설문 대상 및 표본 설계

○ 설문 대상

- 만1세 이상~만5세 영유아를 둔 학부모 1,250사례

○ 지역별 영유아 연령별 인구 고려하여 표본 설계하고 저소득 영유아 가구는 과대 표집함.

- 2014년 7월 주민등록인구기준 총 16개 시도의 지역 영유아 인구에 제곱근 비례 방식의 표본할당으로 1,250사례(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가구 200사례 포함)의 영유아 인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현실적으로 기관 이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만 1세 미만은 제외하고 2014년 7월 기준 만1세~만5세의 232만 5,960명을 모집단으로 함.
- 설문조사에 앞서 실시된 전문가 조사 결과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개념의 주요 구성 요소 중 ‘이용 비용’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소득계층, 특히 저소득계층의 응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가 최소 200사례 포함되도록 의도적 과대 표집을 실시함.

□ 설문 내용

- 설문 내용에는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용 형평성에 대한 인식, 이용 실태, 거주 지역의 인프라 정도,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



등이 포함됨.

〈표 1〉 주요 설문 내용

설문 영역	설문 내용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경험 유무, 이용 기관 종류, 현재 이용 여부, 현재 이용기관 종류, 기관 이용 이유, 현재 이용 기관 선택 이유, 기관 이용의 만족도, 향후 기관 변경 의사, 기관 변경하려는 이유,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사 경험 및 이사 의사
지역인프라 특성	-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양적인 충분/부족 정도 - 원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사 경험 여부, 원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사할 의향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적절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시기 -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기회 형평성에 대한 인식, 형평성 저하의 원인에 대한 인식 -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질 차이에 대한 인식, 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 영역 - 영유아기 보육·교육서비스 질에 따른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정책 지원의 효과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향 - 기관별 이용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지원 - 기관 이용 비용 보편 지원이 이용 기회 증대에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인식 -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 도입으로 유보 간 서비스 질 차이 해소에 도움된 정도에 대한 인식 - 보육·교육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회적 지원 - 추가부담비용 지원 시 형평성 있는 방식

3.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가.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

□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응답자 중 95.8%는 취학 전 영유아기부터 보육·교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적절한 연령대로는 만3세~4세 미만이 42.5%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대부분 만2~4세 사이에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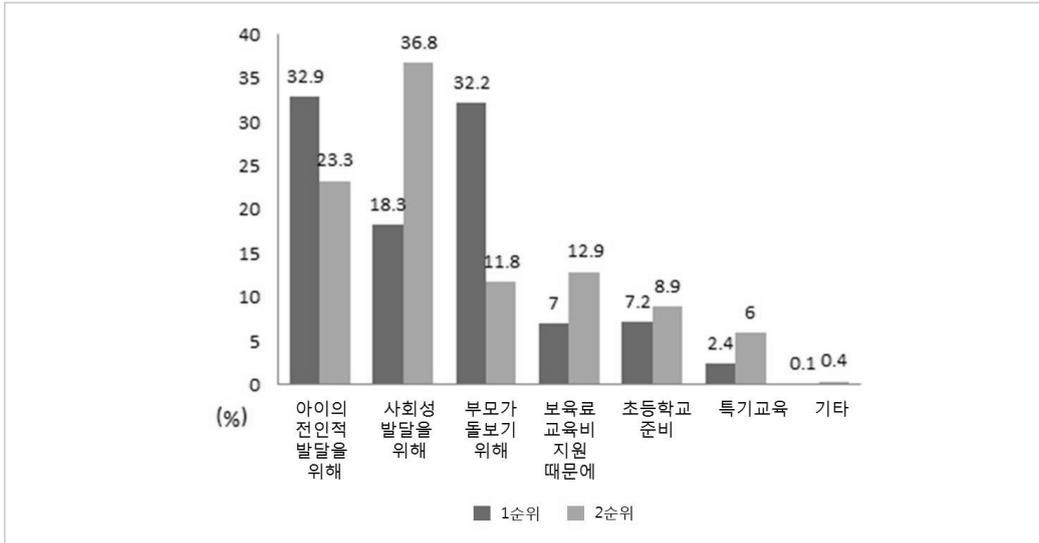
〈표 2〉 취학 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필요성과 적합한 기관 이용 시작 연령

단위: %(명)

취학 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필요 여부			보육교육서비스 필요 연령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생후 12개월 전	만1세~2세 미만	만2세~3세 미만	만3세~4세 미만	만4세~5세 미만	만5세 이상	계
95.8	4.2	100.0(1,250)	0.6	8.0	37.1	42.5	10.8	1.1	100.0(1,198)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이유

- 1,250사례 중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있는 879사례를 대상으로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를 1,2순위별로 응답하도록 함.
 - 아이의 전인적 발달(32.9%)과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32.2%)가 각각 1/3가량으로 비슷하게 높았고, 2순위로 고려되는 요인으로는 사회성 발달(36.8%)이 가장 높음.
 -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취업 등으로)’는 1순위 이유 중에서는 32.2%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나, 2순위 이유 중에서는 11.8%만이 선택하였음.
 - 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부모 취업 등으로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만이 아니라 기관 이용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기대에 의한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이러한 자녀 성장과 발달에의 긍정적 효과 기대가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의 중요 이유라는 점은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이유

□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에 대한 인식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할 때 누구나,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5.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영유아기부터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고(95.8%) 있으며, 적절한 서비스 이용 시작 시기를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을 원할 때 누구에게나 이용 기회가 형평성 있게 제공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러한 이용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높았으며, 거주지역의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률이 70% 미만인 지역에서는 62.4%에 달함.

<표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

	필요할 때 누구나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단위:(%) 명
	필요할 때 누구나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계	
전체	54.3	45.7	100.0(1,198)
지역규모			
대도시	49.3	50.7	100.0(564)
중소도시	55.2	44.8	100.0(496)

(표 3 계속)

	필요할 때 누구나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필요할 때 누구나 원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계
읍면동	71.7	28.3	100.0(138)
$X^2(df)$		39.385(6)***	
보육교육서비스 총공급률			
70% 미만	37.6	62.4	100.0(303)
70~79%	60.9	39.1	100.0(489)
80~89%	60.8	39.2	100.0(250)
90% 이상	55.8	44.2	100.0(156)
$X^2(df)$		50.905(9)***	

*** $p < .001$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 이유는 '수요 인구 대비 기관 공급의 수적 부족(31.6%)', '기관의 질적 수준 차이로 보내고 싶은 기관의 부족(28.7%)', '기관별 실부담액 차이 존재(21.2%)', '기관의 지역별 차이로 부족한 지역이 있음(14.6%)'순으로 응답됨.

〈표 4〉 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어려운 이유_형평성 저해 이유

구분	기관의 수적 부족	보내고 싶은 기관이 희소함	기관별 실부담액 차이 존재	기관의 지역별 분포 차이	기타	단위: %(명)
						계
전체	31.6	28.7	21.2	14.6	3.8	100.0(54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3.8	10.3	38.2	14.7	2.9	100.0(68)
200~300만원 미만	29.6	23.5	27.0	16.5	3.5	100.0(115)
300~400만원 미만	31.7	28.5	18.8	18.8	2.5	100.0(186)
400만원 이상	32.0	39.3	13.5	9.0	6.1	100.0(178)
$X^2(df)$			46.198(15)***			
보육교육 서비스 총공급률						
~70%미만	33.9	34.9	14.3	13.2	3.7	100.0(26)
70~79%	30.9	25.1	22.5	16.2	5.2	100.0(79)
80~89%	30.6	21.4	27.6	18.4	2.0	100.0(143)
90% 이상	29.0	31.9	27.5	8.7	2.9	100.0(274)
$X^2(df)$			23.017(15)***			

*** $p < .001$



□ 이용 형평성 저해 요소 관련 인식

1) 양적 충분성: 지역 인프라 차이

- 이용 형평성 저해 요소로 응답된 보육교육 서비스 기관의 절대적·상대적(지역별 격차) 부족 문제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기관’의 부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표 5〉 거주지역 내 보육·교육 서비스 유형별 충분성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매우 충분	계	5점 평균
국공립유치원	34.0	39.9	18.0	7.3	0.8	100.0(1,250)	2.0
사립유치원	2.5	12.7	43.8	33.8	7.3	100.0(1,250)	3.3
국공립어린이집	28.3	41.4	19.6	9.0	1.7	100.0(1,250)	2.1
기타어린이집 (국공립 외 모든 유형)	1.2	8.0	36.2	48.4	6.2	100.0(1,250)	3.5

주: 평균은 ‘매우 부족’=1~‘매우 충분’=5로 측정하여 산출한 결과임

- 거주지역 보육·교육 서비스의 기관 유형별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나, 사립유치원과 기타 어린이집은 충분하다고 인식함.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할만한 시설이 충분한가 질문한 결과 국공립유치원은 매우 부족하다 34.0%, 부족한 편 39.9%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73.9%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국공립을 제외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 충분성에 대한 인식 평균은 기타어린이집(국공립외 모든 유형)의 평균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유치원이 2.0로 가장 낮았음.

〈표 6〉 국공립유치원의 충분성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종합			계	5점 평균
						부족	보통	충분		
전체	34.0	39.9	18.0	7.3	0.8	73.9	18.0	8.1	100.0(1,250)	2.0
지역규모										
대도시	42.2	37.3	13.4	6.8	0.3	79.5	13.4	7.1	100.0(590)	1.9
중소도시	25.8	42.4	23.1	8.3	0.4	68.2	23.1	8.7	100.0(516)	2.2
읍면동	29.9	41.7	18.8	5.6	4.2	71.6	18.8	9.8	100.0(144)	2.1
<i>F</i>						14.971***				

주: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5점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7〉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매우 충분	종합			계	5점 평균
						부족	보통	충분		
전체	28.3	41.4	19.6	9.0	1.7	69.7	19.6	10.7	100.0(1,250)	2.1
지역규모										
대도시	35.3	41.4	14.6	8.1	.7	76.7	14.6	8.8	100.0(590)	2.0
중소도시	19.8	42.8	25.4	9.9	2.1	62.6	25.4	12	100.0(516)	2.3
읍면동	30.6	36.1	19.4	9.7	4.2	66.7	19.4	13.9	100.0(144)	2.2
<i>F</i>						17.305***				

주: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5점으로 하여 산출한 결과임.

** $p < .01$, *** $p < .001$

- 한편, 가장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거주지역 내 충분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 > 읍면지역 > 대도시 순으로 상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표 6〉, 〈표 7〉 참조).
- 영유아 인구가 많아 수요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국공립기관 이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됨.

2) 서비스의 질: 기관별 차이

-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음¹⁾.



-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취학 전 아동 대상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 간 서비스 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이 62.3%, 기관 간 서비스 질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응답은 9.0%로 나타남.

〈표 8〉 보육교육기관 간 서비스 질 차이 유무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기관 간 질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	기관 간 질 차이가 없다	기관 간 질 차이가 매우 크다	계
62.3	28.6	9.0	100.0(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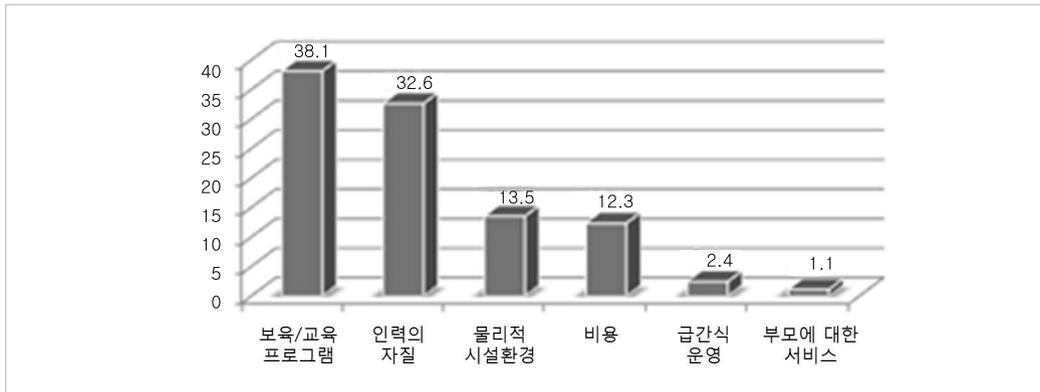
- 한편, 영유아의 부모들은 '운영하는 보육/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육교육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38.1%), 이밖에 '교사 등 인력의 자질·수준'(32.6%), '물리적 시설 환경'(13.5%), '비용'(12.3%)에서 기관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9〉 보육교육기관 간 서비스 질 차이 발생 영역에 대한 인식

단위: %(명)

보육/교육 프로그램 차이	인력의 자질/수준 차이	물리적 시설 환경 차이	기관별 비용 차이	급간식 관리/운영 차이	부모에 대한 서비스 차이	계
38.1	32.6	13.5	12.3	2.4	1.1	100.0(892)

1) 이 설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유치원, 어린이집별 구체적인 서비스 질 차이에 대한 인식 파악이 아닌, 모든 보육·교육 서비스 기관의 서비스를 동질의 서비스로 인식하는지 여부 정도만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체적인 기관 유형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그림 2] 보육교육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 발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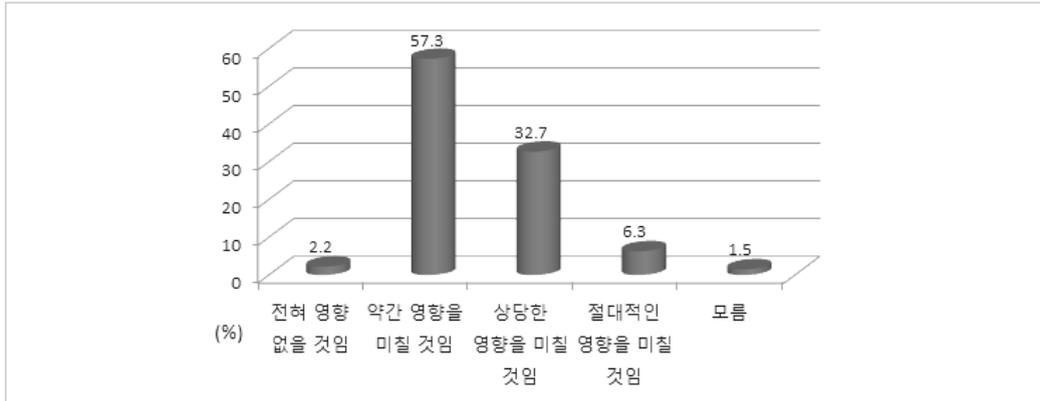
- 보육교육서비스 질 차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간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892사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 질 차이가 아동 발달에도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인식을 조사함.

〈표 10〉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차이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전혀 영향 없을 것이다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동의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르겠다	종합			계
					영향 없음	영향 있음	모름	
2.2	57.3	32.7	6.3	1.5	2.2	96.3	1.5	100.0(892)

- 응답 결과, 대부분의 부모들은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차이가 아동 발달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차이가 아동 간 발달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하였고, 32.7%는 ‘상당한’ 영향을, 6.3%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됨.
- 즉, 부모들은 정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영유아 자녀가 어떠한 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발달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균질’의 보육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이용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에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임을 시사함.



[그림 3]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차이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나.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문제점

- 지역 보육교육서비스 인프라와 가구소득별 이용 실태(지역별, 소득별 이용 격차, 이용 기관별 비용 격차)
 - 영유아 가구의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식하며, 자녀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보육교육 서비스가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 봄.
 - 이용 형평성 저해 이유로 응답된 보육교육서비스 공급량의 부족과 지역별 인프라(서비스 공급) 격차, 기관별 비용 차이를 고려해 응답자 거주지의 공급량과 비용 부담과 연계되는 가구소득별 이용 행태를 분석함.
 - 1,250사례 중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70.3%로 나타남. 이용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 62.3%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19.5%,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이용해보았다는 비율이 18.2%였음.

<표 11>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경험 및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			이용해본 기관 종류			
	있음	없음	계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계
전체	70.3	29.7	100.0(1,250)	19.5	62.3	18.2	100.0(879)
보육교육서비스 총공급률							
~70% 미만	68.8	31.2	100.0(311)	12.6	71.0	16.4	100.0(214)
70~79%	67.1	32.9	100.0(514)	23.8	60.9	15.4	100.0(345)

(표 11 계속)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경험			이용해본 기관 종류			
	있음	없음	계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계
80~89%	73.9	26.1	100.0(261)	20.7	51.8	27.5	100.0(193)
90% 이상	77.4	22.6	100.0(164)	17.3	67.7	15.0	100.0(107)
$X^2(df)$	8.487(3)*			27.382(6)***			
가구소득(2)							
200만원 미만	69.6	30.4	100.0(207)	13.9	72.9	13.2	100.0(144)
200~300만원 미만	53.6	46.4	100.0(276)	15.5	68.2	16.2	100.0(148)
300~400만원 미만	75.6	24.4	100.0(418)	24.4	57.3	18.4	100.0(316)
400만원 이상	77.7	22.3	100.0(349)	18.8	59.4	21.8	100.0(271)
$X^2(df)$	51.488(3)***			16.723(6)**			

* $p < .05$, ** $p < .01$, *** $p < .001$

- 조사 대상자 중 70.3%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러한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거주 지역의 보육·교육서비스 공급량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지역별 보육·교육서비스 총 공급률²⁾ 80%미만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경험은 70%에 미달하나, 보육·교육서비스 총 공급률이 80%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70% 이상을 보여, 대체적으로 공급률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이용 편의가 제고되고 있음을 짐작케 함.
 -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3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서 3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보다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남.
 - 이용 기관 유형은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유치원 이용 경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용 형평성 저해 요소로 인식되는 것과 동일하게, 실제 이용행태에서 지역의 인프라 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 인프라 수준에 따라서는 양적인 이용 기회에서의 차이가 발생하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특정 형태의 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

2) 시군구별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대비 어린이집 정원과 유치원의 현원 비율을 '보육·교육서비스 총공급률'로 간주하여 분석함.



준이 계층화될 수 있는 결과로 분석될 수 있음.

□ 이용 기관의 비용 부담

○ 기관 유형별 비용 부담 차이 발생

- 1,250사례 중 응답 기준일 현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848사례만을 대상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추가부담액³⁾을 조사한 결과 평균 8만 6천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유형별로 추가비용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순으로 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추가부담액 부담이 가장 큰 사립유치원은 총 16만 1,945원을 추가로 부담하며, 민간어린이집은 7만 6,386원, 국공립어린이집은 5만 3806원, 국공립유치원은 4만 3,422원의 추가 부담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응답됨.
- 지원금 외 보육교육비만을 비교하면 사립유치원은 69,813원으로 7만원에 육박하나,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8,117원으로 1만원에도 못미치는 추가 부담액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가장 비용 격차가 큰 추가부담 항목은 입학금(원복, 가방 등)으로 사립유치원은 11만 9,2471원인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2만 8,366원으로 약 4배 가량의 격차를 나타냄.
- 특별활동비용도 부담이 큰 항목으로 사립유치원 이용자는 월 평균 4만 5,000원 수준, 국공립어린이집 3만 3,852원, 민간어린이집 3만 591원, 국공립유치원 2만 3,412원으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선택에 의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특별활동을 제외하고도 기본보육·교육비에도 추가비용이 들고 있으며, 입학금, 차량비, 급간식비 등 소소한 항목의 추가비용 부담이 있음.
- 이용 기관 유형별로 부담액의 차이도 커서 국공립기관 이용 시에 비해 민간/사립기관 이용시 부담액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특히 사립유치원 이용 시 추가비용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국공립 기관의 이용 가

3) 추가 비용에는 지원금 외 보육교육비, 입학금, 체험활동비, 급간식비, 차량이용비, 특별활동 비용, 기타 비용(사진 값 등)이 포함됨. 총액 산출 시 입학금은 12개월 평균액을 산출하여 합산함.

능 정원이 수요인구인 0~6세 주민등록인구의 9.6%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수요자 간 이용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표 12〉 기관유형별 비용부담의 차이(평균 비교)

단위 : 원, %(명)

구분	기관유형				F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금 외 보육교육비(월)	8,117.12	69,813.83	4,168.60	20,262.33	91.973***
입학금(원복, 가방 등) 1회별	28,366.97	119,247.31	37,841.18	59,848.65	66.394***
체험활동비	5,106.42	12,797.81	7,467.86	8,146.74	13.399***
급간식비(우유비 포함)	1,454.55	11,874.32	1,614.46	5,379.50	31.094***
차량이용비	2,201.83	10,290.06	3,262.20	6,955.92	22.886***
특별활동(특성화 활동)비용	23,412.84	45,351.35	33,852.94	30,591.89	12.119***
기타 비용(사진 값 등)	1,400.00	4,220.56	1,181.25	1,478.49	12.158***
월평균 총 실제 부담액	43,422.22	161,945.03	53,806.29	76,386.03	139.702***

주: 월평균 총 실제 부담액은 입학금을 1회별이 아닌 월평균 비용으로 변환해 산출한 결과임.

*** $p < .001$

4. 영유아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요구

-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실제 이용 실태를 비교한 결과 ‘실질적인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형평성’ 보장에 있어서의 한계가 드러남.
 - 보육교육서비스가 대리양육서비스로의 기능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인식되어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지역별 인프라 격차, 비용 차이로 인한 접근성 제한, 기관별 서비스 질 차이로 인한 ‘질 높은’ 서비스에의 기회 차이 등 문제를 드러냄.
-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요구 분석 결과, 기관 유형 및 설립유형별로 정책 지원 요구는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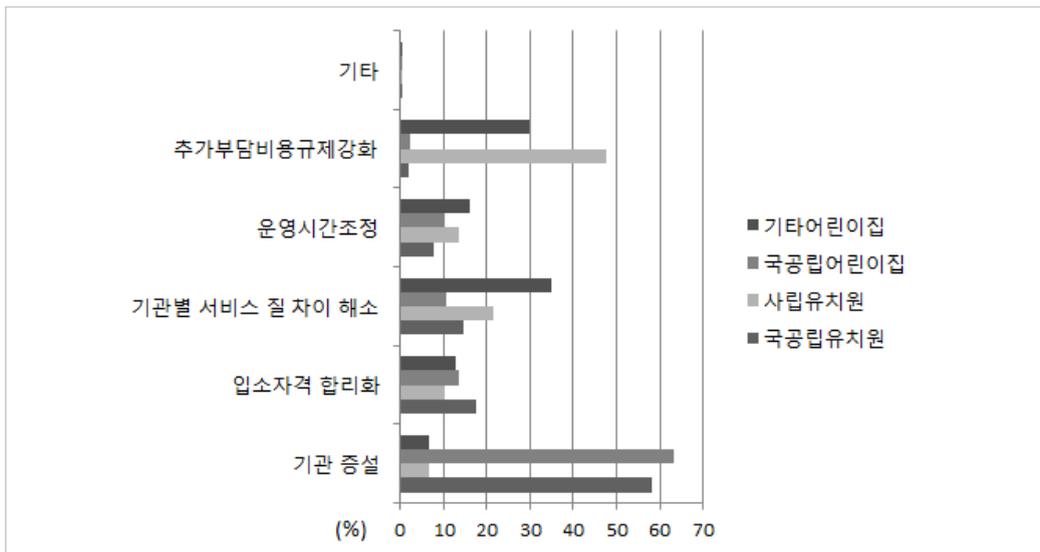
〈표 13〉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

단위: %(명)

구분	기관 증설	입소 자격 합리화	기관별 서비스질 차이 해소 (균질화)	운영 시간 조정	추가 부담 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	기타	계
국공립 유치원	58.1	17.4	14.7	7.7	2.0	0.1	100.0(1,250)
사립유치원	6.6	10.3	21.6	13.4	47.8	0.3	100.0(1,250)
국공립어린이집	63.4	13.7	10.6	10.2	2.2	0.1	100.0(1,250)
기타어린이집 (법인, 민간, 가정 등)	6.6	12.7	34.8	15.9	29.8	0.2	100.0(1,250)

○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프라의 양적 확대가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사안이나, 사립유치원은 ‘비용’의 적정화, 기타어린이집(민간, 법인, 가정 등)에는 서비스 질의 제고가 보육교육서비스 기관 이용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응답됨.

-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관 증설’이 각각 58.1%, 63.4%로 높게 나타남. 사립유치원의 경우, 추가부담 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47.8%), 기관별 서비스질 차이 해소(21.6%)순이었으며, 기타어린이집(법인, 민간, 가정 등)은 기관별 서비스질 차이 해소(34.8%), 추가부담 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29.8%)순으로 나타남.



[그림 4] 기관유형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지원

-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
 -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의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을 중요도에 따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함.
 - 1순위 응답으로는 ‘지역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관 공급’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40.6%), 이밖에 ‘민간(사립)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간의 격차 해소’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가 각각 23.7%, 22.0%로 유사하게 응답됨. 즉 영유아의 부모들은 우선 지역별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기관의 공급 격차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 양적인 균형·충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한편, 국공립/민간 기관,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현실적 격차가 해소되어 질적 균형·서비스 질의 적절성을 갖추어야 ‘이용의 실질적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외 부모 자부담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 지원으로 비용 부담에 의한 이용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요구가 나타나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이용 기회 우선 제공을 요구한 비율은 기타 응답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을 보임.

〈표 14〉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1·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체		
	1순위	2순위	1+2순위
지역 수요에 맞는 적절한 기관 공급	40.6	16.8	57.3
민간(사립)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국공립 기관과 민간(사립)기관간의 격차 해소	23.7	30.2	53.8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 해소	22.0	27.0	49.0
부모 자부담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 지원	10.3	18.8	29.1
저소득 가구, 한부모, 조손가구, 장애부모 가구 등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이용기회 우선 제공	3.3	7.1	10.3
기타	0.2	0.2	0.3
계(수)	100.0(1,250)	100.0(1,247)	200.0(2,500)

- 1·2순위를 종합한 응답 경향은 1순위의 응답경향이 유지됨. 즉, 보육·교육서비스의 양적 충분성과 지역별 균형 공급 > 민간 기관의 질 제고를 통한 민간과 국공립 기관간의 서비스 질 차이 해소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 (여전히 존재하는) 부모 자부



담 부분에 대한 비용 추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기회 제공 순으로 이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요구됨.

5. 정책 제언

□ 정책의 기본 방향

- 아동에게 있어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기회의 형평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정책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함.
 - 1989년 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중 특히 모든 어린이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 준수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아동 권리 중 ‘발달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영유아기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의 접근이 필요함.
 - 모든 아동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 사회계층간 격차를 줄이고 위화감과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근간이 될 수 있음.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방안

- 서비스 기관의 양적 확충 및 지역별 균형 배치
 -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지리적 접근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한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기회의 고른 증진을 도모함
 - 지역별·영유아 연령별 보육·교육 서비스 수급 계획 마련을 제안함.
 - 기관 유형 및 설립유형별로 수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함.
 - 지역별·영유아별 보육교육 서비스 수요 및 공급 현황이 파악되어 수급계획이 마련된 후에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보육·교육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제안함.
-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목적별 서비스 다양화 및 맞춤형 제공
 -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을 확충하더라도 동일제 보육을 원하

4)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print=y에서 2015. 7. 22 인출

는 맞벌이 가정,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단시간 이용 수요를 보이는 가정 등 가구 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의 목적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보육·교육 서비스의 다양 화와 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함.

〈표 15〉 맞춤형 보육·교육 서비스 모델(안)

	모델 A(대리양육 지원 서비스)	모델 B(가정 내 양육·아동발달 지원 서비스1)	모델 C(시간제 일시 보육서비스)	비고
1) 목적	- 취업모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대리양육 필요 가정 지원	- 장시간 대리양육을 요 하지 않는 가정의 양 육부담 경감, 아동발 달 지원	- 가정양육 가구 지원 + 모든 가구의 단시간 일시 돌봄 욕구 충족	
2) 주대상	- 맞벌이 가구, 취업 한 부모 가구, 직업훈련 등 취업 준비 가구, 부 모 장애, 병환 등 부모 의 양육이 어려운 가 구, 부모 돌봄을 요하 는 다른 가구원이 있 는 가구 등	- 양부모 가구 중 부모 중 1명만 취업중인 일반 가구, 맞벌이 가 구이나 장시간 보육을 원하지 않는 가구, 맞 벌이 가구이나 모가 육아휴직 이용 중인 경우 등	- 일시 돌봄을 원하는 가구 - 단, 평일 중 모델 A 또는 모델 B 정규 서 비스 이용가구는 원 기관의 이용 시간 내 일시 보육서비스 이용 은 제한	
3) 운영 형태	-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현행 어린이 집 종일제) 이상 기본 운영 - 단, 오후 6시 부터는 저녁급식 제공가능하 도록 지원	- 1일 3~7시간 이내 탄 력 운영	- 회원가입 후 예약제로 운영(현행 동일) + 긴 급 일시 보육 이용 가 능(추가 비용 부담) - 종료 시간 오후 6시~9 시 이내 탄력 운영	- 모델 C는 일시 돌봄 욕구 충족 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주말, 휴일, 야간 운 영 개방 권장
4) 이용 비용	- 주대상 기본 이용료(정 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모델 B 대상이 이용할 경우 모델 B 이용료 외에는 자부담	- 주대상 기본 이용료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모델 A,B 서비스 이용 가구는 전액 자부담 - 가정 내 양육 가구는 소득계층별 정부지원 차등	- A, B간 정부지 원단가 차등

○ 서비스 질 균질화

-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질 균질화 및 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 추진을 통해 이용 기관의 서비스 질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기 차별적 경험 및 발달 격차 를 해소함.
-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근거법률의 정비로 운영 기준을 동질화하 며, 장기적으로 통합 법률 제정 추진



- 기관의 양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기관 유형 및 기관 간 교사 자질 차이로 인한 서비스의 질 차이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저해 요인이 되며,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균질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어린이집의 설립 및 설치 기준 점진적 강화: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만 진입을 허용하며, 최소기준 미달 기관 도태를 유도함.
- 비용 규제 및 지원 강화
 - 기관별 추가부담 비용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기관별 비용 부담 차이를 감소시켜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함.
 - 지역 및 설립유형별로 추가부담 비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의 저해요인임. 추가부담 비용의 적정선을 제시 등 방안이 필요함.
 - 추가부담 비용 차등 지원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부담 비용 중 일부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함.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선택 가능 기관 폭을 넓혀 계층 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기현·신인철(2012). 유아교육 및 보육 경험의 장기 효과: 또래·교사관계 및 학업성취도. 한국 사회학, 46(5), pp.259-288.
- 김은정(201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진단과 과제. 2014년도 제 1차 인구포럼 자료, pp. 7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이혜민(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해외문헌

- OECD(2011).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OECD publishing.

웹사이트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www.unicef.or.kr)

PART 05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지원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통합 생산방안
| 박진아
-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방안
| 권미경
-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 김은설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통합 생산방안

박진아

1.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개발의 필요성
2.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의 개발 방향 및 절차
3.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
4.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생산방안
5. 통합 생산을 위한 정책제언

요약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현대사회에서 교육정책의 중요성,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빙자료에 대한 요구, 국제 지표 비교를 통한 추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정립, 이를 통한 영유아·교육 보육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됨.
- 정책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지표가 단순히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통한 지표 개발이 필요함.
- 본 원고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 개발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하나의 큰 축(y축),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다른 하나의 큰 축(x축)으로 하여 이차원적인 지표 개발(틀)을 제시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계 항목 통합을 위한 지표 생산을 위해 6개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국내통계 중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국외통계, 생산필요 통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을 위해 통합 생산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통계 수요 파악을 통한 신규 통계 개발을 제안함.

1.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개발의 필요성

-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 동력이 되는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인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을 관리하고자 함(공은배 외, 2011:3).
 -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환경, 새롭게 등장하는 복합적 정책 영역 및 미래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통계 지표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사회 각 부문의 지표를 개발하는 중요한 목적은 개별지표에서 얻어지는 각종 정보가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각각의 조직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임(권미경·김문정, 2012).
 - 해외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도 급변하는 사회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지표의 개발을 강조하는 추세임.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지표는 각 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의 발전과 정책시행을 위한 현 수준의 진단 및 정책 시행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추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게 됨.
 - 최근 근거기반정책관리(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의 확산에 따라 정책 과정에서 통계지표의 활용이 강화됨. 즉, 데이터(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바르게 평가하고자 함(양혜원 외, 2011:3).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의 중요성 측면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단순히 통계 생산을 위한 생산주기, 생산방법, 생산항목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는 각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새롭게 통합 생산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더욱 필요함.
 - 본 원고에서는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 통계 생산을 위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표(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보육 통계 통합 생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의 개발 방향 및 절차

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의 개발 방향

1)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 「유아교육법」 제3조의2에서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법률 제12336호, 2014.1.28., 일부개정).

〈표 1〉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주요 정책 분야 및 핵심과제

영역	핵심과제 내용
유아교육 기회확대	1) 유치원 무상교육 지속 확대 2)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3) 유치원정보공시제도 정착 4) 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기준 마련 5)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유치원 급식·보건·안전 개선
유치원 운영효율화	1)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 2) 사립유치원의 지원 체제 개선 3) 유치원 평가 개선 4)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도입 5) 유치원 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1)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2) 누리과정 지속 발전 3) 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의 활용 4)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5) 방과후과정 전담교사 배치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1) 누리과정 담당 교사 자격기준 강화 2)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지원 3) 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 정착 4) 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 방식 개선 5) 유치원 교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1)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 3) 유아교육 홍보 강화 4) 유아교육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강화 5) 3-5세 누리과정 운영지원 강화

자료: 김영옥 외(2013:38).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르면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르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대통령령 제25164호, 2014.2.11., 일부개정).

○ 영유아의 교육·보육 정책추진은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의 ‘보육계획’을 토대로 함.



-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김영옥 외, 2013)」와 보건복지부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2013~2017)」 관련 내용을 통계지표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의 중심축으로 구성함.

□ 교육부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총 5개 영역의 정책분야에서 20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음.

<표 2>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비전 및 과제

추진과제	세부 내용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1)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2)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1) 아동과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2) 장애아·다문화 아동 맞춤형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1)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2)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1)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2)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제공 3) 아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기반 마련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1) 참여·정보공개·신뢰 등 민관 협력 기반 조성 2)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1)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2)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3)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방안 검토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12.31.: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 보건복지부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 및 6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표 2>와 같음.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13~17 교육·보육의 중장기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보임.
- 본 원고에서는 교육·보육 통계의 통합 구축을 목표로 하여 각 부처의 기본계획 내용을 재구성하고 동일한 내용은 재 범주화하는 작업을 실시함(부록 표 1참조), 추후 교육·보육 통계 통합 지표 틀을 구성하기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공통 방향을 제시함.

2) 통계의 체계론적 접근방법론

□ 체계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를 개발하기 위해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모형 구축이 요구됨.

○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체계론적 접근방법(system approach)’을 활용함.

- 체계론적 접근방법이란 일련의 제도시행의 과정 속에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상호 기능적이고 구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설계, 실행, 평가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제시해 주는 통합적이며 논리적인 접근방식임(고경환 외, 2005).

- 이 분석 방법은 사회, 교육분야의 지표개발에 많이 이용되어왔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지표개발을 위해 교육의 투입(input), 교육과정(process), 교육결과(output)의 세 요소로 구분하여 요소별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교육체제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한 지표연구가 많이 이루어짐.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와 함께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는 이와 같은 체계화된 모형과 함께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차원적인 모형 개발이 요구됨.

○ 본 원고에서는 체계론적 접근 방법 중에서도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연관으로 구성된 Logic model¹⁾을 적용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나.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의 개발 절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의 개발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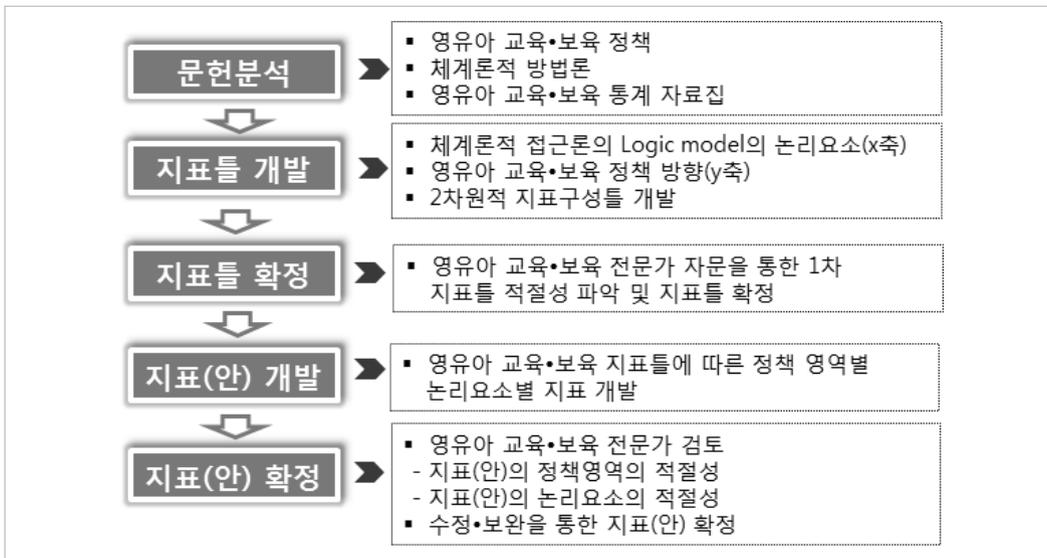
○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 연구보고서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및 통계 체계 방법론 관련 문헌분석을 실시

- 특히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큰 흐름인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세부계획들을 검토하여 중점적으로 구성

1) Logic model은 투입(resource or input), 활동(activity), 결과(output), 성과(outcome) 요소들의 논리적 연결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는 “만약 그렇다면, 이럴 것이다”라는 체계로 연결됨.



- 국무조정실 유보 통합추진단의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안」, OECD의 유아교육·보육의 「Start strong III」을 함께 참조하여 국내외 정책 방향의 흐름을 고려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관련 연구들을 통해 제안된 지표들, 지표 개발 관련 방법론과 통계청, 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구축을 위한 방법론 연구 관련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1차로 지표 구성 틀을 구성
- 유아교육·보육 및 통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1차 지표 구성틀에 대한 적절성 파악
 - 정책영역을 통계 체계의 한 축(y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정책영역별로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성과의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또 다른 축(x축)을 구성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관련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및 그 외 자료집(유아교육 연차보고서, OECD 교육지표, OECD Family database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지표를 검토하여, 이 중 본 지표(안) 체계에 적합한 지표를 구성함.
- 유아교육·보육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정책 영역별 세부지표의 적절성과 세부지표별 논리요소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함(그림 1) 참조).



[그림 1]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의 개발 절차

3.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

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 구성 시 고려 요소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 구성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의 일부 지표의 경우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 현재는 각 부처에서 자료 생산이 됨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기 어려운 지표도 포함됨.
 - 예를 들면 교육·보육 예산 대비 공공형 유치원/공공형어린이집 재정지원액, 중앙정부의 교육·보건복지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등이 해당됨.
 - 현재 교육·보육의 통합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아교육·보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추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지표 생산을 위해 제시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에서 정성적 지표를 포함함.
 - 대부분 통계 지표는 수집 가능한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나 정책 성과에 해당하는 영역은 교원/보육교직원 및 비용지원 등 각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효과를 보는 당사자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됨.
 - 실제 승인통계인 보육실태조사의 일부 항목에서도 부모 또는 보육교직원의 만족도에 대한 통계 자료가 조사되고 있기도 하여, 주관적인 지표이기는 하나 정량적 지표 외에 정성적 지표도 일부 제시하였음.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의 일부 지표의 경우 상충되는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면, 3-5세 누리과정(무상교육비) 지원율, 0-2세 무상보육료 지원율, 0-5세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율 등임.
 - 본 지표(안) 구성을 위해 통합 통계 생산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부의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부의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중점을 두고 공통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교육부의 경우 유아교육의 실현을 위한 의무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전제로 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보육,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이처럼 아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통계 생산을 위한 지표 구성의 과정이 상충되지만 정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지표가 함께 제시하였음.
- 통계의 체계론적 접근방법론의 logic model에 의해 정책 영역별 투입, 과정, 산출, 성



과에 해당하는 각 지표 관련 내용은 정책 영역범주 하에서의 1:1 대응이 아닌 각 정책 영역별로 교차가능함.

-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지표 연구에서는 체계론적 접근방법론을 적용하되 특정 정책 영역이 투입, 또 다른 정책영역이 과정 등으로 각 정책영역별로 투입, 과정, 산출, 성과로 제시하였으나([그림 1] 참조), 본 원고에서는 정책영역별로 투입, 과정, 산출, 성과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타 정책 영역 관련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음.
- 본 원고에서는 투입, 과정, 산출, 성과의 정책 수행에 따른 단계적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최대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투입과 과정을 동일한 단계로 범주화하거나 성과가 없이 산출만을 제시하는 경우 있음.

나.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의 개발절차에 의해 구성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을 제시하면 <부록 표 2>와 같다.
- 정책영역의 경우 ‘비용지원확대’, ‘교육/보육 교직원’, ‘기관(다양한 서비스 지원/교육·보육 과정)’, ‘물리적 환경’, ‘공공성 확대 및 질관리’, ‘행·재정’의 총 6개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안)을 ‘투입’, ‘과정’, ‘산출’, ‘성과’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함.

4.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생산방안

-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 3개 통계자료가 국가 승인통계로 생산되고 있음.
- 이외에도 비승인 통계라는 한계는 있으나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의 내부문서 형태 및 정보공시항목,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연차보고서 등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가 취합되고 있음.
- 통계 자료는 생산되고 있으나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거나, 통계 자료로서의 신뢰성

을 갖기 위해서는 승인통계와 같이 추가 데이터 검증과정이 필요함

- OECD에서 요청하는 일부 통계 자료들은 한국교육개발원과 보건복지부 등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이 경우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로 국외에서 필요로 하는 기준을 산출하는 것에 일부분 어려움이 있음도 보고되고 있음.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계 항목 통합을 위한 지표 생산을 위해 6개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국내통계 중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국외통계, 생산필요 통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제안된 통계 지표의 경우 지표 산식을 우선 고려하고 이를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출이 가능한 지표와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로 구분함.
 - 각 영역별 통계 지표 생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4>~<표 9>와 같음.

□ <표 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비용지원 확대」 영역의 경우, 투입단계에서 대부분 재정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비승인 통계형태로 부처 내부자료로 취합되고 있으며, 과정과 산출관련 지표만이 대부분 승인통계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표 4> 「비용지원 확대」 영역 통계 지표 생산방안

	비용지원확대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투입 (input)	1. 국내 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보육 공공지출 비율		√	○	
	2. 중앙정부 교육·보건복지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	●	◎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		
	4.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교육·보육 지원 예산 비율		√		
과정 (process)	5.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 공공 지출액	√		○	
	6. 3-5세 누리과정(무상교육비) 지원율	√			
	7. 0-2세 무상보육료 지원율	√			
	8. 0-5세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율	√			
산출 (output)	9. 0-5세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		○	
	10. 0-2세 기관 미이용 영아 비율	√	√	○	
	11.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평균 추가 필요 경비	√			



(표 4 계속)

	비용지원확대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성과 (outcomes)	12. 가구 소득 대비 연간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비율		√		
	13.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감소율		√		◎
	14. 교육·보육 비용 지원 만족도		√		◎
	15.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			●	◎

주: 1) 국내통계 중 승인/비승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경우 '√', 국외 통계 중 통계가 생산되는 경우 '○', 국외 통계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경우 '●', 새롭게 통계 생산이 필요한 경우로 '◎'로 표시함.

2) 일부 지표의 경우 교육, 보육의 통합 지표로 제시되면서 현재 이분화된 시스템상에서는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승인통계('√')와 생산필요통계('◎')로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 <표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교원/보육교직원」 영역의 경우,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비율을 제외하고 5개 정도의 지표는 비승인통계로 생산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표 관련 내용이 조사되지 않고 있음.

- 이는 그동안 교육·보육 통계 조사가 기관 중심으로 행해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교원/보육교직원 영역의 경우 관련 지표가 새롭게 생산되어야 함.

<표 5> 「교원/보육교직원」 영역 통계 지표 생산방안

	교원/보육교직원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투입 (input)	1. 교사 수당/처우개선비/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율				◎
	2. 교원/보육 교사 1인당 대체교사 비율				◎
	3. 교사 1인당 연수 지원액				◎
	4. 4년제 출신 유치원/보육 교사비율				◎
	5. 교원/보육교직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율 및 지급액				◎
과정 (process)	6. 교원/보육교직원 급여액		√		◎
	7. 교원 1인당 연간 근무 일수				◎
	8. 교원 1인당 주당 근무시간				◎
	9. 교사 교육 및 연수 참여율		√		
	10.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비율	√			○
	11. 교사 1인당 연평균 교육 및 연수 시간		√		

(표 5 계속)

	교원/보육교직원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산출 (output)	12. 공립교원 대비 사립교원 연평균 급여액		√		◎
	13.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대비 미지원어린이집 교사 연평균 급여액				◎
	14. 교사의 기관당 평균 근속년수				◎
성과 (outcomes)	15. 교사의 직무/근무만족도				◎
	16. 교사 이직 감소율				◎
	17. 교사의 전문성(교수능력) 향상				◎

주: 1) 국내통계 중 승인/비승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경우 '√', 국외 통계 중 통계가 생산되는 경우 '○', 국외 통계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경우 '●', 새롭게 통계 생산이 필요한 경우로 '◎'로 표시함.

2) 일부 지표의 경우 교육, 보육의 통합 지표로 제시되면서 현재 이분화된 시스템상에서는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승인통계(√)와 생산필요통계(◎)로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표 6〉 「기관」 영역 통계 지표 생산방안

	기관(다양한 서비스 지원/교육·보육 과정)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투입 (input)	1. 취약/특수보육어린이집 비율(장애, 24시간, 시간 연장제, 일시보육 기관비율)	√			
	2. 유치원/어린이집 특수학급 비율 (장애아통합교육 실시 유아교육 기관 비율)		√		
	3.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비율		√		
	4. 기관당 평균 교재교구비 지원액		√		
과정 (process)	5. 시설당 평균 누리과정 운영시간	√	√		
	6.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비율		√		
	7.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비율		√		
	8.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율		√		
	9. 시도 및 지역교육청 내 유아전담 장학사 비율		√		
	10. 시도별 유치원/어린이집 컨설턴트 비율				◎
	11.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		
산출 (output)	12. 0-5세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 기관 이용시간	√			
	13. 취약/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비율	√			
	14. 유치원 특수학급 이용비율				◎
	15.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비율		√		
	16. 다문화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			



(표 6 계속)

기관(다양한 서비스 지원/교육·보육 과정)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산출 (output)	17. 맞벌이 가정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
	18. 농어촌 지역 영유아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		
	19. 컨설팅 참여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	
	20. 유치원 1기관당 전담 장학사 비율		√	
	21. 유치원/어린이집 1기관당 교육·보육 컨설턴트 비율			◎
성과 (outcomes)	22. 보육, 교육 기관 이용 만족도	√		
	23. 누리과정 효과(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성취도)			◎
	24. 직장보육시설 대상기업 의무 이행률		√	

주: 1) 국내통계 중 승인/비승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경우 '√', 국외 통계 중 통계가 생산되는 경우 '○', 국외 통계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경우 '●', 새롭게 통계 생산이 필요한 경우로 '◎'로 표시함.

2) 일부 지표의 경우 교육, 보육의 통합 지표로 제시되면서 현재 이분화된 시스템상에서는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승인통계('√')와 생산필요통계('◎')로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 <표 6>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기관」 영역의 경우, 투입과 과정측면에서 비승인통계가 승인통계에 비해 약간 많은 경향성을 나타냄.

○ 일부 생산이 필요한 지표도 있으나 대부분 지표가 현재 생산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비승인통계에 해당하는 지표관련 자료의 추가 검증이 필요함.

□ <표 7>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물리적 환경」 영역의 경우, 재정 관련 지표와 안전 관련 지표가 비승인통계이거나 통계 생산이 필요함.

○ 기관(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지표 생산을 적극 고려해야 함.

<표 7> 「물리적 환경」 영역 통계 지표 생산방안

물리적 환경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투입 (input)	1.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율	√		
	2. 기관당(유치원/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액		√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률		√	

(표 7 계속)

	물리적 환경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투입 (input)	4.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기관 비율	√			
	5. 영유아 1인당 교지 면적	√			◎
	6. 영유아 1인당 교사 면적	√			◎
	7.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			
과정 (process)	8. 연간 시설·설비 안전점검 실시율		√		
	9. 연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횟수		√		
	10. 연간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율				◎
산출 (output)	11. 연령별 학급/반당 평균 영유아수	√			
	12. 연간 안전사고 발생률(교통안전, 급간식 안전, 시설설비안전, 물놀이안전 등)		√		
성과 (outcomes)	13. 부모 시설환경 만족도	√			
	14. 기관 내 안전사고 감소율				◎

주: 1) 국내통계 중 승인/비승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경우 '√', 국외 통계 중 통계가 생산되는 경우 '○', 국외 통계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경우 '●', 새롭게 통계 생산이 필요한 경우로 '◎'로 표시함.

2) 일부 지표의 경우 교육, 보육의 통합 지표로 제시되면서 현재 이분화된 시스템상에서는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승인통계('√')와 생산필요통계('◎')로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 <표 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공공성 확대 및 질관리」 영역의 경우, 평가인증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비승인 통계로 제시되거나 통계 생산이 필요함.

○ 특히 공립유치원 중 단설 유치원 비율의 경우 외부로는 공개가 되지 않으나 교육통계의 원자료에서는 생성되고 있어 지표 생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자료 정보 외에 추가 통계 항목의 생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함.

(표 8) 「공공성 확대 및 질관리」 영역 통계 지표 생산방안

	공공성 확대 및 질 관리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투입 (input)	1. 교육·보육 예산 대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액		√		
	2. 교육·보육 예산 대비 공공형 유치원/공공형어린이집 재정지원액		√		



(표 8 계속)

	공공성 확대 및 질 관리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과정 (process)	3.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현년도)	√			
	4. 유치원 평가 참여율(현년도)		√		
산출 (output)	5. 신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증가율				◎
	6. 국공립 유치원 대비 단설 유치원 증가율				◎
	7.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율, 유지율	√			
성과 (outcomes)	8.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평가 영역별 질적 수준 정도				◎
	9.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의 부모 만족도				◎

주: 1) 국내통계 중 승인/비승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경우 '√', 국외 통계 중 통계가 생산되는 경우 '○', 국외 통계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경우 '●', 새롭게 통계 생산이 필요한 경우로 '◎'로 표시함.

2) 일부 지표의 경우 교육, 보육의 통합 지표로 제시되면서 현재 이분화된 시스템상에서는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승인통계('√')와 생산필요통계('◎')로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 <표 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행·재정」 영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비승인 통계로 제시되거나 통계가 생산되지 않아 새롭게 통계 생산이 필요함.

<표 9> 「행·재정」 영역 통계 지표 생산방안

	행·재정	국내통계		국외 통계	생산필요 통계
		승인 통계	비승인 통계		
투입 (input)	1.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			
	2.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 설치율		√		
	3. 기관당(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행·재정 담당 공무원수		√		
산출 (output)	4.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율				◎
	5.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 이용율		√		
성과 (outcomes)	6. 기관의 지역사회 내 지원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만족도				◎
	7. 부모의 지역사회 내 지원 네트워크이용에 대한 만족도				◎

주: 1) 국내통계 중 승인/비승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가능한 경우 '√', 국외 통계 중 통계가 생산되는 경우 '○', 국외 통계 자료로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 생산되지 않는 경우 '●', 새롭게 통계 생산이 필요한 경우로 '◎'로 표시함.

2) 일부 지표의 경우 교육, 보육의 통합 지표로 제시되면서 현재 이분화된 시스템상에서는 승인통계와 비승인통계로 동시에 생산되고 있어 승인통계('√')와 생산필요통계('◎')로 동시에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5. 통합 생산을 위한 정책제언

- 통계 지표 생산의 경우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생산방안이 다르게 이루어짐.
 - 기관 관련 영역처럼 승인통계를 통한 자료가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 재정 및 비용 지원, 안전, 행·재정 영역처럼 비승인 통계로 자료가 생산되는 경우, 일부 국외 자료로 생산되는 경우 및 추가 생산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함.
 -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생산과정의 표준화된 지침을 작성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통합을 수행해 나가야 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통합 생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통합 생산계획 수립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관련 통계 및 정보는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체계가 모두 다르고 통계 정보들이 산재되어있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기준의 통계가 제공되지 못함.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생산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통합적인 생산계획이 필요함.
 -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는 현재 각 부처별(어린이집-보건복지부, 유치원-교육부)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나, 영유아란 정책대상은 동일함. 따라서 연계성 있고 실효성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의 수립을 위해 통합적인 통계생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통합 통계 생산계획이 필요함.
- 통합 통계 생산계획 수립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생산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총괄할 수 있는 관리기구가 필요함.
 - 관리기구의 형태로는 첫째, 통계 생산기관들의 협력을 이끌고 조정하며, 통합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관리기구와, 둘째,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를 통합 생산 및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통계 총괄 기구를 제안함.
 -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처의 통계를 컨트롤 할 기구를 설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이 같은 기구 설립보다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가통계위원회의 활용을 제안함.



나. 통계 수요 파악을 통한 교육·보육 신규 통계 개발

- 영유아 교육·보육과 관련하여 생산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는 그 수가 매우 적고, 제공하고 있는 통계가 기관(시설)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인 내용이어서, 통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를 개발해야 함.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안)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대부분이 투입(재정, 인력 등)에 대한 통계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보육 과정, 산출, 성과에 관련된 통계는 거의 조사되고 있지 않음.
 - 부족한 부분에 대한 통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뿐 아니라 관련 통계 정보들을 정리하여 신규 통계로 개발 가능한 항목들을 선별하여 생산하고, 새로운 통합 조사를 기획하고 시행함으로써 교육·보육 통계의 통합 생산을 추진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학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담당자, 연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수요와 생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함.

다. 수요자 맞춤형 통합 통계 서비스 구축

- 지금까지의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국가 전체의 교육·보육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행정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 서비스 체계는 부족함.
 - 최근 들어 영유아 대상의 다양한 정책들이 실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통계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
 -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는 주로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의 통계 제공 서비스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계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의 활용과 분석이 가능한 수요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체계에서 수요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활용한 방안을 함께 제안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고경환·장영식·오영희·권선진·김명중·남현주(200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통계생산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은배·김상호·박재민·이기준·이미라·오지연·전민선(2011). 국가교육통계 체계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권미경·김문정(2012).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옥·이기숙·신은수·문미옥·박은혜·장명립·정미라·이화룡·조부경·우명숙·문무경·조형숙·최윤정·김진영·김은영·서현(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 나정·장명립(2001). 유아교육 지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현·이재창·유홍림·이석훈·박진우(2010).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적 고찰. 한국과학기술한림원·통계청.
- 양혜원·조현성·안주엽·임학순·김소영(2011). 문화예술통계 중장기 발전 실행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3. 12. 31).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부록

〈부표 1〉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개발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정책 방향(‘13~’17)

구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1. 비용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기회 확대-유아 무상교육 지속 확대 학부모 부담 경감-유치원비 인상을 상한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0-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경감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2. 교육·보육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기준 강화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착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유치원 교원임용 및 인사방식 개선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보육인력의 처우 개선
3. 기관 운영	<p>다양한 서비스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수요자 중심 방과후 운영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방과후과정 전담인력 배치 <p>교육·보육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누리과정 정체성 명확화 및 질적 발전,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누리과정 내용 검토 및 수정, 누리과정 운영시간 조정)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유아교육 교재교구 인증제 도입 및 우수 프로그램 활용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아동과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장애아·다문화 아동 맞춤형 지원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제공
4. 물리적 환경 (건강·영양·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기회 확대-유치원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반 조성 유아교육 기회 확대-유치원 시설·설비의 적정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아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기반 마련



(부표 1 계속)

구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5. 공공성 확대 및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 기회 확대-유치원 확충, 유치원 신증설의 적정화 유치원 운영 효율화-공립유치원 운영 개선(연령별 학급편성확대) 유치원 운영 효율화-사립유치원 지원 및 운영체제 개선(공공형유치원 도입 추진) 유아교육 기회 확대-내실 있는 유치원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정착 유치원 운영 효율화-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유치원 운영 효율화-유치원 평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
6. 행·재정 전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운영 효율화-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 및 발전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교육원 운영 활성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유아교육 지원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참여·정보공개·신뢰 등 민관 협력 기반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 시스템 구축(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부표 2〉 영유아 교육·보육 통계 지표 구성(안)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성과(outcomes)
비용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보육 공공지출 비율 중앙정부의 교육·보건복지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보육 예산 대비 유아교육·보육 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교육·보육 지원 예산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 공공 지출액 3-5세 누리과정(무상교육비) 지원율 0-2세 무상보육료 지원율 0-5세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0-5세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0-2세 기관 미이용 영아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평균 추가 필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 소득 대비 연간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 지출 비율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감소율 교육·보육 비용 지원 만족도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
교육/보육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수당/처우개선비/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보육교직원 급여액 교원 1인당 연간 근무 일수 교원 1인당 주당 근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립교원 대비 사립교원 연평균 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직무/근무만족도 교사 이직 감소율 교사의 전문성(교수능력) 향상

(부표 2 계속)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성과(outcomes)
교육/보육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보육 교사 1인당 대체교사 비율 교사 1인당 연수 지원액 4년제 출신 유치원/보육 교사비율 교원/보육교직원 초과근무 수당 지급율 및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교육 및 연수 참여율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비율 교사 1인당 연평균 교육 및 연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대비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연평균 급여액 교사의 기관당 평균 근속년수 	
기관 (다양한 서비스 지원/교육보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특수보육어린이집 비율 (장애, 24시간, 시간연장제, 일시 보육 기관비율) 유치원/어린이집 특수학급 비율 (장애아통합교육 실시 유아교육 기관 비율)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비율 기관당 평균 교재교구비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당 평균 누리과정 운영시간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비율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비율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율 시도 및 지역교육청 내 유아전담 장학사 비율 시도별 유치원/어린이집 컨설턴트 비율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현황 0-5세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 기관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비율 유치원 특수학급 이용비율 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비율 다문화영유아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맞벌이 가정 자녀의 교육·보육기관 이용률 농어촌 지역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관 이용률 컨설팅 참여 유치원/어린이집 비율 유치원 1기관당 전담 장학사 비율 유치원/어린이집 1기관당 교육·보육 컨설턴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보육 기관 이용 만족도 누리과정 효과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유아 성취도) 직장보육시설 대상기업 의무 이행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율 기관당(유치원/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액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률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 기관 비율 영유아 1인당 교지 면적 영유아 1인당 교사 면적 영유아 1인당 교실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시설·설비 안전점검 실시율 연간 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실시 횟수 연간 교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율 연령별 학급/반당 평균 영유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안전사고 발생률 (교통안전, 급간식 안전, 시설설비 안전, 물놀이안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시설환경 만족도 기관 내 안전사고 감소율



(부표 2 계속)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성과(outcomes)
공공성 확대 및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보육 예산 대비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액 교육·보육 예산 대비 공공형 유치원/공공형어린이집 재정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현년도) 유치원 평가 참여율(현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증가율 국공립 유치원 대비 단설 유치원 증가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율, 유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평가 영역별 질적 수준 정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의 부모 만족도
행·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 설치율 기관당(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 행·재정 담당 공무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율 유아교육진흥원 및 체험원 이용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의 지역사회 내 지원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만족도 부모의 지역사회 내 지원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만족도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방안

권미경

1. 서론
2.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모형 및 추진과정
3.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성과
4. 유보통합과 유보협력

요약

- 본 연구는 6개년 협력 시범연구의 마지막 해 연구로, 시범연구 종료 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 지원체계 주도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보협력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자체중심 유보협력의 강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를 구성함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사이 차별 없이, 균형 있는 지원이 가능함. 둘째, 이를 통해 계획적으로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협력지원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음. 셋째, 지원체는 유아교육과 보육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영유아 교사, 부모를 위한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협력지원 확대 및 확산의 방향 모색이 가능할 것임. 넷째, 지자체 주도적 협력지원은 지속가능한 확산을 가능하게 함.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유보통합이 모두의 관심 속에 추진 중이며 이 수월하지 않을 과정에 ‘균형 잡힌 하나 됨’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임.
-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 관련 연구를 균형적으로 수행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해왔고, 이원화된 체계에서 유보협력이라는 방법으로 그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총 6년의 연구 기간으로 본 연구가 기획됨.
- 유보통합이 행정부처의 통합을 비롯하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하나 됨’을 의미한다면, 그에 비해 유보협력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



로 상호 이해의 확대를 통한 자발적 협력을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하나 됨’을 의미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위로부터의 행정적, 정책적 통합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체계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서로 다름’이 지니는 상생적 협력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력적 통합을 준비하는 기초 작업으로 진행됨.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증진함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음에 역점을 두고, 지자체 주도적 협력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협력 주체간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누리과정 운영 협력의 안착 도모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는 6개년 협력 시범연구의 마지막 6차년도 연구로서, 시범연구 종료 후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중협력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지원체계 주도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보협력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¹⁾

나. 연구배경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연구의 기본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 협력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 유형 발굴 및 개발
 -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심 현장 기반 접근으로 아래로부터 협력을 전개
 -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의 중간 행정체계 협력참여 활성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에 동원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 현 제도권 내 실행 가능한 협력 전략 발굴 및 시도
 -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성과 분석 및 반영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연구(영차프로젝트) 6개년 추진 경과²⁾

1) 이하의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 2014년도 일반연구과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VI)(권미경·이진화·김정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2) 2009~2014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연구의 추진경과 및 성과는 <부록 1>로 첨부함.



자료: 1) 문무경 외(2012).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적용과정 및 성과분석 연구(IV). p. 12. [그림 1-1-1]에 기초하여 추가 구성함.

2) 유아정책연구소(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매뉴얼 p. 10 [그림 1-2]임.

[그림 1]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연구 6개년 추진경과

다. 6차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연구 방향

□ 2014년 6차년도 연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이 지역사회의 양육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음에 주목하고, 동시에 본 시범연구가 종료 후에도 협력성공에 동의한 협력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함에 주안점을 둠([그림 2] 참조).

□ 첫째, 지자체 중심의 협력을 강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은 불필요한 경쟁 관계를 넘어서 부모가 자신의 형편에 적합한 기관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 보육 담당, 시·군·구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함.

□ 둘째, 집중협력지역을 선정함.

- 협력 의지가 높고, 역량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중심의 협력을 집중 적용함으로써 지원체계와 시범기관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기관 선정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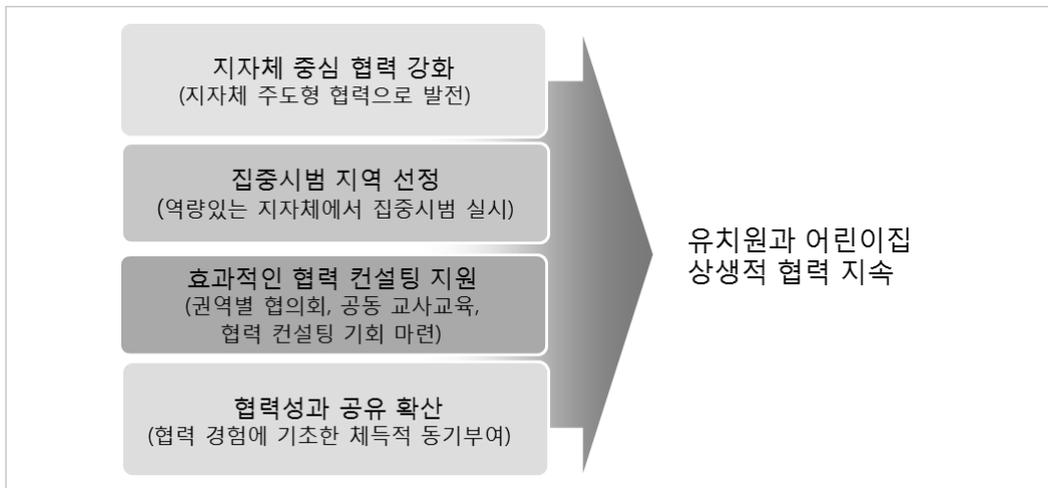


는 기존 시범 참여기관 중 희망하는 경우 우선 참여하도록 하여 처음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의 협력을 위한 비계 설정의 역할을 기대함.

□ 셋째,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컨설팅 기회를 부여하여 협력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협력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자원으로 고려함.

□ 넷째, 시범참여 협력 쌍의 성과를 리플릿, 홈페이지, 성과보고회, 협력매뉴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협력 쌍은 인근 지역에서 협력성과를 시범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까지 확산하는 거점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역할을 기대함.



자료: 권미경 외(2013).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모델 적용 시범연구(V). p. 129. [그림 VI-2-1]임.

[그림 2] 2014년 6차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시범연구 방향

2.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모형 및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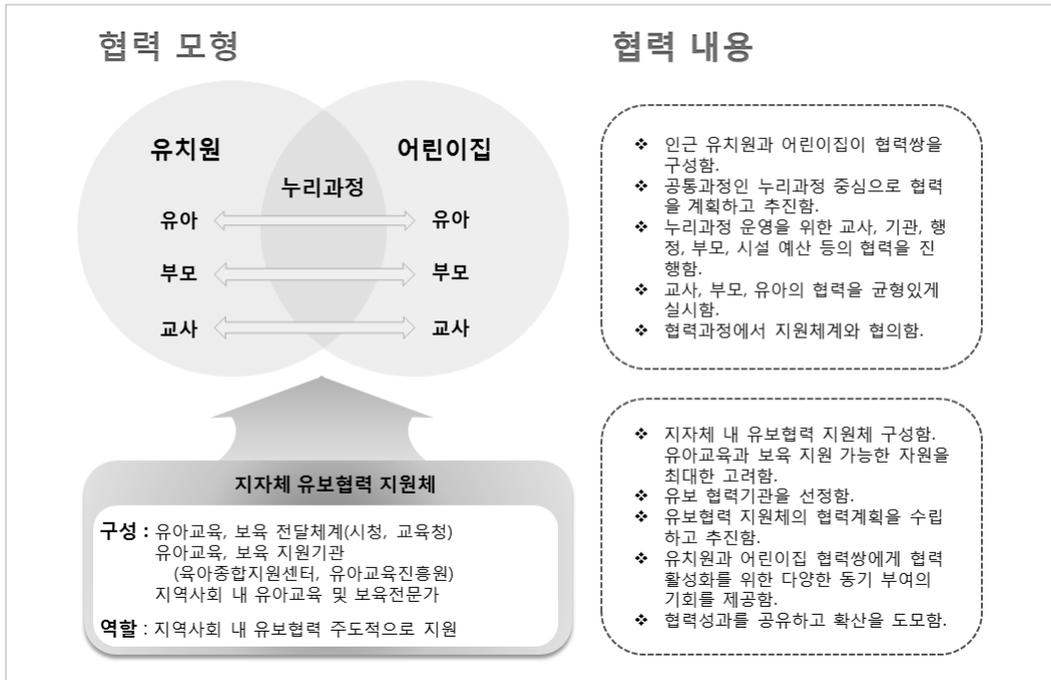
가.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모형

1) 개념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온 유보협력의 모형을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 6차년도 시범연구에서 대전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유보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강점을 살린 상생적 협력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행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지자체 지원체계의 동의에 기초하여 비롯됨.
- ‘지자체 주도적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이란 본 연구소(영차프로젝트)가 주도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적용 시범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 간의 협력이 현장에서 지속되기 위해 지자체가 협력의 주체가 되어 기관의 선정, 예산의 지원, 협력 동기를 부여하여 협력을 활성화함을 의미함.
- 이는 지역사회 내 인근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유아교육 보육관련 행정전달체계가 주도하여 협력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뜻함.

나.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 구성 및 역할

- ‘지자체 주도적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을 도식화 시켜보면 [그림 3]과 같음.



[그림 3]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모형

- 본 협력모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운영되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협력의 구심점으로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토대로 교육·보육활동을 구성하기 때문임.
- ‘지자체 주도적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를 구성함.
-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는 지자체 내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전달체계(시도교육청, 시도청)와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기관(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수)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능동적으로 지원 가능한 주체들이 참여함.
-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는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실제적 협력을 진행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쌍을 논의하여 선정함.
-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는 활용 가능한 자원과 협력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여 연간 협력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쌍도 누리과정 운용

을 위한 연간 협력계획을 논의함.

- 협력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교사, 기관행정, 부모, 시설, 예산 등을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하며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는 협력 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동기를 부여함.
-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는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반성적 평가를 통해 추후 협력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1)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내용

-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협력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기관, 행정, 부모, 시설, 예산 등의 협력을 진행함.
- 교사, 부모, 유아의 협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실시함.
- 협력과정에서 지원체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내용

영역	협력내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활동계획안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이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 협력 - 교육·보육활동 계획안 공유 및 공동계획과 실행 - 공동 실외놀이 활동을 위한 놀이 계획 및 실행 - 소방대피훈련, 교통안전교육, 현장학습, 소풍 등 각종 행사 공동 진행 - 특성화 활동(체육활동, 과학활동) 공동 실시 등
기관 운영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서류 양식 공유, 원아관리 및 육아지원인력 관리 등에서 협력 - 원아관리, 회계, 식단표, 교사 및 부모교육 계획안 등 각종 서류 공유 - 교사일지, 유아들의 발달사항기록부 양식 등 통일하여 사용 - 가정안내문 공유 - 특별활동 강사진 공유 및 특별활동 진행 공동 실시 - 영양사 및 조리사, 차량운전기사 공동 활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는 교재교구의 공동구입, 차량의 공동 활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공동 교사교육, 부모교육 등 비용 절감을 도모 - 식자재 공동 구입, 교구나 교자재 공동 구입 - 차량 공동 활용으로 대여 비용 절감 - 특별활동 강사 공유 및 프로그램 공동 실시로 비용 절감 등



(표 1 계속)

영역	협력내용
시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이용 가능한 공간, 자료, 시설, 설비, 차량 등을 공동 활용 - 실내환경 설비 공용(교구교재 대여 및 공동 활용 등) - 실내환경 시설 공용(강당, 실내유희실, 도서실, 간호실, 식당, 조리실) - 실외환경 시설 및 설비 공용(놀이터, 자연체험장, 수영장 등) - 차량 공용(현장견학 시) - 환경정리판 등 공동 제작 및 활용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협력 가운데 가장 핵심적 기반 영역 • 교사연수, 자율장학, 교사회의 등을 통한 협력 - 공동 교사회의 및 연수실시 - 학기말·연말 교사평가 공동 실시(유보협력에 대한) - 유치원 자율장학을 어린이집과 함께 활용 - 공동 행사 진행 후 공동 평가회 실시
부모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부모교육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참관수업 등 공동 전개 - 학부모에게 공동으로 육아정보, 부모교육자료 제공 - 부모참관수업의 공동 계획 및 진행 - 부모교육 강연 등 각종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공동 실시 - 부모 support group 공동 형성 및 운영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매뉴얼 p. 16 [표 2-1]임.

2) 지원체계 협력 내용

□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지원체계의 협력 및 지원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지원체계의 협력 지원 가능 내용

역할	지원 내용
관리, 감독, 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학 및 조력의 공동 활용 - 지자체 유아교육·보육 정책위원회에 유·보 관련자 상호 참여 - 지원체계 및 협력기관의 정례적 협의회 개최
교사연수 기획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및 원장 연수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실행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실행
자료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수자료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 참여 및 활용 유도 -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재·교구 공동 구입 및 교환 - 교재·교구 제작 공동참여 및 상호 교환 독려, 활용성 제고의 장 마련 - 교재·교구 활용 수업의 상호 참관(연구수업식) 독려, 공동 자율장학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일한 재정 지원 제도 구축을 위한 협의 및 조정 - 연간 협력 예산 수립 시 상호협의
협력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관리 시설과 교육청 관리 시설의 공동 이용 허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학습장 등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매뉴얼 p. 17 [표 2-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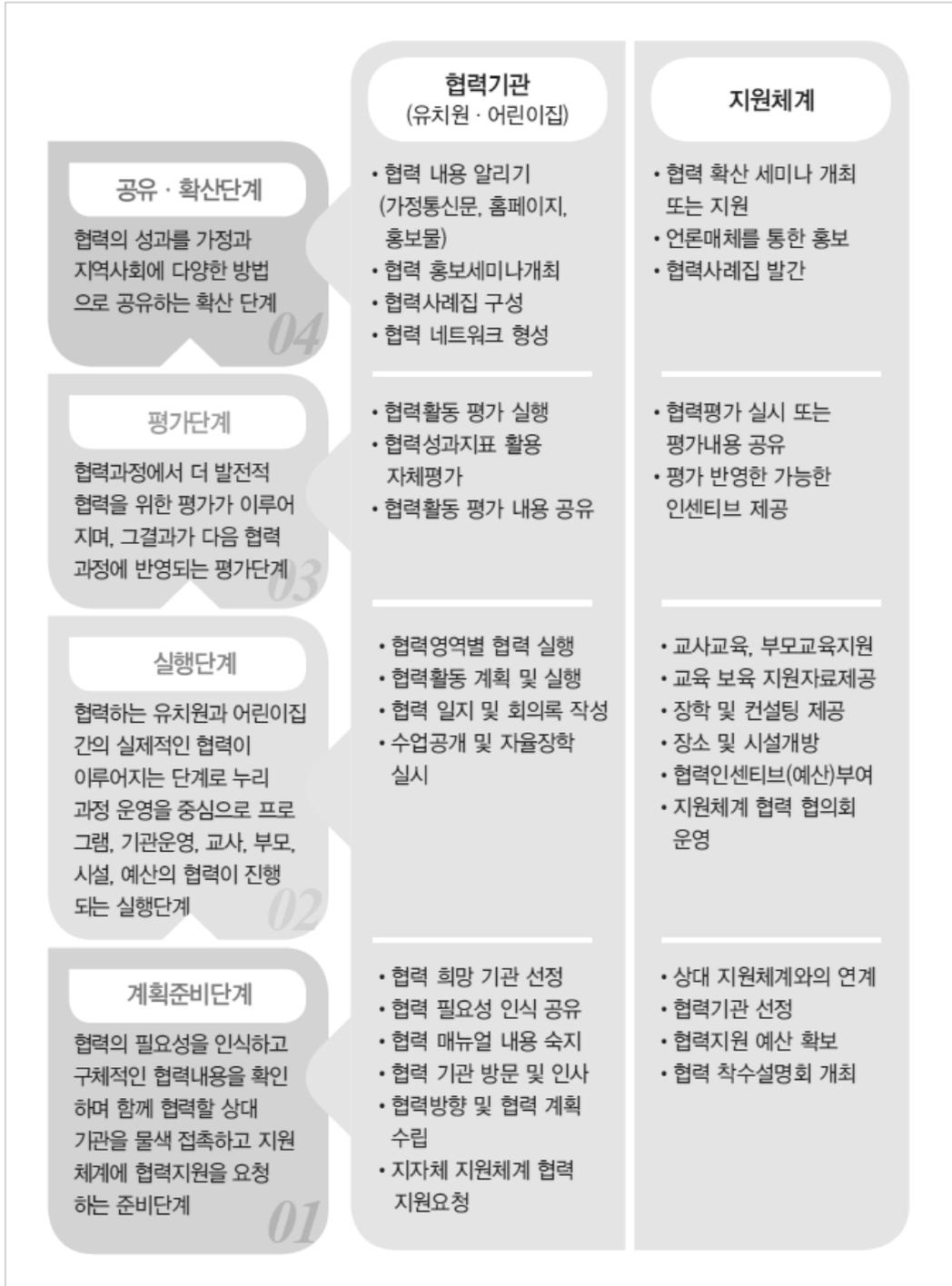
다.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추진내용 및 과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과정은 1)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확인하며 함께 협력할 상대기관을 모색 접촉하고 지원체계에 협력지원을 요청하는 계획 및 준비단계, 2) 협력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관운영, 교사, 부모, 시설, 예산의 협력이 진행되는 실행단계, 3) 협력과정에서 더 발전적 협력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다음 협력과정에 반영되는 평가단계, 4) 협력의 성과를 가정과 지역사회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확산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가 주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계획준비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공유·확산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수행해야 할 역할을 협력기관과 지원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4]와 같음.

라. 지자체 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사례: 대전광역시 ‘두리하나’ 사업

- 대전광역시는 영차프로젝트라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유보협력 시범연구를 보육지원체인 시청과 유아교육지원체인 교육청의 연계 속에 대전광역시의 유보협력 프로젝트인 ‘두리하나’³⁾로 명명하고 추진함.
- ‘두리하나’라는 명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관련 지원체계와 보육관련 지원체계가 ‘둘’이 아닌 ‘하나’되어 협력한다는 의미를 지님.
- 대전광역시의 유보협력 사업인 ‘두리하나’ 사업에서는 다음의 특징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상생적 협력을 육아정책연구소가 아닌 지자체인 대전광역시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최초의 사례임.
 - 유아교육과 보육 전공 교수 등 지역전문가까지 포함하는 자문진을 두어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두 중심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로서의 시청,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대학의 유아교육과 보육 전문가로 교수진의 협력 도출함.

3)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가 되어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매뉴얼 p. 19. [그림 2-3]임.

[그림 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추진 내용 및 과정

-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로, 유보통합의 논의가 추진 중인 현재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지원체계인 시·도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기관 및 시설의 실질적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선도적인 접근이 가능함.

3.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성과

가.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강점

- 지원체로 '두리하나'를 구성하고 지자체 주도적 협력을 추진하였던 대전지역 지원체계와 다른 시범 참여 지역 지원체계의 지원과의 비교를 토대로 지원체 주도 협력의 강점을 구체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원체를 구성함으로써 유아교육과 보육 사이 차별 없이, 균형 있는 지원이 가능함.
 - 지원체의 구성은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체계 간의 협력을 의미하므로 그 지원이 지원체계간의 상호 협력 하에 균형 있게 추진되므로 참여기관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는 구분 없이 고른 지원이 제공되나, 이에 비해 다른 지역은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체계 중 일부만 참여가 이루어져 지원체계 간 지원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음.
 - 둘째, 지원체를 구성하여 계획적으로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협력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대전지원체계는 상호 논의를 통해 연간지원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어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협력을 할 수 있었고, 큰 예산의 소요 없이 활용 가능한 지원범위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음.
 - 셋째, 지원체는 유아교육과 보육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내 전문가를 포함하여 영유아 교사, 부모를 위한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인적 자원으로서의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공감대의 형성이 가능하고 그 공감대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협력지원 확대 및 확산의 방향 모색이 가능할 것임.
 - 넷째, 지원체의 구성을 통한 협력지원은 지속가능한 확산을 가능하게 함.



- 협력의 성과가 지자체 안에서 공유되고 확산됨에 따라 지자체로부터의 협력적으로 예산에 대한 확보도 가능해 질 수 있어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지자체 주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성과 분석

- 2014년 협력을 통해 지자체 주도적 협력의 성과를 협력 참여 주체별로 고찰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함.
 - 시범참여기관의 교원과 부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집중협력지역인 대전광역시 응답자와 그 외 지역(비대전지역) 응답자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함.
 - 협력참여자의 협력과정의 어려움이나 성과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대전지역의 20개 시범협력 참여기관을 연구진이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녹취하고 전사하여 분석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의 강점과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착 및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대전광역시의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사업인 ‘두리하나’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함.

1) 대전지역과 비대전지역 협력성과 비교

- 대전지역은 지원체제로 구성된 유보협력 지원단인 ‘두리하나’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1년의 협력 지원 방안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대전 지원체제는 기존 영차프로젝트에서 수행하던 지원체계 협력 지원 방안 외에 ‘두리하나’ 자체 설명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실시, 공개수업 및 오픈하우스를 실시하고, 지원체제가 공동 주관한 교원 연수 2회 실시, 학부모 요청에 따른 체험관 추가 방문 기회 제공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심도 있는 협력 지원이 이루어짐.
- 비대전지역의 지원체제는 기존 영차프로젝트에서 수행하던 지원체계 역할을 그대로 수행함.
 - 따라서 5차년도 시범연구에서와 같이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의 세미나 및 권역별 협의회 참석, 교차 교원연수 지원, 견학 및 체험관 개방, 장소 대관의 협력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지원체계 협력 지원 방법과 횟수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체제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매우 미비한 협력을 보인 지역도 있음.

- 두 집단의 시범기관이 응답한 협력성과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표 3>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체계 협력 지원강화에 따른 부분에서 차이를 보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의 유익에 대한 총 9개 문항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지원체계의 지원공유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문항으로 역시 지원체계와 관련한 부분임.
- 협력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6개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불균형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어서 어려웠다.’는 문항에는 비대전지역(3.07점)이 대전지역(2.80점)에 비해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대전지역(3.69점)에서 협력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되었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비대전지역(3.47점)보다 높았음.

<표 3> 대전지역과 비대전지역의 협력 결과 차이(교사 응답)

구분	단위: 점(점)		
	대전지역 (N=175)	비대전지역 (N=206)	t
	M(SD)	M(SD)	
협력 쌍 상황			
1) 우리 쌍은 서로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다.	3.90(0.79)	3.62(0.99)	-3.00**
2) 우리 쌍은 공유하기 위한 인적자원(교사, 부모)이 충분하다.	3.69(0.80)	3.50(0.75)	-2.38*
협력의 유익			
1) 시청, 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원체계의 지원공유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3.56(0.75)	3.28(0.84)	-3.40***
협력과정의 어려움			
1) 불균형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어서 어려웠다.	2.80(0.89)	3.07(0.99)	2.74**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되었다.	3.69(0.89)	3.47(1.00)	-2.28*

* $p < .05$, ** $p < .01$, *** $p < .001$

- 다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은 지원체계 요인, 지원체계 지원활동 정도와 도움 정도 등 지자체 유보협력 지원체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원체계 관련 세 문항 모두에서 대전지역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함.
- 대전지역의 시범 참여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이 협력과정에서 지원체계의 지원이 활발하였고, 지원체계간의 교류가 원활하였으며, 지원이 협력을 촉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



각하는 경향을 보임.

- 지원체계 지원활동의 내용별 활성화정도와 실제로의 도움 정도를 묻는 7개 문항 중 6개 문항, ‘교육기회의 제공’, ‘시범기관 지원’, ‘누리과정 컨설팅 제공’,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소개방’, ‘수업의 공개’, ‘협력을 위한 자문’이라는 측면에서 대전지역이 모두 높게 평가함.

〈표 4〉 대전지역과 비대전지역의 지원체계지원 중심의 협력 결과 차이(교사 응답)

단위: 점(점)

구분	대전지역 (N=175)	비대전지역 (N=206)	t
	M(SD)	M(SD)	
지원체계 요인			
1) 협력과정에 지원체계의 지원이 활발하였다.	3.40(0.73)	3.08(0.85)	-3.96***
2) 지원체계 간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3.40(0.73)	3.09(0.93)	-3.67***
3) 협력과정에 지원체계의 지원은 협력을 촉진하기에 충분하다.	3.38(0.80)	3.07(0.91)	-3.51***
지원체계 지원활동 정도			
1) 교육기회제공(부모교육, 교사교육 등)	3.55(0.78)	3.27(0.97)	-3.17**
2) 시범기관 지원(예산/ 선도유치원 등)	3.40(0.79)	3.14(0.94)	-2.88**
3) 누리과정 컨설팅 제공	3.69(0.81)	3.19(0.91)	-5.73***
4)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개방	3.68(0.84)	3.13(0.94)	-6.02***
5) 수업공개(연구수업)	3.69(0.83)	3.13(0.94)	-6.12***
6) 협력을 위한 자문	3.56(0.78)	3.23(0.92)	-3.78***
지원체계 지원활동 도움정도			
1) 교육기회제공(부모교육, 교사교육 등)	3.55(0.82)	3.33(0.92)	-2.49*
2) 시범기관 지원(예산/ 선도유치원 등)	3.47(0.77)	3.19(0.90)	-3.27***
3) 누리과정 컨설팅 제공	3.67(0.84)	3.24(0.90)	-4.83***
4)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개방	3.71(0.85)	3.18(0.96)	-5.70***
5) 수업공개(연구수업)	3.65(0.85)	3.18(0.89)	-5.17***
6) 협력을 위한 자문	3.55(0.81)	3.19(0.89)	-4.15***

* $p < .05$, ** $p < .01$, *** $p < .001$

2) 대전지역 기관방문 심층면담을 통한 협력성과 분석

□ 교사 입장에서 영차 협력의 성과

- 협력의 필요성 인식: 교사의 입장에서 영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장점으로

는 가장 먼저 상호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다는 점

- 교사 전문성 향상: 영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은 협력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은 자신의 교사로서 전문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보 공유를 통한 자원 활용: 영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각자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협력을 풍성하게 해 나가고 동시에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음.

□ 유아의 입장에서 본 영차 협력의 성과

- 유아의 교육·보육경험의 확대 기회: 영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행복임을 고려할 때, 영차 프로젝트의 협력활동을 통해 교사들과 원장, 그리고 부모들은 좋은 양질의 교육·보육경험을 아이들이 서로 공유하게 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협력활동 결과 그 기대는 충족된 것으로 나타남.
- 유아의 사회성과 인성발달에 기여: 영차 협력활동을 통해 유아들은 다른 기관의 친구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사회관계의 폭이 확장되는 경험을 함.

□ 기관 수준에서 영차 협력의 성과

- 유치원과 어린이집 상호 보완을 통한 협력: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자의 특색을 상호 교류하며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를 가짐.
-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을 통한 유익: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차 협력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익을 확인하고, 영차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영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기관의 위상 제고: 영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위상 역시 강화됨.

3) 대전지역 지원체계 의견수렴을 통한 협력성과 분석

□ 지원체계 간 협력 평가 중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점

- 지원체계 간 균형적인 역할분담: 먼저 양 지원체계는 교육청과 시청을 행정지원 기관



으로,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지원 기관으로 명명하고 각자의 지원 역할에 책임을 부여하고, 또한 연간 지원 방안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양 운영지원기관의 시기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 하반기 사업 실행의 책임을 분담함.

- 지자체 중심의 시범기관 선정: 대전지역의 시범기관 선정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3년째 시범연구에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지자체 담당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상태로, 협력 시범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기관을 선정함.
- 지원체계 자체협의회: 대전광역시 지원체계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청, 교육청, 교육지원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및 관내 대학의 유아교육과와 아동학과 교수 자문진이 함께 하는 지원체계 자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협력 지원이 실행됨.
- 공문서를 통한 업무의 체계성 확보: 양 기관은 ‘두리하나’에 참여하는 구성원 뿐 아니라 소속 부서와 기관에 ‘두리하나’ 사업을 기관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도록 하였고, 주변 직원들과 사업의 중요성과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공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함.

□ 시행착오로 여겨지는 점

- 기존 방식의 상이함에 대한 사전 논의 부족: 대전광역시 지원체계는 기존에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각기 유사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공동으로 협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함.
- 시범기관 선정에 있어서 간과한 점: 시범기관 선정 시, 시범기관의 시설 규모, 학급, 연령, 지리적 근접성, 관리자 간 유대감 및 참여 의지 등은 협력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남을 고려하여, 함께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협력 이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쌍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방법으로 평가함.

□ 개선해야 할 점

- 사전 요구도 조사 실시의 필요: 대전광역시 지원체계는 지자체 중심의 협력에 대해 기대하는 바,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부분,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협력기관들의 의견을 사전에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지자체 중심의 유보협력 지원 범위 확대: 대전광역시 지원체계는 앞으로는 지원체계 수준의 체험관 뿐 아니라 상담실, 문화 공연 관람,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 관리 시설을 모색하여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지원체계의 지원 수준의 격차 해소: 지자체 중심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시청,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른 협력 의사와 참여가 중요하나 협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기존 업무가 과중되고, 상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체계 지원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음.

4. 유보통합과 유보협력

-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유보통합 추진 논의가 다시 활발하였고,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을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국무조정실은 내년부터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현 정부 임기 내 완성하며,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2016년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함(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12.3)⁴⁾.
- 추진단이 제시한 유보통합 추진 이유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정책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며⁵⁾ 정부의 유보통합안에서 중요한 것은 관할부처나 기관 유형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보다, 지역과 기관에 관계없이 교육이나 보육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유보통합은 이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임.
-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행정부처의 통합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면, 그에 비해 유보협력은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상호 이해의 확대를 통한 자발적이고 상생적 협력을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하나됨’을 의미함.

4) 국무조정실(http://www.pmo.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ticle_no=44441) 2014. 6. 20. 인출.

5) 2014. 2. 14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2141736433370000453&categorycode=0024#z>). 2014. 6. 17. 인출.



가. 유보통합에 대한 유보협력의 함의

- 유보통합과 유보협력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통합추진안이 다음의 측면에서 본 연구가 추진해 온 협력연구의 기본방향⁶⁾과 그 맥을 같이함.
 - 첫째, 본 연구는 ‘유보협력의 대전제를 영유아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으로 표명하고 이 총체적 협력과정의 성과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그 궁극적인 혜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와 그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이 공통점임.
 - 둘째, 본 연구는 이원화된 현 행정체계 안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협력함을 전략으로 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서로의 강점을 살린 협력을 실행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체계로서의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지원기관들은 가능한 지원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지원체계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데, 향후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체계간의 업무의 조정을 통해 예산의 절감과 현장 지원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지닌 차이에 주목하고 서로 강점을 살린 상생적 협력을 통해, 존재할 수 있는 기관 간 질적 차이를 ‘영(0)’으로 하자는 영차프로젝트의 의미 자체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을 도모하는 유보통합이 추구하는 목적이기도 함.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협력의 성과와 어려움, 그 해결 노력을 포함하는 연구결과들이 유보통합 추진과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이해를 증진하는데 실질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나. 유보통합 후의 유보협력

- 유보협력이 반드시 이원화된 현재의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님.
 - 현재 통합안은 기관의 통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하나의 통합 유보기관이기보다는 부모의 선택권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유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할 수 있는 필요성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여겨짐.
- 현재 추진단에서 제시한 계획대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유보협력과 관련하여

6) 권미경·이진화·김정민(2014).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VI) p. 26 [그림 II-1-2]

다음의 변화를 예상함.

- 첫째, 가장 먼저 유보협력에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협력과정의 어려움이 감소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예상함.
 -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의 운용만으로도 유보협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듯이 통합이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왜 협력을 하나에 대한 의문보다는 협력하면 좋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형성될 것임.
 - 유보통합이 주는 ‘하나됨’의 유대감이 협력과정에 있을 수 있는 참여자 간 갈등을 완화시킬 것임.
-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과정에 영향력이 큰 지원체계의 통합이 이루어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전달체계가 하나로 일원화될 것임.
 - 이는 현재의 지원체계 간 격차를 보이는 컨설팅, 장학, 교수지원, 체험기회, 교사와 부모교육 기회 등의 지원내용의 편차를 줄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통합된 지원체계의 역할과 업무분담의 명료화를 통해 지원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함이 선결 조건로 통합 이후에는 행정적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유치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적 재편 방안의 논의도 필요함.
- 셋째, 지자체 지원체 중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영유아의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관간의 협력이 교사, 부모,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처럼 협력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영유아의 부모의 양육환경 증진에 기여함.
 - 초기에는 통합 과정에서의 진통이 따르겠지만, 통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경계 없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정전달체계,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지원조직, 학계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협력지원체를 지자체 단위로 구성할 것을 제언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미경·이윤진·조아라(2013).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모델 적용 시범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이진화·김정민(2014).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VI).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권미경·오유정·황지영(2012).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적용과정 및 성과분석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김은설·김진경·황해익·문혁준·김문정·양시내(2009).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 및 통합 체제 시범적용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이정원·황해익·문혁준·김문정(2010).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영차」 시범적용의 과정 및 성과분석(II). 육아정책연구소.
- 문무경·황해익·문혁준·김문정·김혜진(2011).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모델 「영차」 시범연구의 성과분석(III).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협력매뉴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2013. 12. 3). 「유보통합, 학부모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내 완성」
- 베이비뉴스(2014. 2. 14). 「국무총리 소속 ‘유보통합 추진단’ 공식 출범」
- 연합뉴스(2014. 2. 14).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서비스 개선이 필요」

부록

〈부표 1〉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모델 적용 연구 추진경과 및 성과

구분	1차년도(2009년)	2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1년)	4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3년)	6차년도(2014년)
전개단계	기반조성기	발전기	내실화기	확산기Ⅰ	확산기Ⅱ	정착기
배경환경 변화	3개년 현장 연구로 기획착수	-	6개년 연구로 연장됨	5세 누리과정 시행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	유보통합 추진 구체화
	유보통합을 위한 일원화 연구결과를 반영한 현장적용 가능성 타진	1차 년도에 개발한 협력모델의 현장 적용 시도	성공요인과 저해요인 분석하여 향후 시범확대 모색	연구기간이 확장됨에 따라 시범기관 확산에 주력	공통과정으로 확대 시행되는 누리과정을 협력의 구심점으로 협력	연구 종료 후 현장에서의 협력 지속화를 위한 방향 모색
추진 주안점	- 유보협력 실행 모델 개발 - '영차프로젝트'로 명명하고 현장 활성화	- 개발된 실행모형을 현장 상황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킴 - 소집단협력형 시범 실시 - 유보협력매뉴얼개발	- 유보협력 컨설팅 패키지 개발 - 지속적인 현장 적용	- 유보협력 활성화 전략을 구상 - 5세 누리과정 운영 위한 프로그램 중심 협력방안 모색	- 기존모형을 발전시켜 「3-5세 연령별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협력 모델 정교화 하고 협력 추진 - 시범 참여지역을 전국 16개 시도로 확산	- 연구진 대신 협력을 추진할 지자체의 지원체계 중심 협력추진(대전광역시에서 추진) - 협력을 안내할 협력 매뉴얼의 개정
연구제목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및통합 시범적용 연구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영차」 시범적용의 과정 및 성과분석(Ⅱ)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영차」 시범연구의 성과분석(Ⅲ)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과정 및 성과분석 연구(Ⅳ) - 시범지역 확산에 따른 영차프로젝트 활성화 방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Ⅴ)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협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모델 적용 시범연구(Ⅵ) - 지자체 지원체계 주도적 협력

(부표 1 계속)

구분	1차년도(2009년)	2차년도(2010년)	3차년도(2011년)	4차년도(2012년)	5차년도(2013년)	6차년도(2014년)
연구목적	중간행정체계와 연계하여 현 제도권 내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협력을 추진하여 그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1차년도에 개발한 협력실행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분석 하고자 함.	현장에서의 유보협력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시범확대를 위한 계획, 실행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시범지역을 확대하여 유보협력을 추진하여 유보협력 성과 및 영향 요인들을 규명하여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체계의 협력모형을 제시하고 협력추진을 통해 상생적 협력정책방안 모색	유보협력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자체 지원체계 주도적인 협력을 활성화하여 시범사업의 종료 후에도 유보협력이 지자체 주도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지역	부산시, 부천시, 흥천군	부산시, 부천시, 흥천군	부산시, 부천시, 흥천군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청주, 홍천, 거창, 제천, 기장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경북, 경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참여 규모						
기관	14	22	22	44	57	49
교원	130	173	135	335	653	790
지원체계 협력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 상호정보교류 - 상호시범기관방문 - 지역운영협의회의운영	협력아이템 발굴 및 지원 - 영차공무원 워크숍 개최 - 교수자료 상호지원	공동 연수 기회제공 및 시설 확대 개방 - 공동 교사교육 실시 - 공동 부모교육 실시 - 체험시설 개방	공동 연수 기회제공 및 시설 확대 개방 - 예산지원(강원교육청, 대전보육정보센터) - 공동 부모교육 실시 - 공동 교사교육 실시 - 체험시설 개방	누리과정 적용으로 협력 - 권역별 협의회 운영 - 예산지원(대전교육청) - 누리과정 교육·보육 계획안 개발 지원 - 체험시설 개방	지원체계 주도적 협력 - 권역별 협의회 운영 - 지원체계가 기관 선정부터 컨설팅 지원, 확산 도모(대전시)
연구 결과물	- 보고서 - 영차홈페이지 구축	- 보고서 - 협력매뉴얼 발간	- 보고서 - 우수사례집 발간	- 보고서	- 보고서 - 2013영차프로젝트 협력사례집: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발간	- 보고서 - 협력매뉴얼 개정판 발간 - 지자체 유보협력 사업으로 발전(대전시 '두리하나', 경상남도 예정)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지원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김은설

1. 문제제기
2.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3.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4. 유치원·어린이집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요약

-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는 전국에서 표집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14년 8-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임.
- 유치원 교육비에서, 누리과정 학비지원 22만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공립유치원은 1만 1천원, 사립유치원은 17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16만 8천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유치원 특성화교육 또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비용은 최저 8.7천원에서 최고 21.7천원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수영이 21.7천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고 다음으로는 제2외국어, 발레 등의 순이었음.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에서는 영어가 20.9천원으로 가장 비용이 높고 다음은 미술, 음악 순임.
- 교사의 평균 월 급여는 공립유치원 336.4만원, 사립유치원 207.5만원, 국공립어린이집 214.4만원, 민간어린이집 159.8만원, 가정어린이집 142.5만원으로 조사됨.
- 유치원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는 사립-공립 간 부모부담 교육비 격차를 줄이고 방과후과정 비용의 지원 방식 개선을 들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사 지원 배치, 운영시간을 9~10 시간으로 조정, 특별활동 과목의 다양화, 교사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

1. 문제제기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라는 국가적 숙제의 본격적 전개를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은 어떤 점이 비슷한지에 대한 검토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현황 자료임.
- 최근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 성취를 목표로, 2014년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발족하여 실무 작업에 착수한 바 있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연구보고서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의 내용을 발췌한 것임.



- 현재 진행되는 유·보 통합 추진 계획에서는 시설의 다양성을 유지한 통합,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된 외형 구조는 유지하고 내용면에서 교육·보육과정, 교사 자격 및 처우, 비용 지원, 시설 평가 등 질적 수준의 균등함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영유아 자녀를 어느 기관에 보내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주요 과제로 부상함.
 - 정부의 통합추진 정책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임. 두 기관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청사진을 세밀하게 마련해가야 할 것임.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사업 진행 과정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태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둠.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 점검이 될 것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유·보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은 유·보에 국가 지원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
-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보육실태 조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어린이집과 보육 서비스 이용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는 2004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이래 10년 동안 운영에 대한 전국 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음. 그러므로 유·보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치원 운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신 실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함.
 - 보육실태조사가 진행된 지 2년이 지났고 유치원 실태 조사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시(同時)를 기준으로 두 기관의 운영 현실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시도는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근거가 될 것임.

2.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 유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통계를 통해,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보육통계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함.

가. 시설 수

- 2013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총 8,826개, 어린이집은 총 43,742개가 운영되고 있음(〈표 1〉 참조). 유치원은 그 중 국립이 3개, 단설과 병설로 구분되는 공립은 4,616개(52.3%)이며, 사립유치원은 4,207(47.7%)로 국·공립 비율이 높음.
- 어린이집은 전체 43,742개소 중 국공립은 5.3%(2,489개)에 불과하고, 민간과 가정이 각각 33.9%, 53.3%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인 3.2%, 법인·단체는 1.9%임.

〈표 1〉 설립유형별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국립	공립		사립			
			단설	병설	법인	개인	군부대	기타
유치원	8,826 (100.0)	3 (0.03)	228 (2.6)	4,388 (49.7)	493 (5.6)	3,655 (41.4)	18 (0.2)	41 (0.5)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43,742 (100.0)	2,489 (5.7)	1,420 (3.2)	852 (1.9)	14,822 (33.9)	23,318 (53.3)	692 (1.6)	149 (0.3)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2014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나. 재원 영·유아 수

1) 연령별 기관 이용아 수

- 영유아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음.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유아교육 및 보육 대상 연령의 영유아는 총 2,741,835명이며, 이들 중



54.8%인 1,488,435명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23.8%인 651,794명의 영유아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0-2세와 3-5세를 나누어 살펴 보면, 0-2세에 해당하는 영아는 전체의 66.1%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음. 0세는 전체의 33.0%, 2세는 84.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3-5세의 경우는 대부분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만(89.6%),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 연령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구분	인구수(A)	어린이집(B)	유치원(C)	계(B+C)	단위: 명, %		
					비율(B/A)	비율(C/A)	비율(B+C)/A
0세	419,833	138,563	-	138,563	33.0	-	-
1세	438,778	342,056	-	342,056	78.0	-	-
2세	488,030	409,954	-	409,954	84.0	-	-
0-2세 소계	1,346,641	890,573	-	890,573	66.1	-	-
3세	474,932	265,338	156,089	421,427	55.9	32.9	88.7
4세	472,731	177,014	228,129	405,143	37.4	48.2	85.7
5세	447,531	155,510	267,576	423,086	34.7	59.8	94.5
3-5세 소계	1,395,194	597,862	651,794	1,256,997	42.9	46.7	89.6
0-5세 전체	2,741,835	1,488,435	651,794	2,131,972	54.3	23.8	77.8

주: 1) 어린이집 자료는 6세 이상, 유치원 자료는 3세와 6세 이상 유아는 제외하였음.

2) 인구수와 어린이집 자료는 2014.12.31. 기준, 유치원 자료는 2014. 4. 1 기준임.

3) 서문희 외(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25 〈표 II-1-11〉 형식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2014 교육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 시설유형별 영유아 수

□ 전국적으로 654,821명의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중 78.4%에 해당하는 유아들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음.

○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국·공립유치원이 전체의 52.7%로 사립유치원(47.3%) 보다 수적으로 다소 많았지만,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형태로 학생 수가

매우 적고, 많은 경우 혼합연령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취원아 수는 국·공립과 사립 간 큰 차이를 보임.

〈표 3〉 설립유형에 따른 연령별 유치원 이용 유아 수

구분	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전체	651,794	147,946	503,848
3세	156,089	23,514	132,575
4세	228,129	48,096	180,033
5세	267,576	76,336	191,240

주: 3세 미만과 6세 이상은 제외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2014 교육통계연보.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음. 0-2세 영유아의 많은 수가 국공립어린이집 보다는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3세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 비율이 조금씩 높아짐.

〈표 4〉 설립유형에 따른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구분	계(A)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수(B)	비율(B/A)						
전체	1,496,671	159,241	10.6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0세	138,563	3,871	2.8	2,784	1,023	35,084	94,175	163	1,463
1세	342,056	21,053	6.2	14,922	6,081	137,708	154,388	618	7,286
2세	409,954	34,642	8.5	25,533	10,604	216,513	112,432	916	9,314
3세	265,338	36,354	13.7	24,270	11,588	180,139	3,072	814	9,101
4세	177,014	32,198	18.2	17,948	9,447	109,420	640	660	6,701
5세	155,510	29,640	18.1	17,060	8,667	93,817	476	576	5,274

주: 6세 이상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다. 교직원 수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인력 운영의 차이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 외에 원감, 수석, 보직교사 등의 직위제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로만 나



누어져 있다는 점임.

- 2013년 4월 기준,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 수는 총 48,530명임. 이 중 원장과 원감이 각각 4,379명, 1,489명, 수석, 보직 및 일반교사 등 교사가 이 39,993명이며, 그 외에 기간제교사 2,397명, 시간강사 88명이 종사하고 있음.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인력 운영의 큰 차이는 국·공립유치원은 정규 교사 외 기간제교사를 두는 비율이 전체 인력의 19.2%에 달하는 것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0.3%에 불과하다는 점임.

〈표 5〉 유치원 교원 수

단위: 명, (%)

구분	총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합계	48,530(100.0)	11,931(100.0)	36,599(100.0)
원장	4,379(9.0)	362(3.0)	4,017(11.2)
원감	1,489(3.0)	481(4.0)	1,008(2.8)
수석교사	42(0.1)	20(0.2)	22(0.1)
보직교사	1,909(3.9)	1,249(10.5)	660(1.8)
교사	38,042(78.4)	7,257(60.8)	30,785(84.1)
보건교사	2(0.0)	-	2(0.0)
영양교사	1(0.0)	-	1(0.0)
기간제교사	2,397(4.9)	2,295(19.2)	102(0.3)
시간강사	88(0.2)	81(0.7)	7(0.0)

- 주: 1) 휴직교원수는 전체수에 포함됨.
- 2) 시간강사수는 전체수에 포함되지 않음.
- 3) 교사에는 특수교사가 포함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2014 교육통계연보.

-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총 263,977명이며, 이중 원장이 43,532명, 보육교사가 212,332명임.
- 어린이집 내 직군별 보육교직원 비율은 설립유형별 간에 큰 차이가 없음(〈표 6〉 참조), 이는 어린이집 인력은 아동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배치기준이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별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임.

〈표 6〉 어린이집 교사 수

구분	총계	단위: 명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합계	263,977	23,716	14,879	6,716	117,511	92,927	7,515	713
원장	43,532	2,453	1,418	850	14,749	23,221	694	147
보육교사	218,589	20,481	12,693	5,783	102,548	69,701	6,818	565
특수교사	1,856	782	768	83	214	5	3	1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3.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 운영 실태 조사는 전국에서 표집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시 시점은 2014년 8월 중순 ~ 9월 말까지임.
- 조사 참여자는 유치원 원장 524명(공립 263명, 사립 261명)이고 어린이집 원장 631명(국공립 108명, 사회복지법인 89명, 법인단체 53명, 민간 159명, 가정 150명, 직장 72명)임. 조사는 온라인을 통한 웹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가. 운영 시간

- 유치원의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평균 시각은 오전 8시 45분인 것으로 나타남. 공립유치원은 평균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하고 사립유치원은 평균 8시 45분에 시작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교육과정 종료 시간은 평균 오후 2시 15분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2시 34분으로 가장 종료시각이 늦고, 읍면이 1시 57분으로 가장 이름. 설립유형별로는 사립이 2시 24분으로 공립 2시 06분보다 약 20분 늦게 마치고 있으나, 이들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음.



〈표 7〉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 및 종료 시간

구분	사례수 (개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평균	F/t	평균	F/t
전체	523	8시 45분		2시 15분	
지역 규모					
대도시	137	8시 46분	4.5*	2시 06분	1.1
중소도시	227	8시 41분		2시 34분	
읍면	159	8시 46분		1시 57분	
설립 유형					
국공립	262	8시 40분	7.5**	2시 06분	0.7
사립	261	8시 45분		2시 24분	

* $p < .05$, ** $p < .01$

□ 어린이집에서 평균적으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은 7시 42분임. 대도시지역은 7시 40분이고 읍면은 7시 45분이어서 5분 정도 차이를 보임.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에서 일과 시작 시각이 가장 빠르고 종료 시간은 직장이 오후 7시 42분, 가정어린이집이 8시 27분으로 가장 늦음.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종료시간보다 거의 1시간 정도 더 운영하고 있음.

〈표 8〉 어린이집 일과 시작 및 종료 시간

구분	사례수 (개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전체	631	7시 42분	19시 29분
지역 규모			
대도시	228	7시 40분	19시 13분
중소도시	200	7시 43분	20시 06분
읍면	203	7시 45분	19시 00분
설립 유형			
국공립	108	7시 35분	19시 16분
사회복지법인	89	7시 44분	19시 00분
법인·단체	53	7시 42분	19시 07분
민간	15	7시 47분	19시 02분
직장	72	7시 37분	19시 42분
가정	150	7시 45분	20시 27분

나. 방학 일 수

- 유치원의 연간 방학일 수는 평균 50일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동계 및 하계가 각각 20여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연간 휴일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수를 계산해보면, $365-50(\text{방학})-52 \times 2(\text{주말})-20(\text{공휴일})=\text{약 } 190\text{일}$ 정도임. 도시 지역에 비해 읍면 지역의 방학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사립보다 공립유치원의 방학일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방과후과정 방학은 평균 20여일이었으며 이 경우도 농어촌과 공립유치원에서 방학일 수가 현저히 많았음.
 -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방학이 없으므로 별도로 조사하지 않음.

〈표 9〉 유치원 연간 방학 일수

구분	교육 과정 방학				방과후과정 방학	사례수
	동계	하계	춘계 등	전체		
전체	21.0	19.6	9.0	49.6	20.2	524
지역 규모						
대도시	20.2	20.5	8.7	49.4	12.5	138
중소도시	19.4	18.2	8.5	46.1	19.2	227
읍면	24.1	20.9	10.1	55.1	28.1	159
설립 유형						
국공립	29.8	26.6	11.8	68.2	27.8	263
사립	12.5	12.9	6.0	31.4	12.5	261
기관 규모						
소규모	27.9	25.0	11.6	64.5	30.1	159
중규모	21.3	19.7	9.0	50.0	19.1	191
대규모	14.5	14.7	6.5	35.7	12.4	174

- 어린이집은 연간 무휴 운영이 기본 원칙이지만 유치원은 연간 방학을 50일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의 업무량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일일 운영 시간을 보면,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시각과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은 약 1시간 이상차이가 있고, 일과 종료 시각은 어린이집이 5시간 이상 더 늦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자료



는 보여주고 있음.

다. 시간 연장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에 조기 프로그램인 ‘아침돌봄’이나 오후 프로그램인 ‘방과후 과정’, 그리고 방과후 이후 돌봄 프로그램인 ‘야간돌봄’ 등의 과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음. 즉, 아침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 기관 524개원 중 20%인 105개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 과정은 96.9%, 야간 돌봄은 14.5%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10>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 교육/돌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원				
구분	방과후 과정	아침 돌봄	야간 돌봄	사례수
전체	96.9	20.0	14.5	524
지역 규모				
대도시	95.7	15.9	7.2	138
중소도시	97.4	24.2	17.2	227
읍면	97.5	17.6	17.0	159
설립 유형				
공립	97.3	20.2	14.8	263
사립	96.6	19.9	14.2	261

- 평균적인 아침돌봄 시작 시각은 7시 37분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시작 시각인 8시 45분보다 1시간 8분가량 먼저 시작함.
 - 유치원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2시 15분을 방과후 과정 시작 시간으로 보면, 방과후 교육과정 종료 시각은 평균 5시 39분인 것으로 조사됨. 사립이 공립유치원보다 약 50분을 더 오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결과는 방과후과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업모 가정에 대한 육아 지원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함.
 - 야간돌봄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8시 29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도시 지역은 운영율은 낮으나 운영 시간은 평균보다 1시간 정도 길고 가장 늦게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

〈표 11〉 유치원 교육과정 외 돌봄 운영 시간

단위: 개월

구분	사례수	아침돌봄		방과후과정		야간돌봄	
		시작 시각	F/t	종료 시각	F/t	종료 시각	F/t
전체	105	7시 37분		17시 39분		20시 29분	
지역 규모							
대도시	22	7시 28분	1.5	18시 15분	23.9***	21시 21분	2.9
중소도시	55	7시 42분		17시 33분		20시 20분	
읍면	28	7시 31분		17시 15분		20시 42분	
설립 유형							
공립	53	7시 36분	0.2	17시 15분	46.0***	20시 12분	4.9*
사립	52	7시 37분		18시 03분		20시 48분	

*** $p < .001$

□ 631개 응답 어린이집 중 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28.1% 이고 휴일보육을 하는 곳은 5.2%인 33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연장보육의 경우 대도시 지역(31.6%)이 중소도시(29%)나 읍면지역(23.2%)보다 운영 비율이 높았고 휴일보육은 오히려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운영비율이 50%로 가장 높았음.

〈표 12〉 어린이집 연장보육 및 휴일보육 운영 비율

단위: %, 개소

구분	연장보육 운영	휴일보육 운영	응답수
전체	28.1	5.2	631
지역 규모			
대도시	31.6	3.9	228
중소도시	29.0	6.0	200
읍면	23.2	5.9	203
설립 유형			
국공립	50.0	3.7	108
사회복지법인	19.1	6.7	89
법인·단체	17.0	3.8	53
민간	23.9	3.1	159
직장	33.3	6.9	72
가정	23.3	7.3	150



-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할 경우 시작하는 시각은 오후 7시 29분이 되고 연장보육을 마치는 시각은 오후 9시 28분이 되어 약 두 시간의 연장보육이 평균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휴일보육의 경우는 일상적인 보육시간보다 50여분 늦게 시작하고 30분 정도 일찍 종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3〉 어린이집 연장 보육 및 휴일보육 시작/종료 시각

단위: 시, 분, 개소

구분	연장보육			휴일보육		
	시작시각	종료시각	사례수	시작시각	종료시각	사례수
전체	19:29	21:28	177	8:19	18:56	32
설립 유형						
국공립	19:16	21:38	54	8:08	18:30	4
사회복지법인	19:00	21:20	17	8:15	18:25	6
법인·단체	19:07	21:43	9	7:30	20:00	2
민간	19:02	21:23	38	7:53	20:54	5
직장	19:42	20:51	24	8:24	20:10	5
가정	20:27	21:28	35	8:47	17:21	10

라. 비용

- 누리과정 학비지원금 월 22만원(공립은 6만원)을 제외하고 부모가 1개월분 으로 납부하는 총 학비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 집단 전체의 평균 부모 부담 학비는 9만 5천원 정도로 나타남.
-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만 1천원을 부모가 부담하는 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17만 9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16만 8천원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공립유치원 내에서도 병설(1만 3천원)과 단설(6천원)간 2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립유치원 내에서는 법인(15만 9천원)이 개인(18만 4천원) 간 차이를 보임.

〈표 14〉 유치원 유아 1인당 교육과정 월 평균 부모부담 학비

단위: 천원, 개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전체	95.1	189.9	521
지역 규모			
대도시	107.2	94.4	136
중소도시	120.6	245.8	159
읍면	48.4	147.6	226
설립 유형			
공립	11.9	66.1	262
사립	179.2	232.7	259
공립			
병설	13.0	72.2	218
단설	6.8	13.4	44
사립			
법인	159.0	239.3	51
개인	184.1	231.4	208

□ 어린이집의 경우 0-2세는 무상보육, 3-5세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보육비 차액 즉, 연령별 보육단가-22만원을 부모부담으로 돌리고 있음.

마. 특성화프로그램 및 특별활동

□ 특성화프로그램은 92.7%의 유치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집은 98.7%가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은 사립보다는 공립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율이 높았는데, 사립유치원 중 종교법인 등 일부 유형에서 특성화를 채택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듯 함. (저자 주.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유치원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임).
- 어린이집은 유형과 관계없이 99%에 가깝게 대부분이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아비율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표 15〉 유치원 특성화 및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비율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실시함(%)	사례수	구분	실시함(%)	사례수
전체	92.7	524	전체	98.7	631
지역 규모			지역 규모		
대도시	85.5	138	대도시	99.1	228
중소도시	93.4	227	중소도시	98.5	200
읍면	98.1	159	읍면	98.5	203
설립 유형			설립 유형		
공립	98.1	263	국공립	99.1	108
사립	87.4	261	사회복지법인	98.9	89
			법인·단체	100.0	53
			민간	99.4	159
			직장	98.6	72
			가정	97.3	150

□ 특성화/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유치원은 체육의 운영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악, 영어, 미술 등의 순이었음. 어린이집은 영어, 체육, 음악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월등히 높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운영비율이 낮았음. 이에 비해 유치원은 비교적 골고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산출되었음.

○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어린이집의 79.9%가 특별활동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59.1%가 특성화로 운영하고 있음. 즉, 어린이집의 20%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유치원은 40%가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있음.

□ 프로그램별 교육 비용은 최저 8.7천원에서 최고 21.7천원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수영이 21.7천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고 다음으로는 제2외국어, 발레 등의 순이었음.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에서는 영어가 20.9천원으로 가장 비용이 높고 다음은 미술, 음악 순임.

○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비교했을 때 태권도와 발레,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의 비용이 유치원보다 더 높음. 특히 미술·조형, 음악, 교구 등의 보편적 프로그램에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비용이 높은 것으로 보임.

〈표 16〉 특성화 또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과목별 운영현황과 교육비

프로그램명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함(%)	1인당 월교육비(천원)	운영함(%)	1인당 월교육비(천원)
영어	59.1	19.3	79.9	20.9
제2외국어	2.9	20.7	1.6	11.4
미술, 조형	55.8	13.8	24.6	15.8
음악	61.3	12.8	65.4	15.2
교구 프로그램	15.6	12.5	13.8	13.9
체육	72.8	11.4	71.7	11.7
태권도	7.8	11.0	3.3	8.6
수영	1.2	21.7	0.0	-
발레	14.6	20.9	4.5	15.1
수학 관련	8.8	11.0	3.3	13.3
과학	39.7	11.9	8.3	13.3
기타	14.2	13.0	14.5	11.8

바. 교사의 근무 환경

1) 유치원 교사

□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유형을 보면 담임을 맡는 교사가 59.3%로, 나머지 40.7%는 담임을 맡지 않고 일반 담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설립유형별로 공립은 담임이 47%에 불과하고 사립은 66.5%가 담임을 맡아 차이를 보임. 이는 유치원의 근무 환경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지수가 됨.

- 방과후과정 담당 교사 19.4%, 비담임 정규직 교사 11.5%, 보조교사 8.7%, 특수교육 교사가 1.1%를 차지함.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전체 교사 중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13.4%이며, 공립은 23.2%, 사립은 7.6%로 큰 차이를 보임.

〈표 17〉 유치원 업무별 교사유형 및 근무형태

구분	업무별 교사 유형						근무형태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	보조 교사	방과후 교사	특수 교사	계(사례수)	$X^2(df)$	전일 제	시간 제	계(사례수)	$X^2(df)$
전체	59.3	11.5	8.7	19.4	1.1	100.0 (3890)		86.6	13.4	100.0 (3885)	

단위: %, (명)



(표 17 계속)

구분	업무별 교사 유형					근무형태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	보조 교사	방과후 교사	특수 교사	계(사례수)	$\chi^2(df)$	전일 제	시간 제	계(사례수)	$\chi^2(df)$
설립 유형											
공립	47.1	10.6	9.1	30.2	3.0	100.0 (1455)	284.7(4)	76.8	23.2	100.0 (1450)	195.2(2)
사립	66.5	12.1	8.4	13.0	0.0	100.0 (2435)		92.4	7.6	100.0 (2435)	

*** $p < .001$

□ 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보면 담임교사 기준 기본급은 전체 평균이 약 217.9만원으로 나타남. 그러나 공립유치원 교사가 사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110만원 이상이 많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 평균은 207.5만원이었음.

○ 경력 5년미만 교사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202.6만원이었음. 이 중 기본급은 157.7만원임. 그러나 이를 공·사립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차이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봄. 1표준편차 범위를 고려하여 보면, 하위 15%정도(아마도 사립유치원)의 5년 미만 교사 급여는 135만원 정도에 겨우 이를 것으로 추측됨.

〈표 18〉 유치원 담임교사 기본급과 수당

단위: 만원, 명

구분	기본급		수당		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전체	217.4	80.3	56.6	34.8	274.0	721
설립 유형						
공립	267.4	79.7	69.0	38.2	336.4	373
사립	164.4	33.0	43.1	24.2	207.5	348
교사 경력						
5년 미만	157.7	42.6	44.9	25.1	202.6	131
5-9년	177.2	39.6	47.0	24.3	224.2	232
10년 이상	265.8	81.8	67.0	40.0	332.8	358

※ 추가로 이루어진 표본 유치원 소속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2) 어린이집 보육교사

□ 어린이집 교사를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연령별 반을 담임으로 담당하는 교사가 전체

의 90.0%이고, 나머지 10%가 보조교사, 비담임 정규직, 연장반 교사, 장애아전담교사로 구성되어 유치원과 차이를 보임. 즉 어린이집의 대부분 교사는 반을 담당하고 담임을 보조하는 교사가 적음을 알 수 있음. 교사의 근무형태는 전일근무가 93.8%로 시간제 근무는 6.2%에 지나지 않음.

〈표 19〉 업무별 보육교사 유형 및 근무 형태

단위: %, (명)

구분	업무별 교사 유형					근무 형태				X ² (df)
	담임	비담임	보조 교사	연장반 교사	장애아 전담	계(사례수)	전일 제	시간 제	계(사례수)	
전체	90.0	3.2	5.2	0.9	0.7	100.0 (4203)	93.8	6.2	100.0 (4172)	
설립 유형										
국공립	84.9	3.1	8.2	1.8	2.0	100.0 (899)	90.9	9.1	100.0 (899)	
사회복지법인	91.7	2.1	4.8	0.5	0.8	100.0 (763)	94.9	5.1	100.0 (758)	
법인·단체	87.6	4.5	6.6	1.3	0.0	100.0 (378)	92.9	7.1	100.0 (368)	53.1(5) ***
민간	90.9	3.4	4.5	0.7	0.6	100.0 (1029)	93.8	6.2	100.0 (1022)	
직장	92.3	3.2	3.9	0.7	0.0	100.0 (597)	97.2	2.8	100.0 (597)	
가정	93.3	3.7	2.8	0.2	0.0	100.0 (537)	93.9	6.1	100.0 (528)	

** $p < .01$, *** $p < .001$

□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기본급은 평균 147.8만원, 수당은 33.4만원으로 조사됨.

- 설립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6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설립유형간 격차가 매우 큼. 수당은 법인·단체어린이집 교사 수당이 가장 높았고, 법인·단체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수당이 약 13만원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음.
-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5년 미만 경력 보육교사의 급여를 추정해 보면, 기본급이 127만원(표준편차 24.7만원)이고, 수당이 33.9만원(표준편차 23.8만원)이므로, 하위 15% 수준에 있을 교사의 경우 평균 113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짐작됨.



〈표 20〉 어린이집 담임교사 기본급과 수당

단위: 만원, 명

구분	기본급		수당		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전체	147.8	38.2	33.4	24.0	181.2	971
설립 유형						
국공립	180.1	27.0	34.3	35.6	214.4	151
사회복지법인	179.5	29.4	33.7	20.0	213.2	141
법인·단체	175.5	33.0	41.8	32.0	217.3	77
민간	127.0	24.5	32.8	21.3	159.8	253
직장	178.1	23.7	39.0	16.9	217.1	89
가정	113.8	14.2	28.7	15.8	142.5	260
교사 경력						
5년 미만	127.6	24.7	33.9	23.8	161.5	335
5-9년	150.7	34.6	33.4	26.3	184.1	391
10년 이상	171.1	44.3	32.9	20.2	32.9	240

※ 추가로 이루어진 표본 어린이집 소속 교사 대상 조사결과임.

4. 유치원·어린이집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가. 유치원

□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학부모 비용 부담 격차 점진적 해소

- 학부모 부담 교육비에 있어 공립은 1만 2천원, 사립은 17만 9천원이 평균인 것으로 조사됨. 동일한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유치원이지만 공립과 사립 간 16만 7천원이라는 큰 비용 차이가 있음.
-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립유치원의 공급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을 택해야 하는 부모의 경우라면 이 비용 지불은 불공정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음. 동일한 누리과정을 유사 공교육 체계 속에서 배우고 있는 유아가 공·사립 차이로 인해 15배 가까이 더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것은 모순이라 받아들일 수 있음.
- 사립유치원에는 유아 1인당 월 22만원의 누리과정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바, 평균 부모부담액을 합하면 보통 1인당 4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소요하고 있는 셈임.

- 현재는 국가의 공적 재정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이 국가지원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규제 또는 지원 필요

-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크게 늘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립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규제가 있거나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해마다 교육부가 공시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사립유치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준수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비 중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학비 안정화를 시도함.
-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법인화를 유도함. 법인 전환 유치원 설립자에 대해 교육 분야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표시를 함.
- 한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도입이 우선되어야 함. 재무회계규칙의 정착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재무상태가 담보되고 회계를 신뢰할 수 있을 때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공·사립 방과후과정 지원 방식의 개선

- 방과후과정 비용의 경우 공립은 6만원 사립은 7만원씩 모든 이용 유아에게 지원되고 있음.
- 방과후과정은 원칙적으로 선택적 수입자 부담 교육이므로 양부모 취업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방과후 보육이 필요한 유아가정을 급별 자격 기준을 두고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도록 함.

나. 어린이집

□ 연령별 영유아반 담당 담임 교사 업무 지원 인력 강화

- 조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부족임. 어린이집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인력, 오후 시간 전담 교사, 청소지원 인력 등 다양한 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노인 또는 중고령 인력 활용(유치원 방과후 자원봉사 하모니 식), 여성 시간제 일자리 등의 정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임.
- 유치원 교사 중 40%는 담임이 아닌 기타 지원업무를 맡은 교사, 즉 방과후과정교사, 특성화강사, 보조교사, 원감 등 비담임 교사인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에 비해 교사 지원 인력이 풍부함을 알 수 있음.
- 어린이집은 90%이상이 담임을 맡은 교사 인력이므로 교사에게 부과된 업무의 과중함, 학습 지원 인력의 부족 등을 자료에서 읽을 수 있음. 교사의 업무과중은 보육의 질, 안전의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집중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 현실적 상황과 보육의 질 제고, 인력의 적절한 활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 시간의 조정이 필요함.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9~10 시간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유치원의 조사 결과 20%정도가 조기 보육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적용한다면 모든 어린이집이 오전 7시부터 12시간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지원 인력부족으로 질을 담보못하는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은 교사의 피로감, 영유아의 피로감, 시설 재정운영의 어려움까지 가져올 수 있음. 운영시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보육의 질과 직접 연관이 있음.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서문희 외, 2012)에 의하면, 어린이집 평균 이용 시간은 7시간 34분임. 1표준편차를 감안하더라도 9시간 10분이 됨. 즉, 최대 9시간 운영하면 70% 가정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상황, 부모의 요구에 따라 7시 30분부터 10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고 8시부터 9시간 정도 운영할 수도 있게끔 기본을 9시간 내지 10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2시간은 이른 오전이든 늦은 오후든 상황에 따른 연장 운영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력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함.

□ 영어에 치우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가장 많은 것은 '영어'인 것으로 나타남.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

램과 비교했을 때 특히 과학, 발레, 미술 등의 활동 운영 비율은 어린이집이 떨어지는 반면에 영어는 더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허용 수에 대한 규제가 있어 나타난 현상일 수 있으나, 좀더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이 넓혀질 필요는 있어 보임.

- 반면 동일한 과목에 대한 비용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더 높게 나오는 점은 추후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교사 근무 환경 개선 노력 필요

-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평균 연간 50일 가량의 방학이 있고 급여도 어린이집 교사보다 높음.
- 보육이 일관적이어야 하고 동일한 교사에게 종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발달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8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
- 시간외 수당지급, 점심시간 보장,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근무하는 교사와의 원활한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구성, 이를 위한 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 급여 수준 또한 개선이 필요함. 조사의 결과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평균 월 급여가 142만 5천원에 불과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침. 이에 대한 시급한 감독과 개선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은설·이진화·김혜진·배지아(201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실태 비교 및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서문희 외(2013).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4). 2014 교육통계연보.

 육아정책연구소

2015 이슈페이퍼

발행일 | 2015년 8월

발행인 | 우남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